1994
2024
한마음국제의료재단 30년
The 30th Anniversary

나눔과 봉사로 퍼지는
선한 영향력의 물결

한마음국제의료재단
HANMAEUM INTERNATIONAL MEDICAL FOUNDATION

최고의 의술로

인류를 행복하게

한마음국제의료재단 30년

창원한마음병원
CHANGWON HANMAEUM HOSPITAL

경남을 대표하는 **중증질환 중심** 의료서비스

30개 진료센터 **35**개 진료과 / 지하 4층, 지상 10층 **1,008 병상** 규모

8대병원(뇌병원, 심장병원, 암병원, 중증외상병원, 여성병원, 척추관절병원, 간담도췌장병원, 소화기병원) 운영

-총 재직자 1,671명 / 총 의료진 113명(24년 9월 기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57번길 8

상남한마음병원
SANGNAM HANMAEUM HOSPITAL

창원을 대표하는 **지역 맞춤형** 의료서비스

9개 진료과 / 지하 4층, 지상 9층 **262병상** 규모

-총 재직자 163명 / 총 의료진 10명(24년 9월 기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682번길 21

시립마산요양병원

CHANGWON MUNICIPAL MASAN GERIATRIC HOSPITAL

치매 및 공공요양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최우수 의료서비스

5개 진료과 양·한방 협진 / 지하 1층, 지상 5층 52실 288병상 규모

-총 재직자 154명 / 총 의료진 8명(24년 9월 기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로15

GRAND MERCURE 앰배서더 CHANGWON

감각적인 디자인과 **라이프 스타일**을 접목시킨 호텔

지하 3층, 지상 19층 **321객실** 규모

연회장, 레스토랑, 체련장, 실내수영장, 남·여 사우나, Group Exercise Room,
60야드 자연 채광 실내 골프장 등 부대시설을 완비한 경남지역 최고급 호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332

“자랑스러운 한마음병원이 30주년을 맞이하여 한마음의료원으로 재도약했습니다”

1994년 3월, 한마음병원은 4병상 산부인과 의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현재, 사림동의 창원한마음병원과 상남동의 상남한마음병원을 운영하는 국내 굴지의 의료원으로 성장했습니다. 모든 임직원이 ‘의술로 국가에 보답한다’라는 인술보국(仁術報國)의 철학을 실현함과 동시에 항상 환자 중심의 진료와 질 높은 의료를 추구하면서도,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봉사하며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한마음의료원은 3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서 경남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KOREA TOP 20, 세계적 수준의 아시아 의료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단 한 번도 뜨겁지 않았던 순간이 없습니다. 2001년 경남 최초 처방전달시스템(OCS), 영상전달시스템(PACS) 구축 및 가동, 경남 종합병원 최초 의료기관 인증평가 1주기 인증 획득, 전국 최초 난소암 환자 출산 등은 물론 한양대학교의 교육수련병원으로서 진료, 교육, 연구분야의 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의료의 발전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 후로도 본원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 헝가리 의대생들이 임상 실습교육을 받고, 카자흐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국가에 한마음의 여러 선진 의료기술을 국제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과 같은 정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약을 통해 신의료기술을 공동 개발함으로써 더 안전하고 쾌적한 의료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존스홉킨스와 MD앤더슨 암센터를 포함한 전 세계 유수의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들과 함께 세미나와 시술 시연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마음의료원의 뛰어난 의료기술을 여러 차례 인정받았습니다.

병원이 성장함과 동시에 “한마음이 받은 사랑을 지역사회에 돌려드린다”라는 인류애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공헌사업, 장학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지자체 후원 등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길을 내미는 것은 단순한 나눔을 넘어 한마음의료원의 소명이고 운명입니다. 이렇게 지역의 거점의료기관이자 평생건강파트너로서 지역민들의 몸과 마음의 웰빙을 책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마음의료원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많은 분들의 손길과 정성으로 한마음의료원의 30년 역사서가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한마음 가족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헌신이 모여 만들어진 우리의 역사는 과거를 추억하게 하며 미래를 꿈꾸게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 여정을 준비하고 새로운 도전을 힘차게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이 모든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단연 한마음의료원과 함께하는 파트너이자 가족과도 같은 임직원분들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30년사 제작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우리 한마음의료원이 지역거점의료기관이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한마음의료원이 열어갈 발전적인 미래에 늘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의료원장

하 창 훈

한마음국제의료재단
30년사 발간을 축하하며

"개원 30주년을 맞이한 창원한마음병원은 설립자 하충식 의장님과 최경화 이사장님의
환자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회 봉사 활동에 기반한 열정과 도전의 산물입니다"

현재 창원한마음병원의 위상은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으며, 이는 환자분들의 우리 병원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의미합니다. 그에 따라 병원 직원들의 자긍심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일부 진료분야에서는 실질적으로 상급병원의 역할을 담당할 정도로 경쟁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세월 동안 병원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의료진 및 직원분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우리 병원은 머지않은 미래에 지역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넘어 부·울·경을 대표하는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매달 한 번 거행하는 아침 조례에서 직원들이 엄숙히 선서하는 우리의 약속, "최고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라는 말은 결코 꿈이 아니며,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개원 30주년의 시대적 의의는 첫째, 의료원 체제의 출범(창원한마음병원과 상남한마음병원)과 둘째, 하창훈 의료원장님의 취임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았을 때, 창원한마음병원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개원기 - 확장기 - 발전기 - 도약기'로 성장해 왔으며, 이제 우리는 발전기에서 도약기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늘 이 한 권의 '한마음국제의료재단 30년사'는 지난 세월 병원 발전을 위해 많은 땀과 노력을 기울인 의료진과 직원들의 발자취이자, 병원의 미래를 제시하는 청사진이 될 것입니다. 지난 30년간의 발전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병원 설립 목적을 되새기고, 역사적 정체성을 공고히 확립하는 것도 30년사 편찬의 중요한 목적이 될 것입니다.

창원한마음병원의 지난 역사를 제대로 짚어보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걸음의 일환으로, 이번 30년사 발간을 주도하신 하창훈 의료원장님과 김영훈 경영원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12월
창원한마음병원장
김 명 환

경남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아시아 의료허브를 지향하며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초창기 4병상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시작하여 오늘날
한마음국제의료재단이 있기까지 함께한 모든 분들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 또한 짧은 기간이지만, 병원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더없는 영광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OVID-19 초창기에는 전국 최초로 코호트 격리라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2021년에는 사림동 현 위치에 본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코로나 극복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병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우리 한마음인들이 '행복, 봉사, 사랑, 노력, 혁신'이라는 핵심 가치를 가슴에 새기고 서로를 배려하며 존중하는 병원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외적으로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서 필수 진료에 해당하는 응급실 및 중환자실 운영은 물론 뇌 및 심장질환 치료, 간·담도·췌장질환에 대한 전문 치료 및 간이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 한마음병원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이제 경남지역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환자들이 찾아오는 병원이 되었습니다. 내적으로는 환자 진료군의 중증도를 높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특히 간·담도·췌장 분야와 폐암 치료 등 암 치료에 특화된 암병원을 건립하고, 우리 병원의 숙원인 의과대학 유치를 통해 전문의가 와서 배우고 싶어 하고 일하고 싶은 병원, 전공의 수련 및 학생 교육을 위한 병원, 그리고 직원들이 근무하고 싶어 하는 병원을 지향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고 똘똘 뭉쳐 새로운 30년을 기약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병원의 개원 30주년을 경축하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각오를 다져보도록 합시다.

2024년 12월
상남한마음병원장
박 인 성

CONTENTS

목차 16
설립자 18
병원 이념 42

—

PART.1 한마음 30년의 기록

(1994~2000) 한마음의 첫걸음, 원대한 미래를 꿈꾸다 52
(2001~2010) 확장의 시기, 상남동 시대를 열다 64
(2011~2020) 거대한 시련 속 한마음으로 꽃피우다 106
(2021~현 재) 끝없는 도전, 대규모 의료재단으로 도약하다 178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지속 추진 계획 250
한마음을 빛낸 상패들 256

—

PART.2 한마음 30년의 공헌

장학사업 286
마음으로 보는 세상 292
꿈나무체육대회 296
희망이 자라는 문화체험 302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 306
동네청소 310
해외후원 및 의술전파 316
한마음병원배 생활체육대회 322
주부대학 328
새벽을 여는 사람들 334
사랑나눔 효잔치 338
군부대 지원 342

PART.3 한마음 30년의 동행

창원한마음병원

진료부 350
직속부 386
간호부 390
진료지원부 394
행정부 399
시설관리팀/교육수련팀/약제팀/진료협력센터/법인사무국 403
제위원회 406

상남한마음병원

진료부 410
진료지원부 418
약제팀/간호팀/행정팀/시설안전팀/국가검진파트 420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424
시립마산요양병원 426
파인인베스트먼트 축하메시지 428
조은사람들 축하메시지 430

—

장기근속자 수기 432
자료로 보는 한마음 30년 470
에필로그 530
명예의 전당 578

일러두기
- 기관 및 진료과 명칭은 각 시기에 해당하는 명칭으로 표기
- 한마음국제의료재단의 설립자인 하충식 의장·최경화 이사장의 호칭은 '설립자'로 표기
- 전·현직 의료진 및 임직원 호칭은 각 시기에 해당하는 호칭으로 표기
- 2021년 이전 창원한마음병원 명칭은 '한마음병원'으로 표기
- 한마음국제의료재단의 활동은 '창원한마음병원'으로 표기
- 법인 명칭 표기는 '한마음국제의료재단'으로 통일
- 기사 인용 및 수기는 기관의 공식입장과 일부 다를 수 있음.

한마음국제의료재단

하충식 설립자

최경화 설립자

3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4병상 의원으로 시작한 지역 개업의가 어떻게 국내 굴지의 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었을까? 많은 이들은 이를 신화라고 칭한다. 한국 병원 역사 속에서 설립자 당대에 이처럼 빠르고 눈부신 성과를 이룬 사례는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한마음병원의 성장은 단순히 규모의 확대에 그치지 않았다. 병원이 지역 최대 호텔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은 국내에서 유일무이한 사례로, 의료와 서비스 산업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하충식·최경화 설립자의 리더십 아래, 병원은 탁월한 의료서비스를 넘어 환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왔다. 방대한 사회공헌은 어떠한 재단의 지원 없이 30년간 이루어졌으며, 놀라운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두 설립자의 흔적을 따라가 본다.

한마음국제의료재단

하 충 식

설립자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들어
도민들에게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 경상남도 함양군 출생(1960~)

- 1985년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산부인과학 전공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원 의학석·박사

이력

1985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95 한마음병원 개원, 초대 병원장 취임

2004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원 의학석사 취득

2006 의료법인 한마음국제의료재단(창원한마음병원) 이사장 취임

2007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원 의학박사 취득

2015 조선대학교 명예경제학박사 취득

2019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총동문회장 취임

대한산부인과학회 부이사장 취임

2021 한양대학교 명예경영학박사 취득

2024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의장 취임

세계부부의날위원회 총재 취임

사회활동 및 수상경력

1996 어린이재단(전. 한국복지재단)경남지부후원회 부회장 취임

2002 한마음나눔회 국무총리 표창(불우이웃돕기분야)

2004 창원시 문화상 수상(지역사회발전분야)

2008 한국국제대학교 학교법인 강인학원 이사장 취임(현. 명예이사장)

2009 '자랑스러운 조선의대인상'(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수상

2010 '자랑스러운 함양중학교 동문인상'(함양중학교) 수상

2011 제1회 국민추천 국민포장 수훈

아시아·오세아니아 산부인과연맹(AOFOG) 국제학술상 수상

2013 함양군민상 수상

2015 '자랑스러운 조대인상'(조선대학교) 수상

2017 2017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CEO 대상 수상

2018 2018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대상 수상

2019 제97회 어린이날 기념 국민추천 국민훈장 수훈

2022 조선일보 '2022 최고 경영대상' 수상(사회공헌경영부문)

2023 '제19회 자랑스러운 진고인상'(진주고등학교) 수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하충식홀 개관

대한민국 병원 역사에 한 획을 긋다

하충식(河忠植·64)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설립자(현. 의장)는 '의료계의 손정의(孫正義)'라고 불릴 만큼 대한민국 의료계에서 신화를 창조한 인물이다. 그는 대한민국 병원 역사에서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소형 병원을 대형 종합병원으로 성장시킨 '의사'이자 '경영자'다. 하충식 설립자는 경상남도 함양에서 양조장집 아들로 태어났다. 고1 때 "니 뭐 될래" 물으면 막연히 대관령에서 젖소 키우는 게 낭만적으로 보여 "농대 가겠다"라고 선뜻 대답했다고 한다. 그때마다 하충식 설립자의 형은 "야 이놈아! 흙 한 삽 뜰 때하고 두 삽 뜰 때가 엄청 다르다.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라며 불호령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던 중 약국을 경영하시는 작은아버지를 보고 영향을 받아 진주고등학교(49회)를 거쳐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후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다. 그리고 부산의대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였다. 진료를 보면서도 지역에 훌륭한 대형병원을 세우고 싶다는 꿈을 꾸며 도전해 나갔다.

중학교 시절 친구와 함께 하충식 설립자(우)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설립자는 지금의 한마음의료원이 있기까지 성공 비결에 대해 뜻밖에 "운이 좋았다, 열심히만 해서는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열심히 하는 것은 성공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님을 살아보니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성공하려면 노력이라는 필요조건에 운(運)이라는 충분조건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력해서 안되는 게 어디 있느냐는 말을 가장 건방진 소리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겸손하게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다. 첫 번째로 가장 큰 운은 소아청소년과 의사인 아내(현. 최경화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이사장,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대표이사)를 만나 함께 진료하며 병원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였다. 두 번째 운은 창원고려병원을 사글세로 인수해 초기 개원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던 것, 창원고려병원을 인수했을 때 병원 옆에 대형병원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IMF 사태로 건축이 중단되는 바람에 7년간 온전하게 병원을 경영할 수 있었던 것을 세 번째 운이라고 하였다. 네 번째 운은 현재 창원의 중심지인 KTX 창원중앙역 앞에 자리한 창원한마음병원 부지를 구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좋은 의료진과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같이 함께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고 생각한다. 직원들 대부분이 창업멤버이고 20년 이상 거래하는 업체가 서른 군데가 넘는다"라고 답하였다.

2005년 4월 19일 최경화 설립자와 하충식 설립자

"일류대를 나오지 않았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의료계의 학벌 카르텔은 생각한 것보다 심하였다. 졸업하고 보니 서울대, 연세대 출신들이 그들만의 상위 리그를 형성하였고, 좋은 대학 못 들어갔다고 평생 주홍글씨를 새기고 사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하였다. 지방대 의대에 진학한 기억은 콤플렉스로 남았다. 이 콤플렉스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인도하는 에너지가 되었고, "지방대 출신도 열심히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의지를 품게 하였다. 이런 에너지와 의지가 그를 한마음의료원(1,008병상의 창원한마음병원과 262병상의 상남한마음병원, 수탁 운영 중인 시립마산요양병원)을 운영 중인 의료법인 한마음국제의료재단의 의장으로 만들었다. "일류대를 나오지 않았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만약 서울대, 연세대를 나왔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지요. 학력 콤플렉스가 저를 키운 셈입니다" 해군 중위로 만기 전역한 뒤 1993년 부산침례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를 수료하고 부산대동병원에서 산부인과 과장을 지냈다. 1994년 창원고려병원 내 4병상의 산부인과 개원을 첫 시작으로 그해 병원을 인수하였다. 1995년 79병상의 한마음병원으로 개원하여 병원장으로 취임하였다. 2001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257병상 규모로 이전 개원하였다. 2002년 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종별이 변경되었고, 2008년 신관 증축을 통해 400병상 규모로 성장하였다. 2012년 경상남도 종합병원 중 최초로 의료기관 인증평가 1주기 인증을 획득하였다.

해군 군의관 전역 날

2005년 5월 4일 당시 의료진들과 함께 한마음병원 앞에서 기념 촬영

한마음병원 송년회에서 최경화 설립자와 하충식 설립자

“꿈과 의지가 있으면 어느 분야든 신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운이라고 말하지만 집무실 한쪽 벽에는 ‘늑대 정신’, ‘신화창조’, ‘인술보국(仁術報國)’이라고 적힌 액자가 걸려있다. “늑대 정신은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 자서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늑대는 제일 약한 상대가 아닌 제일 강한 상대를 선택해 사냥하며, 한 마리로 안되면 떼로 덤비고 상대가 지칠 때까지 싸웁니다. 전체가 똘똘 뭉쳐서 열정과 비전으로 몰아붙이면 언젠가 승리한다는 늑대 정신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빅5 병원처럼 사자나 호랑이는 아니니까 늑대 정신이 필요한 거지요. 비주류로서 처절하게 싸워 여기까지 왔습니다. 신화창조는 저는 아시다시피 논두렁 출신 아닙니까? 대학도 시골 조선대 의과대 나왔어요. 지방대 나와도 대형 병원 차릴 수 있다. 꿈과 의지가 있으면 어느 분야든 신화를 만들 수 있다. 이걸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인술보국에 대해서는 삼성그룹 이병철 선대 회장의 사업 좌우명이 사업보국(事業報國)이지요. 사업을 통해 국가에 보답하자는 뜻입니다. 저는 의료 행위를 펼침으로써 국부를 창출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2019년 5월 1일 하충식 설립자가 수여받은 국민훈장 동백장

저는
의료행위를 펼침으로써
국부를 창출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15일 하충식 설립자 제1회 국민포장 수여식

2024년 5월 21일 세계부부의날 국회기념식

2009년 5월 20일 신생아실에서 직접 받은 아기를 안고 있는 하충식 설립자

2023년 4월 5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법학관 4층 418호 열람실을 ‘하충식홀’로 명명 및 개관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최 경 화

설립자

끊임없는 노력을 하면,
반드시 선한 목표는 이루어집니다

- 부산광역시 출생(1964~)
- 1989년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소아청소년과학 전공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원 의학석·박사

이력

1989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90 부산의료원 인턴 수료
1994 부산의료원 레지던트 수료
1995 창원한서병원 소아청소년과장
1995 한마음병원 소아청소년과장
2006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원 의학석사 취득
2007 한마음병원 관리이사
2010 한마음병원 행정부원장
2012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원 의학박사 취득
한마음병원 제2대 행정원장 취임
2013 한마음병원 소아청소년병원 원장 겸 제2대 행정원장
한마음병원 초대 명예병원장 겸 재무원장
2015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전. 풀만호텔) 대표이사 취임
한마음병원 소아청소년병원 원장 겸 제4대 행정원장
2016 한마음의료원 초대 의료원장 취임
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임상교수
현. 한양대학교 창원한마음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2018 경상남도관광협회 부회장 취임
2022 부산대학교 명예경영학 박사 취득
2024 학교법인 강인학원 창립총회 개최, 초대 이사장 취임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제2대 이사장 취임
경상남도관광협회 고문 취임

사회활동 및 수상경력

2019 제46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2020 제47회 경상남도지사 표창
2021 2021 국민교육발전 유공 국민포장 수훈
2022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최경화홀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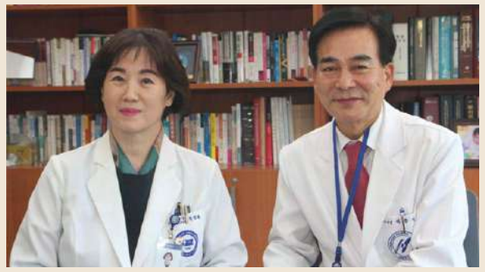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이사장 및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CEO를 겸하는 탁월한 경영자

최경화(崔敬和)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설립자(현. 이사장)는 부산에서 태어났다. 최경화 설립자는 청년 시절, 의사로서의 꿈을 갖고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해 학위를 마친 뒤, 동 대학교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충식 설립자와는 전공의 수련의 시절 지인의 소개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다. 당시 하충식 설립자와의 인연에 최경화 설립자는 "전공의 수련을 한 병원은 달랐지만, 지리적으로 같은 부산에서 수련하면서 인연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생각해 보니 부부의 인연이란 시공간이 같지 않아도 닿는 듯합니다. 어디에 있었든지 부부의 연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인연은 널리 귀하게 쓰여 2004년 5월 21일 부부의날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민간단체인 부부의날 위원회(총재 하충식, 권영상, 송길원)는 2001년 4월, 부부의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해 청원했고, 2003년 12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4년 5월 21일 공식적으로 부부의날이 제정되었다. 최경화 설립자는 세 가지의 포부를 지닌 인물이다. 하나는 아내로서, 하나는 의사이자 경영자로서, 하나는 교육자이자 어머니로서다. 최경화 설립자의 아내로서의 꿈은 "하충식 설립자의 원대한 꿈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2022년 10월 31일 부산대학교 최경화홀 개관식

하충식 설립자의 꿈을 지지하기 위하여

1994년 3월 창원한서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으로 창원에서 첫 진료를 시작한 최경화 설립자는 1995년 한마음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으로 의료에 임하며 줄곧 하충식 설립자와 뜻을 같이하였다. 하충식 설립자는 당시 산부인과 진료와 병원 운영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최경화 설립자는 소아과에서 하루 300명을 진료하는 등 의사로서 큰 역할을 하며 하충식 설립자의 뜻을 지지함과 동시에 한마음병원이 창원지역 의료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1995년 당시를 회상하며 최경화 설립자는 "개원 후 첫 3년간은 한마음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충식 설립자의 뜻이 남다르고 원대했기에 그 부분을 지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정과의 양립을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활용해야만 가능한 일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쉽지 않았을지언정 한마음에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최경화 설립자는 그 과정에서 관리해왔던 자금을 모두 2001년 창원시 성산구 소재 257병상 규모로 병원을 이전 개원하는 데 보탤 만큼 철저하고 포부가 큰 인물이었다. 최경화 설립자의 의사이자 경영자로서의 꿈은 "지역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그 목표를 향해 함께 가는 한마음 식구들에게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최경화 설립자는 2007년부터 의료뿐만 아니라 경영자로서 창원한마음병원의 성장에 기여하였다. 특히 경영의 핵심은 사람임을 강조하며 관용과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



하충식 설립자 집무실에서 최경화 설립자와 하충식 설립자

"끊임없는 노력을 하면, 반드시 선한 목표는 이루어집니다"

최경화 설립자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 잠재능력의 발현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주변을 독려해 왔으며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선(善)한 목표는 이루어진다고 강조해 왔다. 그리하여 2015년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전. 풀만호텔)을 인수하고, 2018년 시립마산요양병원을 수탁 운영하면서 최경화 설립자의 능력은 더욱 빛을 발하였다.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산하 4개 기관(창원한마음병원, 상남한마음병원, 시립마산요양병원,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을 운영하는 데 의료원장과 대표이사로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해 왔고, 재단의 정체성을 지키며, 경영철학과 가치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였다. 노력의 결과로, 창원한마음병원의 성장은 물론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의 성공적인 안착에 성공했으며, 시립마산요양병원이 치매안심지원사업평가에서 5년(2018~202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데 일조하였다. 최경화 설립자의 교육자이자 어머니로서의 꿈은 "슬하의 두 아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나눔의 기쁨을 알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최경화 설립자는 특히 모교인 부산대학교와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애정과 지원활동에 대해 각별함을 지녔다. "미래의 역군들을 키우고 싶고, 교육의 길을 끝까지 열어주고 싶고,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한마음병원 4층 대회의실에서 회의에 참여한 최경화 설립자

부산대학교 기부처에 붙은 명패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창립 119주년 기념식

“매순간 배움과 통찰에 힘써 달라”

지난 2004년부터 출신 초·중·고와 대학교에 장학금과 발전기금을 지속해서 기부하고 있으며 이를 인정받아 2021년, 국민교육발전 유공 국민포장을 수훈하였다. 나눔의 실천으로 최경화 설립자와 하충식 설립자는 모교인 부산대학교에 100억 원 기부 약정한 이래, 꾸준히 기부를 실천해 오고 있다. 부산대학교는 기부 약정금 100억 원 중 70억 원은 ‘한마음, 인류 문제 해결 국제공동연구기금’을 설립해 교육연구 혁신기금으로, 나머지 30억 원은 의과대학 ‘교육연구 혁신과 한마음, 미래 인재육성 장학기금’으로 조성해 부산대가 글로벌 TOP 100위권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인재 육성 기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전하였다. 또한, 동문 최고 기부액인 100억 원을 기부 약정한 것에 감사하고 그 뜻을 기려 의과대학에 종합학습공간인 최경화홀을 마련하고 2022년 12월 개관하였다. 이에 최경화 설립자는 “제 이름을 새긴 학업의 공간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동문으로서 큰 기쁨과 감사를 느낀다. 배움이란 일평생 지속되는 일이요, 통찰은 더 나은 선택을 하게 하는 힘이기에 매 순간 배움과 통찰에 힘써 달라”라고 하였다. 지금의 창원한마음병원이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를 넘어서 뇌·심장·중증외상·암 등 중증질환 중심으로 성장한 데는 하충식 설립자의 추진력과 강한 의지는 물론이요, 최경화 설립자의 소프트 리더십이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앞으로도 100년의 도약을 향해 나아가는 한마음의 중심에서 최경화 설립자는 한마음의 핵심 가치인 행복, 봉사, 사랑, 노력, 혁신을 기반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구현은 물론 경영 혁신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2021년 12월 13일 최경화 설립자가 받은 국민포장

미래의 역군들을
키우고 싶고,
교육의 길을
끝까지 열어주고 싶고,
보탬이 되고싶은
마음입니다.

모교 기부금 전달식에서 기부금 전달 후 꽃다발을 받고 있는 최경화 설립자

2022년 10월 31일 부산대 양산캠퍼스 의과대학 2층 정독실을 ‘최경화홀’로 명명 및 개관

창원한마음병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최경화 설립자가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이사장으로 취임

확장 이전 개원 후 창원한마음병원 대회의실에서 하충식 설립자와 최경화 설립자

창원한마음병원 앞 물향기 공원에서 하충식 설립자와 최경화 설립자

창원한마음병원은 1994년 개원 이래
경남도민의 사랑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랑과 관심 속에 초심을 잃지 않고
경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창원시민의 숙원사업인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朝鮮日報 2016년 10월 15일 토요일

나를 키운 건 학력 콤플렉스
부유한 양조장집 아들,
지방대 의대에 진학
일류대학 못나왔다고 차별…
이 악물고 성공하자 결심

400병상 종합병원으로 키워
서로 꿈을 공유하기 위해
아침마다 직원들과 청소
기네스북에도 올라

**"아반떼 몰고, 골프 대신 배드민턴…
그래야 직원들도 절약"**
배드민턴 동호회 파워
골프 인간관계가 세모라면
배드민턴은 동그라미 10개
착공식에 온 6000명 중 1500명은
배드민턴 인맥

소문난 구두쇠
헌스타킹에 비누 넣어쓰고
아직도 혼수 이불 덮고 자
그래도 직원들에겐 근속 때마다
해외여행

작년 한해 20억 기부
창문에 뽁뽁이 붙여 月난방비
1000만원 절약
자기 돈까지 보태서 교복구입비
매년 2억 지원

하충식(가운데) 한양대 한마음창원병원 이사장이 병원 근처에서 직원들과 함께 청소하고 있다. 병원 주변 청소는 그가 1996년부터 빠짐없이 해오는 일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꿈을 이뤄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원래는 직원들처럼 작업복을 입고 청소하지만, 의사 가운을 입어달라고 부탁해 사진을 찍었다.

21년간 매일 쓰레기 주웠더니…병원이 커졌다

하충식(56)씨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양대 한마음창원병원 이사장이다. 이 병원은 지하 4층·지상 8층에 400병상 규모다. 전국에 이런 규모 종합병원을 가진 이사장이 드물지는 않겠지만, 하 이사장은 1995년 1월 건물에 월세를 내는 병원 원장으로 시작해 7년 만인 지난 2001년 12월 이 병원을 지었다. 지난 달에는 창원 중앙역 부근에서 한양대 한마음국제의료원 착공식을 열었다. 2019년 1월 31일 준공 예정인 이 병원은 대지 2만3999㎡(약 7260평)·연면적 12만2343㎡(약 3만7000평)로, 지하 4층·지상 9층에 850병상을 수용할 수 있다. 하 이사장은 "경남 지역뿐만 아니라 몽골과 중국, 러시아 등 인접 국가 환자들까지 유치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5월 창원에 있는 풀만앰배서더 호텔을 1000억원에 인수하기도 했다.

자수성가 비결을 묻자 하 이사장은 쓰레기 줍는 집게를 꺼내 보였다. "1996년부터 21년째 아침 7시 반부터 30~40분씩 직원들과 함께 병원과 주변 거리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기네스북에도 올랐어요"

— 이게 왜 성공 비결인가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꿈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사람들에게 '내가 청소를 그만두는 순간 내 꿈을 포기하는 줄 알라'라고 얘기했습니다"

— 직원들이 고생하겠어요.

"전날 당직을 섰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안 나와도 됩니다. 현재 직원이 650명 정도 되는데, 저는 매일 나오고 직원들은 수십 명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 청소가 좋으면 혼자서 하면 되잖습니까.

"서로 꿈을 공유하는 거지요. 병원이 잘되면 저뿐 아니라 직원들도 월급 올라가고 좋지 않습니까?"

— 기네스북에는 왜 올린 겁니까?

"직원들이 고생했으니까 뭔가 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얘기도 있겠네요.

"처음에는 그랬지요. 그런데 20년 넘게 청소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 병원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도 청소한다고요.

"병원이 있는 지역도 잘돼야 하니까요. 이번에 병원 새로 지으면서 함바집(건설현장 식당)을 안 만들기로 했어요. 공사 인부들이 지역 식당 이용하면 일석이조 아닙니까? 인부들은 다양한 메뉴를 즐기고 주변 상권에도 좋고요"

때로 덤비는 '늑대 정신'

지난 10일 하 이사장을 만난 곳은 병원 회의실이었다. 회의실 한 쪽 벽에는 '늑대 정신·신화창조·仁術報國(인술보국)'이라고 써 있었다.

— 늑대 정신이란 뭔가요?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 자서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늑대는 제일 약한 상대가 아닌 제일 강한 상대를 선택해 사냥하며, 한 마리로 안되면 떼로 덤비고 상대가 지칠 때까지 싸웁니다. 전체가 똘똘 뭉쳐서 열정과 비전으로 몰아붙이면 언젠가 승리한다는 늑대 정신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자나 호랑이는 아니니까 늑대 정신이 필요한 거지요"

— 인술보국은요?

"삼성 이병철 회장님에게 사업보국(事業報國)이라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통해 국가에 보답하자는 뜻이죠. 우리나라 의료계는 1990년대 이후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어요. 의료계가 의료 관광 등을 통해서 국부를 창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신화 창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나라 수도권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은 거의 다 서울대·연대 의대 나온 분들이 30여년 전에 세운 겁니다. 그때 이후로 큰 병원이 안 생겼어요. 그때는 의료보험도 없었고 병원이 제약회사에서 약을 2개 사면 8개를 공짜로 주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그런 것 없어요. 저는 조선대 의과대 나왔어요. '지방대 나와도 큰 병원 차릴 수 있다' '꿈과 의지가 있으면 어느 분야든 신화를 만들 수 있다' 이걸 꼭 보여주고 싶어요"

나를 키운 건 학력 콤플렉스

하 이사장은 1960년 경남 함양에서 양조장집 아들로 태어났다. 4남 3녀 중 다섯째였다. 그는 "집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부족함 없이 자랐다"라고 했다. 고등학교는 진주고로 유학을 갔다. 당시 진주고는 한 해 수십 명에서 200명 넘게 서울대생을 배출했다. 하 이사장도 "진주고 입학했으니 서울대 가는 줄 알았다"라고 했다.

— 그런데 공부를 안 했습니까.

"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겠다는 간절함도 없고요. 고1 때 사람들이 '니 뭐 될래' 물으면 '농대 가겠다'라고 했어요. 막연하게 대관령에서 젖소 키우는 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 왜 농대 말고 의대 갔나요?

"형님께서 '야, 이놈아. 삽 뜨기 전하고 삽 뜨고 난 뒤가 엄청 다르다.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아나. 니 농대 보내려고 진주까지 유학 보낸 줄 아나' 혼내셨어요. 그래서 의사가 돼야겠다고 생각한 거지요"

— 그래서 조선대 의대에 입학했군요.

"지방대라고 학력 차별이 어마어마하더군요. 서울대부터 지방대까지 등급을 매겨서 평가해요. 제가 조선대 다닌다고 하면 다짜고짜 아래로 보는 거예요"

— 지금도 어느 대학 나왔는지 중요하지요.

"우리나라 인구의 25%가 IQ 120 이상이래요.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민족입니다. 철이 늦게 들었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대학 못 들어갔다고 평생 주홍글씨를 새기고 사는 게 너무 억울한 겁니다"

— 그래서 성공해야겠다고 생각한 건가요?

"네. 일류대를 나오지 않았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만약 서울대, 연대를 나왔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지요. 학력 콤플렉스가 저를 키운 셈입니다"

— 조선대를 나왔는데 병원 이름 앞에 한양대를 붙인 이유는 뭔가요?

"원래 대학병원을 세우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군요. 현재 짓는 병원을 운영하려면 우수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양대를 통해서 제 꿈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한양대에 발전기금 등으로 213억원 기탁을 약속했고 전임교수를 30명 이상 지원 받기로 했어요"

물려받은 돈은 3000만원뿐

하 이사장은 1994년 3월 창원고려병원 산부인과 의사로 들어갔다. 그해 9월 병원장이 하 이사장에게 병원 인수를 권하자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며 즉시 수락했다고 한다. 당시 이 병원은 지상 6층, 120병상 규모로 직원이 100여명이었다.

—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요?

"대학 때부터 큰 병원을 열겠다는 게 꿈이었으니까요"

— 인수 비용은 아버지한테 받았나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1991년 제가 결혼할 때 전세금 3000만원만 줬어요"

— 그런데 어떻게 인수했습니까?

"건물주는 따로 있었으니까요. 월세로 매달 2600만원 내고 직원들 월급만 챙겨주면 됐습니다"

— 병원 경영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휴일, 밤낮없이 정말 열심히 일했지요. 다른 병원에서 소아과 의사를 하던 아내도 병원으로 불러들였어요"

하 이사장의 아내인 최경화(52) 한마음창원병원 의료원장은 "부부 의사면 편안하게 잘살 수 있는데, 우리 신랑은 가고자 하는 길이 달랐다"라고 말했다.

— 어떻게 달랐나요?

"가정을 챙기는 대신 병원 식구를 챙기더라고요"(최경화)

— 불만이 많았겠군요.

"우리 신랑이 저하고 아들 돌하고 시간을 같이 가질 수가 없으니까요"(최경화)

— 생활이 좀 나아졌나요?

"아니요. 돈이 부족해서 직원들 월급을 못 주게 되면 어떡하나 저도 겁이 나더라고요. 월급은 나중에 급할 때 쓰려고 모았어요. 2001년에 병원 지을 때 보탰어요"(최경화)

성공 비결은 운·신뢰·절약

— 성공 비결이 뭡니까?

"운이 좋았어요. 병원을 인수하고 나서 병원 바로 옆에 대형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 그게 왜 운이 좋은 겁니까? 속은 건데.

"물론 그 당시엔 앞이 캄캄했지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 대형병원이 옆에 들어서지 않았다면 병원장이 인수를 제안했겠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IMF가 터져서 그 병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 새 병원을 짓고 난 뒤에 그 병원이 완공됐어요"

— 2001년에 병원 지을 때 얼마 들었나요?

"땅값 40억원, 건축비로 100억원 들었습니다"

— 돈이 어디서 생겼나요?

"80%를 대출받았습니다"

— 은행에서 그렇게 많이 빌려줍니까?

"호텔 인수할 때 700억원 대출받았습니다. 지금 병원 짓는 데도 1500억원 빌릴 예정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빚이 제일 많은 사람 중 한 명일 겁니다"

— 그렇게 대출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저를 믿어 준 것 같아요. 병원은 수익률이 매출의 5%도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15% 정도 됩니다. 현금을 수백억원 가지고 있습니다"

— 비결은요?

"원가 절감입니다. 저는 병원의 모든 결제를 보름에서 한 달 안에 모두 현금으로 해 줍니다. 10개월 어음 끊어주는 사람하고 현찰로 한 달 안에 계산해 주는 사람하고 누가 싸게 물건을 구입하겠습니까? 저는 15년 이상 거래하는 납품업체가 18개 됩니다. 신뢰가 쌓이니까 더 좋은 물품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지요"

아반떼 직접 모는 이사장

하 이사장은 지독한 구두쇠로 알려져 있다. 비누를 헌 스타킹 안에 넣어서 쓰고 아내가 혼수로 해 온 이불을 아직도 덮고 잔다. 자가용으로 아반떼를 직접 몰고 다니는데, 그전에 엑센트를 15년 동안 몰고 다니다 폐차한 뒤 바꾼 차다. 13㎡(4평)짜리 그의 집무실에는 에어컨이 있지만 그는 한여름에도 선풍기만 쓴다.

— 이 정도 성공했으면 돈 좀 써도 되지 않나요?

"외제차 타고 트렁크에서 골프백 꺼내면서 직원들한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골프 안 칩니까?

"배드민턴 칩니다. 우리나라 4대 사조직이 있는데 고대학우회, 호남향우회, 해병대전우회 그리고 배드민턴 동호회입니다"

— 사업하려면 골프 쳐야 한다던데요.

"골프 안 쳐도 병원 잘됩니다. 골프 치는 사람들이 아프면 우리 병원 옵니까? 다 서울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에 가지. 인간관계를 동그라미와 세모, 가위표로 말하자면 골프 치는 관계는 세모예요. 배드민턴은 동그라미 10개입니다. 이번에 병원 착공식 할 때 6000명 넘게 왔는데요, 이 중 1500명 이상이 배드민턴 동호회원과 그분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 이사장 집무실이 좀 작지 않나요?

그는 집무실 벽에 걸려 있는 '下心得人(하심득인)'이라는 액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자세를 낮추면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직원들이 저를 보고 환자와 가족에게 자세를 낮추면 병원이 더 잘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부당 이득을 1억원 취하면 팀장은 100만원, 담당 직원은 10만원을 착복할 거예요"

— 직원들한테도 근검절약하라고 다그칠 것 같네요.

"저는 에어컨 못 틀어도 직원들은 빵빵 틀게 합니다. 5년, 7년, 10년 근속할 때마다 동남아로 해외여행 시켜주고요. 직원 부모님과 자녀들도 해외여행 보냅니다. 나이 든 남자 직원 대부분이 창업 멤버입니다"

매출 800억원에 20억원 기부

하 이사장이 이렇게 돈을 아끼는 이유 중에는 기부도 있다. 그는 병원 창문에 에어포켓(일명 뽁뽁이)을 붙여 월 난방비 1000만원을 절약했다. 이렇게 절약한 돈에 자기 돈을 합해서 경남도교육청에 "저소득층 교복 구입비로 써 달라"라며 2012년부터 매년 2억원씩 기부하고 있다. 1995년 개원한 이래 매년 어린이날 소년소녀 가장과 복지시설 아동, 교통사고 유가족 등을 놀이공원에 초청해 격려행사를 연다. 작년에는 2000명을 초대했는데 지금까지 초청 인원이 총 2만5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외에도 소년소녀 가장과 복지시설 아동 생활비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및 생활비 장학금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 공로로 2011년 제1회 국민추천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 1년에 얼마 정도 기부합니까?

"작년에 20억원 기부했습니다. 매출액(800억원) 대비로는 많은 편일 겁니다"

— 기부를 하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비웃을지 모르지만 저는 경주 최부자 같은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에요. 3대 가는 부자가 없다는데, 경주 최부자 가문은 12대, 13대까지 부자였어요. 그 사람들은 절제하고 베풀고 나눌 줄 알았습니다. 최부자 가문이라고 어렵고 힘든 시절이 없었겠어요? 그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줘서 오랫동안 부를 유지했겠지요. 이렇게 보면 나를 위해서 기부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전현석 기자

01 경영 철학
02 미션
03 그랜드비전&비전
04 핵심 가치
05 병원 철학

Hospital Ideology

01 경영 철학

“인술보국(仁術報國)”, 의술로 나라에 보답한다

하충식·최경화 설립자는 직원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병원, 희생적인 봉사정신, 더불어 사는 따뜻한 마음, 최고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혁신이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인술보국을 실현하기 위해 한마음병원을 경영해 왔다. 두 설립자가 의술을 통해 나라에 보답하는 철학을 지속하게 된 배경은 밥상머리 교육에서 시작되었다. 하충식 설립자는 어머니(강선이, 91) 가르침의 영향을 받았다. 밥상머리에서 늘 하시던 말씀이 “나는 밥 얻으러 오는 사람 빈 그릇으로 보낸 적 없다”, “사람 괄시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었다. 최경화 설립자는 외할머니께 큰 영향을 받았다. 성경 속에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면서 가르침을 주셨다. 이러한 두 설립자의 인술보국 철학은 창원한마음병원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 창원한마음병원의 설립자와 임직원들은 윤리적 경영으로 병원을 건전하게 성장시키면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의료서비스 확충과 사회공헌에 재투자해 오고 있다. 인류애를 위한 경영 철학을 이어가 우리 사회 공동체를 튼튼하게 지탱하고자 한다.

경영철학

“인술보국”(仁術報國)

의술로 나라에 보답한다

상남한마음병원 1층 로비 벽면에 자리한 ‘인술보국’ 철학

02 미션

창원한마음병원의 임직원은 '최고의 의술로 인류를 행복하게'라는 미션을 모두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다. 다양한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선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증 및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집중하고, 지역 의료 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그리고 교육·연구를 활성화하며 의료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미션

최고의 의술로 인류를 행복하게

03 그랜드비전&비전

하충식·최경화 설립자는 한마음병원을 설립하면서 적어도 경남 사람들이 서울 가는 것은 몰라도 부산까지는 가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러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마음병원은 수도권 의료의 수준을 넘는 의술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현재 창원한마음병원은 뇌·심장·중증외상·암 등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하며,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제공하려는 창원한마음병원의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꾸준히 향상하고 의료분야에서 혁신을 이루어낼것을 지향한다.

이제 창원한마음병원은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수준의 아시아 의료 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랜드비전

Korea Top 20,
세계적 수준의 아시아 의료허브

비전

2030년, 3000병상

창원한마음병원 대회의실 벽면에 자리한 그랜드비전과 비전

04 핵심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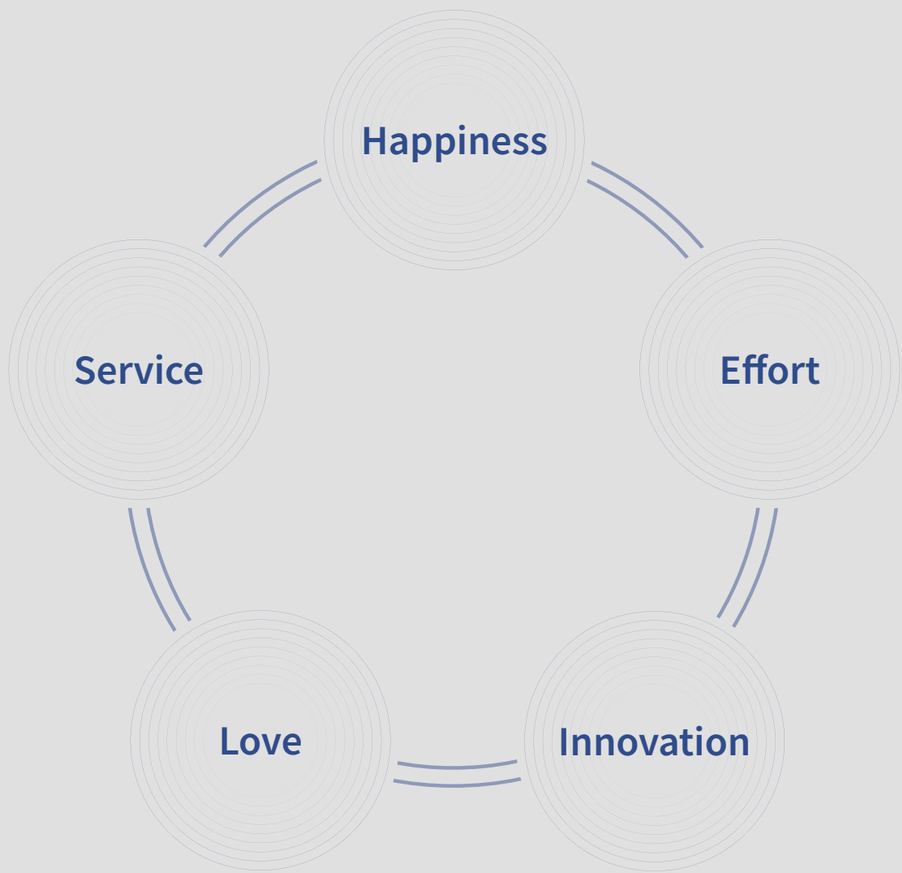
행복_직원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병원

봉사_희생적인 봉사정신

사랑_더불어 사는 따뜻한 마음

노력_최고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

혁신_미래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혁신



05 병원 철학

환자를 내 가족처럼 21세기 디지털병원

첨단장비와 끊임없는 연구결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병원

이웃과 함께 더불어 봉사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직원 모두에게 긍지가 되며 행복을 주는 병원

질병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병원

창의적인 사고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재를 키우는 병원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가치창조의 병원

Part.1

혁신의 시간들
한마음 30년 연대기

창원한마음병원은 1994년 병원 내 산부인과로 시작해,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며 경남 최초 의료원 체제로 성장하였다.
지역 의료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온 결과
명실상부 경남지역의 대표 의료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30년간 창원한마음병원이 만들어온 역사적인 순간들을
사진과 함께 되짚어본다.

1994~2000 한마음의 첫걸음, 원대한 미래를 꿈꾸다

2001~2010 확장의 시기, 상남동 시대를 열다

2011~2020 거대한 시련 속 한마음으로 꽃피우다

2021~현 재 끝없는 도전, 대규모 의료재단으로 도약하다

CHAPTER.1

1994 ~ 2000

한마음의 첫걸음,
원대한 미래를 꿈꾸다

1994 |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창원고려병원을 인수하다

1994년 3월 1일 산부인과 의사였던 하충식 설립자는 봉곡동 ‘창원고려병원’ 내에 4병상 산부인과를 개원하였다.

그해 9월 창원고려병원의 병원장은 하충식 설립자를 집무실로 불렀다. 병원장은 “병원을 인수해 볼 생각 없나?”라고 말하며 당시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을 제안하였다. 하충식 설립자는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며 즉시 수락하였다. 갑작스러워 보이는 상황이지만 사실 필연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충식 설립자는 의과대학 1학년 시절부터 “내 병원을 설립하고 한국에서 손꼽는 병원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는 하였다. 창원고려병원 인수 기회는 꿈꾸던 목표를 이룰 결정적 단계였다.

병원 인수 직후, 당시 다른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진료를 보고 있던 최경화 설립자(배우자)에게 병원을 인수하기로 했다며 같이 병원을 시작해 키워보자고 말하였고, 최경화 설립자도 즉시 수락하였다. 하충식 설립자의 큰 꿈을 항상 응원하고 지지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이 결정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였다. 인수한 창원고려병원은 지상 6층, 약 120병상 규모, 직원이 100여 명으로 작은 병원이 아니었다. 불과 35살의 산부인과 의사와 31살의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갑자기 직원 100명이 넘는 병원을 이끌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은 맨손으로 병원을 인수하였고 직원과 병원을 지키기 위해 일에 전념하였다.

1994년 3월, 창원고려병원 내 산부인과 개원 초대장

당시 창원고려병원 내 산부인과 주소지가 적힌 편지봉투

1994년 당시 창원고려병원 외부 전경

1995.01.01 | ‘한마음병원’으로 재개원하다

1월 1일 하충식·최경화 설립자가 이끄는 창원고려병원은 한마음병원으로 이름을 바꾸며 25실 79병상으로 재개원하였다. ‘한마음’병원이라는 이름은 하충식 설립자와 최경화 설립자가 함께 병원 인수 시점부터 구상했던 이름이며, ‘한’은 ‘크다’와 ‘하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11일에 한마음병원 개원식을 열었다. 개원식에 참석한 지인들은 두 설립자의 시작을 축하하며 격려를 전했다. 한 지인은 학생 시절 하충식 설립자가 말하던 대로 큰 병원을 운영하게 된 것이 놀랍다고 말하였다.

하충식 설립자는 초대 병원장으로 취임하며 경영자 겸 병원장 임무를 수행하였다. 최경화 설립자는 병원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소아과 진료를 담당하였다. 두 설립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은 병원의 기존 문화와 성장 속도를 크게 바꾸어놓았다.

6월에는 종합검진센터를 개설하고 32실, 126병상으로 증설하였다. 그리고 병원은 고객과 병원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문화를 적극 도입하였다. 아침 8시 45분, 한마음병원 전 직원은 매일 병원 건물 앞으로 나왔다. 그리고 아침 인사를 외쳤다. ‘안녕하십니까’,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위스키, 위스키, 위스키’. 위스키를 발음하면 표정이 자연스러운 미소를 띠게 된다. 병원을 찾는 고객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전달하며, 임직원 스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었다. 이 인사는 2024년 지금도 매일 진행하고 있다.

1995년 3월 11일 한마음병원 개원기념식에서 최경화·하충식 설립자

1995년 3월 11일 한마음병원 개원 기념식, 병원 앞에서 미소 짓고 있는 하충식 설립자

1995 | 임직원의 식사를 책임지다

하충식·최경화 설립자는 병원을 인수한 직후, 임직원의 복지에 대해 생각하였다. 병원 운영이 여유있지 않은 상황속이었지만 양질의 복지를 제공하고 싶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심사숙고한 끝에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결단하였다. 병원의 주인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헌신하는 직원들이 밥걱정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병원의 임직원들은 매일 제공되는 무료 식사를 크게 반겼다. 당시 대다수 회사처럼 식권을 사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구내식당에서 즉시 식사하면 되었다. 특히, 자취하는 임직원들은 병원의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 주말에도 출근한다는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무료 식사로 잔반이 많이 남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2005년 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료 원가 수준의 식권 발행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두 설립자는 직원들이 식사는 편히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무료 식사 제공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이에 잔반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여 남는 음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그리하여 한마음병원은 30년간 직원들이 아침, 점심, 저녁에 대한 걱정 없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일 식사를 제공하였다. 또한, 직원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더 좋은 복지를 창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2007년 3월 5일 한마음병원 구내식당에 모인 직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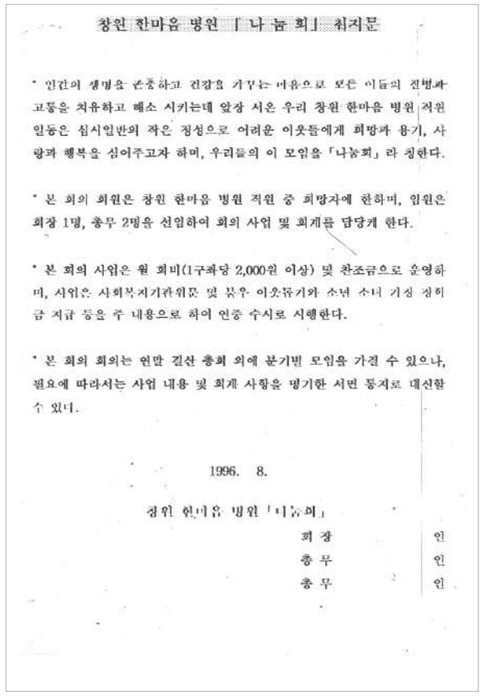
1996 | 한마음병원이 입소문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다

고객에게 비치는 한마음병원 임직원들의 밝은 미소 뒤에는 많은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병원을 성장시키기 위해 모든 임직원은 휴일, 밤낮없이 일하였다.

8월 1일에는 '한마음나눔회'를 발족하였다. 본격적으로 사회공헌을 실천하기 위해서였고, 점차 규모를 키워 소년소녀가장 생활비 및 장학금 지원을 시작하였다. 재정 상황이 여유롭지 않았지만, 하충식 설립자와 최경화 설립자의 뜻이 강경하였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하니, 한마음병원은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였고 내원객이 꾸준히 증가하며 성장을 지속하였다.

1996년 11월 산부인과와 소아과는 평일 예약 및 휴일 진료와 야간 진료를 실시하였다. 총무팀 전창욱 수석 매니저는 당시 상황을 "예약 진료와 주말 진료로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방문하였고, 환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라고 회상하였다.

임직원들은 한마음병원을 자신의 것처럼 여겼고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병원을 만들겠다는 공통의 목표를 바라보며 열정적으로 한마음병원을 키워나갔다.



창원 한마음 병원 「나 눔 회」 취지문

*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이들의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고 해소 시키는데 앞장 서온 우리 창원 한마음 병원 직원 일동은 심시일반의 작은 정성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 사랑과 행복을 심어주고자 하며, 우리들의 이 모임을 「나눔회」라 칭한다.

* 본 회의 회원은 창원 한마음 병원 직원 중 희망자에 한하며, 임원은 회장 1명, 총무 2명을 선임하여 회의 사업 및 회계를 담당케 한다.

* 본 회의 사업은 월 회비(1구좌당 2,000원 이상) 및 찬조금으로 운영하며, 사업은 사회복지기관위문 및 불우 이웃돕기와 소년 소녀 가장 장학금 지급 등을 주 내용으로 하여 연중 수시로 시행한다.

* 본 회의 회의는 연말 결산 총회 외에 분기별 모임을 가질 수 있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 내용 및 회계 사항을 명기한 서면 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1996.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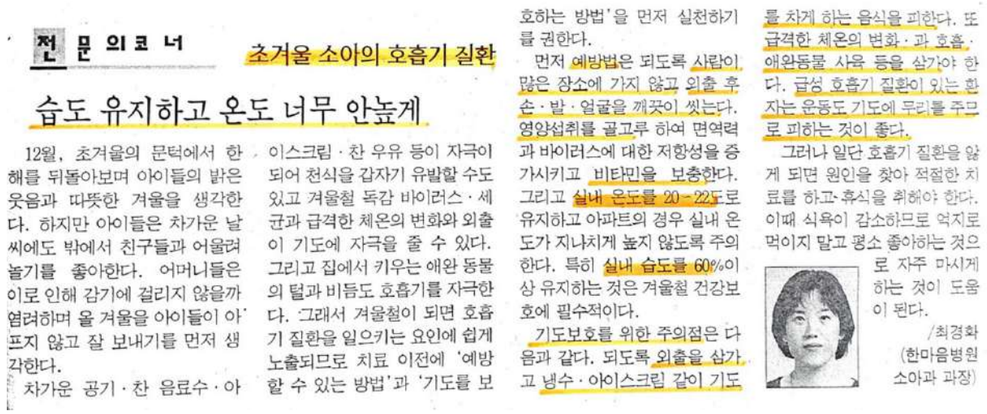
창원 한마음 병원 「나눔회」

회 장 인

총 무 인

총 무 인

1996년 8월 1일 한마음나눔회 설립 취지문



전문의코너 초겨울 소아의 호흡기 질환

습도 유지하고 온도 너무 안높게

12월, 초겨울의 문턱에서 한 해를 뒤돌아보며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따뜻한 겨울을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들은 차가운 날씨에도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한다. 어머니들은 이로 인해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염려하며 올 겨울을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잘 보내기를 먼저 생각한다.

차가운 공기·찬 음료수·아이스크림·찬 우유 등이 자극이 되어 천식을 갑자기 유발할 수도 있고 겨울철 독감 바이러스·세균과 급격한 체온의 변화와 외출이 기도에 자극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애완 동물의 털과 비듬도 호흡기를 자극한다.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에 쉽게 노출되므로 치료 이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기도를 보호하는 방법'을 먼저 실천하기를 권한다.

먼저 예방법은 되도록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지 않고 외출 후 손·발·얼굴을 깨끗이 씻는다. 영양섭취를 골고루 하여 면역력과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비타민을 보충한다. 그리고 실내 온도를 20-22도로 유지하고 아파트의 경우 실내 온도가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실내 습도를 60%이상 유지하는 것은 겨울철 건강보호에 필수적이다.

기도보호를 위한 주의점은 다음과 같다.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냉수·아이스크림 같이 기도를 차게 하는 음식을 피한다. 또 급격한 체온의 변화·과 호흡·애완동물 사육 등을 삼가야 한다. 급성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는 운동도 기도에 무리를 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일단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되면 원인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이때 식욕이 감소하므로 억지로 먹이지 말고 평소 좋아하는 것으로 자주 마시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최경화 (한마음병원 소아과 과장)

1995년 12월 신문에 실린 최경화 설립자의 소아과 의료칼럼

1997 | IMF를 이겨내다

하충식·최경화 설립자와 한마음병원 임직원들은 심란해졌다. 한마음병원 바로 옆에 대형 병원이 세워질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1995년 한마음병원이 개원할 당시에도 대형 병원이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시점에서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대형 병원이 들어서면 한마음병원은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주위에서 들려왔다. 분명 내원객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었지만, 임직원들 사이에서 대형 병원이 들어서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우려가 퍼져나갔다. 여러 차례 위기 대응 회의를 열었지만 뾰족한 대처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한마음병원 임직원들은 어찌할 수 없는 걱정은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힘을 쓰지 않기로 마음을 모았다. 환자를 돌보며 베푸는 활동에 최선을 다하면 대형병원이 들어서도 지역 주민들은 분명 한마음병원을 찾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다. 큰 혼란이 가득한 시기였다. 두려움이 가득한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도 한마음병원은 환자에게 집중하려고 노력하였고, 내원객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대하며 진료하였다.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찾는 환자는 계속 늘어갔다. 특히 소아과는 최경화 설립자의 진료를 받으려는 내원객이 많았다. 친절하고 세심한 진료로 인해 입소문을 듣고 마산, 진해에서도 방문하였다.

병원에 입원하려는 환자에 비해 병상이 부족해지면서 의료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자 7월에 41실 147병상으로 증설하였다. 시간이 맞지 않아 진료를 보지 못하는 도민을 위해서 토요일에는 오후 3시 30분까지 연장 진료를 실시하였다.

1997년 한마음병원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산모와 함께

1997 | 대형병원 공사가 중단되다

한마음병원 옆에 들어서기로 했던 대형병원 공사가 IMF 위기의 여파로 인해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마음병원은 병원의 존립에 큰 영향을 줄 위기를 이겨냈다. 그리고 한마음병원을 소개받아 내원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료의 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병원을 운영했던 것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병실 내부 구조에 개선점이 보이면 즉시 고쳐가며 한마음병원의 내부는 매주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다.

큰 위기를 이겨낸 한마음병원은 계속 성장하였다. 하충식·최경화 설립자는 병원이 성장함에 따라 개원 초부터 시작했던 사회공헌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다. 두 설립자는 당시 병원의 규모에 비해 사회공헌을 무리해서 하는 것 아니느냐 하는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지만 한마음병원의 사회공헌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점차 늘어났다.

한마음병원의 지원을 받아 하충식 설립자에게 감사 편지를 전달하는 두 학생

1997년 3월 1일 아침조례를 위해 모인 한마음병원 임직원들

1997.09.01 | 매일 아침, 노란 조끼 사람들이 동네청소를 하다

9월 1일 한마음병원은 병원 주변 환경을 정화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봉사단체 '나라사랑회'를 창단하였다. '나라사랑회'는 "우리 병원을 찾는 고객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더불어 지역 환경 정화에 힘쓴다"라는 슬로건 아래 임직원들이 모인 환경미화 단체이다. 나라사랑회의 시작은 하충식 설립자의 자발적 청소 활동이었다. 1994년 창원고려병원 인수 직후, 하충식 설립자는 출근할 때마다 병원 일대가 늘 지저분한 것을 보았다. 주위에 상가가 밀집해 있어서 매일 아침 쓰레기가 널려있었다. 하충식 설립자는 이러한 길거리는 한마음병원을 찾는 분들에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1995년 1월 1일부터 매일 아침 병원에 조금 일찍 출근하여 직접 길거리를 청소하였다. 이에 남직원들이 동참하여 청소를 시작하였고, 이렇게 병원 주변을 청소하는 전통이 만들어졌다.

이후 나라사랑회는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40분간 남성 직원 30~60명이 참여하여 병원 인근 상가 거리, 화단, 공원 등을 청소하였다. 청소는 비가 오는 날이나 일요일과 명절을 제외하고는 병원 문이 열리는 날마다 항상 이어졌다. 하충식 설립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청소를 시작하면 운동이 되고, 가족과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된다"라고 하였다.

한마음병원의 나라사랑회는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아, 1998년 창원시장상, 2004년 창원시문화상과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이러한 청소 전통은 3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하충식 설립자가 매일 직접 청소하는 모습은 주위 사람들에게 귀감을 주고있다.

1997년 아침, 청소를 위해 병원 앞에 모인 하충식 설립자와 임직원들

1998~2000 |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하다

3월 1일에는 병원 주위 초·중학교 결식아동 급식비를 지원하였다. 5월 1일에는 마산 천주교구 한울타리회와 공동으로 보육원 지원사업을 개시하였다. 9월에는 문성고등학교, 명지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추가로 지원하며 병원 성장과 함께 사회지원을 조금씩 확대하였다.

1999년 한마음병원은 창원의 중심부인 상남동에 지하 1층, 지상 9층 300병상 규모의 신축 종합병원을 지을 중대한 계획을 세웠다. 당시 주위 사람들은 한마음병원이 봉곡동에서 이제 막 자리 잡고 잘 크고 있는데, 왜 굳이 상남동으로 가려하느냐 하며 크게 우려하였다. 하지만 한마음병원은 상남동 신축 건물을 만들기 위한 공정을 과감히 시작하였다. 도민에게 제대로 된 병원을 선물하자는 하충식·최경화 설립자의 뜻이 결정적이었다. 병원 내부에서도 우려가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한마음병원에는 도전 의식이 공기처럼 퍼져있었다. 두 설립자는 분명 지금보다 더 좋은 병원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고 병원의 임직원들도 두 설립자의 명확한 비전에 공감하였다. 전창욱 수석매니저는 이때를 회상하며 "개원 초부터 하충식·최경화 설립자께서는 원대한 꿈과 희망을 한마음 가족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한마음 식구가 지금은 100명이지만, 언젠가는 2,000명, 3,000명이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남동으로의 신축 이전은 큰 꿈과 희망이었고, 오늘의 창원한마음병원이 있게 해준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라고 말하였다.

10월에는 무료급식소(창원 참자원봉사회)를 매월 지원하기로 협약하였다. 11월에는 무의탁노인 40명과 소년소녀가장 29명을 추가 지원하였다.

2000년 1월 31일에는 병원을 법인화하였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병원의 규모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였다.

7월에는 '한마음병원 장기대회'를 개최하여 입원 환자들의 무료함을 덜어주었다. 환자들은 옹기종기 모여 장기를 두며 경기를 즐겼고, 장기를 잘 모르는 사람과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윷놀이도 인기를 끌었다. 진지하게 게임에 몰두하는 어른들과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고요하던 병실 안에 웃음과 활기를 불어넣었다.

1999년 한마음병원 신축 공사 안내문

한마음병원 장기대회에서 장기를 두고 있는 환자들

2000.09.29 | 상남동 신축 한마음병원 기공식을 진행하다

9월 29일 상남동 신축 부지에서 신축 한마음병원 기공식 및 안전 기원제를 열었다. 이날, 하충식 설립자는 공사 중 다치는 사람 없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하였다. 한마음병원의 임직원들은 매일 봉곡동과 상남동을 오가며 공사 현장을 면밀히 살폈다.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출근하기 전 새벽과 퇴근 이후 밤 시간을 활용하여 상남동의 공사 현장을 챙겼다. 환자들을 돌보며 기존 병원을 운영하는 일과 병원 건설을 동시에 진행하는 치열한 나날을 보내며, 신축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다하였다.

한마음병원의 대담한 확장 시도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던 두 설립자의 지인들과 병원 관계자들은 병원 건설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며 감탄하였다. 수많은 내원객을 돌보면서도 신축병원을 만드는 과정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마음병원 임직원들은 팀워크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연말에는 병원 근처 창원경륜장의 지정병원으로 선정되기도 하며 2000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2000년 9월 29일 한마음병원 기공식 및 안전기원제에서 안전한 공사 진행을 당부하고 있는 하충식 설립자

2000년 당시 상남동 한마음병원 신축 부지

CHAPTER.2

2001 ~ 2010

확장의 시기,
상남동 시대를 열다

2001 | 한마음병원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다

1월에는 인근 육군종합정비창과 자매결연을 맺으며 군인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왔다. 당시에는 훈련 중 부상을 당한 군인들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긴 후유증을 안고 전역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마음병원의 두 설립자는 나라를 지키려고 입대한 젊은 청년들이 부상을 입고 전역하는 문제를 매우 안타깝게 여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들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협력을 통해 지역 내 군인들은 더 나은 건강 관리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한마음병원과 군부대 간의 교류를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2월에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첫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를 개시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였다. 이는 환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병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홈페이지를 통해 환자들은 병원 소식, 진료 일정, 건강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환자들에게 큰 편리함을 제공하였다.

4월에는 4차원 입체 초음파 장비를 도입하며, 첨단 의료기술 활용에 박차를 가하였다. 한편, 상남동 신축 공사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전 개원 준비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마음병원은 새로운 시설에서 환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001년 1월 31일 육군종합정비창 자매결연식

2001.06.06 | ‘마음으로 보는 세상’을 시작하다

6월 6일 봄날의 햇살이 가득한 가운데 한마음병원은 약 120명의 소년소녀가장을 초청해 제1회 ‘마음으로 보는 세상’이라는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의 시작은 하충식 설립자의 특별한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1994년, 하충식 설립자는 한 단체의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하였다. 그런데 행사 내용이 사진을 찍고 뷔페 식사를 하는 것에 그쳐 아이들에게 추억을 선사하기에는 아쉬움이 컸다. 더 많은 경험을 체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충식 설립자는 1995년에 창원용지공원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였다. 자연 속에서의 활동은 아이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1998년에는 ‘녹색교통회 소년소녀가장 및 교통사고 유자녀 초청 등반대회’를 진행하였다.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아이들이 등반을 너무 힘들어하여 다음 해에는 놀이공원인 양산 통도환타지아에 가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번에는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후, 이 행사는 공식 명칭을 ‘마음으로 보는 세상’으로 지정하였고 소년소녀가장과 시설아동을 초청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꾸준히 발전해 온 마음으로 보는 세상은 당시 영남권에서 가장 큰 놀이동산이었던 대구우방랜드(현재의 이월드)로 자리를 옮겼고, 2021년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고려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의 로봇랜드에서도 진행하기 시작했다. 행사를 하며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을 초대하였고 매년 130여 개 기관, 4,500여 명의 아이가 즐거운 현장체험 기회를 누리고 있다.

1999년 내일 녹색교통 장학생단과 양산 통도환타지아에서

2001.09~12 | 상남동 신축 한마음병원으로 이전 개원하다

9월에는 처방전달시스템(OCS)을 구축 및 가동하였다. OCS의 도입은 병원 내부의 모든 처방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의료진과 환자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처방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한마음병원은 과감하게 시설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면서 병원 운영 효율화를 철저히 실행해 나갔다.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집중하였다.

12월 초, 한마음병원 임직원들은 심혈을 기울여 진행해 온 상남동 신축병원 공사가 드디어 완료된 소식을 접하며 감격에 젖었다. 한마음병원 임직원들이 지하 2층, 지상 9층, 257병상을 갖춘 웅장한 규모의 종합병원을 만든 것이다. 임직원들은 이 도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안도감 속에서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다.

12월 10일 이른 아침부터 임직원들은 새 병원으로의 이전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진료를 시작하기 전,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전하는 날, 한마음병원은 곧바로 진료를 시작하며 새로운 공간에서의 첫발을 내디뎠다.

15일에는 신축 준공식 및 개원식을 열며 병원의 이전 개원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역사회의 많은 인사들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었다. 신축병원 개원 프로젝트는 한마음병원 임직원 특유의 강렬한 도전 정신과 성장 욕구에 더욱 기름을 부었다.

2001년 12월 15일 신축 개원 소감을 말하고 있는 하충식 설립자

2001년 12월 15일 한마음병원 신축 준공식 및 개원식 테이프 커팅 현장

2002 | 상남동에서 기틀을 다지다

한마음병원이 상남동으로 이전 개원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함께 성장해야 했다. 한마음병원은 지역에서 더 탄탄히 자리 잡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갔다. 명절에는 한마음병원을 알리기 위해 임직원들이 한복을 입고 직접 병원소개지를 전달하기 위해 시내를 돌아다니기도 하였다.

1월에는 지역 주민 대상으로 무료 건강 강좌를 실시하였다. 당시에는 질 높은 건강 강좌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기에 한마음병원의 전문 의료진이 준비한 강의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여 좋은 반응을 보였다. 2월은 척추질환, 3월은 간질환, 4월에는 항문질환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며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였다.

3월에는 병리과를 추가로 개설하며 다양한 질병을 다룰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갔다. 진료과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성장한 결과, 4월 1일에는 종합병원으로 승격할 수 있었다. 한마음병원의 의료서비스와 기반이 본질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성과였다.

6월 26일에는 하충식 설립자가 불우이웃돕기 지원부문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다. 병원의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사회에 기여한 활동이 알려졌다.

9월에는 영상전달시스템(PACS)을 구축했다. 당시 최신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갔다. 한마음병원의 임직원들은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배우는 데 힘을 아끼지 않았다.

2002년 1월 제1회 현대인의 건강강좌

영상전달시스템(PACS) 구축 사례

2002년 당시 한마음병원 전경

2003.02.14 | 최신식 MRI 도입

2월 14일에는 진단방사선과에 최신식 자기공명영상(MRI) 장비를 도입하며 가동식을 개최하였다. 당시 한마음병원의 규모에 비해 과감한 투자였다. 가동식은 많은 임직원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축하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최신 기술이 적용된 MRI는 이전보다 더욱 정밀한 진단을 가능하게 하여 환자들에게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장비의 크기가 생각보다 커서 진단방사선과로 이어지는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한마음병원의 임직원들은 당황했지만 지체하지 않고 문 옆의 벽을 뜯어내기로 결정하였다. 직원들은 서로 협력하며 벽을 허물고 MRI 장비가 병원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분주히 움직였다. 고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임직원들은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였다. 이처럼 한마음병원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눈앞의 일들을 하나씩 대처해 나갔다.

진단방사선과로 MRI를 들여오는 모습

2003년 2월 14일 MRI 가동식

2003.02.28 | 한마음병원배 야구대회를 개최하다

2월 28일 한마음병원은 제1회 한마음병원배 야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였다. 지역사회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 주민 간의 친목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한마음병원 임직원들은 이러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처음이었지만 참여자들이 제대로 대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대회 당일, 이른 아침부터 대회 준비에 나선 한마음병원 임직원들은 깃대와 우승한 팀에게 주어질 상패 등 각종 장비와 물품을 챙기며 분주히 움직였다. 참가 선수들과 관중들이 모여드는 가운데, 운동장에는 곳곳에서 웃음소리와 대화가 오갔다. 한마음병원 임직원들은 자체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을까 우려했지만 대회는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는 이후 한마음병원이 개최할 배드민턴대회, 족구대회, 게이트볼대회 등의 다채로운 생활체육대회의 시초로 의미 있는 행사로 발전하였다. 한마음병원배 야구대회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았고 매년 꾸준히 개최되어 도민들의 생활체육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2004년 3월 28일 제2회 한마음병원배 야구대회 폐막식 현장

2006년 3월 26일 제4회 한마음병원배 야구대회 현장

2003.10~2005.03 | 한마음병원, 아이들과 함께하다

10월에는 아이들의 창의력과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1회 한마음 어린이그림대회를 개최하였다. 시설아동 후원, 교복비 지원, 마음으로 보는 세상 등 개원 직후부터 꾸준히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으로, 10월 16일 한국복지재단 55주년 한국복지재단을 빛낸 55인에 하충식 설립자가 선정되었다.
12월에는 분만 10,000례를 달성하였으며 전국에 한마음병원하면 산부인과라는 인상을 남겼다. 당시 한마음병원은 산부인과와 소아과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며 성장했다.

한국복지재단을 빛낸 55인 수상

2004년 당시 한마음병원 10년간 성장의 큰 축이었던 산부인과

2004년 2월에는 병원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행복을 주기 위한 마음으로 한마음병원 주차장 옆에 새와 토끼 등을 키우며 작은 동물원을 만들었다. 울음을 터뜨리며 병원에 들어오던 아이들은 동물들을 보고는 울음을 멈추었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병원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이렇듯 한마음병원은 아이들이 병원에 대해 느끼는 긴장감과 두려움을 덜어주고,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기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였다.
4월 1일에는 창원시 문화상(지역발전부문)에 하충식 설립자가 선정되었다. 이어 7월 1일에는 간호등급이 6등급에서 4등급으로 승격되었다.

이듬해 2005년 3월에는 한마음병원이 전국 종합병원 자연분만율 2위를 기록하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 당시 권욱현 부원장(현. 창원한마음병원 난임센터장)은 “제왕절개 분만율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OECD 국가 중 1위다. 자연분만에 대한 산모들의 올바른 이해와 의료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2012년 ‘도심 속 작은 동물원’의 동물을 보고 즐거워하는 아이

2004년 시험관 시술로 건강히 태어난 아기와 함께

2005.03~05 | 개원 10주년 기념식을 진행하다

3월 1일 한마음병원은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였고, 3월 10일에 개원 기념식을 진행하였다. 한마음병원은 개원 이래 쉬지 않고 빠른 속도로 규모를 키워왔다. 개인이 시작한 병원이 10년간 4병상에서 약 2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성장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한마음병원은 정밀한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사회공헌의 규모 역시 계속해서 늘려왔다. 하충식·최경화 설립자는 10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며 "여러분의 주인 정신이 있었기에 한마음병원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를 전하였고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는 따뜻한 기념식을 가졌다. 10주년 개원 기념식까지는 1995년(1월 1일 창원고려병원 한마음병원으로 재개원, 3월 11일 개원식 진행)을 한마음병원 개원 연도로 정하였다. 하지만 이후 2014년에 1994년 3월 1일(하충식 설립자가 고려병원 내 산부인과를 개원하고 진료를 시작한 날)을 한마음병원의 공식 개원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4월 14일에는 하충식 설립자가 한마음병원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한마음병원으로 초대하였다. 당시 카페의 회원들은 주로 한마음병원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소아과를 이용하는 주부들이었다. 초대 자리에서 하충식 설립자와 소아과 이병을 교수(현. 상남한마음병원 어린이병원장)는 회원들과 함께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회원들은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을 부담 없이 질문하며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이처럼 한마음병원은 지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건강한 유대를 이어가기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5월에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금농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05년 3월 10일 개원 10주년 기념 소감을 전하는 하충식 설립자

2005.06~10 | 서울아산병원과 협력병원을 맺다

6월 22일 한마음병원이 서울아산병원의 협력병원이 되어 서울아산병원 협력병원 조인식에 참여하였다. 행사 후, 한마음병원 참석자들과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들은 서로의 병원 시설과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학술대회 정보, 세미나, 진료 지원 등을 협약 내용으로 다루었다. 당시에도 서울아산병원은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 중 하나로 평가받았기에 한마음병원이 서울아산병원과 협력함으로써 한마음병원의 진료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였고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마음병원은 서울아산병원의 의료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배우며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였다. 이날의 조인식은 한마음병원에게 새로운 성장의 이정표가 되었으며, 서울아산병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한마음병원은 서울아산병원과 교류를 이어가며 주요 의료진들을 영입하는 등 지역 중증환자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에 큰 역할을 하였다.

8월 16일에는 소화기센터를 확장 개소하였고 9월 2일에는 보건복지부 지정 수련병원(인턴)으로 선정되었다. 한마음병원이 질병 치료 외에도 의료진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기여를 시작한 것이다.

10월 1일에는 정신건강의학과를 개설하여 진료과를 확충하였다.

서울아산병원 협력병원 조인식 현장, 서명을 하고 있는 하충식 설립자(우)

01 한마음병원과 함께한 20년

여성의학센터 신병섭 교수

우리 한마음병원 개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가 입사 한 때가 2005년으로 우리병원 개원하고 11년쯤 지난 때인 걸로 기억이 납니다. 부산대 부인암 임상 교수로 3년간 재직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규섭 교수님의 소개로 하충식 의장님과 첫만남을 가지고 창원이라는 도시에 처음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의장님과의 첫 대면 시 자신감 넘치고 열정적인 모습에, 믿음도 가고 해서 창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병원 첫인상은 밝고 젊고 살아있는 분위기였고 모두가 한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 우리병원 인지도가 성장 과정이라서 암 환자를 진단하고 우리병원에서 수술하기까지는 시민의 신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학이 아닌 곳에서 암 수술을 시작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선 환자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열심히 설명하였고 일부 환자는 저를 믿고 수술을 맡겨줘서 최대한 재발하지 않게 더 최선을 다해서 수술 및 치료를 했습니다. 항암 주사치료도 우리병원에서 처음 하는 거라서 병동 간호사들 하고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였습니다. 이제는 여러 훌륭한 교수님들의 헌신과 병원증축 등으로 나라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암치료병원으로 우뚝 서게 되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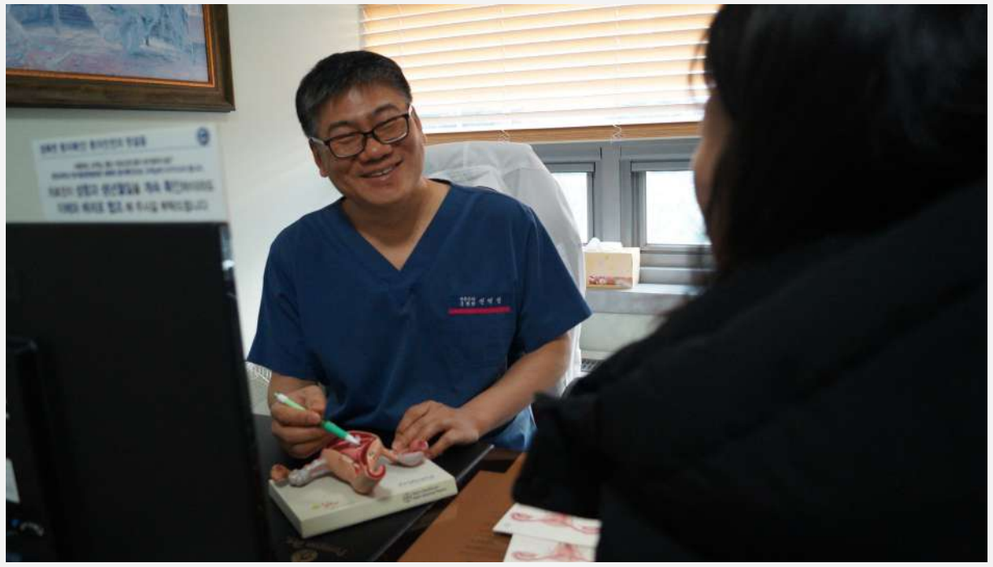
입사한 지 한 3년쯤 지나니 무료해지는 매너리즘 등으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휴가를 내고 무작정 혼자서 지리산(중산리-천왕봉-백무동-함양) 등반 후 내려오는 길에 백무동 버스 정류소 기념가게에서 우연히 "늘 언제나 처음처럼"이라는 글귀를 접하고 깊은 감명을 받고, 또 한결같이 매일 직원들과 아침 청소하고 인사하는 의장님을 옆에서 보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으며 한 사람 한 사람 최선을 다해 진료를 보게 되었고, 하루하루 지나니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의료봉사 및 병원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발전하는 우리병원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앞으로도 더 많이 변화하고 성장할 것으로 희망합니다.

한마음의료원 가족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하여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 허실에 집착하지 않고, 밝고 원대한 내일을 희망하면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매 순간순간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앞으로 백 년 뒤에도 튼튼하고, 역사와 전통이 깊은, 살아있는 병원으로 만들어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민 건강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의료원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3월 8일 수술 중인 신병섭 교수


2020년 2월 6일 진료 중인 신병섭 교수

2005.11.30 | 장기근속직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다

11월 30일 한마음병원은 제1회 장기근속직원 해외연수를 실시하였다. 한마음병원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장기근속 임직원들에게 해외여행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여행지는 태국으로 정하였다. 직원들은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러한 기회로 처음 해외에 가보는 직원들도 있었다.
제1회 장기근속직원 해외연수에서 임직원들은 업무뿐만 아니라 부서가 달라 평소 잘 나누지 못했던 개인적인 이야기도 동료들과 편안히 나누었다. 당시 한마음병원의 임직원들은 서로에게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닌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서로를 진심으로 챙기는 소중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한마음병원은 이러한 특유의 끈끈한 조직문화 덕분에 장기근속자가 유난히 많은 병원이 되었다. 이후에도 한마음병원은 매년 장기근속 직원들의 해외여행을 지원하였고, 이는 임직원들이 기대하는 복지 중 하나가 되었다.

2005년 11월 30일 제1회 장기근속직원 해외연수 당일

2024년 2월 21일 장기근속직원 해외연수 당일

2005.12.04 | 한마음병원배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하다

12월 4일 제1회 한마음병원배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하였다. 기존에 개최하던 한마음병원배 야구대회는 야구라는 종목 특성상 외부에서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또한, 여성과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여 생활체육 대회를 추가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다양한 운동종목들 중에서 배드민턴이 최종 결정되었다. 배드민턴은 실내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생활체육 대회라는 취지에 적합하였다.
대회 당일, 지역 내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병원 임직원과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한마음병원배 배드민턴대회는 지역사회의 화합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에너지 가득한 열광적인 대회가 진행되었다. 참여한 지역민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기에, 한마음병원은 야구대회와 함께 배드민턴대회도 매년 진행하기로 하였다.

2005년 12월 4일 제1회 한마음병원배 배드민턴대회

2005년 12월 4일 제1회 한마음병원배 배드민턴대회 참여자들

2006.02~07 | 내실을 다지며 성장하다

2월 1일 한마음병원은 하지정맥류 클리닉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월 10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보험 지원 협약을 맺어 의료 질 향상과 사회공헌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3월 4일 한마음병원은 제1회 QI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QI는 'Quality Improvement'를 뜻하며, 병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공유하는 대회이다. 당시 의료진과 직원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병원의 다양한 부서에서 모인 만큼 각기 다른 시각과 접근 방식을 통해 병원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각 팀은 자신들이 연구한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병원의 운영 효율성, 환자 만족도 향상,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 등을 위한 방안을 공유하였다. 이후에도 매년 QI 경진대회를 진행하며 병원 운영에 필요한 양질의 아이디어들을 모으고 적용해 나갔다.

4월 1일 한마음병원은 경남 최초로 간호등급 3등급을 달성하는 발전을 이루었다.

6월 18일에는 자체적으로 직원 친절교육을 진행하였다. 자연스러운 미소와 사려 깊은 언어 사용법 등 간과하기 쉬운 고객 응대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친절함을 꼭 배워야 하는지 의아해하던 직원들도 교육을 듣고 나서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다는 소감을 남기기도 하였다.

6월 28일에는 동읍 마룡마을에 한마음병원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 의료봉사를 진행하였다. 의료진은 기력이 쇠약한 어르신들에게는 수액을 맞게 하기도 하며 정성스럽게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도왔다. 주민들은 한마음병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고 따뜻한 시간이 되었다.

7월 27일에는 한마음국제의료재단의 전신인 의료법인 동하의료재단을 설립하였다. 11월에는 EMR(전자의무기록)을 구축 가동하였다. 환자의 의무 기록을 전산 처리해 디지털로 관리하는 기술로 지역에서는 선제적인 도입이었다.

2006년 2월 10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협약식

3월 4일 제1회 한마음 QI경진대회

4월 1일 간호등급 3등급 기념 촬영

6월 28일 동읍 마룡마을 의료봉사 현장

2007.03~04 | '우리의 약속'을 선언하다

3월 1일에는 '우리의 약속' 제창을 시작하였다. 한마음병원은 매월 1일 조례를 진행하는데, 이때 우리의 약속을 제창하기로 한 것이다. 이 제창은 병원의 가치관을 함축적으로 담은 미션, 비전 달성 및 조직문화를 공유하기 위함이었다. 이때부터 매월 조례에서 항상 우리의 약속을 제창하고 있다. '우리의 약속'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병원이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를 임직원 모두가 내재화하는 과정이었다.

매 조례 시간마다 제창하는 우리의 약속은 직원들에게 서로의 다짐을 상기시키고, 각자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쌓여 병원은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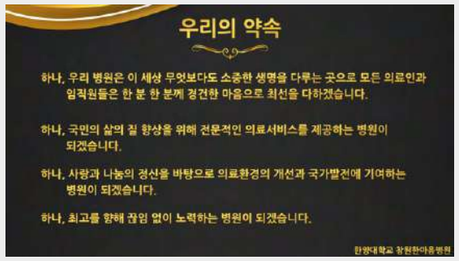
그리고 4월 1일 한마음병원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에서 2006년도 우수의료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우리의 약속

2007

- 환자가 주인인 친절하고 편안한 병원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의료환경의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병원
- 최고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병원

2024



2007년 3월 1일 우리의 약속 제창

2024년 10월 1일 우리의 약속 제창

2007.10.27 | 아이들을 위한 대규모 체육대회를 개최하다

10월 27일 한마음병원은 지역 업체와 같이 제2회 경남꿈나무축구대회(현. 꿈나무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지역 소외계층 아동들의 건강한 체육 활동과 우정 도모를 목적으로 기획한 행사였다. 제1회 경남꿈나무축구대회는 2004년 10월 31일에 개최하였는데, 당시 대회의 종목으로는 축구만 진행하였다. 그러나 해당 제2회 경남꿈나무축구대회는 달리기, 줄다리기 등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추가해 진행하였다. 지역기관 및 봉사단체들도 참여하여 아이들의 체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가한 활동에 아이들의 참여도가 높아지자, 제3회부터는 본격적으로 행사 명칭을 '꿈나무체육대회'로 변경하여 더욱 다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게 기획하였다. 대회 당일, 걱정을 내려놓고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은 행사를 준비한 한마음병원 임직원들에게 큰 기쁨을 안겼다. 행사 날 진료가 없는 의료진들도 참여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도왔다.

한편, 당시 한마음병원은 대회를 위한 공간을 대관하는 것부터 어려움이 있었다. 한마음병원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중소병원이었기 때문에 공간을 빌리는 순서에서 더 이름이 알려진 기관보다 뒷순위로 밀렸다. 어쩔 수 없이 한마음병원은 가능한 날을 여러 개 예약해 놓고, 예약이 비는 날에 맞춰 행사를 준비하였다.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한마음병원의 임직원들은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매년 최선을 다해 대회를 준비하였다. 2024년 현재 꿈나무체육대회는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경남지역 대표 행사로 성장하여 수많은 아이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고 있다.

2007년 10월 27일 제2회 경남꿈나무축구대회

2023년 10월 21일 꿈나무체육대회 줄다리기 현장

2007.12.04 | 장기근속직원 부모님께 해외여행을 선물하다

12월 4일 한마음병원은 제1회 장기근속직원 부모님 해외여행을 진행하였다. 이는 4박 5일간 태국으로 떠나는 효도여행으로, 병원을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해 온 직원의 가족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한 특별한 복지제도다. 기존에는 장기근속 임직원에게만 해외여행을 선물했으나, 부모님에게도 추가로 여행을 선물하기로 하였다. 여행지는 가까우면서도 휴양을 즐길 수 있는 태국으로 결정하였다. 제1회 장기근속직원 부모님 해외여행에 참여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일하는 한마음병원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다고 전하였다.

한마음병원은 부모님 해외여행 복지를 통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임직원들의 가족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전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병원과 구성원 간의 따뜻함을 더욱 확산하였다. 한마음병원은 계속해서 직원들을 격려하며 가족에게도 존경과 감사를 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마련하기로 하였고 이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의료 공동체를 만들 것을 다짐하였다. 장기근속직원 부모님 해외여행은 한마음병원의 구성원과 부모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상징하는 복지제도로 현재도 매년 진행하고 있다.

2007년 12월 4일 제1회 장기근속직원 부모님 해외여행 당일

2024년 5월 28일 장기근속직원 부모님 해외여행 당일

02 내가 못다 한 효도

진단검사의학팀 이순희

한마음에 몸을 담은 지 10년차가 되니 포상으로 부모님 효도 해외여행이 주어졌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어서 홀로 남은 어머니만 외롭게 여행을 보내드리기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께 병원에서 보내드리는 효도 관광에 대해 말씀드리니 이모와 함께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한마음병원에서는 흔쾌히 아버지 대신 이모도 여행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전에 어머니는 똑같은 코스의 중국 여행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행은 예전보다 훨씬 더 수월했다고 하시며, 이전에 이화원에서 들어가지 못했던 서태후의 처소도 들어가 볼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코스에서 부모님들께서 수월하게 즐겁게 여행하도록 병원에서 배려한 모습이 역력했다고 하셔서, 제가 더 병원에 감사했습니다.

여행 중 북경 근처의 강에서 한마음 효도 관광에 온 모든 부모님이 "원장님, 감사합니다"를 연거푸 외치며 각자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모의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내 자식들도 저희 먹고 살기 힘들어 국내 여행도 한 번 보내 준 적 없는데, 자식이 못 시켜준 해외여행을 조카 덕에 다 해보네. 고맙다!"라고 하셨습니다. 없는 시간을 내어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가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모께서 이런 따뜻한 말을 해 주셔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칠순을 넘기셨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예전과 다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 건강 검진을 받으실 일이 많아졌습니다. 한마음의 훌륭한 가족복지 덕에 어머니의 잦은 검진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일찍 홀로 되셔서 삼남매를 지극정성으로 키우신 어머니께 내가 못다 한 효도를 한마음병원이 해주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27일 공항으로 가는 버스 내부

2019년 5월 27일 부모님을 배웅하는 임직원들

효도여행을 떠나며 인사하는 임직원 부모님(1)

효도여행을 떠나며 인사하는 임직원 부모님(2)

2008.02.25 | 병상 확충을 위해 신관을 짓기로 하다

한마음병원을 찾는 내원객의 수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재투자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병원의 성장을 가속했고, 동시에 내원하는 사람의 수가 늘면서 병상이 부족해졌다. 수시로 병원 내부 구조를 개선하면서 병상의 규모를 적극적으로 늘려왔지만, 한계가 있었다. 병상을 어떻게 더 확보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한마음병원은 이번에도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바로 상남동의 한마음병원 부지 내에 지하 4층, 지상 9층 약 164병상 규모의 신관을 건설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 한마음병원 규모의 병원 건물이 하나 더 생기는 효과로 상당히 큰 공사가 될 예정이었다. 병원을 짓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상남동 신축병원의 건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한마음병원 임직원들은 이 신관 건설도 신속하게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지체하지 않고 신관 증축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였고, 2월 25일에 신관 증축 기공식을 진행할 수 있었다.

증축공사 개요를 설명하고 있는 건설 담당자

2008년 2월 25일 신관 증축 기공식 현장

2008.02.28 | 하충식 설립자, 진주국제대학교 이사장으로 취임하다

2월 한마음병원은 진주국제대학교를 인수하며 학교법인명을 일선학원에서 '강인학원'으로, 교명을 진주국제대학교에서 '한국국제대학교'로 변경하였다. 의과대학 설립이라는 목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였다.

2월 28일에 하충식 설립자가 경남 한국국제대학교 학교법인 제4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과거 1995년 1월 한마음병원 아침조례에서 하충식 설립자는 "대한민국 도청 소재지 중 의과대학이 없는 곳은 창원뿐입니다. 제가 반드시 세우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줄곧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하충식 설립자는 이사장 취임식에서 "창원은 인구수에 비해 의과대학과 의료진 등 양질의 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지역민들을 위한 의과대학과 간호학과 중심의 대학 건립이 목표였다. 그러던 중 2007년 10월 진주국제대 관계자와 인연이 닿아 대학경영 참여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 한마음병원의 의과대학 설립 의지와 진주국제대학교의 교육 인프라가 더해지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사장에 취임하게 됐다"라고 말하였다(2008.02.28. 경향신문).

그런데 이후 2012년 5월, 해당 대학교가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던 하충식 설립자가 대학교의 모든 부채를 떠안을 상황에 처했다. 한마음병원 앞에서는 시위까지 벌어졌다. 그런데 당시 시위가 일어난 한마음병원과 민주노총 사무실은 불과 50미터도 채 되지 않는 거리였지만,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누구도 이를 돕지 않았다. 이를 지켜본 하충식 설립자는 "그동안 깨끗하고 투명하게 경영해 온 덕분에 많은 이들이 나의 진심을 이해해 주고 있는 것 같았다"라며 그때를 돌아보았다. 하충식 설립자는 학교 측에 "나를 잡지 않는다면 떠나겠다"라고 말했지만 학교는 끝내 하충식 설립자를 붙잡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2013년 3월 하충식 설립자는 투자했던 140억원에 대해 모든 금액을 회수하지 않은 채 한국국제대학교 이사장직을 내려놓았다. 이후 오해가 풀린 대학교는 하충식 설립자에게 명예 이사장직을 수여하였다. 큰 사건이었지만 한마음병원의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도전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졌고, 훗날 2023년 1월 한마음병원은 직접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

취임 소감을 전하는 하충식 설립자

취임식에서 하충식 설립자와 최경화 설립자

2008.08.26 | 문화체험의 장으로 시설아동을 초대하다

8월 26일에는 제1회 시설아동 초청 '희망이 자라는 문화체험'을 실시하였다. 이 행사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 지역 내 소외계층 아이들을 초청하여 영화 관람 및 호텔 뷔페를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작하였다. 행사 당일 아이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빛났다. 한마음병원은 아이들에게 영화관에서의 즐거운 시간과 뷔페에서의 맛있는 음식을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행사에서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지켜보며, 직원들도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며 한마음병원은 매년 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에도 행사의 규모를 매년 키워갔다. 현재는 경남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보육 관련시설, 다문화 및 새터민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평균 80개 기관, 2,500여 명이 참여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았다.

2008년 8월 26일 제1회 희망이 자라는 문화체험 단체사진

2020년 1월 13일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희망이 자라는 문화체험을 주관한 최경화 설립자

2008.12 | 대학병원 설립에 도전하다

12월 말 창원시는 대학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대상자를 찾기 위해 대학병원급 3차 의료기관을 유치하기로 하였다. 지역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을 지속해서 염원해 온 한마음병원에게는 정말 소중한 기회였다. 한마음병원은 즉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타 대형병원 한 곳도 추가로 지원하였다. 창원시 보건소는 각계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조직하고, 재무 상태, 병원 운영 실태, 의료서비스, 재원 조달 능력, 사업 계획서, 향후 발전 가능성 등 5개 항목을 심의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당시 빠르고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는 한마음병원이 선정될 것이라는 주변의 기대가 컸다.

28일, 결과가 나왔다. 타 대형병원이 선정되었다. 심사 과정이 깔끔하지 않았던 만큼, 29일 한마음병원의 노환유 기획실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심사 기준이 마지막까지 대형병원에 유리하게 바뀐 점과, 선정 심사위원 중 한 명이 한마음병원과 100m 떨어진 곳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마음병원과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문을 제기하였다. 한마음병원 임직원들은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였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2008년 12월 18일 창원시프레스센터에서 대학병원 건립 지원 입장발표 중인 하충식 설립자

2009.01~06 | 한마음병원 신관 증축을 완공하다

2월 20일 한마음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지사와 건강증진사업 업무협약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당시 심혈을 기울여 진행하고 있던 신관 증축 공사도 마침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와 동시에 한마음병원은 모든 질병에 대해 한 번에 진료받을 수 있는 대형 종합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속해서 진료과를 확장하고 있었다. 3월 1일에는 신경과, 4월 29일에 이비인후과를 개설하였다.

6월 19일 마침내 공사 중이던 한마음병원 신관이 완공되었다. 이로써 병상이 늘어나 더 많은 입원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신관으로 종합검진센터, 심장혈관센터, 내시경센터 등 다양한 진료 시설을 확장 이전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쾌적하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신관 덕분에 장비 도입 공간도 늘어났다. 이를 활용하여, 경남 최초로 128채널 컴퓨터단층촬영(CT), 1.5T MRI, 심뇌혈관조영중재장비(ANGIO) 등 최첨단 의료장비들을 전격 도입하였다. 그리고 3개의 병동을 추가 확보해 총 7개 병동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신관 완공을 통해 한마음병원은 다시 한번 큰 도약을 이루어냈다.

2009년 2월 12일 신관 증축 공사 상량식

2009년 2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사업 업무 협약식

2008년 4월 12일 공사 현장

2008년 5월 21일 공사 현장

2009년 4월 9일 공사 현장

2009년 6월 19일 공사 완공

신관 증축을 완료한 한마음병원 전경

03 휴가와 바꾼 신종플루

적정관리팀 이혜경

한 직장에 다니면서 이사를 이렇게 많이 한 경우도 매우 드물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 개원하여 7년마다 증축하여 부서를 이사하였는데 이는 그만큼 지속해서 성장했다는 것이며,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처음 봉곡동에서 상남동으로 이전할 때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공사 현장에 다녀 이것저것 살펴보고 공백없는 진료를 위한 이사의 시뮬레이션을 머리로 정말 많이도 그렸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상남병원에서의 증축에 따른 부서의 확장 이전이 처음의 경험이 커서일까 그리 어렵지는 않았는데, 공간이 2배 이상 커져서 "어떻게 채우지?" 설계에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일본에 자동화 학회가 열렸고, 학회에 참가할 수 있어서 진단검사의학과의 10년, 20년 이후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 학회 및 병원 견학은 큰 도움이 되었고, 넓어진 공간의 설계가 어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30년을 끊임없이 앞을 보고 달려왔으며, 병원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혹자는 운이 좋았다고들 하지만, 한마음병원의 직원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 결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의 노력에 주위를 살피고 같이 가려는 병원의 경영의지가 운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운도 노력이 있어야 따라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마음병원은 상남동으로 증축하여 이전을 마치고, 또 다음 증축을 기획하는 병원이었습니다. 발전하는 병원의 위상에 따라 여러 고민속에 분자진단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세부적으로 선택한 것이 신종플루 검사였습니다.

증축 이전 후 다소 안정화되어 강화도의 석모도를 친구들과 산행을 위해 오랜만에 설렘 가득 출발하였습니다. 강화도에서 배를 타고 저녁에 석모도에 도착하여 저녁을 먹으면서 들려오는 뉴스에 눈이 갔습니다. 신종플루 관련된 내용으로 증가세가 심상치 않았는데 소위 말하는 대로 느낌이 싸~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신경이 쓰여 병원에 전화하고, 바로 다음 날 첫 배를 알아보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병원에 들러 시약 등을 확인하고, 거래처 전화하고 검사 준비를 마치고 그 길로 2달 이상을 정말 정신없이 신종플루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의 PCR처럼 자동화된 것이 아니라 모는 것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검사 처리량보다 처리해야 할 검체량이 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익숙지 않은 분자진단 검사에 우선적으로 도와주신 거래처의 관계자와 배현숙, 김혜진 책임 매니저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혜진 책임 매니저는 신종플루 검사를 위해 아르바이트 3개월로 한마음병원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검사의 막바지에는 임상병리사인지, 결과 안내를 위한 콜센터 직원인지를 알 수 없었으며, 11시 넘어서 퇴근하기를 한 달 이상 하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힘든 줄 모르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힘든 것을 인지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음병원의 직원이 되어주고, 정신없이 몰려드는 검체에도 한마음으로 업무에 임해준 직원들, 무엇보다 시약공급에 우선으로 힘을 써준 업체분들 모두가 감사한 마음이 새삼스럽고, 이런 역량의 밑받침이 코로나 시국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해마다 1월 1일 해돋이 산행에서 해가 올라오기를 기다리며 추위에 떨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던 기억, 직원화합을 강조하는 경영진의 의지에 따른 여러 단합회의 다양한 기억들, 지나간 사람들의 기억 등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한마음병원이 30주년이 되는 과정을 처음부터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한마음병원이 앞으로의 30년, 또 30년을 지속해서 발전해 갈 것에는 이제 누구도 의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수요일 로비에서 울려 퍼지는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 공연의 아름다운 선율이 병원을 넘어 널리 퍼지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2009.07~08 |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다

7월 10일 한마음병원은 Cancer Institute Hospital of JFCR의 소화기외과 Tetsu Fukunaga 교수를 초빙하여 조기 위암에 대한 안전한 복강경 수술 도입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최신 의료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로 한마음병원의 의료진은 물론 지역 의료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자리였다. 이처럼 한마음병원은 지역의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료계 명사를 초빙하는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였다. 증축한 신관 및 도입한 최첨단 의료장비를 바탕으로 한마음병원은 쉼 없이 확장을 거듭하였다.

7월 19일에는 치과를 추가로 개설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걸음을 계속 내디뎠다. 7월 28일엔 소화기내과 이석우 과장(현. 창원한마음병원 진료협력센터장)이 내시경 20,000례를 달성하였다. 이어 8월 13일에는 심혈관센터를 개설하며 지역 내 긴박한 심혈관 질환 환자들을 위한 전문 치료 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수술실과 중환자실도 증축하며 지역민들을 위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이어갔다.

2009년 7월 10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 Tetsu Fukunaga 교수

2009년 7월 28일 이석우 과장 내시경 20,000례 달성 기념

2009년 8월 13일 심혈관센터 개소식

2009년 8월 13일 수술실 및 중환자실 증축 개소식

2009.08~09 | 한마음병원 증축 개원 기념식을 열다

8월 28일에는 한마음병원 증축 개원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혁규 전 지사, 김윤수 창원부시장, 배종천 창원시의회 의장, 고영진 진주국제대 총장, 임대원 재마창함양군향우회장, 김진욱 판사 등 지역의 저명한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한마음병원의 도약을 축하하였다. 인사들은 병원의 성장을 함께 기뻐하며, 한마음병원이 앞으로 지역사회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이 과감한 신관 증축은 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큰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시설과 첨단 장비의 도입은 환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확장과 의료서비스 개선 시도들은 한마음병원이 지역 내에서 더욱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9월 16일에는 한마음병원이 경상남도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해 병원의 의료 역량을 국외까지 더욱 확장하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였다.

2008년 8월 28일 한마음병원 증축 개원 기념식 테이프 커팅

신관 내부를 둘러보고 있는 기념식 참가자들

도입한 최신 장비들을 설명하는 하충식 설립자

증축 개원 기념식 기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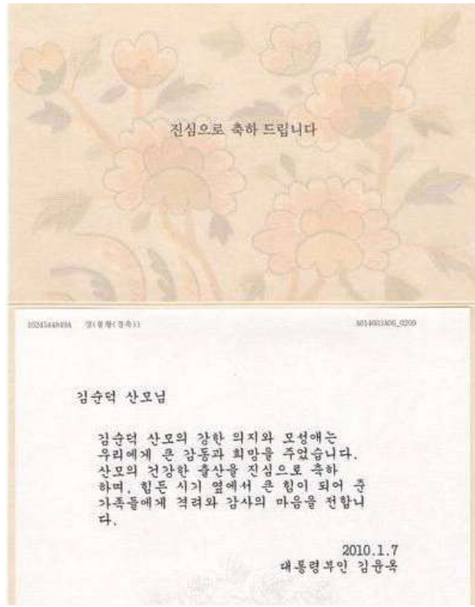
2010.01.05 | 국내 최초 난소암 극복 출산에 성공하다

2010년 당시에도 한마음병원 여성전문센터는 전국에서 손꼽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특히 산부인과는 무균정화시스템 신생아실, 3명의 국제인증모유수유전문가(IBCLC-International Board Certified Lactation Consultant) 등으로 주목받았다. 이러한 의술을 바탕으로 한마음병원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2010년 1월 5일 국내 최초로 난소암 환자가 출산한 것이다. 신병섭 교수(현. 창원한마음병원 여성의학센터장)가 난소암 환자였던 김순덕 씨에 대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김씨는 난소암을 극복하고 3.24kg의 건강한 호랑이띠 남아를 출산하였다. 김씨는 2004년 첫째를 출산했고, 2008년 둘째를 임신했다. 그런데 임신 15주째에 난소암 선고를 받았다. 수술과 항암치료를 위해 안타깝게도 둘째를 포기해야 했다. 그러나 한쪽 난소를 제거하고 4차례 항암치료를 받는 힘겨운 투병 생활을 이겨내어 다시 임신에 성공했고 난소암을 극복하며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

당시 신병섭 교수는 "난소암에 걸리면 난소는 물론이고 암이 전이될 경우, 자궁까지 제거하는데 이 환자는 다행스럽게도 자궁과 한쪽 난소가 남아있었고 '아이를 낳겠다'라는 의지가 워낙 강했다"라며 "젊은 나이에 난소암에 걸리는 것도 드물지만 암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출산한 것도 상당히 드문 케이스다"라고 말했다(2010.01.05. 연합뉴스).

이 시기에도 저출산 현상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던 터라, 사회적으로 귀중한 일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당시 대통령 영부인 김윤옥 여사는 출산 축하 편지와 화환을 보냈다.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와 박완수 전 창원시장도 축하를 전하였다. 하충식 설립자는 "산모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모성애를 발휘하여 건강한 아이를 출산한 것은 개인의 기쁨뿐만 아니라 온 사회의 기쁨이다. 건강한 여성도 출산과 양육을 기피하는 시대에 이러한 모성애가 우리 사회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일구는 데 본보기가 된 사례"라고 소개하며, 산모에 대해 의료비 지원과 축하의 말을 보냈다.

김윤옥 여사가 보내온 화환을 보고 있는 산모 김순덕씨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김순덕 산모님

김순덕 산모의 강한 의지와 모성애는
우리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
하며, 힘든 시기 옆에서 큰 힘이 되어 준
가족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
다.

2010.1.7
대통령부인 김윤옥

당시 대통령 영부인 김윤옥 여사가 보내온 출산 축하 편지

2010.03~05 | 관동대학교와 협력을 시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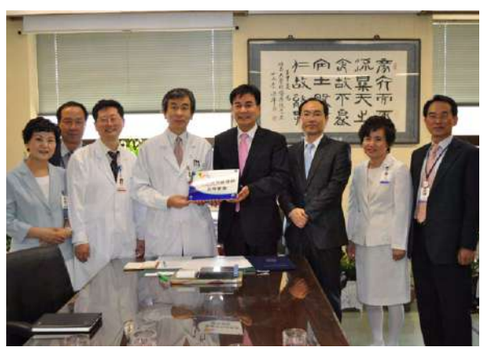
3월 22일 한마음병원은 경상남도 지정 경남지역응급의료센터가 되며 도민에게 꼭 필요한 병원으로 점차 자리 잡아갔다. 그리고 3월 29일 한마음병원은 관동대학교(이하 관동대)와 관동의대 부속병원 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한마음병원은 관동대에 병원을 기부 출연하고 병원과 의과대의 경영·인사권을 갖기로 하였다. 각서에 따르면 관동대는 한마음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운영하고 800병상을 증축해 1,200병상 규모의 부속병원을 완공한 뒤, 의과대생의 임상교육 및 실습을 진행할 것이었다.

하충식 설립자는 "양해각서를 통해 관동대는 부속병원을 갖게 되고, 한마음병원은 의과대 유치라는 성과를 얻은 것"이라며 "통합 창원 시민과 경남도민들이 의과대가 없어 서울과 부산 등지로 치료를 받으러 가는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 의료인재의 유출방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는 한마음병원에게는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중대한 시도였다. 그러나 주위 의료계 관계자들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왔다. 특히 1,200병상 증축 부분이 거론되었다. 증축을 위한 병원부지 확보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이유였다. 당시 인근 창원경상대병원이 들어설 예정인 삼정자동 부지 외에는 의료시설로 허가된 구역이 없었다. 창원시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한 상태이기에, 한마음병원이 고려하는 부지에 대해 불가입장을 표명하였다. 여기에 더해 양해각서에 대한 교과부의 최종인가도 불확실해졌다.

결국 5월 10일 양해각서 체결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동의대 부속병원 계약은 무산되었다. 중요한 기회가 지나갔지만, 한마음병원은 멈추지 않고 발전을 위해 더욱 힘차게 움직였다. 5월 11일에는 영남대학교와 협약을 맺었다.

2010년 3월 22일 한마음병원 경상남도 지정 경남지역응급의료센터


2010년 5월 11일 영남대학교와 협약

2010.06~07 | 또다시 최초 사례를 만들어가다

6월 27일 한마음병원은 또다시 전국 최초의 사례를 만들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당일 전화접수를 실시하고, 대기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당시에도 한마음병원의 소아청소년과는 내원객이 꾸준히 많았는데, 병원이 성장함에 따라 내원객이 더욱 많아져 소아청소년과의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대기 현황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도 중 하나였다. 개선된 시스템은 효과적으로 작동하였고, 내원객들은 접수 후 다른 용무를 보다가 홈페이지로 대기 순서를 확인하여 진료 시간에 맞춰 병원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차도 용이해지고 대기 시간도 상당히 줄어들었다.

7월 3일에는 도내 최초로 전국 규모의 대장암 복강경 수술을 시연하였다. 일본 Kaken Hospital의 세계적 권위자 야마다 히데오 교수를 초빙하였다. 한마음병원 암센터 장종원 소장(현. 창원한마음병원 유방갑상선센터장)과 함께 최신 기법을 도입한 대장·직장암 복강경 수술을 선보였다.

2010년 7월 3일 야마다 히데오 교수 초빙 한마음병원 및 2차병원 복강경수술연구회 합동 심포지엄 & Live Surgery

도내 최초로 전국 규모의 대장암 복강경 수술을 시연 중인 한마음병원 암센터 장종원 소장

2010.09.01 | 나라사랑회 최장 자원봉사, 한국 신기록 인증을 받다

한마음병원은 15년간 청소를 지속해 온 나라사랑회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회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한국기록원에 자원봉사 신기록 인증을 신청하였다. 한국기록원은 한마음병원이 기록해 온 나라사랑회의 청소 일지와 사진 등 각종 사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나라사랑회의 최장 자원봉사 한국 신기록을 공식 인정하였다. 이처럼 꾸준히 지속해 온 나라사랑회의 활동은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졌고, 다양한 언론사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오는 등 지역사회에 깊은 인상을 주었다.

특히 매일 하충식 설립자가 직접 솔선수범하여 청소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한국 신기록 인증을 받은 다음 날 아침에도 나라사랑회는 여느 때처럼 병원 주변을 청소하였다. 한마음병원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급격히 성장할 때도 나라사랑회는 한결같이 아침 청소를 이어갔다.

2002년 청소를 마친 직후 나라사랑회

2010년 9월 1일 나라사랑회 최장자원봉사 한국기록원 신기록 인증식

한국기록원 나라사랑회 신기록 인증서

2010.12.03 | 한양대학교의료원과 협약 체결을 준비하다

관동의대 부속병원과의 계약이 무산되었던 한마음병원이 12월 3일 한양대학교의료원과 '부속병원급 협력병원' 진료 협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협약을 통해 한마음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과 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한양대 의료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열악한 도내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모였다. 창원을 중심으로 한 중부 경남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지만, 당시 도내에는 중증질환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하였다. 3차 의료기관은 경상대학교병원 한 곳뿐이었다. 지역 중증환자들은 주로 서울이나 부산까지 진료를 받으러 가야 했다.

지역 의료계 발전을 위해 당시 경남도지사, 창원시장,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계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의 추천으로 한마음병원과 한양대학교의료원 간의 협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다. 한마음병원 앞에는 커다란 도약이 선명히 보였다. 한마음병원은 15년 전 설립 당시부터 의과대학 병원 설립에 대한 꿈을 품고 의과대학 유치와 운영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하충식 설립자는 "암 등의 난치병 및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수도권 대형병원에 걸맞는 장비와 최고 의료진을 확충할 수 있는 지역거점병원을 활성화해야 한다. 개원 초창기부터 도청 소재지 창원에 의과대학은 물론 약학대, 치과대, 한의대, 로스쿨조차 없는 것을 고민했고 그 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며 꾸준히 준비해 왔다"라며 "경남과 인구가 비슷한 대전에는 대학병원이 5개나 있다. 대학병원이 많이 생기면 수도권과 부산으로 가던 도내 환자들에게도 좋고, 병원끼리 경쟁력도 키우게 돼 지역 의료서비스도 격상될 것"이라 내다봤다. 또 "의과대학 유치를 통해 도민들은 진료 회유로 인한 불합리한 비용으로부터 벗어나고, 동시에 타 도시로의 지역인재 유출을 막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라고 강조하였다(2010.12.20. 내일신문).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한마음병원 하충식 설립자와 한양대학교의료원 박성수 의료원장

2010년 12월 3일 한양대학교의료원과 창원한마음병원 협력병원 협약식

CHAPTER.3

2011 ~ 2020

2020년 3월 5일 한마음병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 현장

거대한 시련 속
한마음으로 꽃피우다

2011.03.30 | 한양대학교의료원과 협력병원 부속합의서를 체결하다

3월 9일 한마음병원의 수련병원 등급이 상향 지정되었다. 이제 인턴뿐 아니라 레지던트도 수련할 수 있게 되었다.

3월 30일 고대하던 한마음병원과 한양대학교의료원의 협력병원 부속합의서 체결이 완료되었다. 2010년 12월 3일에 협약했던 내용에 따라 한마음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임상 교수 발령,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 수련 등을 할 수 있는 교육병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한마음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제껏 수도권까지 멀리 진료를 받으러 가야 했던 지역 중증 환자들의 고충을 덜어줄 계기를 마련한 지역 의료계의 중대한 도약이었다. 그동안 전문 의료진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경남 내 중증환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의 단축을 넘어 환자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명의들도 정기적으로 한마음병원에 방문하기로 하였다. 지역 중증환자들은 지역에 수준 높은 의료진이 방문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었다.

한마음병원과 한양대학교의료원 협력 합의

2011년 3월 30일 한양대학교의료원에서 부속합의서 체결 완료

2011.04.01 | 가정주부를 건강 리더로 양성하다

4월 한마음병원 세미나실에 활기가 돌았다. 지역 주부들이 들뜬 표정으로 모였다. 이는 한마음병원 '제1기 주부대학'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었다. 주부대학은 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건강 리더를 양성하며,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한 교육과정이다. 상·하반기 각 3개월씩, 신청자를 대상으로 매주 1회 한마음병원 세미나실에서 강의를 진행하였다. 진료과별 전문의와 전문 강사가 건강, 교양 강좌를 구성하였다. 더불어 주부대학 참가자 중 원하는 인원에게는 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3개월 간의 강좌가 끝난 후, 주부대학 수료식이 열렸다. 수료식은 대학교 졸업 날처럼 축하의 장이 되었다. 수료자들은 한마음병원이 준비한 학사모를 쓰고 졸업 수료증을 받았다. 몇몇 수료자는 학사모를 처음 써보며 뜻깊은 순간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였다. 한마음병원은 이후에도 매년 주부대학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료자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봉사하며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주부대학 심폐소생술 교육 현장

직접 강의를 구성하고 진행하는 한마음병원 의료진

한마음병원 신관 앞에서 제1기 주부대학 기념 촬영

2011.05~08 | 한양대학교와 함께 거대한 걸음을 내딛다

5월 20일 한마음병원 1층 원무과 앞에서 뜻깊은 현판식이 진행되었다. 한양대학교의료원의 교육수련병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현판이었다. 이 자리에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의무부총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와 시·도 기관장들이 참석해 한마음병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였다.

그로부터 약 3개월 뒤인 8월 31일에는 한양대학교의료원 임상교수 임명장 수여식이 열렸다. 행사에서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의 심의를 통과한 한마음병원의 의료진들이 임명장을 받았다.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 회의 심의 등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임명된 한마음병원 교수진들은 앞으로 한마음병원에서 한양대학교 인턴 및 레지던트 교육을 맡아 임상교육과 실습을 지도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한마음병원의 교수진들은 미래 의료 인재 양성에 기여할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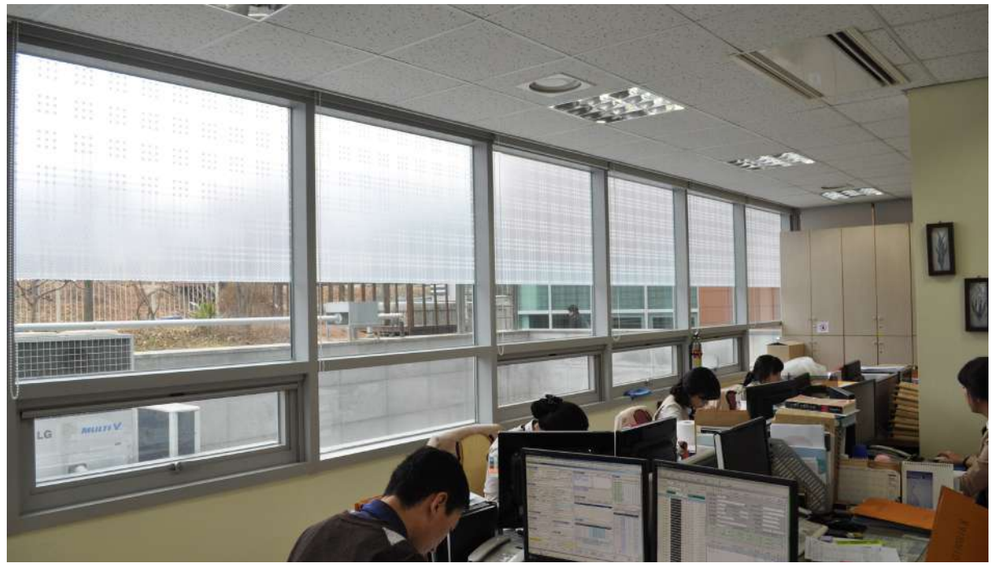
2011년 5월 20일 한마음병원 1층 원무과 앞, 현판식 진행 현장

2011년 8월 31일 한양대학교의료원 임상교수 임명장 수여식

2012.01.03 | 뽁뽁이로 난방효과를 높이다

1월 3일 단열 시트지(뽁뽁이)를 한마음병원 유리창에 부착하였다. 하충식 설립자가 병원의 냉난방비 절약을 위한 조치로 제안한 것이었다. 시트지는 투명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어 특유의 은은한 무늬로 병원 유리창에 부착해도 외관상으로 눈에 거슬리지 않았다. 이를 창문에 부착할 경우 창과 시트지 사이에 미세한 공기층이 형성된다. 이 공기층은 열전도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여, 겨울철에는 따뜻한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여름철에는 외부의 열이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한마음병원의 임직원들은 협력하여 구역을 나누어 창문에 시트지를 부착하였다. 난방을 줄이면서도 병원의 따뜻함을 유지했고, 당시 전월 대비 약 1,400만 원의 난방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병원 내부로 들려오는 외부 소음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이처럼 간단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한마음병원은 큰 효과를 실감할 수 있었다. 한마음병원은 이렇게 절감한 난방비를 모아 2012년 2월부터 2018년까지 매년 2억 원씩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복 지원금으로 기부하기로 하였다.

2012년 1월 3일 한마음병원 창문에 부착한 단열시트지


단열시트지를 부착한 원무과 풍경

2012.01 | 경남 종합병원 중 최초로 1주기 인증을 받다

1월 11일 한마음병원은 경남 종합병원 중 최초로 의료기관 인증평가 1주기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해당 인증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 임직원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보건복지부가 공인하는 제도로, 의료기관의 질과 안전 관리, 병원 경영 등 여러분야에서 엄격한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권위 있는 증명이다. 이 인증은 정부가 한마음병원의 의료서비스가 최상급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당시 한마음병원은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에 과연 인증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있었지만 한마음병원 임직원들은 2011년 초부터 인증을 준비하였다. 수도권으로 내려가 타 병원의 협조를 받아 모범사례를 직접 보기도 하였고, 다양한 인증 기준과 시스템을 공부하였다. 매일 늦은 시간까지 병원 내부 관리 시스템 및 병원 규정을 철저히 구축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라는 본질을 제대로 확립하며 성장해 왔기에 의료기관 인증평가 1주기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리고 13일에는 청와대에서 발표한 고용 창출 100대 기업에 선정되었다. 한마음병원이 빠른 속도로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직원 채용을 지속해서 늘려왔기 때문이다. 병원의 발전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제 93 호

의료기관 인증서

(인증등급 : 인증)

1. 의료기관명 : 한마음병원
2. 의료기관 종류 : 종합병원
3. 대 표 자 : 박 충 식
4.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43-3번지
5. 유효기간 : 2012년 1월 11일 ~ 2015년 1월 10일

위 기관은 「의료법」 제58조제1항 및 제58조의3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준 및 의료기관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인증기준을 충족하였기에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인증합니다.

2012 년 1 월 11 일

보건복지부장관

2012년 1월 11일 의료기관 인증평가 1주기 인증 획득

의료진들과 인증 준비를 하고 있는 최경화 설립자

2012년 1월 30일 수술실 풍경

2012.04~10 | 의료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다

4월 30일 Larry Hamm 미국 심폐재활협회 명예회장과 Anne M. Gavic 회장이 한마음병원의 심혈관센터를 방문하였다. 심혈관센터 김민웅 부원장(현. 창원한마음병원 심장병원장)의 심혈관중재시술을 참관하기 위해서였다. 두 회장은 한마음병원이 수도권에 밀리지 않는 시설과 의료수준을 갖추고 있다며 좋은 평가를 전하였다.

7월 3일에는 외과 장종원 교수팀이 수술 100례를 달성하였고, 7월 14일에는 한마음병원 의료진 6명이 추가로 한양대학교 임상교수로 임명되었다.

10월 11일에는 삼성서울병원과 협약을 맺었다. 지속해서 의료기관들과 협력하며 한마음병원이 전보다 넓은 네트워크 속에서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2년 4월 30일 심혈관중재시술 참관 중인 Larry Hamm 미국 심폐재활협회 명예회장과 Anne M. Gavic 회장

심혈관중재시술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웅 부원장

2012년 7월 3일 장종원 교수팀 수술 100례 성공

2012년 10월 11일 삼성서울병원 협약식

2013.03~06 | 중증질환 치료 강화를 위해 새로운 병원장을 영입하다

3월, 한마음병원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19년 동안 경영과 병원장직을 겸임해 온 하충식 설립자가 병원장 자리를 위임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한마음병원의 역사에서 큰 변화로, 병원의 성장을 위한 준비였다. 이에 따라 병원장직을 맡을 적임자를 물색하기 위한 치열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병원 운영진은 다양한 후보자들을 검토하며, 적임자에 대한 깊이 있는 토의를 하였다. 그리하여 경북대학교 외과 주임교수 출신인 윤영국 박사가 선정되었다. 윤영국 박사는 미국 워싱턴 국립암센터와 뉴욕 스톤케터링 암센터에서의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암 치료분야에서의 뛰어난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았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경북대병원 암센터에서도 진료하였다. 윤영국 박사가 한마음병원의 새로운 병원장이 된다면 도내 중증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윤영국 박사는 한마음병원의 비전에 동감하며 제2대 병원장으로 취임하기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외과·암센터에서 특화분야 진료 및 수술을 맡기로 하였다.

3월 2일 제2대 병원장 취임식을 진행하였다. 윤영국 병원장은 병원장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외과 및 암센터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하였다. 윤영국 병원장 취임 이후, 한마음병원의 간·담도·췌장 진료 수준이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6월 18일에는 한마음병원 본관 5층 건강검진센터 확장 공사를 완료하며 개소식을 진행하였다. 공사는 약 한 달가량의 시간이 걸렸다. 당시 건강검진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기에 한마음병원이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 건강검진센터를 확장한 것이었다. 확장 개소한 검진센터에 학생, 영유아, 채용검진 등 다양한 검진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였다.

2013년 3월 2일 한마음병원 제2대 병원장 취임

2013년 6월 18일 건강검진센터 확장 개소식

2014.02~12 | 개원 20주년, 더 앞선 의술과 더 큰 사랑

2월 1일 진료예약센터 개소를, 28일에는 신장내과와 인공신장센터를 개소하였다.

3월 1일에는 한마음병원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였고, 3일에는 개원 2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그리고 '1,000병상 도약 원년의 해'를 선포하면서 한강 이남 최대 규모 병원을 건립할 것을 공표하였다. 하충식·최경화 설립자는 임직원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한마음병원이 20년간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 감사를 전하였다. 그리고 "환자가 주인인 병원, 존중과 배려가 있는 직장 문화, 공동체와 함께하는 병원을 앞으로도 이어가자"라고 격려하였다.

7월 3일에는 탄자니아 관계자가 한마음병원을 답사 목적으로 방문했고, 7월 28일에는 짐바브웨 중앙 마쇼날랜드 주지사단이 우수의료기관 답사를 위해 한마음병원에 방문하였다. 이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를 초청하여 한마음병원의 선진 의료기술을 전파하고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방문한 관계자들은 한마음병원의 진료 시스템과 의료 시설을 꼼꼼히 살펴보며, 우수한 의료기술과 경험을 배우고자 하였다. 같은 날, 한마음병원이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서 심혈관중재시술 인증을 받았다.

10월 14일에는 심뇌혈관센터 김민웅 교수팀이 심혈관중재시술 2,000례를 달성하였다. 수술 성공률은 100%에 달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1월 25일에는 미국 UCSF 의과대학 Bennett Leventhal 교수가 한마음병원에 방문해 김민웅 교수의 심혈관중재시술을 참관하였다.

12월 13일에는 한마음병원 제1회 독거노인 '38,000장의 사랑' 연탄 후원을 실시하였다. 하충식 설립자를 비롯한 한마음병원의 임직원들이 직접 연탄을 배달하였다.

2014년 3월 3일 한마음병원 개원 20주년 기념식

11월 25일 미국 UCSF 의과대학 Bennett Leventhal 교수 방문

12월 13일 제1회 독거노인 '38,000장의 사랑' 연탄 후원

2015.01.15 | 91세 할머니의 심장을 구하다

1월 15일 한마음병원은 진단검사의학과와 물리치료실을 확장 개소하며 바쁜 연초를 보내고 있었다.
1월 19일 91세 남순악 할머니가 한마음병원에 실려 왔다. 밭에서 일하다 심각한 가슴통증을 느끼고 급하게 한마음병원으로 온 것이었다. 심뇌혈관센터 김민웅 교수팀이 곧바로 남 할머니를 진찰한 결과, 불안정 협심증으로 인한 심장마비 전조증상이었다. 우측 관상동맥의 90%가 막혀 있었고, 피가 거의 순환되지 않는 상태였다.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심장마비가 일어날 위험이 큰 상황으로, 즉시 수술이 필요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고령에 고혈압과 당뇨까지 앓고 있어 수술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심장마비가 올 어려운 상황이었다. 1분 1초가 결정적인 순간, 할머니는 간절히 "꼭 살려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김민웅 교수 팀은 지체하지 않고 대퇴동맥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진행하였다. 고령의 환자이기에 더욱 정교하고 세심한 수술이 필요했다. 김민웅 교수팀은 온 힘을 다해 집중해 정교하면서도 신속하게 수술을 이어 나갔다. 수술은 약 1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할머니의 심장은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하였다. 할머니의 삶에 대한 의지와 김민웅 교수팀의 신속하고 정밀한 의술이 있었기에 가능한 상황이었다.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한 고령의 남 할머니 치료 사례는 지역 의료계의 주목을 받았다.

수술 후 회복 중인 남순악 할머니를 진료하고 있는 심뇌혈관센터 김민웅 교수

2015.03.02 | 제3대 병원장, 박성수 교수 취임하다

3월 2일 한마음병원은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출신의 호흡기내과분야 국내 권위자인 박성수 박사를 제3대 병원장으로 초빙하였다. 한마음병원과 한양대학교의료원 간의 협약을 바탕으로 이어진 인연이었다. 취임식에서 박성수 병원장은 풍부한 의료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마음병원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창원은 지형적으로 분지이며 기계공업이 발달한 도시로 자연환경에 비해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이 대기에 많은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호흡기 질환을 앓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성수 박사가 한마음병원의 병원장이 되어 지역에 높은 수준의 호흡기내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결정이었다.

제3대 병원장 취임식 이후 한마음병원은 추가로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를 연달아 개설하며 한마음병원 한 곳에서 모든 증상을 진료받을 수 있는 종합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2005년 3월 2일 취임 소감을 전하고 있는 박성수 병원장

2015년 3월 2일 박성수 제3대 병원장 취임

2022년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전경

2015.04~05 | 1,050억 원 특급 호텔 인수와 새 병원 건립으로 아시아 의료허브를 꿈꾸다

4월, 한마음병원이 지역에 놀라운 소식을 전하였다. 바로 지역 유일한 특급호텔인 '풀만호텔'(현.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을 인수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풀만호텔은 한림건설이 소유하고 있었고, 한림건설은 주업종에 집중하기 위해 호텔을 매물로 내놓았다. 이를 본 한마음병원이 과감히 인수를 결정한 것이다.

한마음병원의 행보에는 항상 의외성과 의문이 따랐다. 주위에서는 왜 병원이 호텔을 인수하느냐 물었다. 이제 의료에 집중하지 않고 사업을 다각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호텔 인수는 우발적이거나 사업 다각화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충식·최경화 설립자는 이전부터 한마음병원과 호텔을 연계하여 지역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마음병원은 창원중앙역세권에 1,200병상 규모의 새 병원을 건설하려고 한다는 것을 공표하였다. 한강 이남에서 단일 병원으로는 가장 클 것이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새 병원 부지는 김해공항에서 30분, KTX 역에서는 1분 거리로 창원지역 외의 환자들이 접근하기 최적화된 장소라고 강조하였다. 인수한 호텔과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추진하는 의료관광사업을 연계하여 몽골, 중국, 러시아, 이슬람 등 인접 국가의 환자들을 유치할 것이라고 하였다. 의료관광객이 풀만호텔에서 숙박하면서 한마음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경남을 관광하는 것이다. 하충식 설립자는 "한마음병원을 아시아 의료허브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텔 인수와 대규모 새 병원 건설은 이를 실현하려는 방법의 하나다. 국내 환자뿐 아니라 러시아·몽골·중국 등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호텔이 있어야 한다. 호텔 인수와 새 병원 건설을 통해 치료와 관광을 한번에 할 수 있도록 실현하고 있다"라며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시설 아이들 등 많은 사람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열린 호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중앙역세권 부지에 병원 신축을 계획하고 있던 상황에서 풀만호텔의 규모도 컸기 때문에 호텔 인수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관건이었다. 한마음병원은 호텔 인수 자금의 70%를 차입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시간이 부족하고 담보 비율도 부족하였다. 이때 다행히 병원의 주거래 은행인 N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시간 내에 N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기 위해 병원 현장 실사, 법률 검토, 감정 평가, 법인 설립 등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동시에 N은행에서는 리스크 관리 위원회 등 본사 승인이 필요했기에 은행의 담당 영업부장과 팀장이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 본사로 향하였다. 담보비율 대비 차입금이 높아 승인이 쉽지 않았지만, 한마음병원의 미래 성장가치를 인정받아 승인을 받았다. 이후 풀만호텔의 차입은 N은행에서 우수 대출사례로 자체 교육자료에 포함되기까지 하였다.

5월 1일 저녁 풀만호텔 행사장에서 최경화 이사장이 호텔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리고 호텔 이름을 한림 풀만호텔에서 '풀만 앰배서더 창원'으로 바꾸며 새출발하기로 하였다.

최경화 이사장은 "경남의 중심병원인 한마음병원과 미국 유수의 의과대학과 더불어 협진 및 임상 R&D를 필두로 의료관광의 입지도 함께 다지고자 호텔을 운영하기로 했다"라며 "경남이 아시아 의료허브로 나아가는 중심에 풀만호텔이 있다는 자긍심을 가져달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풀만 앰배서더 창원은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으로 이름을 바꾸며 브랜드를 발전시켜 나갔다.

2015년 인수 당시 풀만호텔 전경

최경화 설립자 호텔 대표이사 취임 축하 화환

호텔 대표이사 취임 소감을 전하고 있는 최경화 설립자

취임식에서 케이크 커팅을 진행하고 있는 최경화 설립자(가운데)

2018년 호텔 집무실에서 최경화 대표이사

2019년 12월 1일 경남 마이스 유니크베뉴 선정

2019년 10월 8일 제46회 관광의날 기념식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표창 수상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앞에서 최경화 설립자와 임직원들

2019년 10월 결혼식을 위한 가든하우스 오픈

가든하우스 실내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임원들과 최경화 설립자

2020년 호텔 내 연회장에서 뒷풀이를 즐기고 있는 한마음병원 임직원들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앞, 든든한 울타리처럼 호텔을 지켜주는 백호 조각

2021년 호텔 내 창원한마음병원 회식

04 한마음병원과 함께한 10년을 되돌아보며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총지배인 윤영준

한마음병원 개원 30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은 세계적인 프랑스 호텔 체인인 아코르그룹의 최상급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경남의 랜드마크인 City7 Mall과 CECO 창원 컨벤션 센터와 나란히 인접하고 있어 다양한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있으며, 또한 세련되고 현대적 감각의 321개의 객실과 블루핀 레스토랑, 피트니스 및 사우나, 만다린 중식당, 달리아스파 등 최신식 부대시설을 갖춘 창원 최고의 호텔입니다.

2015년 5월 1일 한마음병원이 풀만호텔을 인수하면서 저희 호텔은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으로 브랜드를 변경하였고, 코로나를 겪으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저희는 한마음의 기치를 받아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처음 호텔을 인수하고 보니 건물이 오래되고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미흡하였지만, 최경화 대표이사님을 필두로 각 부서에서 협심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최경화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직원들과 321객실 하나하나 둘러보고 또 오점 제거 등, 직접 손에 땀을 묻히셨을 정도로 애정을 가져주셨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호텔 지하 3층 밑바닥부터 19층 꼭대기까지 어느 한 부분 애정을 쏟지 않은 부분이 없고, 이를 바탕으로 저희 직원들은 합심하여 그 어려웠던 코로나 시기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많은 호텔이 이 코로나 시기 문을 닫고 또 직원 감축을 하는 와중에도 의장님과 대표이사님께서는 누구보다 같이 함께하는 직원들을 중요시하며 끝까지 같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 호텔의 기본 7가지 가치인 R.E.S.P.E.C.T(Respect, Encourage, Smile, Practice, Enjoy, Committed, Trust)를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며, 미소와 믿음으로 고객에게 헌신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를 실천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병원과 호텔의 협업은 원스톱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으며 이는 편안한 숙박과 메디컬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고, 창원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 오더라도 한마음병원 양질의 메디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식음료 인수를 필두로 비로소 완전한 하나의 호텔을 만들었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호텔 로비 도로의 화단을 도심 속의 자연 숲으로 재정비하였고, 5층 야외 가든하우스를 증축하는 등 아낌없는 투자를 하셨습니다. 이는 이 시기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전략이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돌파구를 찾는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가든하우스는 경남 유니크베뉴에 뽑혔고, 창원 더 나아가 경남의 자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호텔 앞 광장과 입구 주변에 있는 호랑이상을 재정비함으로써 호랑이의 용맹과 기상을 본받아 앞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당당함을 추구하는 호텔이 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충식 의장님을 필두로 최경화 대표이사님과 모든 한마음국제의료재단의 일원들이 합심하는 모습이 현재의 한마음국제의료재단을 만들었고 또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에는 한마음국제의료재단이 저희 호텔을 인수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 또한 한마음국제의료재단의 기틀을 바탕으로 성장한 만큼 언제나 같이하며 더욱더 발전하는 호텔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마음국제의료재단 30주년을 축하하며, 한마음국제의료재단의 한 축을 담당하는 호텔로서 저희 임직원은 자랑스럽게 생각함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나아갈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한마음국제의료재단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정진하겠습니다.

가든하우스 단상

2020년 1월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시무식 현장

2024년 1월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시무식 현장

2015.05~07 | 메르스 사태에서 감염병 대응 우수사례 표창을 받다

5월 1일 한마음병원은 흉부외과 개설을 알리며 희망찬 5월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5월 4일,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확인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병원들은 혼란에 빠졌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며 성장하고 있던 한마음병원에도 비상이 걸렸다. 서울에서 치료를 받던 한 환자가 창원으로 내려와 한마음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환자가 메르스에 감염되어 있었던 것이다. 감염이 확인된 후, 한마음병원은 즉시 감염자가 머물렀던 병동을 폐쇄하였다. 그리고 병원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다. 감염자가 발생한 병동의 환자들은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고, 접촉자들은 격리 조치되었다. 이에 한마음병원은 메르스 대응 체계를 급히 마련해야 했다. 환자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감염 우려로 인한 불안감이 커져갔고, 이로 인해 한마음병원 방문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병원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특정 병원들을 '메르스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그에 맞는 조건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한마음병원은 이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즉각 실행에 옮겼다. 메르스 환자와 일반 환자 간의 동선을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되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고, 환자 이동 경로를 분리하는 등의 구조적 조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메르스 의심 환자나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는 격리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의료진에게는 메르스 대응 매뉴얼을 교육하고 감염 예방 훈련을 하였고 개인보호 장비(PPE) 공급도 확충하여 의료진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였다.

2015년 6월 메르스 예방을 위해 출입을 관리하고 있는 한마음병원 본관 입구

한마음병원은 병원 내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면서, 메르스 환자와 일반 환자 간의 동선 분리, 격리병상 운영, 의료진 보호 등을 강화하여 안전한 의료 환경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6월 한마음병원은 메르스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었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비상 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였다. 이는 이후 감염병 위기에도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또한, 정부와의 협력 아래 한마음병원은 메르스 대응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며 보건당국과 병원 간의 신뢰 관계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초기 메르스 사태로 내원객이 잠깐 줄었지만, 메르스 국민안심병원 지정 후 병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며 다시 환자들이 병원을 찾기 시작하였다.

이후 한마음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감염병 대응 우수사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한마음병원의 메르스 대처 방법은 모범 사례로 꼽히며, 이후 다른 병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한 한마음병원 임직원들 덕분이었다. 그렇게 한마음병원은 메르스를 무사히 이겨내었고, 7월 28일에는 국내에서 메르스가 공식적으로 종식되었다.

한마음병원 내부, 직접 손 세정제를 내원객에게 안내하고있는 직원

보건복지부 메르스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한마음병원

2015.05.08 | 홀로 지내는 어르신께 감사와 존경을 전하다

5월 8일 한마음병원은 제1회 '사랑나눔 효잔치'를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해 온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한마음병원이 준비한 특별한 행사였다. 풀만 앰배서더 호텔에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뷔페를 제공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다. 행사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어르신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였다. 춤, 마술, 그리고 트로트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 참석한 어르신들은 뷔페를 즐기며 공연에 몰입하였다. 흥겨운 노래가 흐르자 많은 어르신이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며 추억을 되새기기도 했는데, 어르신들은 그동안의 외로움과 고독을 잠시 잊고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가득한 순간을 만끽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행사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사랑나눔 효잔치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이후로도 한마음병원은 매년 행사를 지속해서 개최하며 행사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려갔다. 한마음병원은 이러한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소외된 어르신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그들이 사회의 소중한 일원임을 다시금 일깨우고자 하였다.

2015년 5월 8일 제1회 사랑나눔 효잔치 현장

2015.09.17 | 한양대학교와 200억 규모 협약을 체결하다

지역 특급 호텔인 풀만호텔 인수와 새 병원 건설 추진으로 전국 의료계를 놀라게 했던 한마음병원이 9월 17일 중대한 소식을 공표했다. 한양대학교(이하 한양대)와 협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었다. 한마음병원과 한양대학교의료원의 5년간 긍정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한마음병원이 한양대와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풀만 앰배서더 창원에서 약정식이 열렸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료·교육·임상 연구의 공동 수행,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전임 교원 파견, 그리고 한마음병원이 한양대에 발전기금 기탁 약정 등이었다. 이날, 한마음병원의 교수진들이 한양대학교의료원 임상 교수 임용장을 받았다.

하충식 설립자는 "이 협력으로 경남 창원지역에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하였다. 한양대 이영무 총장은 "한마음병원이 최고의 병원이 될 수 있게 한양대학교 의료원과 의과대학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한양대 김경헌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한마음병원은 열정과 추진력이 높다. 양 기관이 이번 협약으로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2015년 9월 17일 임상교수 임용장 수여식

2015년 9월 17일 한양대학교 협약식

2016.03.10 | 한양대학교 한마음병원 출범하다

풀만 앰배서더 창원에서 한양대학교 한마음병원 협약 선포식과 출범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안상수 창원시장, 박종훈 경남교육감, 홍준표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도내 7개 대학 총장(가야대, 경남대, 마산대, 창신대, 창원대, 창원문성대, 한국국제대)도 함께 하였다. 공식적으로 밝힌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마음병원이 한양대학교 의과대학과 200억 원 규모의 임상 연구 및 진료·교육 수련을 진행하며, 한양대 인턴 및 레지던트를 '서울, 구리, 창원'으로 공동 선발하고, 전임교수 30명, 임상교수 100명 이상을 배정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한마음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의 부속병원과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한마음병원의 공식 병원 이름에도 '한양대학교'가 추가되고 한양대학교 엠블렘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영무 한양대 총장은 "이 출범식을 계기로 한양대가 국내 의료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하였다. 한마음병원과 한양대학교의 협약은 지역 의료계의 수준을 높이는 거대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서명을 완료한 하충식 의장(좌), 이영무 한양대 총장(우)

2016년 3월 10일 한양대학교 협약 선포 및 출범식 현장

2023년 9월 18일 한양대학교 이기정 총장, 이형중 의료원장 창원한마음병원 방문

2016.06~09 |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병원을 만들다

6월 28일 한마음병원은 신축 부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신축 공사를 맡을 건설사를 선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창원중앙역세권 개발 현장 사무소에서 진행된 설명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림건설 등 5개 주요 건설사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창원시 관계자들 및 여러 금융기관도 참여하였다. 한마음병원은 이 신축병원이 대지 면적 23,999㎡, 연면적 122,300㎡로, 지하 4층, 지상 10층, 1,000병상 규모로 한강 이남 병원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다시금 강조하였다. 또한, 의료 역사에 한 획을 긋고 경남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병원을 건설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신축병원은 KTX, 부산 부전역, 창원시 마산 역간 복선전철, 김해국제공항, 부산항크루즈터미널 등 병원 접근성이 매우 좋은 곳이었다. 한마음병원은 자체적으로 풀만 앰배서더 창원을 소유하고 있어 도내 외의 환자들도 병원에 원활히 접근하여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 아시아 의료허브로 성장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다는 비현실적으로 보였던 한마음병원의 목표가 눈앞에 다가왔다.

신축병원 건설을 치열히 진행하던 8월 1일, 법인명칭을 '동하의료재단'에서 '한마음국제의료재단'으로 변경하였다.

8월 23일 한마음국제의료원 신축공사 1차 건설사로 현대건설, 두산건설, 새미래건설을 선정하였다. 한마음병원은 특이한 조항을 달았다. 선정된 건설업체들은 건설 현장 내에 함바식당을 운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건설 직원들이 주변 지역 식당에서 식사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 건설은 9월에는 착공을 시작해, 2019년 초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하였다.

9월 1일에는 최경화 설립자가 한마음의료원 초대의료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병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최경화 설립자도 전반적 병원 경영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다음날 9월 2일에는 한마음병원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평가 2주기 인증을 획득하였다. 새 병원 건설 추진과 인증평가 2주기 인증을 동시에 해낸 것이다. 주위에선 새 병원 건설 준비로 바쁜 한마음병원이 인증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한마음병원은 이번에도 예상을 뒤엎고 2주기 인증을 획득하였다. 주인 정신으로 무장한 임직원들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마음병원 신축 부지 공사 전 현장

2016년 9월 19일 신축공사 착공식

신축 부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하충식 설립자

2016.09.24 | 신축 기공식, 동일장소 최다 동시시삽 한국 신기록을 세우다

9월 24일 신축 창원한마음병원이 건설될 창원중앙역세권 부지에 안상수 창원시장, 박완수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의 지역 인사들과 6,000여 명의 경남 도민들이 모였다. 이는 신축 기공식을 진행하기 위한 자리였다. 2016년에 진행되는 기공식인 만큼, 2,016명이 동시에 시삽을 진행하였다. 이 동시 시삽은 한국기록원(KRI)이 아시아 최대 규모 '동일장소 최다 동시시삽'으로 인증하며 한국 신기록이 되었다. 공사의 수주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맡았으며, 계약금은 1,639억 원에 달하였다. 공사는 2019년 초에 마무리하고 신축 한마음병원을 2019년 3월 1일에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신축 건설과 본원의 혁신적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한마음병원은 의료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관계자들은 한마음병원이 어떠한 외부의 큰 도움 없이 이토록 성장해 나가는 모습에 놀라움을 전하였다. 이렇게 상남동 병원의 진료와 신축건설 현장 모두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예기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다.

2016년 9월 24일 한마음병원 신축 기공식

시삽을 진행하고 있는 하충식·최경화 설립자

2016명이 동시에 시삽 진행, 단일 장소 최다 인원 동시 시삽 한국기록원(KRI) 한국 신기록 인증

2017.04.04 | 공사 중단 위기에 직면하다

4월 4일 한마음병원의 신축병원 공사가 멈췄다. 공사가 약 5.5% 진행된 상태에서였다. 그 이유는 주거래 은행인 N은행에서 조달받기로 했던 공사비 대출이 갑자기 중단되어 공사 계약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다. 당시 조선·해운업 사태 등의 경기 불황이 한마음병원의 주거래 은행에도 영향을 미친 상황이었다. 어쩔 수 없이 한마음병원은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에 공사비 조달 불가에 따른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다.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기에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에 과감히 공사를 잠정 중단한 것이다.

한마음병원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으나, 임직원들은 우선 상남동 본원이 제공하고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집중하며 안전한 병원경영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잠시 중단된 것일 뿐 새 병원 건설을 포기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신축병원 공사가 잠정 중단되자 주변에서는 부정적인 소문이 나돌았다. 한마음병원이 무리하게 확장하려다가 망하게 생겼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한마음병원은 "신축공사는 병원 건축, 로봇수술센터, 통합암센터 등 세계적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만 약 3,00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로, 기획 단계부터 금융권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축을 추진했으나 금융권의 대출 승인이 늦어지고 있어 신축공사를 연기했다"라고 설명하였다. 신축병원을 2019년 3월에 개원하려고 했던 계획도 1년 이상 연기될 것으로 보였다. 특유의 도전정신으로 성장을 거듭하던 한마음병원에게도 이는 커다란 충격이었다. 내부 임직원들은 크게 낙심하였다. 하지만 하충식 설립자는 "1994년 개원 이후 한눈팔지 않고 오직 지역사회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길만 걸어왔다. 지역사회 신뢰를 기반으로 병원이 성장하였다. 이 위기를 기필코 이겨내어 창원중앙역세권에 지역 최고 병원을 건립하겠다"라고 말하며 사기를 북돋웠다. 최경화 설립자는 구성원들을 독려하며 한마음병원의 의료서비스와 호텔의 수준을 더욱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2017년 4월 24일 개원 기념 등반대회

2017.04~06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문화가 자리잡다

절망스럽고 힘겨운 상황이었지만 한마음병원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과거 1997년에 큰 위기를 두 차례 겪었지만, 내원객에게 최선을 다해 위기를 이겨내며 병원을 성장시킨 것처럼 말이다. 병원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하였다.

4월 26일 한마음병원 통합암센터 차성재 교수(현. 창원한마음병원 암병원장)가 전국 최초로 중증빈혈 및 허혈성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81세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무수혈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중증빈혈이 있는 경우는 수혈로 증상을 호전시킨 후 수술을 시행하거나 수혈을 하며 수술한다. 그러나 해당 수술의 경우, 환자가 종교적 신념으로 수혈을 거부하였다. 차성재 교수는 더 이상 수술 연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어려운 수술을 진행하였다. 환자는 수술로 대장암 종괴와 담낭을 동시에 제거 받았다. 이후 정상적으로 회복하였고 식사와 거동 모두 가능한 상태로 퇴원하였다. 이 수술은 전국 최초의 사례이기에 의료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5월 초, 한마음병원은 신축공사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였다. 주거래 은행의 대출 상황이 호전되면 2018년에는 기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기존 본원 자체의 재무 상황이 매우 건전했기에 가능한 계획이었다. 한마음병원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병원의 신축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중대한 계획이 틀어진 혼란스러운 시기였지만, 한마음병원 특유의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문화가 깊게 자리 잡아 가는 시기였다.

5월 30일에는 하충식 설립자가 '2017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CEO'로 선정되며 병원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한마음병원이 의료계를 넘어 경제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병동의 감염관리를 위해 라운딩 중인 모습

수술환자의 재활을 돕고 있는 차성재 교수 출처:경남일보

2017.10 | 한마음병원 의료수준이 국외에서도 인정받다

한마음병원 통합암센터의 차성재·이이호 교수가 카자흐스탄 대통령병원의 공식 초청을 받았다. 한마음병원 교수진은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카자흐스탄 유일 국립종합병원인 '아스타나 대통령병원'에서 의료기술을 전수하기로 하였다. 메디컬센터 아즈르 부국장, 아미르 병원장 등이 참석한 우호결연 협약식을 가졌다. 양 병원간 의료인력 연수, 의술전수, 환자 의뢰 등의 내용이었다. 차성재·이이호 교수팀은 '목에 흉터 노출 없는 갑상선 종양제거술' 및 '겨드랑이 접근 내시경 갑상선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처음으로 '목에 흉터 없는 갑상선 종양 제거술'과 '겨드랑이 접근 내시경 갑상선 절제술'을 성공한 수술팀이자, 수술법을 카자흐스탄 보건당국에 전수한 의료진으로 공식 인정되었다. 대통령병원 아헤토브 병원장은 "한국의 우수한 의료진과 병원과의 교류 협력이 앞으로 카자흐스탄 의료기술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단순한 의료기술 이전에 그치지 않고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공고히 하며, 향후 의료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한마음병원은 글로벌 의료 시장에서도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널리 알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카자흐스탄 의료진에게 수술법 전수

아스타나 대통령병원에서 갑상선 절제술을 진행하고 있는 차성재·이이호 교수팀

2018.01~03 | 한마음병원 리더십을 인정받다

1월 3일 한마음병원은 개원 이래 최초로 정형외과 줄기세포 관절수술에 성공하며 새해를 희망차게 시작하였다.

2월 28일에는 TV조선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리더십분야에서 하충식 설립자가 대상을 수상하며 그 리더십을 널리 알리게 되었고, 29일에는 한마음병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의료서비스부문'에서 '2018 대한민국 공감경영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3월 29일에는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부문'에서도 '2018 대한민국 공감경영대상'을 수상하며 한마음병원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

한마음병원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안정과 발전을 돕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힘쓰면서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끌어올리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한마음병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018년 1월 3일 한마음병원 원내 최초 '정형외과 줄기세포 관절 수술'을 성공적으로 진행(1)

2018년 1월 3일 한마음병원 개원 최초 '정형외과 줄기세포 관절 수술'을 성공적으로 진행(2)

2018.02~10 | 신축병원 공사 재개를 준비하다

한마음병원은 신축병원 공사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하지만 여전히 거시적인 경제 문제로 인해 공사비용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가 있었다. 바로 신축병원의 규모였다. 한마음병원의 신축병원 규모는 기존 상남동의 한마음병원보다 연면적 기준으로 약 4.5배나 컸다. 병상수는 1,000병상이 넘을 예정이었다. 이는 대한민국 병원 역사상 유례없는 급격한 확장 시도였다. 어떠한 재단의 도움 없이 개인이 시작한 병원이 이렇게 거대한 병원을 짓는 경우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금융권 및 시 관계자들은 한마음병원의 신축병원 건설 시도 자체를 무리한 시도라고 우려하였다. 그렇지만 한마음병원의 두 설립자와 임직원들은 항상 거대한 꿈을 꾸며 시도하고 성장해 왔다. 이 경우도 그랬다. 주위 업계 전문가들이 무리한 시도라고 아무리 만류해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부단히 공사비 조달과 신축병원 개원 준비를 이어갔다.

무더운 8월, 한마음병원은 병문안 문화 개선 사업을 시행하였다. 환자 및 보호자의 안전을 위해 병문안 시간에 제약을 두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당시 병문안을 무분별하게 다녀가는 사례가 잦아, 입원한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 한마음병원은 스크린도어 12개를 전 병동에 설치하였다. 분만실, 신생아실, 중환자실, 지역응급의료센터도 방문객 출입을 통제하였다. 병문안 허용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한 차례, 토·일·법정 공휴일(임시공휴일 제외)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두 차례 가능하였다. 환자 및 보호자 1인에게만 환자의 병실을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하였다. 해당 층 외 타 병동은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 방문객은 병실 입구와 병실 내에서 방문 대장을 작성하였다. 갑작스러운 제약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내원객들이 나타났지만, 이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조치였다. 예기치 않은 감염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감염 통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던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 이때의 병문안 개선 사업 경험은 훗날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2018년 10월 17일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최경화 설립자

9월, 한마음병원은 더 이상 신축병원 공사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단하였다. 10월 17일 한양대학교 한마음국제의료원 신축공사 건립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풀만 앰배서더 창원(현.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한양대학교 한마음국제의료원 건립 협약식'을 진행하며 현대건설과 공사협약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22일 터파기 작업으로 신축병원 건설을 재시작하였다. 공사가 멈춘 지 약 18개월이 지난 후였다. 202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공사를 재개하였다. 그리고 12월, 드디어 한마음병원이 신축병원 건설 비용을 은행권에서 조달하는 데 성공하였다. 개원 이래 투명하고 건실하게 병원을 운영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기에, 병원의 신용이 높아 가능한 일이었다. 극적으로 한마음병원이 금융권에서 대출 합의를 끌어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한마음병원 역사상 재무적으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순간이었다. 한마음병원의 임직원들은 기대감으로 들떴다. 특히 장기 근속한 직원들은 감회가 남달랐다. '정말 우리 한마음병원이 개원 초부터 꿈꿔왔던 대로 1,000병상 규모의 거대한 병원을 짓는구나!' 놀라워하였다.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하충식·최경화 설립자는 침착함을 유지하였다. 병원 건설이 도중에 중단되었던 무거운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이었다. 이 역세권 개발사업에 1조 1,000억 원가량의 공사비가 들어가게 되었다. 건설 기간 중에만 해도 수만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었으며, 병원이 완공되면 의학 및 연구 관련 고학력 일자리가 2,000개 이상 생성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성장하려는 한마음병원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2018년 10월 17일 한양대학교 한마음국제의료원 신축공사 건립 협약식

2018.10.31 | 주인 잃은 시립마산요양병원이 전국 1위로 등극하다

10월 31일 한마음병원과 시립마산요양병원이 위·수탁 협약 체결식을 맺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로 15에 위치한 시립마산요양병원은 마산시가 국비와 시비로 50억 원을 들여 설립하였고, 2008년에 한재단에 수탁 운영을 맡겼다. 그러나 재단의 운영상 문제점을 발견한 마산시는 기존 재단과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수탁 사업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마산보건소가 공모와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한마음병원은 공고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는 탄생부터 노년까지 모든 생애 주기와 관련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총 3곳이 신청하였고, 그중 한마음병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선정되었다. 한마음병원은 시립마산요양병원을 전국 최고 공립병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 수탁 운영을 맞게 된 한마음병원 임원진들은 시립마산요양병원을 찾아갔다. 기존 요양병원은 심하게 낙후된 상태였다. 시설 보수가 제일 시급하였다. 고철이 가득한 지하 창고를 깨끗이 정리하였다. 새로운 선반을 넣어 깔끔한 창고를 만들었다. 미화 여사님, 영양실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에어컨 및 휴식 공간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오래된 조명, 침대, 환자 이불, 환자복 등도 교체하였다. 환자 보호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점에서 파는 기저귀 하나도 인터넷 최저가 금액으로 판매하였다. 임직원들은 작은 것 하나하나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개선해 나갔다. 직원들의 퇴직연금 가입 등 기본적인 복지도 재정비하였다. 더하여 원활하게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부족한 의료진을 충원하였다.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와의 협력 관계를 맺고, 마산노인회와 같은 복지관들과도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또한, 한마음병원과의 진료 협업 체계로 중증질환 및 복합성 질환도 신속하게 진료할 수 있게 하였다.

한마음병원이 수탁 운영을 맡은 지 10개월 뒤, 시립마산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의료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전국 79곳 중 1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단기간 내에 요양병원이 극적으로 개선된 것에 관계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이후 2019년 10월 18일에는 시립마산요양병원 증축 기공식을 진행하였다. 하충식·최경화 설립자, 이현규 창원 제2부시장,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현 부지에 연면적 682.04㎡, 3층 규모의 별관동을 짓는다고 발표하였다. 재활프로그램실 및 치매안심병상 등 100병상 이상을 증설해, 총 329병상 규모의 치매·재활요양병원으로 성장할 것이며 2020년 3월에 완공을 목표로 했다. 이현규 부시장은 “치매와 뇌질환으로 고통받는 지역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뛰어난 의료 환경에서 치료의 부담감을 줄이고 재사회화의 성공률을 높여 요양병원의 표준화를 선도하는 병원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하였다.

2020년 11월 11일 시립마산요양병원은 2년 연속으로 보건복지부 치매환자지원 프로그램부문 전국 1위를 달성하였다. 2021년 10월 25일에도 같은 내용을 수상하면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치매 잘보는 병원’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2022년에는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치매 환자 지원 프로그램’ 부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023년 초에는 한 번 더 증축 및 리모델링을 진행하였다. 별관 4층 증축(18병상), 본관 4층 병동 리모델링(42병상), 치매 전문 병동 필수 의료 장비 총 22종 158대 보강 등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이어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사업 ‘치매 환자 지원 프로그램’ 부문에서 5년 연속 1위의 성과를 만들었다. 한마음병원의 시립마산요양병원 수탁 운영 우수성이 대외적으로 널리 인정받았으며, 타 공립기관들에서 한마음병원에 치매 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례 발표를 요청하는 등 치매 환자 지원 사업부문을 주도하는 주요 요양병원으로 성장하였다.

2019년 10월 18일 별관 증축 기공식

2018년 10월 31일 시립마산요양병원 위·수탁 협약 체결식

2019년 10월 18일 별관 증축 기공식 삽뜨기 현장

05 시립마산요양병원이 현 위치에 오기까지

대외협력팀 권영판

새로운 도전과 기회

2018년 10월 30일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창원한마음병원이 시립마산요양병원 수탁의료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1월에 시립마산요양병원 본부장으로 인사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요양병원은 처음이라 낯섦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전 수탁의료기관이 운영의 문제로 언론에 알려지면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발령이었지만 기존에 계시던 시립마산요양병원 직원들과 함께 병원을 정상화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먼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관해 공부하며 하나하나 배워 나갔습니다. 급성기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다른 요양병원들과 유대 관계를 맺고 정보를 얻기 위해 인사를 다니며 조언을 구하고, 기존 직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며 요양병원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병원이 긍정적으로 호응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급성기 병원에서 수탁의료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좋지 않은 시선과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라는 식의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단단해져야만 했고, 다시는 그런 시선으로 보지 않도록 한마음병원의 저력을 보여주리라 다짐하였습니다. 전 재단에서 발생한 문제를 경찰서, 노동고용부, 법원을 방문하며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물로서 창원시에 보여주며 한마음병원에 대한 신뢰도와 '한마음병원 아니면 안 된다'라는 긍정적인 시선들로 변해 갔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한마음 가족

한마음에서 하충식 의장님께서는 병원을 자기 집처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직원들을 존중과 배려로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출근하면 지하부터 옥상까지 매일 라운딩을 하며 직원들의 불편 사항이나 환자분들에게 인사하며 안부를 전하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직원들이 찾아왔고,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들어주었습니다. 간단한 문제부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까지 다 같이 고민하고, 최경화 이사장님 또한 직원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귀담아들어 주셨습니다. 전 재단으로부터 아픔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문을 열고 한마음 가족이 되어 갔습니다.

공립요양병원 중에 전국 원탑

공립요양병원의 국가 정책 사업 중 치매환자지원사업이 가장 중요하며 지원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2018년도 사업이 처음 생기고 전 재단의 운영 문제로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본 재단으로 수탁의료기관이 바뀌고 2개월 정도 시간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진과 담당 사회복지사, 여러 간부들의 도움으로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보건복지부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 '치매환자지원 프로그램'부문 성과 평가에서 전국 79개 기관 중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후 매년 1위를 지키기 위해 타 지역 공립요양병원에 견학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교육도 받으면서 지금은 압도적으로 '치매환자지원 프로그램'부문 성과평가에서 5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고, 지금은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평가 결과 전국 공립요양병원 79곳 중 최우수의료기관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얼마나 많은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의장님과 이사장님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더라면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의 특별한 요양병원 이야기

4년 가까이 시립마산요양병원에 근무하면서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려면 근본적으로 어른에 대한 공경심과 힘들고 어려운 환자들을 도우며 항상 웃게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립요양병원에는 100세 가까이 된 어르신도 계시고 치매환자분들이 많다 보니 돌발 상황 및 폭력적 행동을 보이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분들이나 간병사분들이 환자에게 맞거나 다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상처를 입는 직원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환자분들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에서 보호자로서 힘들었던 점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석한 모든 분들이 눈물바다가 되어버립니다. 고령의 입원 환자분들이 많다 보니 환자분들의 가족분들도 50대, 60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전적 문제 때문에 병원에 와서 가족끼리 싸우고 큰며느리의 고충을 들어 달라며 하소연하는 보호자, 사업이 망하여 도망 다니면서 1년에 한 번 정도 오시는 보호자, 가족이 없어 죽을 때까지 책임져 달라며 부탁하는 환자, 사람이 그리운 것인지 저만 보면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어르신, 가슴 아픈 사연의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항상 인간극장을 촬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에는 모든 병원이 힘들었겠지만 일주일에 5번 코로나(PCR)검사 및 신속 항원검사도 해야 했고, 감염되어도 직원들은 환자를 돌보아야 했기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출근해야 했습니다.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환자분들을 보며 죄책감까지 들 정도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힘겨웠지만 한마음이 되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때론 포기하고 싶어도 든든한 동료들이 있고 행복을 주고받는 환자분들이 있기에 다시금 전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지치고 힘든 직원분들께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어줄 동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순간 그들 옆에 있지만 정작 치매환자분들의 기억 속에 남지 않는 시립마산요양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한마음병원의 '30년사'에 기억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직장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길 바랍니다.

시립마산요양병원에서 최경화 설립자와 임직원들

2019.01~12 | 재투자하며 성장을 이어가다

1월 23일 한마음병원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식량생산 공장 건립 협약을 맺고 이에 대한 기금 1억 원을 기탁하였다. 병원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사회에 더욱 많이 공헌하려고 하였다.

5월 13일은 경남도립거창대학교와 인재 양성 및 교육 훈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꾸준히 지역 대학교들과 협약하고 교류하면서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했다. 23일에는 경남지방경찰청과 마음동행센터 설치 협약을 체결하였다.

6월 11일에는 베트남 TTC 그룹과 의료 자원 공유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며 국제적으로 의료 협력의 길을 넓혔고 21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 의뢰회송시범기관으로 선정되었다.

7월 3일에는 평화이즈와 함께 약 70억 원 규모의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HAMIS) 도입을 위한 사업 착수를 체결하였다. 체결식은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진행하였다. 병원의 전반적인 전산시스템을 최신 버전의 첨단정보시스템으로 전부 변경하는 거대한 작업이 될 예정이었다. 약 7개월간의 작업이 진행되어 2020년 3월부터 정식 가동을 시작하였다.

한마음병원은 병원 초기부터 의료정보 전산화를 위해 최신 기술을 빠르게 적용하며 지속해서 투자해 왔다. 2001년에는 경남 최초로 병원 전산의 근간인 OCS를 도입했고, 이어서 PACS, EMR을 적용했다. 여기서 또 다시 한 단계 나아가 더 정교하고 안전한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이로써 경남에서는 최초 사물인터넷 구축 병원을 만들었다. HAMIS와 연결된 HI 한마음 앱을 이용하면 진료 예약, 검사 결과 조회, 실시간 대기 순서 등 진료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환경을 조성해 의료서비스와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였다.

11월 21일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표창장을 받았다. 평소 꾸준히 감염병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힘써온 결과였다.

12월 16일에는 경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내에 한마음병원관을 개소하며 2019년을 따뜻하게 마무리하였다.

2019년 5월 23일 마음동행센터 개소 업무협약식

2019년 7월 3일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HAMIS) 구축 사업 계약체결식

2020.01.29 | 국경을 넘어, 의료의 미래를 연결하다

1월 29일 캄보디아 대표 경제인 의료관광 팸투어단이 한마음병원에 방문하였다.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과 관광 자원을 체험하고, 두 나라 간의 의료관광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다. 팸투어단은 한마음병원의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시설을 직접 체험하고자 하였다. 방문 첫날, 팸투어단은 한마음병원에 도착하여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하충식 설립자가 직접 나서서 병원의 비전과 미션, 그리고 철학에 대해 설명하였다. 병원 투어를 마친 팸투어단은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으로 이동하였다. 호텔에서는 한마음병원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며, 의료관광을 통한 경제적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누었다. 방문객들은 한마음병원이 이러한 의료관광을 위해 직접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을 표하였다. 이 방문은 한마음병원과 캄보디아 국가 간의 의료 협력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였다. 이를 기반으로, 이후 한마음병원은 캄보디아와 다양한 의료적 교류를 이어나가게 되었다.

2020년 1월 29일 한마음병원 신관 정문 앞에서

한마음병원 회의실에서 병원을 소개하고 있는 하충식 설립자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방문

2020.01 | 급작스럽게 코로나19에 직면하다

1월 초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낯선 바이러스가 확산 중이라는 소식이 날로 증가하였다. 평소 감염병 관리와 환자 안전에 힘써온 한마음병원의 임직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였다. 하충식·최경화 설립자는 직원들에게 이 정체모를 감염병을 즉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과거 메르스 사태를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마음병원은 신속하게 감염병 대비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분주히 움직였다.

1월 27일 한마음병원은 경남 도내 종합병원 중 최초로 신종 코로나19 대비 선별진료소를 가동하였다. 선별진료소는 감염 의심 환자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선별하고, 혹시 모를 병원 내 감염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감염병 대응 프로토콜을 수립하고 이를 현장에 반영하여 모든 의료진과 직원들이 일관된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코로나19 검사를 시행 중인 의료진

한마음병원 음압격리실 앞, 코로나19 검사를 준비하고 있는 의료진들

2020.2.22 | 코로나19 확진, 한마음병원 전체 폐쇄되다

2월 22일 아침 한마음병원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비상이 걸렸다. 전날 병원에 출근해 미열 증상을 보여 자가격리하고 있던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감염 경로는 타지역에서 대학에 다니던 자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채로 집에 돌아온 것이었다. 즉각 접촉자 의사 17명, 간호 인력 59명, 의료기사 3명 등 총 79명도 자가 격리하였다.
그리고 한마음병원은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전면 폐쇄되었다. 상황을 지켜보고 24일에 병원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당시 병원에는 307명이 입원해 있었고, 680여 명의 직원들도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이날 경남은 확진자가 총 6명이 되었다. 당시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22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자 가운데 창원과 합천에서 각각 1명씩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발표하였다. 창원시는 공공체육시설, 복지회관, 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을 임시 휴관 조치하였다.
창원시 보건당국 6명이 한마음병원에 파견되어 역학조사를 진행하였다. 병원의 모든 CCTV를 확인하며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였다. 뉴스에서는 한마음병원이 종일 언급되었다. 병원의 임직원들은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불안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23일, 자가격리 중이던 접촉 의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불행 중 다행으로 확진된 두 사람 모두 업무상 일반 환자와 자주 접촉하는 편은 아니었다. 해당 의사에게 수술받은 환자 11명은 수술 후 격리 조치가 진행되었으나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평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던 한마음병원 주위 거리가 적막해졌다. 2명의 확진자가 나오자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들은 불안에 휩싸였다. 병원에는 문의 및 항의 전화가 계속 걸려 왔다. 비접촉자임에도 한마음병원의 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주위 사회에서 따가운 눈치를 주기도 하였다. 하충식 설립자는 "경남에서는 가장 먼저 선별진료소를 차리고, 질병관리본부 지침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병원을 관리해 왔지만 이런 일이 발생해 죄송스럽다"라고 사과하였다. 그리고 진료 재개를 하루 더 연기하였다. 거짓 소문도 돌았다. 지난 18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기에, 한마음병원의 확진자도 신천지 집회를 다녀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격리된 병원 내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안함과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진행하였다. 의료진들은 병동 내 사람들에게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을 수시로 권고하였다. 의료진들은 병동 내 사람들에게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을 수시로 권고하였고, 전체 병실을 소독하기 위해 소독약을 모두 동원하였다. 새로운 소식이 있을 경우 즉시 안내방송을 통해 상황을 알렸다.

코로나19 검사를 준비중인 한마음병원 임직원들 출처:경남도민일보

2020.02.22 | 폐쇄된 병원 속 방호복을 입고 생명을 심다

한마음병원이 임시 폐쇄되는 시점인 2월 22일 오전 10시, 사람을 통제하고 있는 한마음병원 정문 앞에 두 여성 박모 씨와 최모 씨가 병원에 들어가지 못한 체 덩그러니 서 있었다.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한마음병원이 갑작스럽게 격리조치 되었기 때문이었다. 병원은 낮 12시부터 폐쇄될 예정이었다. 병원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두 여성은 쉽사리 돌아가지 못하였다. 12시에 배아 이식 시술을 받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주치의인 난임센터 권욱현 교수를 간절히 찾았다. 만약 이날 두 여성이 배아 이식 시술을 받지 못하면, 채취했던 난자로 배양한 배아를 포기해야 했다. 그리고 병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린 후 난자 채취부터 다시 시도해야 하였다. 권욱현 교수는 고민하였다. 수술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두 여성이 이 힘든 과정을 또 다시 반복해야 한다는 사실로 인해 권욱현 교수는 기존 예정대로 12시에 시술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다. 12시에 병원이 폐쇄될 예정이었지만, 다급히 방역 당국에 수술 진행을 건의하였다. “저 두 여성은 오늘 시술하지 못하면 한 달 뒤 다시 처음부터 힘든 과정을 반복하며 초조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잉태할 아기에 대한 기대와 부푼 꿈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라며 상황을 설명했고 코로나 확진 의료진이 근무하던 수술실과 난임센터 시술실과 거리가 먼 점, 평소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던 점을 강조하며 안전하다는 사실로 설득하였다. 얘기를 들은 민간 역학 조사관과 방역 당국은 고민하였다. 곧 대답이 돌아왔다. “시술실 내 모든 사람이 방호복을 입고 수술을 진행하십시오” 수술 허락을 받은 것이다. 12시가 되었다. 이때 병원 다른 곳은 폐쇄 조치를 진행하고 있었다.

마스크를 쓰고 진료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산부인과 권욱현 교수

적막한 난임센터 시술실, 방호복을 입은 권욱현 교수는 곧바로 시술을 시작하였다. 배아 이식 시술은 엄격한 정밀함이 필요하다. 고도로 숙련된 의사는 이식할 때 10분가량 걸린다. 하지만 이날은 한 사람당 1시간씩 걸려 총 2시간에 걸쳐 시술을 마무리하였다. 방호복을 입고 감염을 대비하며 시술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혹시 모를 감염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신속하고 신중히 퇴원 조치를 마무리하였다. 배아 이식 시술의 성공률은 30%다. 약 2주 뒤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2주 뒤 최 씨는 배아 이식 시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난임센터를 방문하여 초음파검사를 받았다. 최 씨는 첫째도 한마음병원 난임센터에서 시술을 받아 낳았지만 이번에도 긴장되어 가만히 있기 어려웠다. 결과가 나왔다. 임신 성공이었다. 다음날 박 씨도 난임센터를 찾았다. 첫째 임신 성공이었다.

두 여성 모두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병원 입장에서는 나중에 다시 하면 그만인 시술이었을 텐데 최선을 다해 챙겨주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하였다. 한마음병원은 두 여성에게 호텔 이용권, 뷔페식사권, 돌잔치 쿠폰 등 선물을 전하였다. 하충식 설립자는 “방호복을 입고 새 생명을 지키려고 한 두 여성의 용기와 사랑이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되어 감사하다”라고 말하였다.

2020년 2월 22일 임시 폐쇄된 한마음병원 출처:뉴시스

06 한마음병원에서 30년간 진료를 보며

난임센터 권욱현 교수

"인생 춤판 아이가 멋지게 춤 한 번 추다가 가는 거지 뭐"

제가 30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창원한마음병원의 창업자이신 하충식 의장님께서 수년 전 어느 술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고비마다 큰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경영자의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저는 경영자는 아니지만, 제 인생에서도 세월이 흐를수록 이 말씀이 깊이 와닿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 1년 반 뒤에 한마음병원에 입사하여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진료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코로나 발병으로 병원이 문을 닫아야 했던 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시험관아기 시술의 마지막 관문인 배아 이식을 해야 하는 두 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병원 문 앞에서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파견된 관리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방호복을 입은 상태에서 시술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두 명의 환자분이 모두 임신에 성공하여 출산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하충식 의장님께서 출산비 등 많은 혜택을 주셨습니다.

병원의 원훈은 '행복, 봉사, 노력, 사랑, 혁신'입니다.
봄가을 체육대회와 개원기념일 등산, 도시 인근의 야유회와 시내 공원에서 직원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보냈던 행복한 기억들이 가득합니다. 봄철에 진동 바닷가에서 스쿠버로 잡은 싱싱한 해산물과 물고기로 단합대회를 하고, 고성 연화산 옥천사 근처에서, 함양 마천 한신 계곡, 귀산 바닷가의 포도나무밭의 추억, 그리고 빠뜨릴 수 없는 비음산 진달래 피는 시기의 해마다 하는 등산과 뒤풀이 등 행복한 기억들로 넘쳐납니다.

우리 한마음병원은 30년간 한 해도 빠뜨리지 않고 창원 시내의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결손 가정 등의 아이들과 함께 대구 우방랜드, 창원 로봇랜드 등을 관람하며 운동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저도 행사에 종종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직원들은 병원 인근 도로를 청소하였지만, 저는 진료가 바쁘다는 핑계로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신참 전문의 시절에는 많이 부족했지만, 하 의장님의 도움으로 불임을 배우게 되었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며 진료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병원 의사들 모두 방일하지 않고 다들 노력하여 실력이 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직원들끼리의 배려와 존중의 정신이 병원의 모토입니다. 사랑이란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타인을 향한 위함이지만, 소극적 의미에서는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병원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작은 병원을 굴지의 큰 병원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신속하고도 단호한 결단이 필요할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병원은 유독 더해서 가끔은 손해를 보는 경우도 목격하였습니다. '용장 밑에 약졸 없다'라는 격언처럼 저도 나름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새로운 지식을 진료에 접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0년은 긴 세월이지만, 저에게는 지나간 일들이 오늘처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언제까지 산부인과 의사로서 진료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직장을 그만두게 될 그날까지는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친절하게 진료하며 병원 동료들과 잘 지내며 지내고 싶습니다.

2009년 9월 3일 진료를 보고 있는 권욱현 교수

2020.2.25 | 진료 재개 하루 만에 다시 병원 전체 폐쇄되다

쌀쌀한 날씨에 비가 내리는 2월 25일, 임시 폐쇄되었던 한마음병원은 운영을 재개하였다. 병원 직원들은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방진복과 마스크로 온몸을 무장하고 환자를 맞았다. 병원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주차장 입구와 정문 출입구에서는 체온 측정, 손 소독, 이름, 연락처, 여행력 등을 체크한 후에야 병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26일 한마음병원 직원이 세 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마음병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집중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한마음병원이 진료를 재개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전면 폐쇄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기준 시각은 26일 23시였다. 장기간의 격리에 돌입될 불안하고도 긴박한 순간이었다. 제발 추가 확진자가 없기를 바라던 임직원들은 좌절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2주간 병원에 모든 출입이 불가능해졌다. 경남 첫 코호트 격리 사례였다. 갑작스러운 통보였다. 막대한 재정적, 이미지 손실이 분명하였다. 한마음병원은 충분히 항의할 수 있었지만, 추가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호트 격리 결정을 곧바로 받아들였다. 2주 격리가 확정되었기에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였다. 우선 외래환자, 퇴원 예고자들을 병원에서 내보냈다. 그리고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 인원만 남기고 직원들도 내보냈다. 곧이어 병원 정문 앞으로 경찰들이 왔다.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막기 위한 경찰 교대 근무자들이었다. 서둘러 이 사태를 해결하고 남아있는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업무를 정리하였다. 발열과 호흡기 질환 증상이 없는 건강한 직원들만 일단 다시 들여보냈다.

한마음병원 입구에서 코로나19 검사기록을 확인하고 있는 의료진

숨돌릴 틈 없이 사태는 긴박하게 진행되었다. 당시 배규민 기획팀장은 병원 모든 직원에게 침착하게 긴급한 소식을 알렸다. 의료진을 포함한 임직원들에게 최소 2주 동안 병원 안에 있을 자원 근무자를 받는다고 알렸다. 최소 2주 격리이며, 추가 감염자 발생 시 얼마나 더 오래 격리될지는 모른다는 사실도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근거하여 전하였다. 병원에 남겨진 환자들을 챙기기 위해서는 의료진과 직원들이 꼭 필요하였다.

경력이 많은 간호사들이 먼저 자원하였다. 하지만 후배 지원자들이 즉시 말리며 자신이 먼저 남겠다며 자원하였다. 20대, 30대 젊은 간호사들이 여럿 지원하였다. 집에 돌볼 어린아이가 있는 동료들을 배려한 행동이었다. 행정부, 진료지원부 직원들도 연달아 자신이 병원에 남아있겠다고 선언하였다. 감염관리과, 소화기내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의료진 6명도 남겠다고 자원하였다. 기존에 진료하고 있던 입원 환자도 책임지고, 다른 환자들도 돌보겠다는 마음이었다. 결국, 입원 환자 83명, 보호자 19명, 직원 89명 등 190명이 병원에 남아 격리되었다.

어두운 병원 정문에는 짐 바구니를 든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였다. 병원에 남겨질 직원들의 가족들이었다. 2주간 격리를 위한 생필품을 챙겨온 것이었다. 가족들은 한마음병원 건물을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한참을 바라보았다. 병원 주위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 적막하였다.

입구를 통제하고 있는 한마음병원의 정문 상황

2020.01 | 지역사회, 격리된 한마음병원을 응원하다

다음날 2월 27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한마음병원에 방문하였다. 들어갈 수 없는 병원 입구쪽에서 병원 관계자와 남아있는 환자들을 격려하였다. 지역 단체들도 한마음병원을 응원하였다.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적십자 긴급 구호품 100세트를 지원하였다. 생활복(1벌), 생필품(수건, 칫솔, 베개, 면장갑, 내의, 양말, 화장지, 비누, 안대, 귀마개 등)으로 구성된 구호품이다. 총 100세트로 여성용 70세트와 남성용 30세트를 지원하였다. 루바스바이오제약이 천연성분 루바스치약과 민감성피부용 아토케이비누 등 약 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였다. 다음날에는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코로나 19 구호성금을 전달받았다.

이후 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의 김한술 본부장이 200명분의 수건과 휴지 등 생필품을 전달하였다. 함양지역 농업회사법인 ㈜우리가에서는 삼계탕과 갈비탕 각 300개씩 총 600개를 보내왔다. 창원 향토기업인 장모님치킨이 치킨 100인분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코로나19로 힘겨운 일을 겪은 한마음병원을 응원하기 위한 손길이 계속 이어졌다. 한마음병원 주위 상남동 일대에는 한마음병원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이 가득하였다.

2월 28일 루바스바이오제약

2월 27일 대한적십자사

2월 28일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월 29일 두산공작기계

2월 29일 범안과

3월 1일 남해군

3월 3일 남해군

3월 3일 배드민턴협회

3월 3일 허성무 창원시장 방문 및 마스크 3,000개 지원

3월 3일 홈케어 숨에어

3월 10일 수제 오! 브리또 및 그루브맨

3월 19일 조선대학교 총학생회

3월 24일 경상남도의사회

2020.02.27~03.08 | 격리된 한마음병원 내부, 코로나19와 전쟁하다

27일 새벽 간호관리자 그룹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본원은 27일 기준으로 총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이 되었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 집중되는 순간이었다. 코호트 격리 기간 동안, 총괄 의사인 이창민 기획조정실장은 병동 및 중환자실 환자를 담당하였고, 송두열 감염관리실장은 코로나19 검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감염관리실은 접촉자 조사 및 검사 결과 입력, 통계를 담당하였으며, 기획실과 협의하여 도청, 시청,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원활한 소통 및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 목적은 단 하나, 추가 감염자를 조기에 차단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간호현장은 불안해하는 환자들을 돌보며 고군분투하는 시간을 보냈다. 매일 2번 병원 전체를 소독하고, 매 순간 방역 상황을 점검하였다. 간호직군은 2교대로 근무했으며, 20시간 가까이 근무한 경우도 있었다. 같은 날 오전 9시, 밀접접촉 환자 및 직원 대상으로 코로나19 PCR이 시행되었고 직원 전원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다음날 28일 확진자 발생 부서 대상으로 전수 조사가 이루어졌고, 대상자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매화꽃 피는 향기로운 3월이 되었지만 본원 내부는 격렬한 하루하루를 보냈다. 3월 3일에는 자가 격리자 및 코호트 격리대상자 대상으로, 격리조치 해제 전 검사기관 주체에 대해 보건소와 협의가 있었다. 사전 내부 협의를 거쳐 본원 직원은 창원시보건소의 도움 없이 직접 검사를 진행하였다. 본원 선별진료소에서 처음 시도한 드라이브스루를 통해 검사 실시 유무와 결과 취합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이었다.

3월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 자가 격리 및 코호트 격리 대상자에 대한 격리 해제 전 전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이 검사에서 이미 자가격리 중인 수술실 근무자가 무증상 상태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해제 대비 검사 결과에 대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3월 6일, 코호트 격리 환자 81명, 보호자 19명, 직원 83명을 대상으로 격리 해제 대비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하였다. 격리해제의 조건은 결과가 전원 음성이어야 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 전원 음성이었다. 심장을 졸이고 있던 격리자들은 음성 판정 검사 결과를 받자 떨리는 목소리로 실시간 방송을 알리며 서로 축하하고 환호하였다. 코호트 격리 동안 한마음병원 임직원들은 퇴근이 없는 일상을 보냈다. 고충이 많았던 환자 밀접 부서인 간호부는 타 부서원의 노고를 헤아려 서로 근무를 자처하였다. 매일 약 13시간 가량의 근무 중에도 유머를 잃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주위를 감동하게 하였다. 또한 행정지원 부서 직원들도 평소 접하지 않았던 청소, 의료폐기물 처리, 물품 관리 등 새로운 업무를 기꺼이 도맡아 최선을 다하며 격리 기간을 이겨냈다.

링겔을 맞으면서도 업무를 수행한 임직원들

종일 방호복을 입고 근무한 의료진

2020.03~04 | 2주 만에 격리 해제, 코로나19를 이겨내다

3월 8일 오전 7시 30분 한마음병원의 정문이 열렸다. 퇴원하는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집으로 가기 위해 병원 밖으로 나왔다. 2주 만의 외출이었다. 하충식 설립자는 “격리 기간에 믿고 따라준 직원과 의료진, 환자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라며 “수많은 플랜카드와 물품 등으로 응원해 준 시민을 생각해서라도 이 사태가 종식되면 제대로 된 건강 지킴이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병원에 남아있던 이창민 기획조정실장은 “환자분들이 잘 따라주시고 간호사님을 포함해 잘 견뎌주셔서 무난하게 잘 이겨낸 것 같다”라며 감사를 전하였다. 이날 한마음병원은 병원 건물 앞 인도에서 마스크를 나누었다. 하충식 설립자가 마스크 150개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직접 배부하였다. 당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 마스크를 받은 시민들은 기뻐하였다.

11일 한마음병원이 재개원하였다. 모든 과가 진료를 시작하였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허성무 창원시장이 재개원을 격려하려 병원에 방문하였다. 개원 1시간 만에 100명 이상이 진료를 받았다. 한마음병원이 재개원하기만을 기다리던 지역민들이 많았다. 한마음병원의 직원들은 오랜만에 많은 내원객을 응대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다. 오후 5시까지 수납을 완료한 건이 871건, 입원환자 41명으로 하루만에 900여명이 넘는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하였다.

재개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한마음병원에 코로나19와 코호트 격리의 충격이 사라지지 않고 이어졌다. 한마음병원은 빠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외래환자가 평소보다 60% 이상이 줄었다. 기존 평균 외래환자 방문 수는 2천여 명이었는데 500~600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병동 400병상 중 230병상은 비어있었다. 또 다른 골칫거리도 발생하였다. 병원 내에 비치해 둔 마스크를 몇십 장씩 훔쳐 가는 시민들도 생겼다. 힘겨운 상황이었지만, 한마음병원은 병원 정상화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였다. 4월 2일엔 경남 하동군과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를 협약하였다. 다음날에는 경남 남해군과도 협약을 체결하였다.

4월 7일에는 한마음병원 경남지역응급의료센터 내에 음압격리실 5개를 설치 가동하였다. 선별진료소도 확장 운영하였다. 코로나 위기를 다루기 위해 노력한 결과, 4월 18일에는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었다. 불과 한 달 전에는 코로나 발병으로 인한 코호트 격리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었는데, 한마음병원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그 위기를 딛고 더욱 안전하며 믿을 수 있는 병원으로 성장한 것이다. 두 달 뒤에는 한마음병원 내부 엘리베이터에 자동화 살균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설치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는 노력을 이어갔다.

2020년 3월 8일 오전 7시 30분 한마음병원 재개원

07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한마음! 우리만이 할 수 있다! 코로나19 코호트격리부터 재개까지

행정부원장 최상정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처음 확인된 사스(SARS-CoV-2)의 변종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중국 외 세계 각국에서 사망자와 확진자가 발생하며 팬데믹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1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였고 이로 인해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두려움을 떨고 있던 2020년 2월 어느 날, 경남 도내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며 잇따라 창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우리 한마음병원도 비켜 갈 수 없었습니다.

2020년 2월 22일 본원 의료진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부분 폐쇄 이후 26일 의료진의 추가 확진으로 창원시 보건소에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 방안 마련으로 본원을 방문하였고, 경영진과 의료진. 직원들 모두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현 하충식 의장님께서 더 많은 지역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2020년 2월 26일 12일간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년간 일을 하면서 '2002년 발생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9년 신종플루', '2012년 메르스(중동 호흡기증후군)', '2013년 조류 인플루엔자' 등 많은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도 본원은 무사히 잘 극복하였지만, 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직원들에게도 더욱더 공포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역시 한마음이었습니다. 의료진, 직원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환자들과 동료들을 위해 서로 격리 생활을 지원하며 남겠다고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던 잊지 못할 그날.

이렇게 12일간 입원 환자를 포함 의료진. 직원 190여 명이 격리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보다 힘들었을 환자분들의 건강만을 생각하며 하루에 충분한 수면도 취하지 못한 채 치료에 임한 의사 6명, 간호사 50명과 매일 음식 제공, 세탁물 관리, 의료폐기물 처리 등의 적극적인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20여 명의 행정직원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외로움도 잠시 직원 가족분들, 많은 시민들, 각 지역 및 기관에서 끊이질 않는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와 따뜻한 손길에 한마음 직원들은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기회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20년 3월 8일 치료가 필요한 환자 11명, 그 외 환자 64명, 그리고 직원과 의료진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으며 모두에게 짧게만은 느껴지지 않았던 12일간의 코호트 격리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격리 해제가 되던 날도 응원과 격려,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맞이해 주신 직원 동료들, 직원 가족들, 시민들로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12일간의 코호트 격리가 끝난 후 방역 작업을 마친 뒤 무엇보다 지역 시민들의 안정을 위해 비 오는 날 직접 비를 맞으며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시던 하충식 의장님을 비롯해 한마음의 의료진, 직원들은 이렇게 또 열심히 재개하며, 2021년 3월 신축이전과 최단 시간 코로나 선별검사결과, 최다인원 코로나 선별검사, 최초 하이브리드스루 선별진료 시행이라는 '코로나 검사 성지'라는 타이틀까지 생기며 한마음 의료원의 역사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한마음! 우리만이 할 수 있다!! 한마음이 아니면 누구나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도전 정신의 한마음.
위기에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더 단단해지는 한마음.
30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창원한마음병원의 30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뜻깊은 한마음 역사에 함께 하겠습니다.

코로나 당시 받은 독려가 적힌 기념패

2020.04~06 | 신축 창원한마음병원 완공을 위하여 결집하다

코로나 사태로 정신없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창원중앙역세권의 신축 창원한마음병원 공사는 단계별로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었다. 4월 28일에는 신축 창원한마음병원 개원추진단을 발족하였다. 신축 공사 완료 즉시 개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개원추진단은 매일 상남동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림동을 왕복하며 치열한 나날을 보냈다. 그리고 신축병원 정식명칭을 '창원한마음병원'으로 명명하였다. 신축 개원 준비와 동시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도 이어갔다.

5월 24일에는 난임 시술 의료기관 1등급을 받았다.

6월 10일에는 신축 창원한마음병원 콘크리트 골조 완성을 알리는 상량식과 무재해를 염원하는 안전기원제를 개최하였다. 신축 창원한마음병원은 한강 이남에서 단일 병원 건물로는 가장 큰 병원이기에 단계마다 도전이었다. 하충식·최경화 설립자와 임직원들, 건설 관계자들은 남은 건설 과정도 무사히 진행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랐다. 허성무 창원시장도 공사 현장에 방문하였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점검하였고 건설 현장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한마음병원에 "지금까지 지역민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된 것처럼, 앞으로 신축병원도 지역 거점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하였다.

6월 11일에는 대장암 치료 우수 병원 1등급을 받았다.

창원한마음병원 신축공사 상량식 및 안전기원제 테이프 커팅 현장

창원한마음병원 개원추진단

신축공사 상량식 및 안전기원제 당일 최경화 설립자

2020.08~12 | 신축 개원 준비 및 신규 경영진 영입하다

신축병원 개원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곧 병원의 규모가 급격히 커지는 상황이었다. 한마음병원이 단단하게 성장하기 위해선 실력 있는 병원경영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출신 김영훈 박사를 경영원장으로 공식 임명하였다. 당시 김영훈 경영원장은 병원경영분야에서 손꼽는 전문가로, 이미 한마음병원에 꾸준히 컨설팅을 해오며 신축 창원한마음병원 개원 준비를 돕고 있던 오래된 인연이었다.

8월 11일 한마음병원은 창원시 지역건축사회 지정병원 협약체결을 체결하였다.

9월 1일에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기관평가 3주기 인증을 획득하였다. 코로나 사태와 신축병원 건설을 추진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마음병원이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단한 성과였다.

16일에는 한마음병원이 경남한의사회와 양한방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환자들을 위해 과감하게 다양한 학문과 치료법을 연계 연구하였다.

10월 27일 가야대, 11월 3일 창원대, 11월 16일 경상대, 11월 23일 경남대 이렇게 지역 4개 대학과 협약을 맺고 총 18억의 장학금을 기탁하였다. 창원지역의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기부였다.

12월 23일에는 수술실 관리 1등급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2020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에는 한마음병원 질병관리본부 선별진료소를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전환 운영하며 2020년을 마무리하였다.

김영훈 경영원장 임명장

2020년 8월 1일 김영훈 경영원장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임명장 수여식

2020년 10월 27일 가야대학교와 협약서 체결

08 한마음과의 인연

경영원장 김영훈

한마음과의 인연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9년 11월 5일에 대한병원협회 설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병원경영혁신 방향과 마케팅 활성화 전략'에 대해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뒤 한마음병원(현. 상남한마음병원)에서 특강을 해 달라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서울에서 창원이라는 거리가 그리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생각이었고, KTX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가운전을 할 엄두도 나지 않는 먼 거리라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2009년 11월 25일, 태어나 처음으로 창원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택시로 한마음병원으로 이동 중 기사분에게 한마음병원이 어떤 병원이냐고 물어보니,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병원이라 하였고, 하충식 의장님을 높이 평가하는 지역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하여 처음 대면한 하충식 의장님을 뵙고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시, 저의 관점에서는 한마음병원이 지방에 있는 조그만 중소병원이라는 인식이 절대적이었는데, 이 병원을 이끌고 계신 하충식 의장님은 병원의 규모에 어울리지 않는 높은 꿈에 도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2010년 9개월 동안 월 1회(3월~11월) 현. 상남한마음병원에서 관리자연수교육을 실시하였고, 2011년에는 '한마음병원 신축 및 증축건립에 따른 의료계획' 용역연구를 수행한 바 있었습니다. 꿈을 현실화하고자 하시는 하충식 의장님의 철학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또 본업으로 돌아가, 전 직장(을지대학교, 을지의료원)에서 오늘과 같은 인연이 있을 것이라는 단 한치의 예측도 없이 충실히 대학에서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을지재단 산하의 병원 보직을 겸직으로 수행하며 충실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 병원경영 학술활동과 컨설팅 활동도 왕성하게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의 기획조정처장(의료경영학과 교수)으로서 의정부을지대학병원 건립추진본부 운영기획단장을 겸직으로 일하고 있을 때, 한마음에서 새병원(현. 창원한마음병원)을 건립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09년 첫 만남에서 하충식 의장님으로부터 들었던 모든 계획이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2019년에 한마음으로부터 관리자교육을 요청받아 10월부터 12월 기간에 5회에 걸쳐 한마음병원 관리자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고, 이때 최경화 이사장님(당시 의료원장)을 처음 뵈었습니다. 하충식 의장님께 느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셨고, 매회 강의 때마다 하충식 의장님과 최경화 이사장님이 맨 앞줄에 나란히 앉으셔서 강의를 들으시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항상 KTX역까지 아반테를 자가운전하시며 데려다주시는 하충식 의장님이 그지 없이 감사하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그 당시 저는 서울에서 고급 대형차를 타고 다녔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관리자교육이 모두 끝날 즈음에, 최경화 이사장님께서 "한마음을 좀 도와주세요"라는 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순간과 말씀은 짧았지만, 저에게 전해진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그해 12월에 저에게 큰 위기가 왔습니다. 원주에서 혼자 생활하시던 어머니께서 생사(生死)의 고비를 넘나드시는 중환의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셨던 의료진도 내게 희망을 주지 못하다 보니, 모든 가족들과 친구들이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까지 드리는 날들로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 자신의 지난 30년 근무경력과 모든 미래를 내려놓고, 어머니를 모시고 남은 삶을 지내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년 5년 반을 남기고 자진 사직을 하게 되었고, 명예교수의 신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뇌가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지인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사랑하는 가족의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직을 결심하고 그 순간의 찰나가 모두 지나가기도 전에, 몇몇 곳에서 새로운 제안과 컨설팅 의뢰가 들어왔고 한마음과도 컨설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때 또 한 번 고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2009년의 첫 인연에서부터 십수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따뜻한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살아가시면서 남들에게는 한없이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충식 의장님께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예의를 갖추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저 스스로가 그렇지 못하기에, 이미 저도 모르게 하충식 의장님의 나눔과 봉사의 삶을 존경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이 2020년 1월 15일 컨설팅(주 1회 현장방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컨설팅 기간 중이었던 2020년 5월에 하창훈 의료원장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한마음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이 종료되는 2020년 8월 한마음국제의료재단 경영원장으로 임명되어 5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당시 어머니를 돌봐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주 1일밖에 창원 현장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저를 이해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신 하충식 의장님과 최경화 이사장님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또한 지역 연고도 없는 저를 항상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한마음의료원 모든 임직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있는 가족과 주 1회 만나고 있음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지만, 어머니가 생사의 고비를 극복하시고 원주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고 계신 것으로 저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더욱이 한마음에서 새롭게 시작한 제2의 직장생활과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고 있기에 기쁜 일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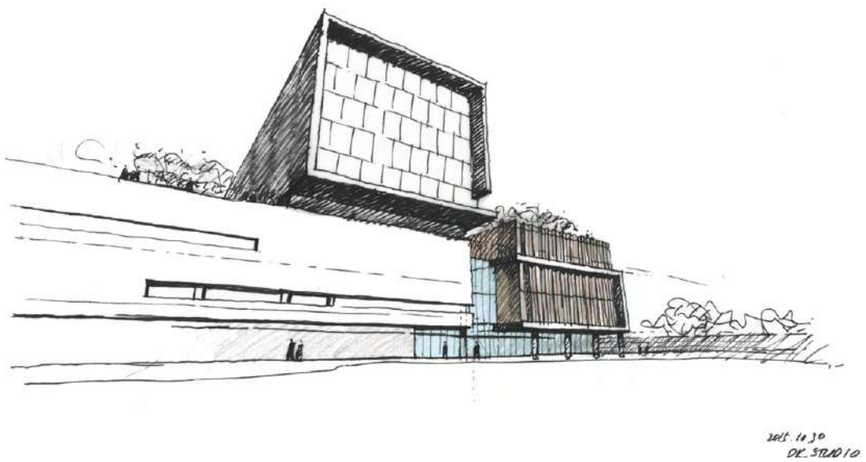
한마음과 이루어진 2009년의 첫 인연과 2020년의 두 번째 인연은 말이나 글로 다 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 운명적 인연에 감사하며, 오늘도 한마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임직원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리고 5년 전에 탁월한 선택을 한 저 자신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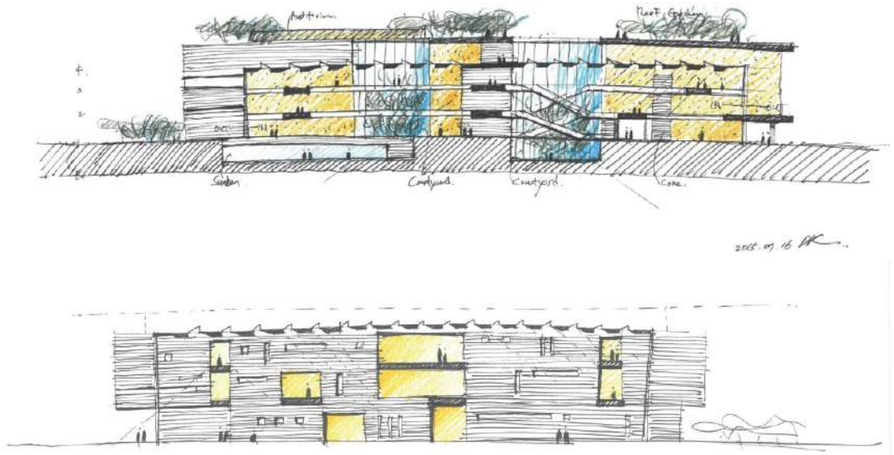
2010년 6월 18일 한마음병원에서 특강을 진행 중인 김영훈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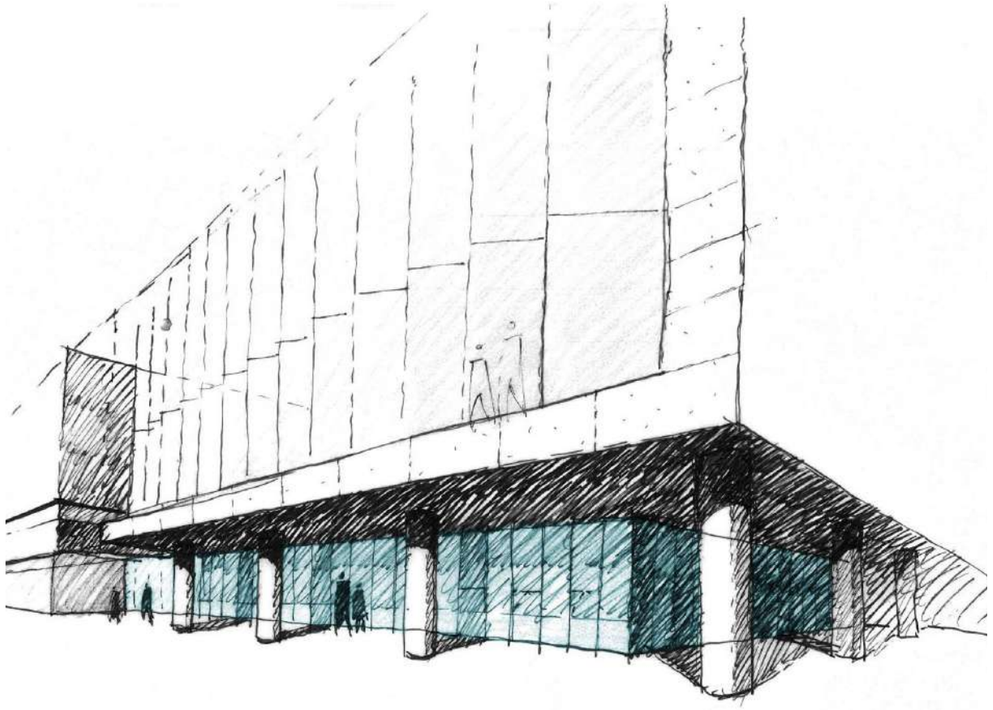
2023년 3월 9일 MBA 강의을 진행 중인 김영훈 경영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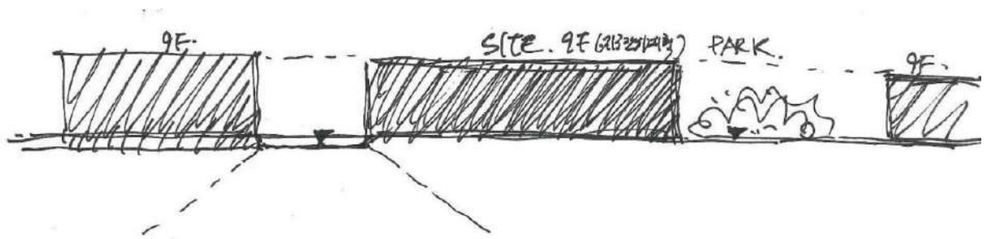
2014~2020
창원중앙역 신축 창원한마음병원
건설 과정 사진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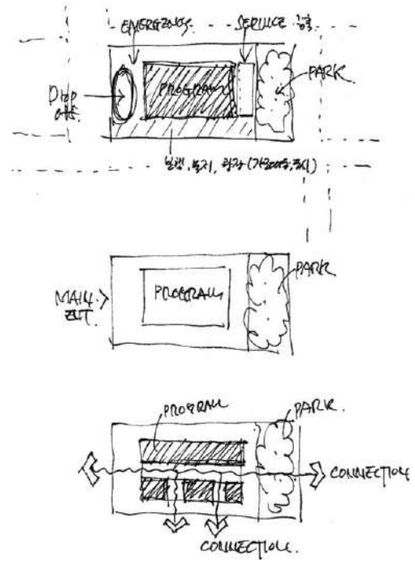
창원한마음병원 건설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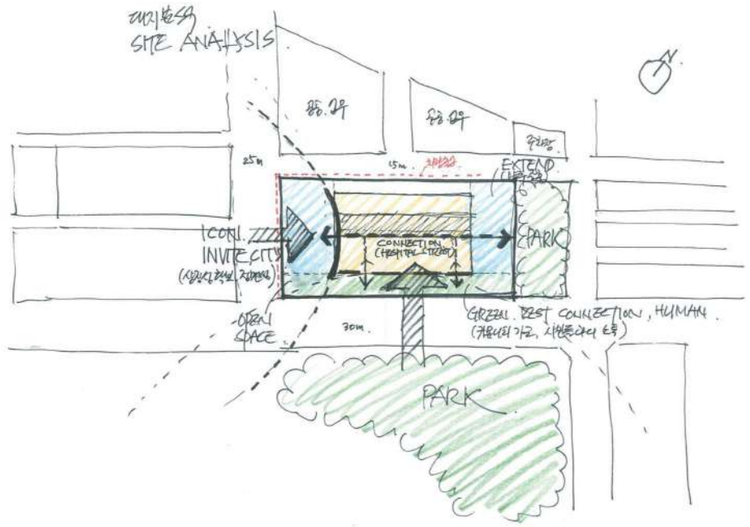







9F.
SITE. 9F
PARK.
9F.


SERVICE
PARK.
PROGRAM
MAIN ENT.
PROGRAM
PARK.
PROGRAM
PARK.
CONNECTION
CONNECTION.


SITE ANALYSIS
25m
15m
EXTEND
CONN. INVITE CITY
CONNECTION
PARK
OPEN SPACE
30m
GREEN. REST CONNECTION, HUMAN.
PARK

01 2018년 12월

02 2019년 02월

03 2019년 04월

04 2019년 06월

05 2019년 08월

06 2019년 10월

07 2019년 12월

08 2020년 02월

09 2020년 04월

10 2020년 06월

11 2020년 08월

12 2020년 10월

13 2020년 12월

14 2021년 01월

완공된 창원한마음병원 외부 전경

09 현신건축과 함께 성장한 한마음병원

현신건축 안정웅 사장

첫 만남

아마도 제 기억이 맞다면 한마음병원이 처음 개원을 한 봉곡동 인근 1999년도 여름 어느 식당에서 식사하는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 당시 저는 건축사를 취득한 지 얼마 안 된 초보였고, 고인이 되신 김희수 사장님과 함께 내려가서 처음으로 하충식 의장님을 뵙고 현신건축이 신축하려는 상남한마음병원 설계자로 지정된 그날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하는 도중에, 하충식 의장님이 현신건축 김희수 사장님에게 공손히 예우를 갖춰 술을 따르는 모습은 제 삶 전체를 지배한 가장 신선하고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어느 발주처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저는 봉곡동에 있는 한마음병원을 보고 나서 신축하려는 상남한마음병원이 하충식 의장님의 꿈의 끝이 아니겠는가 생각했었습니다.

에피소드1

상남한마음병원을 설계과정에서 하 의장님의 주문하신 대로 상징적이고 새로운 병원을 설계하기 위해서 처음에 타원형 타입의 병원을 만들었으나, 하 의장님이 그 계획안에 대한 브리핑을 듣기도 전에 안을 펼쳐보자마자 브리핑자료를 내려놓으면서 "내가 언제 이런 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나, 이렇게 되면 공간을 어찌 쓸 수 있는가?"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상남한마음병원이 현재의 모습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에피소드2

상남한마음병원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서울에서 창원으로 내려가게 되면 늘 인근 식당에 예약을 해주시면서 점심식사를 하고 들어오라는 배려가 지금까지 제가 창원한마음병원에 관련한 일이라면 최우선으로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장 발전하는 한마음병원

하 의장님의 꿈이 상남한마음병원으로 끝날 것이라는 저의 예상과 달리 상남한마음병원(지하2층, 지상9층, 257병상)을 2001년에 준공을 하고 5년 정도 지나서 다시 증축에 대한 설계를 하고 2008년도에 준공한 상남한마음병원은 지하 4층 지상 9층으로 164병상이 추가되면서 421병상의 종합병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창원한마음병원 새 병원은 당초 상남한마음병원 부지와 인접한 창원시 주차장용지에 새 병원을 계획하였으나, 부지매입이 여의치 않고, 기존 병원과 연계성 취약 및 새 병원으로서 부지의 협소 등 이유로 창원중앙역 인근 부지로 새 병원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창원한마음병원은 지하 4층에 지상 10층, 연면적 109,440㎡, 병상수 1,008병상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가장 규모가 큰 병원으로 거듭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새 병원인 창원한마음병원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 1층부터 3층까지 오픈되어 있고, 길이가 110미터에 이르고, 폭이 11~21미터가 되는 호스피탈 스트리트이며, 이는 국내에서 가장 크고 잘 조성된 의료시설 실내 공간입니다.

에피소드3

창원한마음병원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하에서 암석이 나와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설계자로서 "암석은 오랫동안 땅의 기운이 응축된 것으로 캐서 보관하고 있다가 향후 다산과 변화의 의미를 갖고 있는 두꺼비 조각상으로 만들어 전시하면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제안을 드렸고, 현재 그 암석이 병원 전면 진입구에 설치된 두꺼비 조각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를 인정하는 한마음병원

창원한마음병원과 25년을 함께 일해오면서 느낀 것은 하충식 의장님은 전문가를 인정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인다는것입니다.

하 의장님께서는 창원한마음병원을 건립하기 전에 몇 차례 공사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계자 및 감리자에게 창원한마음병원의 공사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내가 설계에 대해 뭘 알겠는가?"라고 하시면서 설계는 설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은 감리단장의 의견이 우선이라고 전문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책임감도 커져 우리의 입장에서도 소홀히 할 수 없고 더욱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한마음병원

창원한마음병원과 오랫동안 함께 해 오면서 느낀 것은 하 의장님의 사회공헌에 대한 의지로 지금까지 사회 곳곳에 기부와 기여를 계속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열정이 식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과대학을 신설하고자 하는 계획, 그리고 더 큰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 국내를 넘어서 동남아 그리고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꿈은 후대로까지 이어져 계속되리라 기대하고 지금까지처럼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신건축이 함께하겠습니다.

에피소드1 첫 한마음병원 투시도

에피소드3 두꺼비 조각상

CHAPTER.4

2021 ~ 현 재

끝없는 도전,
대규모 의료재단으로 도약하다

2021.03.01 | 신축 창원한마음병원 이전 개원 및 제4대 병원장을 임명하다

3월 1일 창원중앙역세권 신축 창원한마음병원이 개원하였다. 이날 기존 상남동 한마음병원에 있던 모든 환자들을 신축병원으로 이송했고 즉시 진료를 개시하였다. 신축 창원한마음병원은 109,440㎡(약 3만7,000평) 규모의 지하 4층, 지상 10층, 1,008병상으로 웅장한 모습을 자랑하며 한강 이남 병원 중 단일 건물로는 최대 크기로 주목받았다. 30개 진료과, 25개 센터로 진료를 시작하였다. 하충식·최경화 설립자와 장기 근속 임직원들은 감격하였다. 1994년 병원 내 작은 산부인과 시절부터 꿈꾸던 1,000병상 규모의 대형병원을 만들자던 목표를 27년 만에 실현한 것이다.

병원을 방문한 내원객들은 주변 환경에도 감탄하였다. 병원 바로 앞에는 600m 길이의 둘레길이 호수를 감싸고 있는 '물향기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이는 병원 설계와 함께 만들어진 인공호수 공원으로, 병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치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주변에는 높다란 산이 펼쳐져 있어 호수와 산의 고요하고 아름다운 정취를 느낄 수 있었다. 병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둘레길을 걸으며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병원 내부에도 공원을 조성하였다. 공원은 하늘정원, 감성정원, 조각공원 총 3곳으로 환자 및 보호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신축 창원한마음병원 외부 전경

내원객의 동선을 미리 치밀하게 고려하여 설계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었다. 주요 센터 내에 기본검사실과 진료실을 함께 배치해, 환자들이 이곳저곳 헤매지 않고 진료와 치료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뇌센터와 심혈관센터는 뇌심혈관중재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수술실로 만들었다. 창원지역 최초였다. 당시는 여전히 코로나19의 위기감 한가운데였다. 때문에 코로나19를 비롯한 모든 감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4개의 격리실과(음압격리실 포함) 6개의 병동 격리실을 준비하였다. 고압산소치료실도 마련하였다. 이날, 창원한마음병원 신임 병원장으로 박인성 교수가 취임하였다. 서울대 의과대 졸업, 경상대 교육연구실장과 기획조정실장, 경상대 신경외과 교수를 지낸 지역 의료계 저명인사였다. 창원한마음병원의 중증질환 치료의 수준을 더욱 끌어올려, 지역민들이 먼 곳으로 진료를 보러 가지 않을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경남도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뇌·심장·중증외상·암 분야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경남도민이 암 치료를 위해 힘들게 먼 지역까지 가는 일은 옛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창원한마음병원은 100년을 내다보는 병원이 될 것입니다. 지역 친화적인 병원이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박인성 제4대 병원장

2021년 3월 2일 신축 창원한마음병원 1층에서 진행한 개원기념 테이프 커팅식

2021.04 | 지역민을 위해 고압산소치료실을 구축하다

4월 8일 창원한마음병원은 창원지역 내 최초로 최신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를 도입해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번에 도입된 고압산소치료 장비는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은 사각형 챔버 타입으로, 국내 최초의 도입 사례였다. 고압산소치료가 선진국에서는 이미 전면 사각 챔버 보급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 장비는 기압차로 인한 귀통증을 예방하는 최신 기술(A.B.T. RIDE)이 적용되어 있다. 고압산소치료는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당뇨병성 족부궤양, 화상, 돌발성 난청, 버거씨병, 유독 화학물질 흡입, 일산화탄소 중독, 잠수병 등에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 경남지역은 유독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이 많아 고압산소치료가 필요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이전까지 제대로 된 고압산소치료실이 구축된 병원은 없었고, 동부 및 중부 경남지역 주민들은 멀리 원정 진료를 가야 했다. 고압산소치료실 구축으로 창원한마음병원에서는 격리환자를 위한 1인용 고압산소치료기를 포함해 총 14명까지 동시에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고압산소치료실 내부

2021년 5월 7일 고압산소치료실 개소식

2021.04.23 | 세계 최초, 장애인 직고용 오케스트라 창단

4월 23일 창원한마음병원이 장애인 직고용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였다. 창원한마음병원은 예술인 직무를 신설하고 기존 직원들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적용하는 정규직으로 임용하였다. 이는 국내 최초의 기업형 장애인 오케스트라단으로서, 큰 의의가 있는 사례로 평가받았다. 하충식 설립자는 "일자리는 단순히 생계유지 수단이 아니다.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삶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것이다. 창원한마음병원은 장애예술인들의 소득보장과 자활 기회를 제공해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하였다. 단원 중 한 명인 김지윤(23·클라리넷) 씨는 월급을 받아 적금을 넣고 아프리카 식수 지원 기부를 시작하였다. 오케스트라 단원 박종호(23·플루트) 씨의 어머니 김희숙(50) 씨는 "아이가 장애를 딛고 정직원이 돼 가슴이 뭉클하다"라며 "아프신 분들에게 희망의 연주를 하는 아들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하였다.

단원들은 평소에 연주를 연습하고,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병원 1층 로비에서 공연을 한다. 첫 공연날, 단원들은 약간 긴장한 듯 보였지만 병원 안의 관객들은 미소로 기다렸다. 연주가 시작되자, 아름다운 음악이 한마음병원 로비를 가득 메웠고 병원 방문객, 환자, 보호자들은 큰 박수로 화답하며 단원들을 격려하였다. 이후 7월 1일에는 창원한마음병원 1층 야외에서 제1회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 창단기념 음악회를 진행하였으며 매년 성장하여 현재 25명이 활동중이다.

2021년 6월 30일 창원한마음병원 1층 로비, 연주를 마친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 단원들

2024년 7월 3일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 창단 3주년 기념 연주회

2021.04.30 | 창원한마음병원 신축 준공식을 개최하다

4월 30일 창원한마음병원은 신축 준공식을 성대히 개최하였다. 신규 직원 추가 교육과 잔여 조경공사를 포함한 모든 남아있던 작업을 마무리하였고 전체 치료 시설을 정상 가동하였다. 이날 준공식에는 허성무 창원시장(현. 국회의원), 박완수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현. 경상남도지사), 김종량 한양대 이사장을 비롯한 외빈과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축하의 뜻을 전하였다. 행사 중, 1층 로비에서는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 신축 준공식을 더 빛나게 하였다.

하충식 설립자는 “선진 의술의 해외 전파와 의료관광을 통해 창원을 ‘메디컬 클러스터’ 도시로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아시아 의료 허브이자 중심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며, 1,200여 명의 임직원 모두가 지역에 수준 높은 의술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2021년 4월 30일 창원한마음병원 신축 준공식

신축 창원한마음병원 준공 공로자 표창

신축 준공식날 1층 로비에서 열린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 연주회

2021년 4월 30일 창원한마음병원 신축 준공식 테이프 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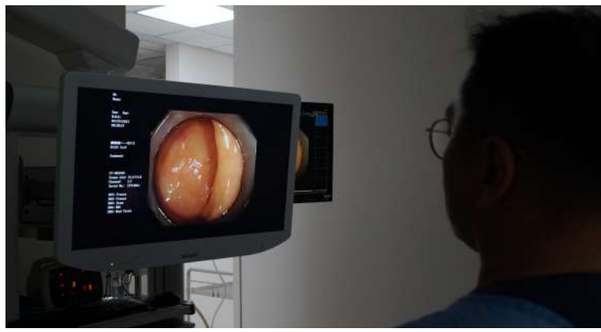
2021.06.08 | 이전 개원 100일, 가속도 붙은 성장

6월 5일 서울아산병원 협력병원 현판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6월 8일 신축 창원한마음병원이 이전 개원한 지 100일이 되었다. 임직원들은 새로 개원한 병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3월 개원 시 7개 병동(91, 92, 81, 71, 72, 61, 62)을 오픈했고 5월 말, 병상 가동률이 증가하여 6월에 51병동을 추가로 준비하였다. 중장기 TF팀(경영진 및 위원 총 17명)을 구성해 병원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간호부에서는 간호사의 이직률 감소, 신입 간호사를 위한 교육 및 간호업무 표준화를 준비하였다. 기존 간호사의 업무 가중과 신입직원 업무 부적응 예방을 위한 배치 전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간호등급(환자 1인당 간호사 수) 1등급을 유지하였다. 또한, 전문진료센터(핵의학, 방사선종양, 로봇수술)와 인공신장센터를 본격적으로 알리며 활성화하였다.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PCR 역량강화, 검사장비 2대 보강, 평일 검사 확대, 공휴일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협력병원도 98개소로 늘어났다. 2020년에 획득했던 3주기 의료기관 인증은 병원을 이전하면서 수시평가 대상이 되어 10월에 1박 2일간의 수시평가를 받기 위해 임직원들은 개선 요청 17개 항목과 필수항목을 철저히 준비하였다. 환자의 편리한 병원 이용을 위하여 한마음병원 전용 어플리케이션과 알림톡 결제를 직접 설치해 주며 안내하였다. 원내 환자들을 위하여 미술작품들을 선별하여 설치하기도 하였다. 기존 상남동 시절보다 병원 규모가 훨씬 커졌기에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학습하고 적용하며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갔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100일 동안 응급환자 포함 외래환자 23만 2,446명이 창원한마음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뇌·심혈관센터 진료는 15,641명, 뇌심혈관중재시술 건수는 360례로 뇌졸중집중치료실 가동률 90%를 달성하였다. 로봇, 복강경 등 수술 건수는 총 2,828례였다. 119 응급 이송 건수는 1,323건, 민간구급차 이송 건수를 더하면 3,000건가량 되었다. 4월 8일에 도입한 고압산소치료기로 치료받은 환자는 576명으로 집계되었다. 일반병상 가동률도 92.2%로 올라왔다. 각 부서의 노력으로 환자를 위한 서비스 및 프로세스 개선이 이루어지며 쉼 없이 전진하였다.

2021년 6월 5일 창원한마음병원 1층 정문 앞, 서울아산병원 협력병원 현판식

2021년 3월 22일 로봇수술 현장


2021년 3월 25일 내시경 검사 시행 중인 이석우 교수

2021년 5월 27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주간 CPR 경연대회

2021년 5월 27일 경영진 의료서비스 개선 라운딩

2021.06.12 | 제1회 조선대학교 동창회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다

6월 12일 창원한마음병원 확장 이전 개원기념 제1회 조선대학교 동창회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의료계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동문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으며,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창원 희연병원 박동현 명예병원장, 조선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소금영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창원한마음병원 문현식 관절센터장, 조선대병원 감염내과 서준원 교수, 순환기내과 정중화 교수, 신경외과 김석원 교수, 외과 최남규 교수, 피부과 김충재 교수 등 저명한 의료진들이 참석하였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이 모여 진행하였고, 온라인으로 학술대회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조선대학교병원 감염내과 서준원 교수 '코로나19 Update', 순환기내과 정중화 교수 '고혈압의 최신지견', 신경외과 김석원 교수 '개원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척추질환의 이해' 순으로 발표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창원한마음병원 문현식 관절센터장 '골다공증 최신지견', 조선대학교병원 외과 최남규 교수 '이식과 건강한 생활', 피부과 김충재 교수 '외래에서 접할 수 있는 흔한 피부과 질환' 순으로 발표하였다. 조선대학교 민영돈 총장은 학술대회 종료 후 "이 학술대회를 통해 의학의 최신 지견을 나누고, 참석한 모든 의료인들이 더 나은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였다.

학술대회 개최 소감을 전하고 있는 하충식 설립자

온라인 학술대회 현장

2021년 6월 12일 제1회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온라인 학술대회

2021.06~08 | 적정성 평가 1등급을 획득하며 나아가다

6월 28일 창원한마음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19년 위암·유방암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이 평가는 2019년 한 해 동안 위암 및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은 만 18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위암에 대한 평가는 전국 208개 의료기관, 유방암 평가는 175개 의료기관이 포함되었다. 위암 평가 항목으로는 전문인력 구성 여부, 내시경 절제술 치료내용 기록 충실률, 위절제술 후 수술기록 충실률, 국소 림프절 절제 및 검사율,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 실시율 등으로 이루어졌다. 유방암 평가 항목으로는 전문인력 구성 여부, 권고 보조항암화학요법 시행률, 표적치료 시행률, 유방전절제술 후 방사선치료 시행률 등을 평가받았다.

7월 19일에는 4차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하였다.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 객담도말·배양검사 처방율, 병원 도착 8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율 등의 지표를 검사받았다. 이 성과는 4회 연속 1등급을 획득한 결과로, 이는 지역 내 중증질환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지속해서 의료 환경을 개선해 온 노력의 결실이었다. 특히 여러 진료과가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뛰어난 치료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6월 30일에는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연구 간담회를 통해 의과대학 유치 명분 강화, 연구, 논문 게재 증진, IRB 설치 등 본원 연구활동 지원과 다양한 연구활동, 논문 제작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8월 18일에는 비어있는 상남동 한마음병원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기존 도에서는 코로나19 무증상 및 경증 환자들을 안전하게 격리하여 치료하기 위하여 도내 대학 기숙사를 활용했지만, 대학교 개강을 앞두고 계약이 만료되어 입소 중인 환자들을 다른 시설로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창원한마음병원은 도민들을 위해 비어있던 상남동 한마음병원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신속하게 생활치료센터 200개 병상을 개소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주 경상대학교 기숙사 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중이던 62명의 환자가 안전하게 상남동 한마음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위 내시경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소화기내과 이창민 교수

2021.09.08 | 초정밀 방사선 암 치료기를 가동하다

9월 1일 창원한마음병원 방사선종양센터가 진료를 시작하였다. 9월 8일에는 방사선종양센터에서 초정밀 방사선 암 치료기 Versa HD 도입 및 가동식을 열었다. 이날 가동식에는 하충식 설립자, 최경화 설립자, 박인성 병원장, 방사선종양센터 정미주 교수 등 병원 내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새로운 치료기의 출범을 축하하였다. Versa HD는 최신식 실시간 영상추적 방사선 암 치료기로, 복잡한 형태의 암이 정상 조직과 정확하게 일치할 때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이 장비는 세기 조절 방사선치료(IMRT), 영상추적 방사선치료(IGRT), 체부정위 방사선치료(SBRT), 뇌정위방사선수술(SRS) 등 다양한 치료 기법을 지원하여, 환자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과감한 최신식 장비 도입은 경남도민들이 암 치료를 위해 원정 진료를 떠나야 했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방사선종양센터 정미주 교수는 “최신 선형가속기 가동과 함께 암 환자 다학제 진료를 통해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여 암 환자 진료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하였다. 하충식 설립자는 “지역 내 암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방사선 치료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그동안 경남도민들이 겪었던 원정 진료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된 첨단 치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가동중인 Versa H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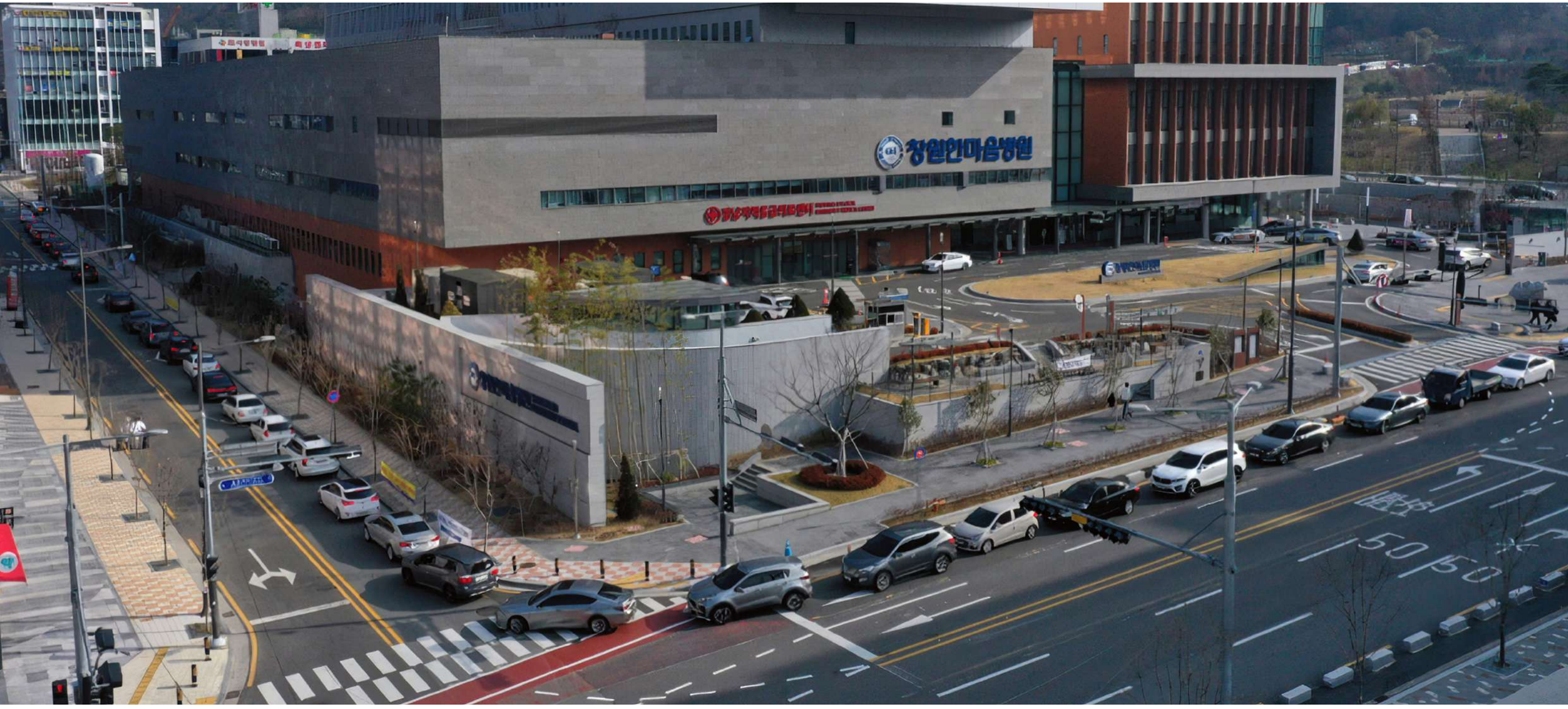
2021년 9월 8일 초정밀 방사선 암 치료기 Versa HD 가동식

2021.09.27 | 코로나19 하이브리드스루로 전국에 이름을 알리다

9월 27일 창원한마음병원은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시작하였다. 검사를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여 지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도였다. 기존에 운영하던 선별진료소도 함께 유지하여, 걸어서 진료받을 환자와 차량을 이용해 진료받을 환자를 구분하였다. 이렇게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를 결합해 ‘하이브리드스루’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였다. 하충식 설립자의 아이디어였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검사 대상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문진, 접수, 진료, 수납, 검사 등 모든 과정을 받을 수 있다.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 위험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검사 대기 시간은 크게 개선되었고, 환자들이 검사 결과를 약 3~4시간 후에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검사장비에서 결과가 나오자마자 자동으로 검사받은 환자에게 문자로 결과가 전송되는 시스템도 자체적으로 구축하였다. 진료소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되며, 이 시간 동안 많은 지역 주민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하충식 설립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감염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 병원은 지난해 3월에 드라이브스루 형식의 코로나 검사를 신속하게 시행한 경험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언급하였다. 드라이브스루와 워킹스루를 결합한 선별진료 시스템의 편리함은 곧 지역사회에서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다. 환자들은 검사 과정이 간편하고 신속하며 안전하다는 점에서 큰 만족을 느꼈다. 이에 따라 창원한마음병원 선별진료소는 많은 사람들이 검사받으러 오는 장소가 되었다. 이후 2022년 3월에는 하루 평균 3,000~4,000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하루 최대 11,250명까지 검사한 기록도 세웠다.

창원한마음병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모습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병원 전체를 빙 둘러싼 차량들

10 날카롭고도 따뜻했던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 추억

감염관리팀 최금숙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흥망성쇠를 겪었습니다. 돌이켜 보니 저를 키운 8할은 코로나19였습니다. 새싹으로 움트는 제1급 신종 감염병에서 시작하여 저물어가는 제4급 표본 감시까지 참으로 오랜 기간 우리의 일상조차도 무너뜨린 코로나19였습니다. 누군가 코로나에 대해 경험담 좀 이야기해 달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일야화처럼 밤새워 이야기해도 다 할 수 없다”

한 걸음 떨어져 가만히 응시하니 코로나19는 저에게 있어 참으로 감사한 존재입니다. 다만 가까이 있으니 그 존재가 주는 고마움을 몰랐을 뿐이고, 덕분에 몸과 마음이 재정립되고 스스로가 성장했음을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That which does not kill us makes us stronger)”라는 명언을 남겼고, 되새길수록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구에 정박한 배는 정박이 아닌 항해가 목적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 또한 죽은 삶이 아닌 싱싱하게 생동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2020년 1월 상남동 병원에서 첫 선별진료소를 열었습니다. 첫 키스의 추억은 날카롭다고 했던가요? 생각만 해도 1월의 차가운 바람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해 2월은 코호트 격리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의 경험은 아픔이지만 그 경험은 정말 값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예측 불허고 카오스였습니다. 그러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듯 코호트 격리 중에 직원들의 대동단결과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최상의 해결책을 찾아내었고, 그 난관을 잘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타들어 가는 경영진의 마음을 헤아린 듯 창원시민의 따뜻한 격려, 경남 각 지자체가 준 물적, 정신적 지원은 눈물겨운 감동, 그 이상이었습니다.

2021년 3월부터는 사림동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좌청룡, 우백호, 창원의 정병산 비음산이 비호하는 천혜의 맑은 공기 속에서 사림동에서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2021년 7월 선별진료소는 장마와 폭염 속에서 남창원농협 집단 발병 사태를 시작으로 다시금 지역사회에서 우리병원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실감하고 실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21년 9월 27일은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로 변경하는 업무 프로세스 혁신이 있었습니다. 하충식 의장님의 수많은 고뇌 끝에 탄생한 도전적, 진취적 발상이었습니다. 이러한 혁신 때문에 드라이브스루를 줄지어 찾는 많은 차량 때문에 병원 반경 1킬로미터가 정체되고, 도내 경찰서에서 교통 정리를 해주는 아름다운 풍경도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12일은 지하 3층 주차장 일부 구역을 코로나19 검사자 전용 주차장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전용 계단 또한 확보하여 하이브리드 선별진료소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차감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완벽한 검사 전용 이동 경로였습니다. 차를 지하 3층에 주차하고 전용 계단을 이용하는 고객이 많아지면서 기존 선별진료소의 공간은 광장화가 되어 나름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도기에 하충식 의장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을 존 맥스웰의 리더십 불변의 법칙에 대입한다면 ‘grit’(끈기)을 바탕으로 오직 리더만이 항로를 정하는 항해의 법칙, 무조건 조직을 승리로 이끄는 승리의 법칙, 리더십을 발휘할 때를 정확히 아는 타이밍의 법칙이 적용되었음을 짧은 지식으로 감히 고백해 봅니다.

2021년의 겨울은 많은 직원의 격려와 도움이 있었기에 “그해 겨울은 춥지만 따뜻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따뜻한 경험은 설날 당일 선별진료소 근무를 마치고 의장님을 선별진료소 안으로 모신 후 맨바닥에서 설날 세배를 드렸던 경험입니다. 의장님은 황송해 하시면서 직원인 우리에게 맞절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오미크론 유행 시기인 설 연휴 중 병원 건물을 에워싼 선별진료소 검사 줄은 또 다른 감동이었고, 모르는 고객분이 한파에 수고 많다고 슬며시 전해준 핫팩은 따뜻함 그 자체였습니다.

2022년 2월 3일부터 신속항원검사가 시행되었고, 2022년 6월부터 91병동, 음압병동, 집중치료실 등 코로나 자율입원이 시작되면서 코로나는 절정을 향해 달렸습니다. 한 해가 지난 2023년 6월부터 코로나 격리 5일 자율 권고(의료기관 입원 환자 7일 격리동일)로 변경되면서 코로나는 서서히 세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 그 혼돈 속에서 저 자신을 함부로 비하하지 않으며 스스로에 대한 믿음으로 잘 살아온 저 자신에게 먼저 박수를 보냅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할지 갈림길에서 고민 중일 때 시원하게 해결책을 주신 송두열 감염관리실장님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같은 길을 묵묵히 걸어준 동료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려울 때 천군만마의 지원과 부족함에도 늘 잘한다고 칭찬해 주신 하충식 의장님과 최경화 이사장님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 칭찬은 삼시세끼 밥이 되어 업무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선별진료소 운영 경험을 통해 역경을 발판 삼아 딛고 일어서는 회복탄력성과 끈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시 여름, 유자효 시인의 표현처럼 영롱한 땀방울 속에 생명의 힘으로 충만한 계절입니다. 창원한마음병원 30년사에 길이 남을 기록을 할애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나온 시간은 축복의 통로였음을 수줍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도 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무장하여 병원 발전의 작은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한마음병원 음압격리실 앞 출처:경남도민일보

2021.10.06 | 방사선동위원소 치료실을 가동하다

10월 6일 창원한마음병원은 방사성동위원소 치료실(RI, Radio Isotope)을 가동하였다. 주로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위한 시설로, 갑상선암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방사성요오드 치료는 갑상선암 환자에게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사성동위원소치료다. 기존 지역 내 갑상선암 환자들은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으려면 수도권이나 부산까지 진료를 떠나야 했다. 지역에 방사성동위원소 치료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도입했던 고압산소치료실처럼 지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갑상선암 환자들 중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들을 방사성동위원소 치료실에서 치료하였다.

방사선종양센터 핵의학과 박윤수 교수는 "방사성요오드 치료는 남아 있을 수 있는 갑상선 조직 및 갑상선암 조직을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라며 "방사성요오드는 갑상선 조직에만 선택적으로 집적되기 때문에 다른 치료법들에 비해 정상조직에 영향을 주지 않아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방사성동위원소 치료실이 가동된 후 금세 다양한 환자들이 방문하였다. 환자들은 "우리 지역에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있어 다행이다", "매번 수도권으로, 부산으로 진료를 떠났는데 가까이서 진료를 볼 수 있어서 한결 마음이 가볍다"라고 전하며 가까운 지역에 방사성동위원소 치료실이 있다는 것에 고마움을 표현하였다. 방사성동위원소 치료실은 방사성요오드 치료뿐만 아니라 악성갈색세포종과 신경모세포종의 치료 등 방사성동위원소를 활용하는 다양한 치료를 할 수 있게 개선을 거듭하였다. 기존 지역에서 만나보기 어려웠던 최신식 치료 장비와 시설을 적극 도입하며 지역민을 위해 병원 설비에 재투자를 지속하였다.

방사성동위원소 치료실에서 방사성요오드 치료 시연

2021.11.29 | 포항공과대학교에 100억 기부를 약정하다

11월 29일에는 창원한마음병원이 포항공과대학교(이하 포항공대)에 100억 원 기부를 약정하였다. 2023년 개원 예정인 포항공대 의과대학원의 의사과학자 양성을 지원하고, 의과학 및 의공학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 것이었다.

12월 6일에 포항공대와 발전기금 기부약정식이 진행되어 양 기관 간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의사과학자는 임상 경험과 기초 과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새로운 치료법 개발과 혁신적인 의료기술을 연구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재 양성은 현대 의학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김무환 포항공대 전총장은 기부 약정식에서 "인류 발전을 위해 의과학분야의 교육과 연구 혁신은 필연적인 선택이며, 창원한마음병원과 함께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다. 기부금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장비 구입, 그리고 의과학 및 의공학 관련 연구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포항공대는 국내외에서 경쟁력 있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의료분야의 혁신을 이끌어 나갈 계획을 알렸다.

2021년 12월 6일 창원한마음병원을 방문한 김무환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2021.12.07 | 창원시 건축대상제 대상으로 선정되다

창원한마음병원이 제9회 창원시 건축대상제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2019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최근 2년 내 사용 승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대회였다. 대회의 위원장은 창원시 오섬훈 총괄건축가가 맡았으며, 심사위원회는 관내 대학교수 3명과 지역 건축사 3명으로 구성되어 건축물의 다양한 측면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심사 기준에는 건물의 외관과 내부 디자인, 환자와 방문객의 이용 편의성,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이 포함되었다. 창원한마음병원은 현신종합건축사사무소와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의 협력으로 설계되었으며, 환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가 돋보였다. 병원의 내부는 환자와 가족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한 공간 배치와 인체공학적인 설계가 특징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병원 사용자의 심리적 안정과 편안함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창원한마음병원은 도시경관의 품격을 향상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마음병원의 외관 디자인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지역사회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은 창원시의 전체적인 도시 이미지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었다.

건축대상제 대상을 수상한 창원한마음병원

2021년 12월 23일 창원시청에서 진행된 '제9회 창원시 건축대상제' 수상식 현장 출처:JUNGLIM

2022.01.12 | 부산대학교에 100억 기부를 약정하다

1월 12일 창원한마음병원이 또다시 거대한 규모의 기부를 진행하였다. 약 한 달 전 포항공과대학교에 100억 원을 기부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부산대학교(이하 부산대)에 100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부산대는 최경화 설립자의 모교로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기부는 더욱 의미가 깊었다. 최경화 설립자는 부산대 의과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모두 마쳤으며, 하충식 설립자 역시 부산대 의과대학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창원한마음병원은 과거에도 부산대학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부산대 의대 장학금 등으로 10억 원 이상의 기부를 진행해 왔으며, 이는 후배 의사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
최경화 설립자는 "후배들이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대학에서 훌륭한 인재로 육성해 주신다면, 양 기관이 서로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고 전하였다. 하충식 설립자는 "우리 병원은 1994년 개원한 이래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최선을 다해왔다"라며 "대학에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것 역시 창원한마음병원 원훈 가운데 하나인 '더불어 사는 따뜻한 마음'의 실현"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에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두 분의 숭고한 뜻에 따라 부산대가 수행하는 국제 공동연구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에 소중하게 써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하였다.

부산대학교 차정인 총장 일행 창원한마음병원 방문

2022년 1월 12일 부산대학교 발전기금 약정식

2022.01.24 | 이전 개원 10개월, 1,000번째 분만에서 건강한 남아가 태어나다

1월 24일 창원한마음병원 확장 이전 개원 약 10개월 만에 산부인과 단일로봇수술 100례를 달성하였다. 또한, 2월 7일에는 병원에서 1,000번째 분만이 이루어졌다. 창원한마음병원은 1994년 개원 이래로 총 3만 1,710명의 아기가 탄생하며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1,000번째 출산의 주인공은 박지민 씨로, 그녀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하였다. 부부는 "무사히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1,000번째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아이의 탄생이 더욱 특별해진 것 같았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준 의료진에게 감사하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창원한마음병원은 부부에게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이용권 등 축하 선물을 전달하였다.

하충식 설립자는 "온 세상을 빛낼 소중한 생명이 탄생하는 경이로운 순간이, 모든 부모들에게 인생 최고의 행복한 순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앞으로도 창원한마음병원의 모든 임직원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축하를 전하였다.

박지민씨 부부에게 축하 선물을 전달한 박인성 병원장

2022.03 | 확장 이전 개원 1년, 개원 28주년을 맞이하다

3월 1일 창원한마음병원이 신축병원으로 이전한 지 1년이 되었고 개원 28주년을 맞이하였다. 1년간 응급환자 포함 외래환자 96만 9,852명을 진료하였다. 로봇수술과 복강경 수술, 암 수술 등은 8,082례, 뇌·심혈관센터 진료는 8만 9,669명, 뇌심혈관중재시술 건수는 4,317례를 진행하였다. 응급 이송 건수는 2만 8,770건에 달하였다. 창원지역을 넘어 인근 김해, 밀양, 창녕 등 중부경남지역의 치료를 책임지는 거점병원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을 모두 챙기며 가파르게 성장한 것이기에 더욱 의미 있었다.

3월 7일에는 조선대학교(이하 조선대)와 임상실습 교육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조선대 박종 의과대학장과 창원한마음병원 하충식 설립자, 조선대 윤성호 의과대학부학장, 오경숙 의과대학 교학팀장 등 대학·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하였다. 협약내용은 조선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창원한마음병원 교육협력기관 지정, 임상실습생 선발 및 파견 교류, 임상실습 의료기기 및 시설물 사용 협조, 임상실습 일정 상호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협약으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임상실습 능력 배양, 다양한 임상실습 장소·기회 제공, 현장에서의 임상실기 능력 함양 등 우수 의료인재 육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조선대 의과대학은 2022학년도 1학기 임상실습 프로그램으로 의학과 3학년 66명을 조별로 나누어 16주간 창원한마음병원에서 실습을 진행하였다.

3월 22일에는 국제보건의료 NGO '글로벌케어'가 창원한마음병원을 '아너스 스타 클럽'에 헌액하며 공로를 기렸다. 글로벌케어는 창원한마음병원이 지속해서 보여준 헌신적인 의료 활동과 인도적 지원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창원한마음병원 개원 28주년 기념식에서 장기근속자 포상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실습교육 협약식

2022.03~05 | 의료수준을 끌어올리며 확장을 준비하다

3월 29일 창원한마음병원이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에서 4년 연속 1등급을 획득하였다. 제7회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6,44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평가 항목으로는 폐기능 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 비율, 흡입기관지 확장제 처방 환자 비율 등이 포함되었다. 전체 평균 점수는 69점이었으나, 창원한마음병원은 92.6점을 기록하며 뛰어난 역량을 검증받았다.

4월 8일에는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을 개설하여 팬데믹 이후 환자들의 회복을 지원하는 데 앞장섰다. 이 클리닉은 코로나19 감염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며,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병원의 중앙원무창구 내에 코로나19 후유증 진료상담 창구를 설치하여 함께 운영하였다. 당시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었고, 특히 코로나 격리 해제 후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았기에 다학제적 협진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5월 20일에는 상남한마음병원 개원추진단 TF팀을 만들어 비어 있던 상남동의 한마음병원을 재개원할 준비를 시작하였다. 상남동의 한마음병원을 '상남한마음병원'으로 재개원하여 창원한마음병원과 함께 운영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 경영진과 분과의 분과장들이 주축이 되어 2023년 3월 재개원을 목표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5월 31일에는 2년 연속 마취 적정성 평가 1등급을 획득하였다. 심평원에서 마취 영역 의료 질 개선 및 마취 환자 안전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며,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진행되었다. 평가 항목으로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시간, 마취통증의학과 특수 장비 보유 종류수, 마취 전 환자 평가 실시율,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 점수 측정 비율, 마취 중·후 정상 체온(35.5℃ 이상) 유지 환자 비율 등이 포함되었다. 창원한마음병원은 종합점수 98.9점을 획득하며 매우 우수한 점수를 기록하였고, 2018년 1차 평가에 이어 2회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하였다. 특히 창원한마음병원은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점수 측정 비율, 마취 중·후 정상 체온(35.5℃ 이상) 유지 환자 비율 지표에서는 100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창원한마음병원 대회의실,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모인 간호부와 최경화 설립자

2022.08.01 | 췌장·담도분야 명의 김명환 교수 합류하다

창원한마음병원이 세계적인 췌장·담도분야 명의(名醫)로 꼽히는 김명환(현. 창원한마음병원 제4대 병원장)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를 영입하며 지역 의료계를 놀라게 하였다. 김명환 교수는 1989년 서울아산병원 주니어 스태프로 근무를 시작해 30여 년을 재직하였다. 김명환 교수는 국내에서 최초로 췌장암을 조기 발견, 완치시킨 의사다. 또한, 췌장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주로 진행하는 체외충격파 시술을 국내에 처음 도입하여, 이 시술을 통해 췌장 결석 내시경 제거율을 50%에서 80%로 향상하였다. 더하여 자가면역성 췌장염을 국내에 처음 보고했고, 이 질환의 진단 기준을 새롭게 확립한 'Kim 진단법'을 미국췌장학회지에 게재하였다.

2008년에는 임상의에게 수여하는 노벨상 격 의학상인 '분쉬의학상'을 소화기내과 의사로는 유일하게 수상한 바 있다. 김명환 교수는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오전에만 약 70명의 환자를 진료하였다. 지방에서 온 환자들에게도 진단 외에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짐으로 남았다고 말하였다. 이것이 서울에서 창원까지 내려온 가장 큰 이유였다. 그리고 창원한마음병원이 추구하는 인술보국(仁術報國)의 나눔과 봉사 정신, 그리고 하충식·최경화 설립자의 베푸는 삶에 감명한 것도 창원한마음병원을 선택한 이유라고 말하였다.

췌장질환 환자에게 설명하고 있는 김명환 교수

2022.08~09 | 국제적 임상실습교육을 진행하다

8월 5일 창원한마음병원에서 헝가리 세게드 대학교 의대생 5명이 임상실습교육을 마쳤다.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3주간 진행된 교육이었다. 외과 차성재 교수와 최주원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학생들은 수술 참관 및 외과 임상실습에 참여하며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최신 의료기술을 직접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8일부터는 베이징대학교 의대생들이 창원한마음병원에서 임상실습교육을 수행하며 지속해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화를 추구하였다.

8월 16일에는 창원대학교와 간호교육 및 연구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9월 1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와 상호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 체결로 경남지역 중소기업 협동조합 임직원 2,200여 명이 진료, 건강검진 혜택, 병원 장례식장 등 병원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지역사회의 중소기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여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9월 20일에는 여성의학센터에서 다빈치 로봇수술 200례를 달성하였다. 확장 이전 개원 이후 1년 7개월 만에 만든 성과였다.

창원한마음병원 1층에 모인 헝가리 세게드 대학교 의대생 5인

2022.09.24 |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트루컴퍼니 상을 수상하다

9월 24일 창원한마음병원은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수여하는 장애인고용 신뢰기업(트루컴퍼니)에 대해 2022년 기준 부·울·경 의료기관 중 최초로 은상을 수상하였다. 창원한마음병원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신뢰성과 헌신을 인정받은 결과이다. 중증 장애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창단을 위해 장애 예술직이라는 직무를 신설하였고, 해당 단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였다. 이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듯 오케스트라 프로젝트는 단순한 음악 활동을 넘어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와 직무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창원한마음병원은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과 경제적 독립을 위해 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내 직업체험관을 개설하며 장애인 직업훈련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장애인 고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시행하여 포용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헌신해 왔다. 장애 유형을 고려하여 각 직원의 직무 적성과 근로 능력에 맞는 고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맞춤형 고용 전략은 장애인 직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병원 내에서의 직무 만족도와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트루컴퍼니 장애인고용 신뢰기업 은상 상장

2022년 9월 24일 창원한마음병원 트루컴퍼니(장애인고용 신뢰기업) 은상 수상식

2022.10.25 | 한마음 힐링콘서트를 열다

10월 25일 3시 40분 창원한마음병원 4층 한마음홀에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환자·보호자 및 내원객에게 음악으로 치유하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한마음 힐링콘서트'가 시작된 것이다. 창원한마음병원이 환자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특별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이 공연에서는 병원의 홍보대사이자 탤런트 겸 가수인 김성환 씨가 무대에 올라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였다. 콘서트 중간에는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의료비 후원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 후원금은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창원한마음병원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행사에 참석한 한 환자는 "아프고 힘든 시기에 이렇게 멋진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마음이 편해지고, 힘이 나는 것 같다"라며 감사를 표하였다. 창원한마음병원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 중 행복, 봉사, 사랑을 행사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 내원객에게 전달하는 시간이었다. 창원한마음병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2022년 10월 25일 한마음 힐링콘서트 현장

2022.11 | 학문적 발전과 더불어 포용적인 기업 문화를 확산하다

11월 13일 창원한마음병원 산부인과 최은정 교수가 대한산부인과학회 주관 제108차 학술대회에서 'OGS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최은정 교수는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인 'The rates of major malformations after gestational exposure to isotretinoi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에서 이소트레티노인에 대한 임신 기간 노출 후 선천성 기형의 비율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메타 분석한 내용을 다루었다.

한편, 11월 17일에는 창원한마음병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1,000명 이상 민간기업부문)'에 선정되었다. 이 상은 장애인 고용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준 기업에 수여하는 것으로, 창원한마음병원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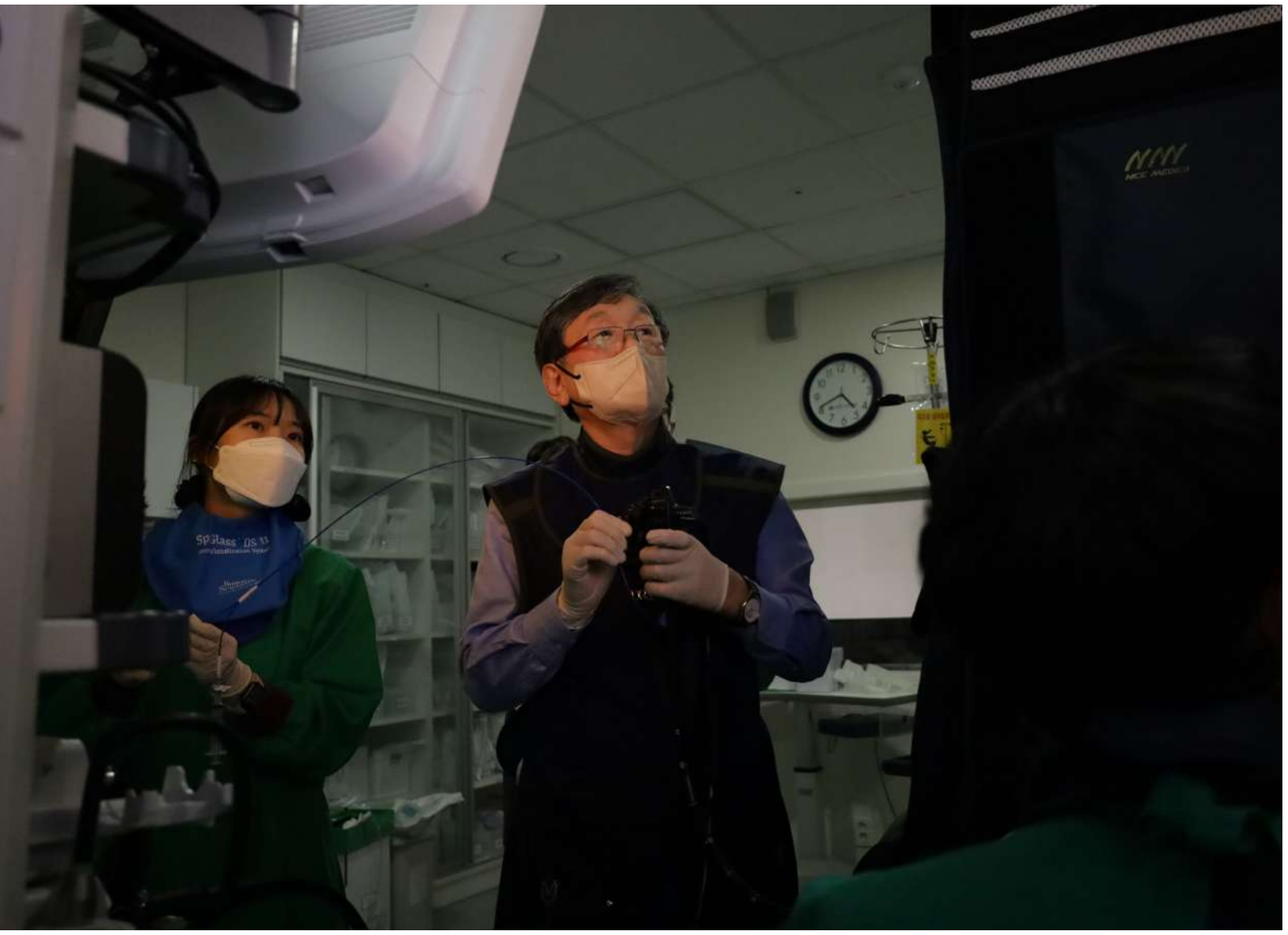
창원한마음병원은 장애인 직원을 위한 맞춤형 고용 정책을 시행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의 직무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병원 내에는 장애인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과 직무 교육이 마련되어 있어, 이들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포용적인 기업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창원한마음병원 산부인과 최은정 교수

2022년 11월 17일 창원한마음병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2022.11.21 | 도내 최초 난치성 췌관 결석 제거에 성공하다

11월 21일 창원한마음병원에서 황준성 교수와 김명환 교수팀이 도내 최초로 '경구 췌관경(SpyGlass®)'을 이용하여 난치성 췌관 결석 제거에 성공했다. 대상은 만성 췌장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였다. 환자는 오랜 기간 동안 난치성 췌관 결석을 가지고 있었다. 기존에 치료를 위해 총 6회의 체외 충격파 쇄석술을 받았으나, 췌관 결석이 효과적으로 분쇄되지 않아 계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황 교수와 김 교수팀은 경구 췌관경을 활용한 전기수압쇄석술(EHL)을 선택하였다. 기존의 치료법보다 더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결석을 제거할 수 있는 최신 기술로, 이는 환자의 췌관 내부를 직접 시각적으로 확인하면서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술을 통해 췌관 결석을 성공적으로 분쇄하고 제거한 결과, 환자는 통증이 완화되고 췌장 기능이 회복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로써 창원한마음병원은 경구 췌관경을 이용한 새로운 치료법을 도입하여 난치성 췌관 결석 환자들에게 희망을 제공하게 되었다.



경구 췌관경술로 췌관 결석을 제거하고 있는 김명환 교수

2022.12.30 | 한마음교회 설립으로 환자 마음의 회복을 돕다

12월 30일 창원한마음병원은 지하 1층에 한마음교회(기독교 예배실)를 설립하며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하였다. 한마음교회는 병원 내 환자와 보호자 및 직원들이 영적인 안식과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내부에 편안한 좌석과 조용한 기도 공간을 마련하였다. 교회 설립의 배경에는 최경화 설립자의 뜻이 있었다. 한마음병원 개원 이래 하충식 설립자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해온 최경화 설립자는 십계명을 좌우명으로 여겼다. 개척교회를 자비로 세우며 나눔과 베풂을 몸소 실천하였던 외할머니(故 이수임 권사)의 뜻을 이어받은 영향이었다. 최경화 설립자는 한마음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겪는 고통과 불안 그리고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소중한 쉼터가 되기를 바랐다. 한마음교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예배를 개최하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창원한마음병원은 환자들의 신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 치유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환자들의 몸뿐이 아닌 마음의 회복도 도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병원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병원 자체가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12

12월 30일 한마음교회 설립일

2023.01~02 | 경남 도내 1위, 전국 8위의 응급의료기관이 되다

1월 2일 창원한마음병원이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며 경남 도내에서 1위, 전국에서 8위라는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이 평가는 안전성, 효과성, 기능성, 공공성 등 4개 영역과 8개 항목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창원한마음병원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1등급을 받았다.

1월 16일에는 '장기이식센터'를 개소하였다. 센터의 개소는 국내 고난도 간이식 전문가인 주종우 교수가 병원에 합류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장기이식센터의 운영은 단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넘어, 최첨단 의료장비와 시설, 전문 인력 확보, 기증자 및 환자 관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다. 창원한마음병원은 오랜 시간 동안 장기이식센터 설립을 위해 준비해 왔으며, 특히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장기이식술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창원한마음병원은 전문 인력을 모집하고 최첨단 시설을 갖추는 데 집중하였다. 장기이식센터는 개소 날부터 환자를 맞이하기 위해 부단히 움직였다.

1월 26일에는 창원시와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며,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더 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협약을 통해 건강검진 서비스 외에도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의료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월 12일에는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하였다. 이는 경남지역에서의 첫 번째 기부 사례로, 재난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였다. 창원한마음병원은 "지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작은 정성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향후에도 지속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였다.

2월 22일에는 창원한마음병원이 필봉장학재단과 협력하여 연중 20억 원 규모의 장학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2월 23일에는 여성의학센터가 다빈치 로봇수술 300례를 달성하였다. 로봇수술을 통해 수술의 정확성을 높이고, 환자의 회복 시간을 단축하는 등 의료서비스 개선을 꾀하였다.

2023년 1월 16일 장기이식센터 개소식

2023년 2월 12일 튀르키예 지진 성금 기탁식

2023.02.25 | 첫 생체간이식을 성공하다

2월 25일 창원한마음병원의 주종우·김건국 교수팀이 첫 생체간이식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장기이식센터를 개소한 뒤 한 달여 만의 첫 수술이었다. 수혜자 A씨(63)와 공여자 B씨(37)는 부녀사이로, 간경화를 앓는 아버지에게 딸이 간을 제공한 사례다. 수술은 약 10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주종우 교수와 김건국 교수는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며 팀워크를 발휘하였다. 수술 중에는 정밀한 기술과 최첨단 의료 장비가 동원되어, 두 사람의 안전과 성공적인 이식을 보장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수술이 끝난 후, A씨와 B씨 모두 안정적인 상태로 회복하며, 의료진의 모니터링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안정을 되찾았다.

수술 후 A씨는 "딸이 나를 위해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말 고맙고, 앞으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감사를 표하였다. B씨 역시 "아버지가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다니 너무 기쁘다. 가족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라며 소감을 나누었다. 창원한마음병원의 장기이식센터는 해당 첫 생체간이식을 통해 성공적인 사례를 쌓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장기이식의 가능성과 희망을 전달하였다.

생체간이식을 집도한 의료진과 회복중인 공여자와 수혜자

2023.02.27 | 혈관중재술 1만 례를 달성하다

2월 27일 창원한마음병원의 심·뇌혈관센터가 혈관중재술 1만 례를 달성하였다. 2009년 8월 첫 시술 이후 13년 만에 이룬 성과로 지역 의료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혈관중재술은 심장 및 뇌혈관의 막힌 부분을 뚫는 시술이다. 마취, 절개, 출혈 없이 이뤄진다. 최소침습적 방법으로 환자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을 주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혈관중재술은 현대의학에서 필수적인 치료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창원한마음병원은 높은 수준의 혈관중재술을 진행해 왔다. 2012년에는 미국 심폐재활협회, 2014년에는 미국 UCSF 의과대학에서 심혈관중재술을 참관하러 오기도 하였다. 창원한마음병원은 원내 순환기내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이 협업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술을 진행해 왔기에 1만 례라는 수치를 달성할 수 있었다.

2023년 2월 27일 1만 번째 혈관중재술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웅 교수

2023.03.10 | 경남 최초 대한췌장담도학술집담회를 개최하다

3월 10일 창원한마음병원 4층 한마음홀에서 대한췌장담도학회 제92차 학술집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 학술집담회는 경남지역의 의료기관 중 처음으로 대한췌장담도학회를 개최한 사례로, 전국에서 100여 명의 췌장 및 담도 전문 교수들이 참석하여 최신 연구 결과와 치료 방법을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김명환 교수(창원한마음병원), 최정식 교수(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조재희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가 지정 토론자로 나서,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얻은 통찰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김명환 교수는 “이 학술집담회를 통해 최신의 연구 결과와 치료법을 공유하고, 전국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런 기회를 통해 협업과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하였다. 창원한마음병원은 지역의 췌장 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왔으며, 이 학술집담회는 지역 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2023년 3월 10일 대한췌장담도학회 제92차 학술집담회 현장

최신 연구 결과와 치료법에 대한 토론 진행

2023.03.24 | 의과대학을 위한 학교법인 설립에 힘쓰다

3월 24일 창원한마음병원은 학교법인 '강인학원'을 설립하며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창원한마음병원은 개원 이래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도전을 지속해 왔다. 학교법인 설립은 의과대학 유치 준비를 위한 꼭 필요한 준비 중의 하나였다. 창립 총회 당일까지 임직원들의 치열한 노력이 있었다.

창립 총회에 앞서 1월 27일, '강인팀'이라는 TF팀을 만들었다. 학교법인 설립과 운영 준비를 목표로 하였다. 구성원 모두 대학 설립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즉시 대학 설립 관련 내용을 공부하며 실무를 해나갔다. 사립학교법과 강인학원 정관에 근거하여 이사 8인, 감사 2인으로 임원을 구성하였다.

창립 총회 당일, 강인학원 초대 설립자인 하충식 설립자는, "우리의 목표는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과 책임감을 강조하였다. 더하여 "지역의 의료 수준을 높이는 데 의과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강인학원의 초대 이사장으로는 창원한마음병원의 최경화 설립자를 선임하였다. "학생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대학, 희생과 봉사를 실천하는 대학, 최고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대학"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선하고 어진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며 인류와 더불어 살아가는 대학을 만들어 가겠다"라며 교육의 본질과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창립총회에서는 강인학원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안도 논의하였다. 관계자들은 강인학원이 지역사회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의료계의 미래를 밝히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하였다. 이로써 창원한마음병원은 학교법인 설립에 힘쓰며 의과대학 설립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또 한 차례 다지며, 미래를 기약하였다.

창원한마음병원 학교법인 강인학원 창립총회

2023.04.03 | 의료기관평가 난임시술 1등급을 획득하다

4월 3일 창원한마음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한 제2차 난임시술 의료기관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하였다. 이 평가는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창원한마음병원은 '인공수정시술'과 '체외수정시술' 모두에서 1등급을 받았다. 특히 이 평가에서 주목할 점은 여러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시술 관련 상담 및 교육 실시 여부, 난임 원인 진단을 위한 검사 시행률, 다배아이식 가이드라인 준수율, 원인불명 난임 비율, 난임시술 의사당 난자채취 시술 건수 등 다양한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

권욱현 난임센터장은 "첨단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은 물론 환자별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만큼 앞으로도 최고 등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했다. 창원한마음병원은 난임 치료에서 환자와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지역의 난임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3년 4월 3일 난임시술 의료기관평가 1등급 획득 기념 이미지

2023.06.03 | 혈액형 불일치 고난도 간이식에 성공하다

6월 3일 창원한마음병원에서 장기이식센터 주종우 교수팀이 혈액형 불일치 고난도 간이식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혈액형 B형인 아들이 O형인 아버지에게 간을 제공한 사례였다. 두 사람은 창원한마음병원에 오기 전, 간이식을 위해 경남과 부산의 대학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간이식 기증 부적합 판정을 받아 기증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혈액형이 불일치해도 간이식을 진행할 수 있는 병원을 찾다가 창원한마음병원으로 온 것이다. 주종우 교수는 간절히 병원을 찾은 기증자의 건강 상태를 다시 면밀히 검사하며 재평가했다. 그리고 기증자가 체중 5kg을 감량할 경우 간이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혈액형 불일치 간이식은 높은 수준의 수술이기에 창원한마음병원 장기이식센터의 의료진들은 1개월간 치밀하게 수술을 준비하였다. 특히 혈액형이 불일치에 따른 면역거부반응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했다. 수술을 위해 수혜자에게 특수 약물치료, 혈장교환술을 시행하였다. 철저한 준비를 모두 마쳤고 정밀한 수술을 진행하였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다행히 수혜자에게 면역거부반응도 발생하지 않았다. 수술을 받은 두 사람은 원활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혈액형 불일치 간이식을 받고 원활히 회복하고 있는 수혜자 가족과 함께

2023.08.02 | ESG 경영을 전사적으로 선포하다

창원한마음병원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며 30년간 발전을 이어왔다. 이제는 설립자의 개인적 노력이나 단일 부서만이 아닌 전사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 2일, 창원한마음병원 ESG 경영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시한 K-ESG 지표를 비롯하여 해외 기관의 기준과 관련 문헌을 면밀히 조사하며, 창원한마음병원만의 독창적인 ESG 경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ESG 경영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의 자율적인 참여와 전반적인 이해가 필수적이었다. 그렇기에 하창훈 의료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미래혁신팀'이 ESG 실무 추진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폐기물 절감, 페이퍼리스운동, 탄소중립 실천, 취약계층 지원, 의료질 향상, 지역사회 기여, 조직문화·근로환경 혁신, 환자 대응 혁신, 지속적인 투명·윤리경영 등 9대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총 27개로 실천과제를 세분화해 구성원 모두가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선포하였다. 또한, 정례적인 감사 기구를 통해 투명한 경영을 실현하고, '직원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병원'이라는 윤리적 경영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병원 앞 물향기공원에서 개최한 생명존중 나눔 행사

병원 앞 물향기공원에서 ESG경영 활동 수행 후

2023.08.12 | 서울아산병원 췌장담도내과 동문세미나를 개최하다

8월 12일 창원한마음병원이 주관한 '서울아산병원 췌장담도내과 동문 세미나'를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개최하였다. 세미나에는 창원한마음병원 김명환 교수에게 췌장담도분야의 임상 펠로우 수련을 받았던 서울아산병원 동문 16명이 참가하였다. 세미나의 주제는 '대가에게 배우는 췌장담도질환-창원한마음병원 김명환 교수'였다. 췌장담도질환에 관한 최신 진단과 치료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김명환 교수는 '자가면역 췌장염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하였다.

창원한마음병원 황준성 간담도췌장센터장은 '경구췌관경을 이용한 췌장 질환 진단과 치료'를 발표하였다. 이 세미나는 서울아산병원과 창원한마음병원 간의 긴밀한 협조와 유대관계를 더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다. 두 병원은 경남지역의 진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최신 의료 지식을 지역 의료계에 널리 알릴 것을 결의하였다.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 김명환 교수

2023년 8월 12일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열린 서울아산병원 췌장담도내과 동문세미나

2023.08.27 | 생체간이식 성공률 100%를 달성하다

8월 27일 창원한마음병원에서 다시 한번 혈액형 불일치 생체간이식에 성공하였다. C형 간염으로 인해 만성간염에 시달리던 56세 남성이 아내로부터 간을 기증받는 감동적인 사례였다. 두 사람 모두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 의료진과 가족, 그리고 친구들 모두에게 큰 기쁨을 안겼다. 수술에 앞서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진행되었다. 먼저 간동맥 색전술을 시행해 간암 표지자 수치를 감소시켰고, 이를 통해 종양의 활성도를 조절하여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만성 간경화로 인해 저하된 혈소판 수치를 개선하기 위해 비장 동맥 색전술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전 조치는 수술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간이식 준비 과정에서 환자는 항체 역가가 높았기에 혈장 교환술을 여러 차례 시행하여 면역 반응을 조절하였다.

의료진은 수술 직전까지 환자의 컨디션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기증자에 대한 복강경 간절제 수술은 성공적으로 시행되었고, 5시간 만에 마무리되었다. 이어서 수혜자에 대한 이식 수술도 8시간에 걸쳐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탁월한 기술과 협력이 돋보인 사례였다. 수술 후 기증자는 빠른 회복을 보여 9일 만에 퇴원하였고, 수혜자도 원활한 회복을 이루어 통상적인 회복 기간인 한 달보다 앞선 19일 만에 퇴원할 수 있었다. 이 수술은 장기이식센터 설립 6개월 만에 이루어진 네 번째 생체간이식으로 4번의 수술이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었다. 의료진은 이 성과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다짐하였다.

건강을 회복한 수혜자와 함께 창원한마음병원 암센터 앞에서

2023.08~09 | 명의 초청과 선진의료 도입을 이어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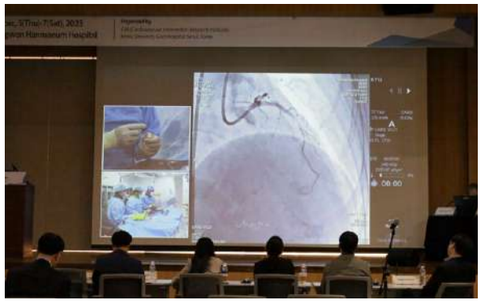
창원한마음병원 4층 한마음홀에서 MD앤더슨 암센터(MD Anderson Cancer Center) John W. Davis 교수 초청 강연을 개최하였다. MD앤더슨 암센터는 텍사스 휴스턴에 위치한 종합 암 센터로, 미국 최대 규모의 암 센터이자 최초의 3개 종합 암 센터 중 하나이다. John W. Davis 교수는 MD앤더슨 암센터 소속 비뇨의학과 교수로 비뇨로봇수술 프로그램의 책임자(Director)를 맡고 있다. 이날 강연에는 병원 주요 경영진과 의료 종사자 약 100명이 참석하여, 의료계의 최신 동향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공유하였다. 한편, 이 강의는 본원에서 9월 1일 부로 진료를 시작하는 다빈치 로봇수술 대가 성경탁 교수와의 인연으로 성사되었다. 창원한마음병원 비뇨기과 성경탁 교수는 전립선암 로봇수술 1200례를 시행한 실력자로 꼽히는 명의로 동아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고 5년간 미국 클리블랜드클리닉 복강경 및 최소침습수술 펠로우십 수련 과정을 거쳤다. 특히 중국 베이징에서 5G 로봇을 이용해, 3,000시가량 떨어진 하이난성의 동물모델을 대상으로 한 '초원격 로봇수술 집도'로 주목받기도 했다.

John W. Davis 교수 강연 현장

2023년 8월 30일 MD앤더슨 암센터(MD Anderson Cancer Center) John W. Davis 교수 초청 강연

2023.10.05 | 경남 최초 CCI를 개최하다

창원한마음병원은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제 10회 국제 구로 고난도 관상동맥 및 말초혈관 동맥 중재 시술 시연회(The 10th Complex Cardiovascular Intervention Guro Live 2023, 이하 CCI 2023)를 개최하였다. 이 시연회는 경남에서 최초로 열린 행사로,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총 11개국에서 33명의 저명한 패컬티가 참여하였으며, 국내에서도 90명의 전문가들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모여 심장 질환 치료의 최전선에서 이루어지는 혁신적인 시술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시연회는 총 1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강의, 케이스 발표, 실시간 라이브 시술 시연 등으로 진행되었다. 각국의 전문가들은 그들의 주요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며 글로벌 심장 의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였다. 행사의 둘째 날, 가장 주목받는 프로그램인 수술 시연회에서는 창원한마음병원 순환기내과의 김민웅 교수와 고려대학교의 나승운 교수가 협업하여 혈관 병변 치료를 생중계로 진행하였다.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던 CCI를 창원한마음병원이 지역에서 최초로 개최한 사례로 지역의료계에 의미를 남긴 행사였다.


2023년 10월 6일 창원한마음병원이 개최한 CCI에서 생중계되고 있는 혈관 병변 치료 현장

혈관 병변 치료 중인 창원한마음병원 순환기내과 김민웅 교수와 고려대학교 나승운 교수

2023.10.26 | 10개월 만에 ERCP 1,000례를 달성하다

10월 26일에는 창원한마음병원의 김명환·황준성 교수팀이 10개월 만에 췌장·담도 내시경 시술(ERCP) 1,000례를 달성하였다. 이 기록은 부산, 울산, 경남 전체 병원 중 3위 안에 들어가는 수치로 의미 있는 수치였다. 또한, 창원한마음병원은 초음파 내시경 검사(EUS)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어, 10개월간 250건의 EUS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특히 췌장암 진단을 위한 조직 검사에서의 정확도는 국내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평가 받았다. 이러한 수치들은 창원한마음병원이 췌장암 조기 진단과 치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창원한마음병원의 김명환 교수와 황준성 교수는 "이 성과는 우리 팀의 헌신과 환자들의 신뢰 덕분에 가능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연구와 혁신을 통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창원한마음병원의 췌장·담도 치료 수준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먼 지역에서도 창원까지 찾아오는 환자들이 증가하였다. 이후, 2024년 11월 13일에는 10개월 만에 ERCP 1,500례를 달성하며 부·울·경 지역에서 최단기 최다 건수 기록을 세운다(2022년 10월~2024년 11월 누적 ERCP 3,311건).

ERCP를 진행하고 있는 소화기내과 김명환·황준성 교수

2024년 11월 13일 ERCP 1,500례 달성

2023.11.26 | 식당에서 시민을 구하다

11월 26일 일요일 창원의 한 음식점, 식사를 마친 70대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갑자기 주저앉았다.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었다. 주위에서 식사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몰려들었다. 당황한 가족들이 급체를 의심해 물을 먹이려는 순간, 한 여성이 사람들 틈에서 재빠르게 뛰쳐나오며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물을 먹이면 안 됩니다"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119 신고를 지시한 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지체없이 남성의 의식을 살피며 맥박을 확인하였다. 미약하지만 맥박이 뛰는게 느껴졌다. 사람들은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물었다. 여성은 남성의 맥박이 뛰기에 기도 확보와 환자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조치를 시작하였다. 남성의 고개를 정면에서 왼쪽으로 돌렸다. 혹시나 구토하고 이에 따라 기도가 막힐 것을 방지한 것이다. 이 여성은 창원한마음병원의 김현지 수간호사였다. 김현지 수간호사는 과거 심혈관조영실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의 증상이 심인성 쇼크일 가능성을 의심하였다. 시간을 다투는 상황이었지만, 식당 내부가 협소해 적절한 처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속하게 환자를 외부로 이동시켰다.

주차장으로 옮긴 후,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일반적인 CPR 대신 대체 방법을 선택하였다. 꼬집기, 두드리기 등의 자극과 함께 흉골 주변을 강하게 압박하는 등의 의식사정을 위한 통증자극을 지속해서 시행하고 환자 상태를 관찰하였다.

약 5분간의 집중적인 처치 끝에 환자의 호흡과 맥박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의식도 되찾았다.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환자가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상태였다. 남성은 기존에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말하였다. 김현지 수간호사는 구급대원에게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다행히도 큰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김현지 수간호사는 "의식을 잃은 사람에게 물을 먹이면 기도로 넘어가 흡인이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하다"라며 "식사 직후 발생한 사고여서 CPR을 하면 위 내용물이 역류할 위험이 있어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설명하였다.

당시 식당에 있던 사람들로 인해 해당 사건이 주위에 전해졌다. 이후 12월 29일에는 창원 의창소방서에서 열린 2023년 소방업무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서 김현지 수간호사에게 유공자 표창을 전하였다. 의창소방서 이상기 서장은 "의료 전문 인력이라도 일상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연말 표창을 통해 이러한 용기와 실천에 감사함을 전하고자 한다"라고 말하였다.

12월 29일 김현지 수간호사 유공자 표창 수여식

2023.11.27 | 강희선 성우를 구하다

창원한마음병원의 주종우 교수가 짱구엄마로 유명한 강희선 성우의 간암을 치료하였다. 강희선 성우는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된 상황이었다. 창원한마음병원을 찾기 전, 수도권의 다른 병원에서 간암 치료를 받았다. 당시 2개의 병변을 제거하고 항암 치료 2~3번으로 완치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약 40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치되지 않았고, 2년 시한부 판정까지 받았다. 그러나 강희선 성우는 절망하지 않고 치료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였다. 그녀는 간 치료의 명의를 찾아 나섰고, 그 과정에서 주종우 교수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창원한마음병원에서 주 교수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창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2021년 3월 강희선 성우는 드디어 주종우 교수를 만나 상세한 진료를 받게 되었다. 주종우 교수는 타 병원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간암 병변 17개를 발견하였다. 강희선 성우는 주 교수의 전문적인 판단과 치료 계획에 따라 즉각적으로 치료를 시작하였고, 항암 치료를 통해 암세포의 크기를 줄이는 데 성공하였다.

2022년 8월 17일 주종우 교수 팀은 수술을 시행하였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간에 존재하던 17개의 병변을 완전히 제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수술 후에는 다시 항암 치료를 이어갔으며, 힘든 치료 과정 속에서도 강희선 성우는 자신의 낙천적인 성격을 잃지 않고 성우 활동을 지속하였다. 그녀는 치료를 받으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관리하며 팬들과 소통하는 데 힘썼다.

마침내 강희선 성우는 완치 판정을 받았다. 강희선 성우의 회복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금 아름다운 목소리로 성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치료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주종우 교수와 강희선 성우 출처: 주종우 교수 유튜브 채널 '간보는 남자'

2023.12.03 | 경남 최초로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을 도입하다

12월 3일 창원한마음병원에서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간암 치료법인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을 도입하였다. 이는 경남지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사례로, 지역 주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도입이었다. 기존의 방사선 색전술은 주로 수도권의 대학병원에서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해 많은 환자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먼 거리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주민들에게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안겼고 치료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다. 창원한마음병원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방사선 색전술의 도입이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확신하였다.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은 방사성 물질을 이용하여 간암의 종양세포에 직접적으로 방사선을 전달함으로써,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고 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치료 방식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현대적 접근법으로,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성과를 제공한다. 창원한마음병원은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한 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는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걸음이었고, 창원한마음병원이 지역 의료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 시술을 하고 있는 창원한마음병원 조준희 교수

2023.12.16 | 창원한마음병원 '뇌사자' 간이식에 성공하다

12월 16일 창원한마음병원에서 다시 고난도 간이식을 진행하였다. 이 수술은 타지역 뇌사 기증자의 간을 가져와 중증도 높은 수혜자에게 이식하는 것이었다. 수혜자는 70세의 여성 간암 환자로, 창원의 친척집에 머무르던 중 갑자기 복수가 차오르고 간신증후군이 나타나 급하게 응급 입원하였다. 수혜자는 9월 23일부터 수술 전까지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고혈압과 당뇨도 앓고 있었다. 간이식이 시급한 환자로, 치료를 받으며 간절히 기증자의 간을 기다렸다. 한 달 넘게 기다리던 중, 드디어 뇌사 기증자의 간을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장기 구득 및 이송까지 6시간이 소요되었고, 새벽 2시에 간이 창원한마음병원에 도착하였다. 주종우 교수팀은 바로 수술을 시작하였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밤새 수술을 진행하였다. 고령에 지병까지 앓고 있던 환자이기에 더욱 어려운 수술이었다.

아침이 밝아오고 수술실 문이 열리자, 주종우 교수팀은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수혜자의 가족은 안도의 숨을 내뱉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간이식을 집도한 주종우 교수는 "간이식은 말기 간질환 환자의 유일한 치료법이다. 하지만 뇌사자 장기 기증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기에 뇌사자 간이식 기회는 매우 귀하다. 뇌사자 간이식을 받는 수혜자는 보통 생체 간이식을 준비하는 환자보다 위중한 상태다. 그래서 그 과정이 더 어렵다"라며 "이번 간이식의 경우, 수혜자의 상태가 악화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시기였는데 다행히 뇌사자의 간을 기증받아, 안전하게 이식에 성공했다"라고 말하였다. 수혜자는 건강을 원활히 회복하여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었다.

간이식 수혜자를 진찰하고 있는 주종우 교수

2024.01 | 상남한마음병원 재개원을 추진하다

1월 3일 창원한마음병원이 응급의료기관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2년 연속으로 응급의료기관평가 A등급을 받은 것은 창원지역 내 병원 중에서 창원한마음병원이 유일한 사례였다. 그리고 드디어 상남한마음병원 재개원의 준비가 완료되었다. 24년 3월 1일에 상남한마음병원을 재개원하며 진료를 시작하기로 확정하였다. 기존에 목표했던 2023년 3월에서 1년 늦춰진 시기였지만, 주위 관계자들은 상남한마음병원의 재개원이 생각 이상으로 빨라 놀랍다는 평가를 남겼다. 상남한마음병원 개원추진단은 개원까지 총 31회의 치밀한 회의를 진행하였고, 상남한마음병원에 매일같이 방문하여 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점검하며 필요한 보수 작업을 실행하였다.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주말에 추가로 시간을 내어 상남한마음병원의 의자, 책상 등의 자재들을 필요한 위치에 옮기는 등의 작업을 도왔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상남한마음병원 재개원은 단순히 병원의 운영을 재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창원한마음병원이 의료원 체제로 나아가며 창원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였다. 또한 근처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재개원 이전 상남한마음병원 전경

재개원을 앞둔 상남한마음병원 앞에 모인 추진위원회 임원단

11 상남한마음병원 재개원

기획조정팀 이강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위기'

2022년 '상남한마음병원'이라는 이름을 명명하고 개원추진단을 발족하여 개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분과의 분과장들과 경영진이 한마음으로 하나의 팀을 이루어 2023년 개원을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23년은 전쟁으로 인하여(러시아-우크라이나) 지난 수십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높은 인플레이션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걸출하다고 자부하는 기업도 운영이 힘든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2023년 3월 상남동 소재의 상남한마음병원을 개원하고자 하는 의지도 세계적 상황으로 인하여 씁쓸히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 건축자재 및 물가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의료진의 구인 역시 전국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어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는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라는 현수막이 혼자 쓸쓸히 병원 앞을 지켰습니다. 상황이 어찌 되었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현실에 마음이 더욱 비참할 뿐이었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다섯 가지

'행복, 봉사, 사랑, 노력 그리고 혁신'

비록 한 해의 고비를 마시게 되었지만, 개원을 향한 노력의 의지는 더욱 활활 타올랐습니다. 매일 조금씩 손 보기 시작한 건물 내외부의 환경 미화는 마치 언제 문을 닫은 병원이었느냐는 듯 손색이 없었습니다. 혹자들은 좋은 값에 처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요양병원으로 운영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였지만 지난 30년 세월 동안 한마음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지역민들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봉사, 더욱 수준 높은 의료의 질을 추구하며 병을 치료하기 위해 저 먼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봉사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의 무리수라는 의혹은 우리의 의지에 방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상남개원추진단 발족과 개원 움직임

2022년 5월 20일, 상남한마음병원 개원추진단 TF를 시작으로 개원까지 총 31회의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단장을 중심으로 분과의 분과장들과 실무자들까지 개원을 위하여 장장 2년 가까이 되는 준비 과정에 비록 의견 불일치와 충돌도 있었지만, 그것은 고객에게 신뢰받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열정이었습니다. 추진단 회의를 통한 개원 준비의 시간은 다시금 그때의 아련한 추억을 불러일으켜 나날이 행복하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한 명 한 명의 직원들은 병원 어딘가에 걸려 있는 액자의 수처작주(數處作主)라는 글귀처럼 모두가 주인된 마음이었으며 다시금 꿈을 꾸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총 8개 진료과, 병상 규모 262병상 오픈

그런 노력과 봉사, 행복의 순간들이 이어져 2024년 3월 1일 병상 규모 262병상, 총 8개 진료과(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로 수준 높은 전문의를 구성하여 개원하였습니다. 진료과 외 특화된 인공신장실, 전문재활치료센터, 정밀진단이 가능한 고사양의 영상장비(CT, MRI)를 갖추어 본원 못지않은 의료서비스를 운영하며 무엇보다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본원과의 검사 및 진료 연계 서비스를 통하여 중증질병에 대한 수도권의 원정 진료를 최소화하여 고객의 시간적, 경제적 고충을 해결함으로써 이 상남한마음병원의 개원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 그 수많은 필름 사진 속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모습에, 물론 업무가 힘들기도 하지만, 속 깊은 그 마음에는 '사랑'이라는 꺼지지 않는 따뜻한 불씨가 있었기에 지금의 순간과 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충식 의장님께서는 매 순간 기적이 함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적이야말로 하충식 의장님, 최경화 이사장님, 하창훈 의료원장님 이하 경영진 및 모든 임직원 가족의 행복, 봉사, 노력, 사랑, 혁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원 준비 간 병원의 이름표라는 간판부터 모든 구역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인물 작업을 첫 직장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실행해 온 홍보팀 권미정 매니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3월의 따스한 봄날에 피어나는 꽃처럼 상남한마음병원의 아름다운 미래를 염원하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 1월 재개원 준비 중인 상남한마음병원 내부

2024.02.06 | 지역 최대 규모 법무법인 더킴로펌과 협약을 체결하다

2월 6일 지역 최대 규모의 법무법인 더킴로펌과 창원한마음병원이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은 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환자들이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명확하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의료진과 법률 전문가 간의 지속적인 교육과 협력을 통해 환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법률적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창원한마음병원은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지향하며, 해당 법무법인과의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2월 6일 더킴로펌 업무협약식

2024.02.29 | 개원 30주년, 한마음의료원 체제로 도약하다

2월 29일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창원한마음병원 개원 30주년 기념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창원한마음병원의 주요 인사들과 간부들이 모두 참석하며 자리를 빛냈다.

기념식에서는 창원한마음병원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발표를 하였다. 상남한마음병원의 재개원을 오는 3월 1일에 완료하고, 곧바로 진료를 시작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창원한마음병원과 상남한마음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한마음의료원'의 출범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이 재개원으로 창원지역 최초로 의료원 체제가 구축되며,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의료원 및 창원한마음병원, 상남한마음병원 취임식도 함께 진행하였다.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이사장에 최경화(전. 한마음의료원 의료원장), 한마음의료원 의료원장에 하창훈(전. 창원한마음병원 상임이사), 창원한마음병원 병원장에 김명환(전. 창원한마음병원 소화기병원장),상남한마음병원 병원장에 박인성(전. 창원한마음병원 병원장)을 각각 임명하였다.

이날의 행사에서는 각 임원들의 소감과 함께, 향후 한마음의료원이 지향하는 비전과 목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이고,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짐을 공유하였다. 창원한마음병원의 30년 역사를 바탕으로 상남한마음병원의 재개원은 지역 의료계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었다. 참석자들은 한마음의료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지역 의료 격차를 해결하며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추구할 것을 공표하였다.

상남한마음병원 전경

2024년 3월 2일 상남한마음병원 개원식

2024년 2월 29일 창원한마음병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최경화 이사장 취임

창원한마음병원 김명환 병원장 취임

상남한마음병원 박인성 병원장 취임

한마음국제의료재단 하창훈 의료원장 취임

2024.02 | 의대 정원 이슈, 전공의 파업 의료대란에 목소리를 내다

대한민국에 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났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견대립으로 전공의 파업이 발생한 것이다. 많은 전공의가 파업하여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도울 의료인력이 부족해졌다. 수도권의 유명한 대학병원들은 전공의가 많은 시스템으로 병원을 유지하고 있었다.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자 곧바로 문제가 터졌다. 환자를 받을 수 없고 예정했던 수술까지 취소되는 병원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의대 정원에 대한 어떤 의견이든 날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첨예한 상황이었다.

이때 창원한마음병원의 하충식 설립자가 과감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의과생 2,000명을 추가로 뽑는 것은 증원이 아닌 복원”이라며 복원을 꼭 해야 한다고 주요 언론사에 의견을 전하였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때, 정부는 대한의사협회를 달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매년 350명씩 줄였다. 결과적으로 20여 년간 약 7,000명의 의사가 나오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소득 증가와 노인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의사 부족은 충분히 예견되었지만 의협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하였다. 하충식 설립자가 약 20년 전부터 지속해서 창원에 의과대학을 유치하고 의사를 키우려고 했던 것은, 이러한 의료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10년 뒤를 내다보고 걱정하였다. “2035년에는 70세 이상 의사가 3만 2,000명(75세 이상 약 3만 명)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진료가 쉽지 않다”라며 “잃어버린 1만 명을 복원해서 엉망이 돼가는 지방 의료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수도권 대형병원은 전문 및 중증 희귀질환에 집중하고 지역 의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의료 전달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전공의 파업으로 서울 ‘빅 5’ 대형병원에서 수술 연기와 취소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창원한마음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기다리던 사람들도 걱정에 휩싸였다. 그러나 창원한마음병원은 전공의를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병원 운영 어려움을 크게 겪지 않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의대 정원 증원 이슈에 대해 소신을 밝히고 있는 하충식 설립자

2024.03 | 수술이 취소된 환자들을 구하다

3월 13일 창원한마음병원에서 유충실 씨가 간이식을 받았다. 원래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예약했던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유 씨는 간경화 말기에 합병증이 심각하고 복수까지 차 있는 상태였다. 더 이상 수술 날짜를 미룰 수 없었다. 그는 서울에서 창원한마음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겨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3월 18일에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기다리던 또 다른 환자가 창원한마음병원으로 이동해 수술을 받았다. 한 달간, 췌장암 및 팽대부암, 간이식이 필요한 환자 등 서울의 ‘빅 5’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려던 약 10명의 중증환자들이 창원한마음병원을 찾아왔다. 환자들은 창원한마음병원에서는 제때 진료와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시스템 혼란이 서울 ‘빅 5’ 대형병원의 수술 연기 및 취소를 불러일으키자, 지방 환자들은 집 근처의 2차 병원을 찾아 발길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동안 서울의 대형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의존도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 사태를 계기로 지역 병원의 의료 역량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졌다. 창원한마음병원은 이러한 맥락에서 환자들에게 신속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간·담도·췌장센터 주종우 교수

2024.03.14 | 출산하는 직원을 위해 지원금을 전달하다

3월 14일 창원한마음병원은 출산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직원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새롭게 도입한 것이다. 앞으로 출산 시 자녀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며 배우자가 출산한 때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정부, 각 지자체, 기업 등은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지역 의료기관에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이례적이었다. 이전부터 창원한마음병원은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제공해 왔다. 기존에는 외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매월 자녀 양육 지원금을 지급해 온 바 있다. 첫 출산 지원금 전달식 이후, 6월 1일부터 근속 5년 이상의 직원들에 대한 지원 금액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근속 5년 이상의 직원이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200만 원, 둘째 자녀는 300만 원, 셋째 자녀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024년 10월 기준으로 99명(자녀 101명)이 출산 지원금 혜택을 받았으며 총 1억 800만 원이 전달되었다.

이처럼 창원한마음병원은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출산 과정도 지원함으로써 각 가정의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다양한 정책들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하충식 설립자와 출산 지원금을 전달받은 직원들

2024.03.30 | 존스홉킨스병원 교수진과 합동 췌장 세미나를 개최하다

3월 30일 창원한마음병원에서 개원 30주년을 기념해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교수진과 합동 췌장 세미나를 열었다. 한마음의료원 하창훈 의료원장이 존스홉킨스에서 경영학 석사와 의료 경영학 석사를 취득한 이래로 양 기관은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오고 있으며 창원한마음병원 김명환 병원장의 초청으로 존스홉킨스병원 신은지 교수가 세미나에서 강연하였다. 서울아산병원 소속 교수 등 국내 췌장 전문가들도 참석하였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췌장질환에 관한 최신 진단과 치료, 연구 발전 상황을 공유하였다.

먼저 존스홉킨스병원 신은지 교수가 '췌장 낭종에 관한 임상 진료 지침'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창원한마음병원 김명환 병원장, 한양대학교서울병원 윤재훈 교수, 이화여대서울병원 윤원재 교수, 창원한마음병원 황준성 교수, 전북대학교병원 김성훈 교수, 서울아산병원 송태준 교수가 연이어 발표하였다. 세미나가 끝나고, 김명환 병원장과 황준성 교수는 신은지 교수와 함께 췌장암, 만성췌장염 등 췌장질환 환자 내시경 시술을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지난해 창원한마음병원과 존스홉킨스병원은 MOU 관련 미팅을 추진한 데 이어 임상 연구 협업, 의료기술 공유 등으로 교류하고 있다. 세미나를 개최한 후에도 창원한마음병원은 존스홉킨스병원과의 학술 연구 및 의학적 교류를 활발하게 이어갔다.

개원 30주년 기념 췌장세미나에 참석한 의료진들

창원한마음병원 1층 로비에서 존스홉킨스병원 신은지 교수와 함께

2024.04.03 | 한마음의료원 미래혁신팀 제1기 수료식을 갖다

4월 3일 한마음의료원 미래혁신팀 제1기 수료식을 진행하였다. 미래혁신팀은 한마음병원의 미래를 만들고 준비하기 위해 발족되었으며, 하창훈 의료원장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지원한 직원 총 48명이 선별되었다. 간호, 진료 지원, 행정의 직종 구분 없이 모든 부서로부터 모집하였다. 2023년 10월 23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고 48명의 인원을 4개조로 분리하였다.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3월 28일까지 21주(5개월) 동안 격주로 공식 모임을 가졌으며 매주 모임에서는 미래혁신팀의 활동 방향을 점검하며 병원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조별로 주 2~3회 비공식 모임을 가지기도 하였다. 각 조는 7S, SWOT, 가치사슬, 마케팅 4개의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한마음병원을 분석해 총 350개의 개선과제를 정리하였다. 미래혁신팀 제1기 마지막 모임 날인 2024년 3월 28일에는 조별로 도출한 개선과제 발표회가 있었고 부서장급 이상의 관리자들이 참석하였다. 도출된 350개의 과제들은 다시 재심의하여 채택·불채택·보류의 과정을 거쳤다. 실행 부서별로 실황에 맞는 과제들을 선별하기 위해서였다. 채택한 과제들은 단기·중기·장기의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씩 실행하고 있다. 재심의 과정에서 불채택·보류된 개선과제들도 폐기하지 않고, 때에 맞게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창원한마음병원은 병원이 자리를 잡고 큰 성장을 했음에도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하며 더 높은 수준의 병원이 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중이다.

2024.05.09 | 한마음MBA아카데미로 경영을 배우다

5월 9일 한마음MBA아카데미 제4기 수료식을 진행하였다. 2010년에 시작한 한마음MBA는 경영학석사에 준하는 과정으로 이론적 지식과 실무적 경영 훈련을 통하여 경영 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둔 교육이다. 병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경영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 병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매주 목요일 18시가 되면 경영 강의를 듣고 토론하며 병원 경영 이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사고 훈련이 이루어져 수강생들의 학구열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제4기는 2024년 3월 7일 ~ 5월 9일(10주, 43명) 동안 진행되었다. 1기부터 4기까지 총 4기 수 동안 누적 실인원이 287명에 달하고, 이 수는 전체 직원 수의 약 16% 내외에 이른다. MBA 이수자는 예비강사 모임을 구성하여 매월 Book Club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매 교육을 녹화하여 모든 임직원도 강의를 재청취 할 수 있게 하였다. 한마음MBA는 직원들의 경영 지식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병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한마음MBA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창원한마음병원과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4월 3일 한마음의료원 미래혁신팀 제1기 수료식 현장

12 한마음MBA아카데미

기획조정팀 한윤수

한마음MBA아카데미의 기원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직원의 역량 개발이야말로 미래임을 확신하시고 교육에 대한 의지가 남다르셨던 하충식 의장님이 당시 타 기관에 재직하고 계시던 김영훈 경영원장님에게 강의를 요청하였고 '병원관리자교육'이라는 이름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9회차에 걸쳐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지난 후 창원한마음병원이 사림동 부지로 이전 개원 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이었던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병원관리교육이 다시 한번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창원한마음병원이 신설 이전된 해에 공식적인 '한마음MBA아카데미'가 개설되었습니다. 6월 10일부터 10월 21일 기간 동안 20주에 걸쳐 제1기 한마음MBA교육이 진행되었고, 참여 인원은 50명이었습니다. 그 이후 2022년에 2기(2.10~6.23) 20주에 66명, 2023년에 3기(3.9~5.11) 10주 80명, 2024년에 4기(3.7~5.9) 10주 43명이 한마음MBA아카데미를 이수하였습니다. 김영훈 경영원장님은 한마음MBA아카데미의 기원인 병원관리자교육을 시작할 때를 회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끔 교육훈련에 대한 주제어로 학술단체나 병원 단체에서 발표 할 때, 성공하는 병원과 실패하는 병원의 차이를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Management)의 차이로 주장해 왔던 나의 입장에서 보면, 상남동에 있었던 한마음병원은 성공하는 병원의 모습이었음에 틀림없었다. 100여 개 병원 이상의 병원관리자 그룹을 대상으로 병원관리자 연수교육을 담당하여 봤지만, 배움에 대한 열의가 한마음병원 경영진과 관리자분들만 한 곳은 손꼽아 보아야 할 정도로 대단하였다"

담당자인 제가 봐도 그랬습니다. 저는 2022년 기획조정실에 입사하여 제2기부터 담당자로서 한마음MBA아카데미의 진행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고 청강의 기회도 있었습니다. 현재 한마음MBA아카데미는 승진을 위해서는 필수로 수료해야 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생긴 선입견은 "단지 승진만을 위해 의례적으로 수강하는 것은 아닌가? 단순히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암기만 하는 것은 아닌가?"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큰 착오였습니다.

수강생들은 경영이나 조직관리에 대하여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낯선 용어와 사고에 힘들어했었던 모습이었지만 과정이 끝날 즈음이면 용어와 사고들이 익숙해진 모습으로 수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강사가 가르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고 수강자의 자발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수강생 모두가 한마음MBA아카데미는 스스로를 발전하게 할 수 있는 계기로 인식하고 있음에 틀림없었습니다.

더불어 2024년 제4기부터 한마음MBA아카데미 사내 강사 양성과정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사내강사를 육성함으로써 MBA교육이 한 세대에서 끊이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첫 발걸음입니다. 저도 이 과정에 참여하였고 하창훈 의료원장님께서도 공동참여하시면서 첫 출발의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그렇게 총 16명의 예비 강사가 4기 MBA 강의 참여를 시작으로 매달 1회 북클럽(Book Club)을 진행하면서 강의 주제와 연관된 서적을 발표 · 공유하면서 사내 강사를 준비하며 선진 경영 이론을 학습해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MBA아카데미 연수과정에서의 교육 내용에 대한 실천적 심층학습을 위하여 미래혁신팀 48명이 한마음의료원 Innovator로 참여하게 되었고, 2023. 10. 26. ~ 2024. 3. 29.(23주) 기간 동안 주제별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한마음MBA아카데미는 우리 병원이 전국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고유의 인재개발과정이자 자랑할 수 있는 복지입니다.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예비 리더 양성 과정이자 스스로 발전하고자 하는 자에게 무한한 기회와 교육을 제공하는 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담당자로서 2025년은 더욱 기대됩니다. 제5기 한마음MBA아카데미는 예비강사로 참여하고 있는 16명의 사내 강사가 직접 후배 직원들을 대상으로 MBA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새로운 장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16명의 예비 강사분들을 온 마음으로 응원하며, 한마음MBA아카데미가 국내 최고의 병원경영교육의 메카가 되길 기원합니다.

한마음MBA아카데미 강의 중인 김영훈 경영원장

한마음MBA아카데미 교육 현장(1)

한마음MBA아카데미 교육 현장(2)

2024.07.03 | 세계부부의날위원회, 제1회 출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다

창원한마음병원과 세계부부의날위원회(총재 하충식)가 '제1회 출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하충식 설립자는 최경화 설립자와 함께 20년 넘게 세계부부의날위원회를 지원해온 인연으로, 2024년 5월 21일 부부의날 축제에서 세계부부의날위원회 총재에 임명되었다. 제1회 출산의 날 기념식은 부부의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세계부부의날위원회와 경남 도내 최대 분만 건수 기록을 가진 창원한마음병원이 함께 개최하였다. 출산의 날은 2005년 7월 3일에 세계부부의날위원회가 12자녀를 둔 남상돈·이영미 부부(탤런트 남보라 부모님)에게 '올해의 다출산왕 상'을 수여하면서 입안한 날이다. 7월 3일(칠월 삼일)로 지정한 이유는 출산과 음운이 가장 비슷하기 때문이다.

제1회 출산의 날 기념식에는 지난 2010년 창원한마음병원에서 난소암을 극복하고 건강한 남아를 출산했던 김판상·김순덕 부부도 참석하였다. 많은 아이들이 함께한 기념식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득하였다. 행사는 시·도 관계자들의 기념 축사로 시작되었고, 저출생 극복 10대 헌장 낭독, 다자녀 출산 부모 상금 수여(구미 13남매 김석태·엄계숙 부부, 의령 10남매 박성용·이계정 부부), 국민 메시지 선포 등으로 진행되었다. 창원한마음병원은 빈부격차, 독거노인 소외현상, 저출생 등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를 주관해 오고 있다. 해당 기념식 또한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및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 5월 21일 부부의날 축제에서 하충식 설립자

2024년 5월 21일 부부의날 기념식이 진행된 국회 앞에서

2024년 7월 3일 창원한마음병원 4층 한마음홀 제1회 출산의날 기념식 개최 현장

2024년 7월 3일 제1회 출산의날 기념식을 위해 모인 참가자들

한마음국제의료재단

미래의 희망을 설계하다
한국의 MD앤더슨 암센터 건립

지난 30년간 한마음병원은 4병상 산부인과에서 1,008병상이라는
한강 이남 최대의 의료기관으로 성장했다.
개원 30년을 맞이한 한마음병원은 암 치료의 글로벌 리더로서
자리매김한 MD앤더슨 암센터와 견줄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암병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있다.
첨단 의료기술과 혁신적인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환자 맞춤형 치료와 통합적 관리시스템을 제공하여 한국을 넘어
아시아, 세계적 암 치료 허브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암병원 조감도

암 정복을 위한 최첨단 암병원 건립

한마음국제의료재단은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암 치료의 세계적 기준이 된 MD앤더슨 암센터를 넘어서는 글로벌 암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원대한 비전이다. 이는 단순히 병원을 건립하는 차원을 넘어, 암 치료와 연구의 패러다임을 혁신하고자 하는 도전이며, 암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하기 위한 다짐이다.

지난 30년간의 도전과 성취는 단순한 성장이 아닌 'KOREA TOP 20 세계적 수준의 아시아 의료허브'라는 그랜드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진보의 역사를 의미한다. 그 일환으로 암병원을 건립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탄탄한 기반을 다져왔다. 세계 유수의 의료기관 및 의료진들과 교류하며 병원의 역량을 한층 높였고, 암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인재 양성을 통해 환자 맞춤형 치료와 혁신적 진료방식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였다.

2030년까지 500병상 규모의 암병원을 건립하고자 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기술, 맞춤형 면역 치료실 등 최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유전자 기반 맞춤형 치료, 통합 암 치료 프로그램등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한 암 연구 및 임상시험 수행으로 글로벌 암 치료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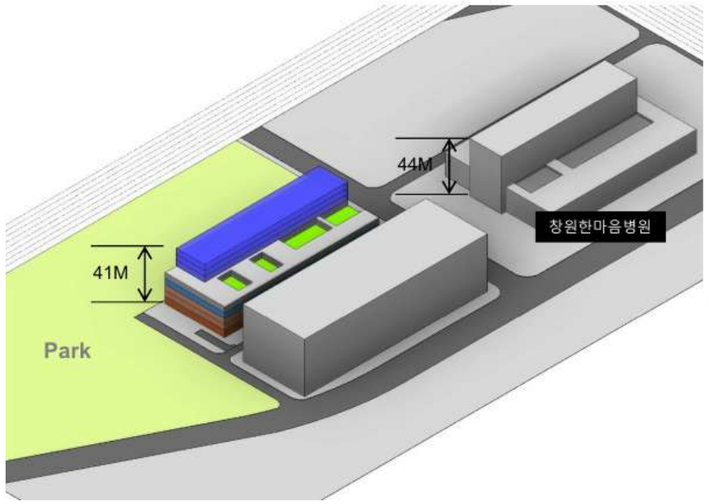
현재, 한마음국제의료재단은 MD앤더슨 암센터를 뛰어넘는 암병원 건립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중요한 전환점에 서있다. 이는 단순한 시설 확장이 아닌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던지는 새로운 도전장이다. 한마음국제의료재단은 앞으로도 암 치료의 한계를 넘고, 글로벌 헬스케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암 정복의 여정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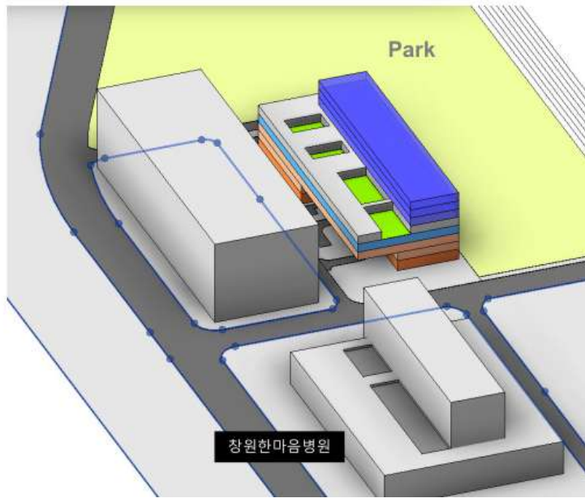
설계 개요

구분		내용	
대지면적	편입면적	10,976㎡	3,319평
건폐율	법정	60%	
용적율	법정	373%	
연면적	지상층	40,972㎡	12,390평
	지하층	33,494㎡	10,129평
	합계	74,466㎡	22,519평
규모	지상	9층	
	지하	3층	
조경면적		1,646㎡	
주차대수	법정	473대	
	계획	601대	

의료시설 개요

구분			면적(㎡)
8F	병동부	일반병동	3,313
7F	병동부	일반병동	3,313
6F	병동부	일반병동	3,313
5F	교육수련부	교수연구실, 강당	6,586
4F	중환자부	중환자실	6,586
3F	중앙진료부	중앙진료부, 수술부, 중앙공급부	6,586
2F	외래부	외래부	5,856
1F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외래부	5,420
B1F	공급부	공급부, 식당, 지하주차장	9,479
B2F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	9,479
B3F	지하주차장	기전실, 지하주차장	5,056
B4F	지하주차장/기계실	기전실, 지하주차장	9,479
총계			74,466





지속 추진 계획

01 최첨단 의료기술 도입

정밀 의학, 인공지능 기반 진단시스템, 혁신적인 치료법을 통해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최신 의료장비와 기술의 통합은 환자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마음국제의료재단의 의지를 반영한다.

02 의료원 안정화

한마음국제의료재단은 창원 내 최초의 급성기 의료원 체제를 구축하였다. 창원한마음병원과 상남한마음병원 간 의료정보 공유를 통한 연계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더불어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호텔과 연계한 의료클러스터를 강화하여 창원·부·울·경뿐 아니라 국내·외 환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03 상급종합병원 지정

창원한마음병원은 2010년 한양대학교의 교육수련병원으로서 진료, 교육, 연구분야에서도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 의료발전에 힘써오고 있다. 현재 8대 병원 및 30개의 진료센터 운영을 통하여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통하여 지역 의료서비스의 전반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며 공공의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

04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 기여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지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 교육과 질병 예방 캠페인을 통해 건강인식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촉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보건정책 연구, 전염병 예방 및 관리 방안, 사회적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국가 보건정책에 기여하고자 한다.

05 글로벌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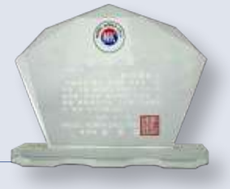
국외의 유수 의료기관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국제 학술대회에 참여하고, 교류를 통해 의료진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글로벌 협력은 한마음국제의료재단이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을 것이며,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의료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

한마음을 빛낸 상패들

1996.04.01
창원소방서 고문 위촉패

1996.08
분만실·신생아실 감사패

1998.02.10
MODEL KOREA CALL TAXI 감사패



1999.01.20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공로패

1999.12.31
함양군 감사패

2000.11.16
한국청소년상담원 감사패

2001.01.31
육군종합정비창 자매결연패

2002.01.28
조선대학교 장학금 기탁 감사패

2002.01.28
KBS창원방송총국 감사패

2002.04.15
해군사관학교 감사패

2002.06.26
한마음나눔회 국무총리 표창장

2003.01.01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감사패

2003.02.26

함양군 휴천면 월평리 월평마을 결연패

2003.03.19

함양군 병곡면 도천마을 자매결연패

2003.07.07

참자원봉사회 공로패

2003.10.15

한국복지재단을 빛낸 55인 수상패

2003.11.24

국민생활체육 창원시 야구연합회 감사패

2003.12.16

창원시축구협회 감사패

2004.03.02

월간지 기부 감사장

2004.03.19

부산대학교 감사패

2004.04.01

창원시 문화상

2005.03.26

경상남도의사회 감사패

2005.04.23

창원시야구협회 감사패

2005.04.24

상남동테니스연합회 감사패

2005.06.22

서울아산병원 진료자문위원 위촉장

2005.08.22

부산대학교 외래교수 위촉패

2005.12.31

KBS창원방송총국 감사패

2006.03.09

창원시발달장애아부모회장 감사패

2007.04.25

창원지방검찰청 표창장

2007.06.29

세계부부의날 위원회 감사패

2007.11.20

서울대학교 기부금 출연 감사패

2007.12.28

함양군 체육회장 감사패

2008.0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발전연구소
기금출연 감사패

2008.02.25

함양군 야구협회 감사패

2008.07.15

아름다운학교 아름다운병원 인증패

2009.02.12

명곡여자중학교 감사패

2009.03.10

창원시 감사패

2009.03.24

한국국제대학교 총동창회 추대패

2009.03.29

국민생활체육창원시야구연합회 감사패

2009.06.01

경남·울산재향군인회 지정병원협약패

2009.08.28

지리산회 감사패

2009.12.10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감사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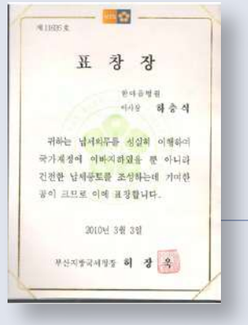


표 창 장

한마음병원
이사장 하 승 석

귀하는 남녀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국가재정에 어바지라였을 뿐 아니라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0년 3월 3일

부산지방국세청장 허 장 옥

2010.03.03

부산지방국세청장 표창장

2010.03.04

하나됨을 위한 늘푸른삼천 감사패

2010.06.05

동아대학교의료원 가정의학과 감사패

2010.08.14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자랑스런 함중인상

인 증 서
CERTIFICATE

2010년 9월 1일

사단법인 한국기록원

2010.09.01

나라사랑회 한국기록원 인증서

2010.10.17

전국게이트볼연합회 감사패

2010.12.23

천주교 마산교구장 감사패

2010.12.31

경상남도 감사패

2011.01.22

국민생활체육전국족구연합회 감사패

2011.02.18

보건복지부장관상

2011.03.12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감사패

2011.04.24

국민생활체육 경상남도족구연합회 감사패

2011.05.21

함양초등학교 감사패

2011.07.15

하충식 설립자 국민포장

2011.10.08

창원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감사패

2011.10.25

창원중부경찰서 감사패

2011.12.13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감사패

2012.01.11

의료기관 인증평가 1주기 인증 기념패(좌), 인증서(우)

2012.0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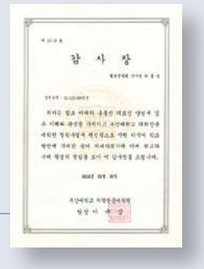
고용창출 우수기업 수상패

2012.05.22

대한불교조계종 불지사 공덕패

2012.05.30

부산대학교 감사장



2012.09.25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원우회 공로패

2012.12.21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공로패

2012.12.27

진주시 감사패

2012.12.31

KBS창원방송총국 감사패

2013.06.09

21세기배드민턴클럽 추대패

2013.09.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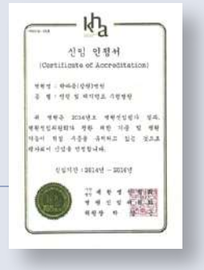
경상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감사패

2013.09.28

함양군민상 공로패

2014

수련병원 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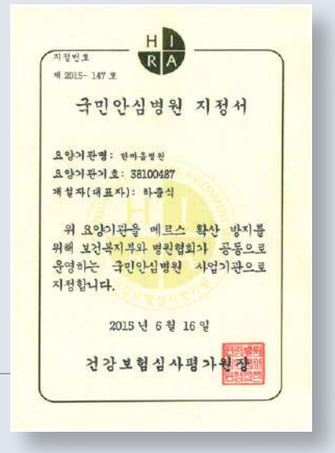


2014.02.13

진주고등학교 장학금 기탁 감사패

2015.05.30

해병대전우회 위촉장



2015.06.16

메르스 국민안심병원 지정서

2015.07.31

경남 의료관광 선도병원 지정서

2015.09.17

한양대학교 감사패

2015.09.24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축하패

2015.10.21

경찰의날 감사장(좌), 배지(우)

2015.10.27

대한적십사자 포장증(좌), 훈장(우)

2015.12.22

조선대학교 2015 자랑스러운 조대인 상

2016.03.08
농협은행경남영업본부 감사패

2016.05.29
재창원호남향우회 감사패

2016.06.12
조선대학교 공로패

2016.09.02
의료기관 인증평가 2주기 인증 기념패

2016.09.24
한국기록원
단일장소 최다인원 동시시삽 신기록 인증서

2016.10.15
학교법인 한양학원 이사장 증 기념패

2016.11.29
창원세무서장 감사패

2017.03.30
삼성SDS 감사패

2017.05.30
동아일보
2017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CEO 수상패

2017.09.26
학교법인 한양학원 이사장 증 기념패

2018.01.08
기독교총연합회 감사패

2018.02.27
TV조선
2018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수상패

2018.03.23

경상남도관광협회 부회장 위촉장

2018.08.29

MBC경남 감사패

2018.12.03

학교법인 한양학원 이사장 증 기념패

2018.12.11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감사패

2018.12.31

경상남도지사 표창장

2019.01.07

경남도민프로축구단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구 풀만호텔) 감사패

2019.01.07

경남도민프로축구단 감사패

2019.02.27

창원시 표창패

2019.05.01

하충식 설립자

국민훈장 동백장

2019.06.27

창원YWCA 감사패

2019.09.27

문화체육관광부 제46회 관광의 날 표창장

2019.10.10

경상남도아동복지협회 감사장

2019.11.21

보건복지부 감염병 예방관리 표창장

2020.09.04

의료기관 인증평가 3주기 인증 기념패

2020.09.27

대한산부인과학회 공로패

2020.10.14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서

2020.10.22

문화체육관광부 제47회 관광의 날 표창장

2020.11.09

경상대학교 발전기금 약정기념패

2021.02.26

창원시 감사패

2021.04.30

경찰청 감사장

2021.05.15

부산진여자고등학교 감사패

2021.05.25

경상남도의정회 명예회원 위촉패

2021.06.17

학교법인 한양학원 이사장 증 기념패

2021.08.15

농협은행 감사패

2021.09.09

대한고압의학회 감사패

2021.11.11

대한적십사자 사회공헌 표창패

2021.11.15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감사패

2021.11.26

창원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감사패

2021.11.26

함양군체육회 감사패

2021.11.28

삼성에스원 우수고객사 감사패

2021.12.02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감사패

2021.12.13

최경화 설립자

국민포장

2021.12.13

경남기독교총연합회 공로패

2021.12.16

오케스트라 감사패

2022.01.03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촉장

2021.12.22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함양교육상

2022.03.17

중앙일보 사회책임경영부문 수상패

2022.03.25

경남신문 사외이사 위촉패

2022.05.03

한양대 50주년 감사패

2022.05.19

포항공과대학교 감사패

2022.05.20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패

2022.06

엘살바도르

뇌성마비 환우 지원 감사패

2022.06.03

농협협동조합중앙회 감사패

2022.06.16

조선일보 2022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

2022.06.21

부산대학교 축하패

2022.06.24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 고문 위촉장

2022.09.05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신뢰기업
은상 표창(좌), 트로피(우)

2022.10.31

부산대학교 감사패

2022.11.11

대한산부인과학회 공로패

2022.12.15

새싹지킴이병원 감사패

2022.12.29

창원시직업재활센터 감사패

2023.04.05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감사패

2023.04.22

진주고등학교총동창회 자랑스러운 진고인상

2023.06.18

진양 하씨 감사패

2023.10.27

대한적십사자 감사패

2023.11.17

경남성시화운동본부 감사패

2023.12.06

창원시장애인부모회 감사패

2023.12.29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

2024.01.24

TV조선 K-BRAND AWARDS

2024.02.14

경상남도관광협회 고문 위촉패

2024.02.17

양곡새마을금고 감사패

2024.03.04

부산은행 증 기념패

2024.03.06

대한적십자사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가입패

2024.04.28

대한배드민턴협회 공로패

2024.04.30

국립창원대학교 공로패

2024.9.21

대한뇌졸중학회 뇌졸중센터 모범인증병원

2024.08.09

의료기관 인증평가 4주기 인증 기념패

Part.2

30년 사회공헌의 기록
공동체와 성장하는 한마음

창원한마음병원은 개원 초부터 두 설립자의
나눔에 대한 철학을 기반으로 사회공헌을 시작했다.
누군가는 말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봉사 아닌가?”
그러나 창원한마음병원은 30년간 꾸준히
사회공헌의 규모를 키우며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01 장학사업
02 마음으로 보는 세상
03 꿈나무체육대회
04 희망이 자라는 문화체험
05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
06 동네청소
07 해외후원 및 의술 전파
08 한마음병원배 생활체육대회
09 주부대학
10 새벽을 여는 사람들
11 사랑나눔 효잔치
12 군부대 지원

01 장학사업

"성품이 올바르고 착한 학생들이 생계를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아직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게
어른들이 나눔의 마음으로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최경화 설립자

창원한마음병원은 하충식 설립자의 부친과 숙부가 1975년에 설립한 '필봉장학재단'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다.

'가슴이 따뜻한 인재 양성'이라는 가치 아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전달하고, 한번 맺은 인연은 평생 관계로 자립 때까지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남 역 초·중·고교생 및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장학금 지원, 교복 구입비 기탁 등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애정과 지원활동에 남다르다.

하충식 설립자는 "지역에 소재한 대학이지만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열정을 쏟아 멋진 결과를 도출해 내는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경화 설립자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많은 훌륭하고 뛰어난 학생 중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사회에 먼저 발을 내디딘 선배로서 후배들이 학업 증진에 매진하여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전하며 장학사업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01

어제와 1999

02

03

01 진주고 필봉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2011.4.21
02 창원한마음병원 출생자녀 장학금 수여식 2012.2.27
03 부산진여고 장학금 전달식 2018.2.4

04 포항공과대학교 발전기금 약정식 2022.12.06
05 진해고등학교 장학금 전달식 2023.03.13
06 진해고등학교 장학금 전달식 2024.03.20

오늘 2024

04

05

06

13 의료진 장학금 수혜

방사선종양센터 정미주 교수

과거

저는 의사가 되고자 하는 맘으로 동기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던 때에 수능시험을 다시 보고 만학도로 2003년에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의학을 공부할 수 있다는 감사함에 누군가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예과 1학년부터 기숙사 봉사 동아리에 가입을 했고, 의과대학 졸업하던 해까지 주말마다 보육원 봉사 활동을 다녔습니다. 아마도 봉사단 부단장을 맡았던 것이 한마음병원과 인연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음병원 장학생으로 추천되었고 본과 2학년 겨울방학 때 상남동 한마음병원 응급실에서 한 달간 실습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응급실로 나와서 하충식 의장님과 행정직 선생님들과 함께 상남동 병원 일대 환경미화로 쓰레기 줍기를 하고 계단으로 9층 병동에 올라 회진을 돌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응급실 이이오 과장님은 응급환자 진료가 끝나면 함께 환자 리뷰를 하며 해리슨과 응급의학과 매뉴얼을 펼쳐서 치료 플로우차트를 만들어 주셨고, 이경란, 김명옥, 정경주 선생님들은 틈틈이 제가 라인을 잡거나 봉합 보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가끔 분만 환자가 있을 땐 권욱현 난임센터장님께서 자연분만 참관 기회도 주셨습니다. 실로 알찬 실습이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는 날엔 의장님께서 사진 한 장을 주셨습니다.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방미 공식 만찬 사진이었고 빌 게이츠 회장과 나란히 찍은 사진에서 겸손히 두 손을 모으고 있는 후진타오 주석의 모습을 가리키며 항상 겸손한 의사가 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후진타오 주석의 사진은 의대를 졸업할 때까지 기숙사 책상에서 제게 "항상 겸손해라"하고 늘 일깨워주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너도 의사가 되면 누군가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하셨던 말씀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떤 의사가 될지, 무슨 과를 할지 고민이 많던 제게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전공의 때부터 후원단체를 통해 빈민국 아동 후원을 시작하였고 제 일신에 축하할 일이 생길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후원 아동을 늘려나갔습니다. 처음 후원을 시작했던 한 아동은 지금 성년이 되었고 지금까지 8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한마음병원의 선행이 앞으로도 지속해서 오지의 아동들에게도 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암 환자를 치료하는 방사선종양학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전공의 1년 차 시절, 낯선 방사선종양학이란 학문을 공부하며 이해가 어려운 방사선생물학, 방사선물리학 공부로 지치고, 암 환자들을 대하며 내면이 단단하지 못해 의국에서 몰래 울며 마음이 지쳐서 수련을 포기하고 다른 과를 고민한 적도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시기에 의장님께서 훗날 방사선종양학과를 만들 테니 잘 배우고 와서 도와달라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용기를 얻어 꾸준히 수련을 이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현재와 미래

2021년 7월 1일에 방사선종양학과 과장으로 한양대학교 창원한마음병원에 제가 첫 출근을 한 날, 조례 단상에 올라 인사를 드린 그날의 감회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본과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 와보았던 상남동 219병상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상남동 한마음병원 의료진과 행정직 선생님들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의 노력이 지금의 창원한마음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 방사선종양학과는 타과에 비해 개설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한 과 중 하나입니다. 중소병원에서는 개설하기 힘든 과입니다. 한마음가족들의 지난 30년간의 땀과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방사선종양학과 개설이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앞으로 우리 병원이 2,000병상 3,000병상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 저와 우리 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1년 확장 이전 개원 이후 빠른 양적 성장을 하여 한양대학교 창원한마음병원이 수도권에서도 찾는 병원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질적 성장을 갖추고 내실을 단단히 하여 근무하는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창원한마음병원 화이팅!

02 마음으로 보는 세상

"아이들이 웃음짓는 것이
진정으로 마음으로 보는 세상입니다."

-하충식 설립자

창원한마음병원은 30년 동안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소외된 지역 아동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누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행사로 소년소녀가장과 시설 아동들을 위한 봄 소풍 행사인 '마음으로 보는 세상'이 있다. 이 행사는 처음 약 120명의 아이와 함께 소풍을 다녀왔다. 지금은 130여 개의 기관에서 4,500명의 아이가 매년 놀이공원으로 즐거운 소풍을 떠나고 있다. 단순한 놀이를 넘어,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한마음병원은 매년 이 행사를 통해 아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으며,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과거에 한마음병원의 야유회에 초청받아 하충식 설립자의 격려를 받았던 아동들이 훌륭히 성장하여 병원의 구성원으로 재회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렇듯 아이들에게 단순한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해 매년 행사를 지속하고 있다.

01

어제와 오늘

1996

02

03

01 2004.05.26
02 2005.05.15
03 2006.05.14

04 2022.05.14
05 2023.05.27
06 2024.05.18

04

05

2024

06

03 꿈나무체육대회

"아이들의 경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운 환경에 놓인 것이기 때문에 따뜻한 손길이 절실하지요.
아이들이 사회에서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자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충식 설립자

'꿈나무체육대회'는 창원한마음병원이 주최하며, 약 30개 지역기업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체육대회다. 경남지역사회의 소외 어린이들에게 체육대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회를 기획하고 주관한 하충식 설립자는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고, 동등한 기회를 얻고 더 크고 넓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하며, "대회가 단순한 스포츠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는 중요한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어린이들이 규모 있는 체육대회를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도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앞으로의 성장에 큰 자양분이 될 것이다. 한마음병원은 앞으로도 이 대회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며, 지역의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들이 더 밝고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01

어제와 2004

02

03

01 2007.10.26
02 2008.10.25
03 2009.10.10

04 2019.10.13
05 2022.10.08
06 2023.10.21

04

05

2024 오늘

06

14 창원한마음병원에서 매년 다양한 지역사회공헌 행사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전산팀 강병훈

창원한마음병원에 입사한 이후로, 병원은 개원 이래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만, 봄에는 '마음으로 보는 세상', 여름과 겨울에는 '희망이 자라는 문화체험', 가을에는 '꿈나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아이들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주며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 기회가 되면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참석은 대구놀이동산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참석 이후 여러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많았지만, 그래도 매년 개최되는 꿈나무체육대회 행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매년 참석한 것은 아니지만 참석할 때마다 뿌듯함과 창원한마음병원의 임직원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행사 취지에 공감한 지역 봉사단체에서도 힘을 보태어 아이들에게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행사에 참여하면서 매년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고 함께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아이들과 행사장에서 만나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머뭇거리기도 하고 어색해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맘껏 즐기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마음을 열고 함께하며 즐거움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직원들과 함께 솜사탕을 좋아할 것 같아 솜사탕 만드는 기계도 마련하여 직접 만들어 전해주며 기뻐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니 행사에 대한 참여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꿈나무체육대회를 하면서 아이들의 밝은 모습과 행복해하는 순간을 카메라에 담기도 했으며, 카메라에 담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행사가 개최되는 의미와 기쁨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이전에 관심이 있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도 획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창원한마음병원이 '지역대표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봉사단체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뜻깊은 행사를 꾸준히 해옴에 따라 저 또한 다양한 경험과 추억을 쌓게 된 시간들이 참으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성장할 만한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해줌으로써 충분한 기회를 주고 환경을 제공하며, 앞으로 성장하면서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경험들을 제공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에 보람을 느끼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참석하여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04 희망이 자라는 문화체험

"아이들은 작은 순간에도 큰 배움을 얻습니다.
문화체험이 아이들 성장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화 설립자

여름과 겨울에는 '희망이 자라는 문화체험'을 시행한다. 창원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아동보육 관련시설, 다문화 및 새터민가정 아동 등 지역 내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행사를 기획하였다. 열악한 환경의 아이들이 즐거운 문화체험을 즐기며 밝은 미래를 그리는 꿈이 퇴색되지 않기를 바랐다. 2008년 8월 26일 '제1회 희망이 자라는 문화체험'을 시작으로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영화관람 및 호텔 뷔페를 제공해 오고 있다. 창원한마음병원이 그랜드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을 인수하고부터는 최경화 설립자의 주도 하에 호텔 뷔페로 아이들을 초대하고 있다. 2008년 이후 매년 반복해 오고 있는 이 행사는 더 많은 아동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규모를 매년 확장해 나가고 있다.

01

어제와

1999

02

03

01 2008.08.26
02 2009.08.12
03 2010.01.14

04 2022.01.13
05 2023.01.13
06 2024.01.13

04

05

2024

오늘

06

05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

"장애인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이 취직이 됐으면 좋겠고, 주위에서 기업들이 힘을 합쳐
십시일반 정신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적극 실천했으면 합니다.
건강한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의 장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하충식 설립자

2021년 3월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의 시작은 한 외부 주간활동센터의 제안으로부터였다. 그 당시 요청기관은 운영 상의 어려움(장애인 부모들의 자발적 레슨비 지원, 장애인 교육 바우처 등의 기금으로 운영)과 연주 능력 개발 시간 부족으로 구성원들의 실력 증진과 운영에 고충을 겪고 있었다. 창원한마음병원은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2021년 4월 '예술직'으로 9명을 채용한 후 점차 인원을 늘려 총 25명으로 구성된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였다.

2022년 7월 창단 1주년 기념 연주회 이후 꾸준한 노력과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다. 2022년 9월 의료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장애인고용 신뢰기업 '트루컴퍼니'로 은상을 수상하고, 동년 11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1,000명 이상 민간기업 부분에 선정됐다. 창원한마음병원 내에서 매주 1회 개최하는 음악회를 바탕으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효과와 더불어 의료기관으로서 최초로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를 통해 구성원의 자발적 근로 경제 활동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 향상을 돕고 사회적 자립을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하였다.

어제와

2021

01 2021.07.01 제1회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 창단기념 음악회
02 2021.12.16 제1회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03 2022.05.18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 야외음악회

04 2023.07.05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 창단 2주년 기념 연주회
05 2023.12.20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 크리스마스 사랑 음악회
06 2024.07.03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 창단 3주년 기념 연주회

오늘

2024

06 동네청소

"우리 병원을 오가는 고객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더불어
지역의 환경정화를 위해서 노력합시다."

-하충식 설립자

1994년, 하충식 설립자는 병원을 찾는 내원객들이 더 쾌적하게 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병원 주변의 쓰레기를 직접 청소하기 시작했다. 처음 아침 청소를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는 "하루 이틀 하다 말겠지"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하충식 설립자는 매일같이 직접 청소에 나섰다. 1997년에는 청소 활동을 하는 구성원들이 모인 '나라사랑회'를 정식으로 발족했다. 병원이 문을 여는 날이라면 매일 아침 40분씩 병원 주위 거리를 청소했다. 상남한마음병원 시절에는 하루 약 60여 kg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연간 22톤의 많은 쓰레기를 한마음병원이 자체적으로 청소해 온 것이다. 이 청소 활동으로 1998년 창원시장상, 2004년 창원시 문화상을 수상했고 이어 환경부장관상까지 받았다. 2010년에는 직장인 동호회 최장 자원봉사 기록을 한국 기록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개원 30주년을 맞이한 2024년, 여전히 하충식 설립자와 임직원들은 노란 조끼를 입고 아침에 모여 병원 주위를 직접 청소하며 말 그대로 나라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01

어제와 1994

02

03

01 2004.04.02
02 2007.08.23
03 2011.08.19

04 2016.10.10
05 2021.05.12
06 2024.06.08

04

05

2024 오늘

06

15 한마음병원의 자랑 '나라사랑회'

영상의학팀 유성민

1995년 1월 1일은 우리 한마음병원이 봉곡동에서 개원한 역사적인 날이며, 우리 병원의 자랑인 '나라사랑회'가 처음으로 병원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30년이 흐른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처음에는 '나라 사랑회'라고 하는 정식 명칭은 없었습니다. 우리 병원과 병원 주변을 깨끗이 하여 병원을 찾는 분들과 이웃 주민들을 기분 좋게 하자고 하여, 매일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환경정화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병원의 핵심 가치 중의 하나인 봉사는 그렇게 개원 첫날부터 실천되었던 것입니다.

1997년 9월 1일부터 '나라사랑회'라는 봉사 단체를 정식으로 발족하여 환경정화운동 범위를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기존의 병원 반경 0.5km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여 환경정화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초대회장으로 최형우 시설과장님, 총무는 전창욱 총무과장님이 맡으셨고 명예회장으로는 하충식 의장님께서 맡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환경정화운동과 더불어 1997년 10월 1일부터는 매주 토요일(11시~12시)에도 시간의 여력이 있는 남자 직원들은 하충식 병원장님의 주도하에 병원 주변의 상가, 도로 화단, 봉곡동 하천 부지 등에서 환경정화운동을 실천하였습니다.

처음 환경정화 운동을 시작할 때 주위의 시선이 호의적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기 이전에는 이러한 일이 전혀 없었어니 생소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일년 이년의 세월이 흘러도 한결같은 주위 환경정화 운동은, 어는 순간 의심의 눈초리에서 격려와 응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아직도 기억이 남는 일은 병원 옆 빵집 사장님의 친절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청소를 하며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우리(4명 정도)를 빵집으로 불러 빵과 쉐이크를 주시면서, 우리 때문에 주변이 너무 깨끗하여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면서 청소하다 배가 출출할 때는 언제든지 들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직도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또 주변 상인 한 분은 청소를 쉬는 일요일이 참 아쉽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응원하는데 그 소릴 들으면서 새삼 우리가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병원의 환경정화활동은 경남 신문, 의학 신문, 경남 매일 신문 등에 소개되었으며 1998년 4월 2일에는 창원 시민의 날에 창원시장 표창장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2001년 12월 10일부터는 상남동으로의 병원 신축이전으로 인하여 환경정화 구역이 변경되었으며, 나라 사랑회 회원 수도 기존의 15명 내외에서 3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청소 구역도 병원 반경 2km 이내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상남동에 처음 병원을 개원하였을 때에는 주변에 건물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인근 나대지에 꽃밭을 조성하고, 원내 화단에 야생화도 심고 화분도 설치하였으며, 도로 가로등에 화분 걸이를 설치하면서 주변 환경을 정화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4년 12월 31일에는 우리의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 장관 표창장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주변이 개발되면서 활동 범위를 병원 뒤 공영주차장과 인근 테니스장, 공원, 하이마트까지 넓혀 나갔으며 토요일에는 토월천 정화 운동과 정병산 정화 활동 등 규모가 큰 부분도 지속해서 실천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드디어 큰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록 인정원에서 '직장 봉사 단체 최장기간 환경정화 활동 분야'라는 한국 기네스 기록으로 등재를 하였습니다. 공식 인정 활동 기간은 1996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이며, 2010년 9월 1일에는 병원 2층 세미나실에서 하충식 의장님의 환영 인사 말씀과 더불어 한국기록원 김덕은 원장께서 직장인 동호회 최장 자원봉사 한국 기록 인증서 수여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우리 창원한마음병원의 환경정화 활동은 2021년 3월에 현재의 병원으로 이전한 후에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병원 인근 도로 화단 청소와 병원 옆에 위치해 잇는 저수지 환경 정화 활동, 병원 인근 주차장도 지속해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병원이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데 나라사랑회가 일조했다는 데 대하여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면서, 앞으로도 나라사랑회 구성원 모두 초심을 잃지 않고 병원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창원시민과 경남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07 해외후원 및 의술 전파

"100년 전 호주와 미국의 선교사가 일신기독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을 세워 우리를 도왔듯이 국가를 대신해서
가난한 나라에 대학병원과 의과대학을 세워 보답하겠습니다."

-하충식 설립자

과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보며 자라온 창원한마음병원의 두 설립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부터 받은 것을 잊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해외 국가들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마음은 실천으로 이어져 2003년부터 국제적 구호 활동을 돕고 있다.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구호기금과 후원금을 전달하는 한편 의료봉사단을 파견하기도 하며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해외의 여러 국가에서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을 찾아가 현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치료와 예방접종, 건강 상담 등을 제공하고 선진 의료기술을 보급하며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현지 주민들과의 신뢰를 쌓아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의료봉사단은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한마음병원은 국내에서의 따뜻한 사랑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글로벌 의료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마음병원은 이러한 활동을 더욱 확대하여 세계 곳곳에 있는 소외된 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길을 지속해서 걸어가고자 한다.

01

어제와

1995

02

03

01 2014.07.03 탄자니아 관계자 방문

02 2014.07.28 짐바브웨 중앙나쇼날랜드 주지사 방문단

03 2015.02.28 탄자니아 주지사 건강검진 지원

04 2017.10.30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대통령병원' 방문 수술 시연

05 2019.01.23 북한주민들을 위한 식량생산공장 설립금 1억 원 기탁 약정

06 2024.06.19 인도네시아 인니 아담말릭병원 의료진에 의료기술 전수

04

05

2024

오늘

06

16 헝가리 세게드 의대 실습생 후기

진은우 학생

우선 한국에서 외과 실습할 기회를 제공해 주신 하충식 이사장님과 외과 교수님들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국 병원에서 외국의과대학 학생이 실습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 병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거절의 대답만 번번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이어진 거절에 속상한 마음에 지쳐갈 때쯤, 창원한마음병원에서 실습할 수 있게 돼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3주간의 짧은 여름방학 외과 실습을 진행했고, 일반외과 차성재 교수님과 흉부외과 최주원 교수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다양한 수술에 참관은 물론, 교수님들의 외래 진료, 아침 회진까지 함께할 수 있어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 실습 학생을 알뜰히 챙겨주시고, 강의를 비롯해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지식까지 나눠주셨습니다. 또 인생 선배로서 앞으로 저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임상의 선배가 해줄 수 있는 실속 있는 조언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국어로 배우는 수업과 수술이 가장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모국어를 사용하니 편하게 질문할 수 있었고, 교수님은 성실하게 저희의 질문에 답변해 주셨습니다.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직접 보고, 느끼고, 배우며 한층 더 성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병원 내부가 쾌적하고 깨끗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 교육수련부 직원분들 모두의 배려와 친절 덕에 즐거운 3주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술실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수술 참관을 하면서 혹시나 방해가 될까 걱정했는데, 조금이라도 더 잘 볼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습니다. 따로 감사 인사를 못 드리고 와서 아쉽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창원한마음병원으로 실습을 오고 싶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해본 첫 실습이었는데, 좋은 추억과 많은 배움을 얻었고, 모국에서의 잊지 못할 첫 실습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실습 기회를 주신 이사장님과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원효종 학생

우선 3주 동안 창원한마음병원에서 실습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실습 동안 일반외과 차성재 교수님과 흉부외과 최주원 교수님께서 지도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여러 환자 케이스들을 통해 일반외과에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환자군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수술실에서 수술 과정 및 해부학 등에 관해 지도해주셨으며, 외래 및 회진을 통해 환자와의 라포르 형성, 수술동의서 설명, 환자 팔로우업 등을 배웠습니다. 또한, 따로 시간을 내주셔서 임상관련 지식과 기본 술기 등을 강의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아니라 앞으로 의사로서의 커리어에 관한 현실적인 조언도 많이 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만 이루어진 지도가 아니라, 학생들이 궁금한 점을 편하게 질문드리고 또 반대로 질문당하면서 피드백과 함께한 실습이어서 더 효율적인 실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책으로 이론만 배우던 것들을 실전에서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어서 더욱이 이해가 잘되었고, 앞으로도 기억에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 뿐만 아니라 같이 계시는 간호사 선생님들과 교육수련부 팀장님도 잘 대해주시고 배려해주셔서 실습을 더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3주가 짧았다고 느껴져서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교수님들께 더 배우고 싶습니다.

김세림 학생

의대 4학년, 한국으로는 본과 2학년을 마치고 하는 외과 실습을, 바쁘신 시간에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외과 교수님들과 이사장님의 배려로 창원한마음병원에서 3주간의 여름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외과를 전공으로 하고 싶었기에 이 실습이 더욱 의미 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서, 젊은 날의 시간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가치 있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의사의 길을 선택했지만 길고 어려운 의대 과정 속에 때로는 목적을 잃고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간혹 주요 과목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안이한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습 기간동안 아침에 출근하여 회진을 돌고, 외래 환자들을 진찰하고, 다양한 수술을 집도하며 문자 그대로 환자를 '살리는' 교수님들을 보고 나는 어떤 의사가 되고 싶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느낀 의사는 더 나은 치료를 위해 항상 공부하고, 본인의 지시 사항과 그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며 어떤 응급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사람을 살려내야 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말들이지만 이를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과 경험이 필요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나도 저런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님들은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케이스를 설명해 주시고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니고 임상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임을, 많은 케이스를 직접 경험하고 이론에 머물러있던 지식을 내 것으로 체득하는 게 이 실습에서 얻어가야 하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3주가 순식간에 지난 것처럼 느껴지듯 너무도 알차게,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고, 저희를 학생으로 여겨 진지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미래의 의사로 다양하게 조언해 주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혁 학생

저는 한양대학교 창원한마음병원에서 하는 실습이 한국에서의 첫 실습이기에 많이 떨리고, 또 많이 기대했습니다.

첫날에는 이사장님과 함께 병원 꼭대기 층부터 지하의 모든 층을 방마다 돌면서 인사를 했는데, 이사장님만의 그 정신이 참 대단하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습을 모국어로 진행하니 매우 반가웠고, 환자들과 소통하시는 교수님들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니 기분이 색달랐습니다. 외과를 지망하고 있기에 수술 스크럽을 섰을 때 살짝 울컥하였고,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수련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졌습니다. 의학용어 학습도 하였습니다. 의학용어를 먼저 학습하고 갔던 것이 병동에서의 용어와 문서를 볼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실습을 하게 도와주신 이사장님과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Huang Yen-Hsin 학생

First of all, I am really appreciate this opportunity to have the surgery practice in Changwon Hanmaeum Hospital for 3 weeks. As a foreign, it is not easy to find a hospital to have the experience. Thanks to all the doctors, nurses, physicians assistant and people who help us in the practice and take good care of us.

Second, thanks to both Dr. Cha and Dr. Choi. What they taught us is not only the medical knowledge but also the way of thinking and asking. We are encouraged to ask all the questions that we met in the practice. The professors are all willing to answer it and giving us the further knowledge. We had the lectures about clinics knowledge(chest X-ray, suture and tie, wound care, cerebral rule in operation theater and so on). We learned a lot of clinical experience from the professors by participating in the surgery, attending the outpatient clinic, and taking care of patients in wards.

Last but not least, this 3 weeks surgery practice is a good experience. We learned how to make the theory that we knew into the real clinical action. The professors are also willing to share their own experience to us. I hope in the future I can have the chance to have the practice in Changwon Hanmaeum Hospital again.

08 한마음병원배 생활체육대회

"대회를 통해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즐겁고 활기찬 가정·직장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하충식 설립자

창원한마음병원은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야구대회, 배드민턴대회, 족구대회 등 다양한 '창원한마음병원배 생활체육대회'를 꾸준히 개최했다. 이러한 대회는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건강한 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한 것이다. 참가자들은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공동체 의식을 느끼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더하여 일상에 즐거움을 더하는 소박한 축제의 장이 됐다.

첫 대회는 2003년 2월 28일에 열린 제1회 한마음병원배 야구대회였다.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병원의 직원들도 함께 참여하며 대회를 즐겼다. 이후 배드민턴, 족구, 게이트볼 등 다양한 종목을 추가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한마음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장을 제공했다. 지역 주민들의 교류로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마음병원은 앞으로도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01

어제와 2003

02

03

01 2004.02.29~03.28
02 2005.02.27~03.27
03 2005.12.04

04 2015.05.10~11
05 2016.05.22~23
06 2018.06.09~10

04

05

2024 오늘

06

17 언제나 건강한 한마음병원, 배드민턴과 함께라서 행복해

구매관리팀 이종민

창원한마음병원의 배드민턴

창원한마음병원의 배드민턴 역사는 병원과 함께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2005년부터 지금까지 말입니다. 매해 빠짐없이 창원한마음병원배 배드민턴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대회의 발전기금 또한 꾸준히 지원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 역사가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뤄낸 결과이지만, 그 중에서도 빠질 수 없는 하충식 의장님께서는 한마음병원 배드민턴 역사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문화체육 발전과 참여를 높이신 장본인이십니다. 타칭 '배드민턴 대통령', '창원 조인성'이라 불리며 지역구 배드민턴 동호인들께 상당히 인기가 많으신데, 이는 타고난 외모 덕도 있지만 의장님께서 지역 주민들께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사랑과 나눔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인들을 만나거나 소개할 때 이러한 역사가 자랑스러워서 몇 번씩 반복해서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창원한마음병원배 배드민턴은 20회, 30회를 넘어 창원의 전설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배드민턴으로 배우는 삶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배드민턴의 장점을 나열하라고 하면 이 페이지를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국민 스포츠 배드민턴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균형을 바로잡고 전신을 모두 사용하는 스포츠로, 근력 강화, 순발력, 지구력 증가에 매우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성장기 아이들부터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스포츠이다 보니 대인관계 향상에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장점도 물론이거니와, 점수를 내야 하는 단기적인 목표가 있고 경쟁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스포츠의 가장 원초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재다능한 배드민턴을 저는 어렸을 적부터 접하였고, 좋아하였습니다. 제가 의장님을 처음 대면할 수 있었던 계기도 배드민턴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니 입사와 결혼, 그리고 하나뿐인 제 아들 탄생까지도 제 인생에는 배드민턴이 걸쳐 있었습니다. 몇 년간의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회는 혼자만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타인과의 교류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배드민턴을 하면서 단순히 운동하는 것이 아닌 작은 사회를 체험하는 경험을 하였고, 거기서 배우게 된 팀워크 정신을 바탕으로 직장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병원이 오랜 시간 동안 배드민턴과 상생해 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큰 매력을 가진 스포츠입니다. 꼭 제 아들도 이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버엔딩스토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년 진행되는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창원한마음병원 배드민턴대회입니다. 지역구 동호인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큰 행사이자 대회입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이 대회가 단지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발전에 도움을 주신 많은 동호인들과 한 분 한 분 인사를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엄마의 조언처럼 우리 병원이 나아가야 할 바른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들과 진심을 터놓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매년 열리는 대회이지만 항상 새롭습니다. 수많은 클럽에서 입장식을 가지각색의 퍼포먼스로 펼치는데, 보는 사람 또한 즐겁습니다. 수많은 경품 시상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특별한 매력입니다. 저도 배드민턴 동호인으로서 이 대회만큼은 항상 설렙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위해 우리 병원의 핵심 가치인 행복, 봉사, 사랑, 노력, 그리고 혁신을 바탕으로 매 경조사 및 의료 혜택을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베풀어 주셨고, 단위 클럽 회장 이취임식에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창원 지역 배드민턴 꿈나무들에게는 자진 발전기금까지 지원해 주시면서 또 하나의 감동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진정 아무도 할 수 없는 선행이자 사랑의 베풂입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이러한 진심이 담긴 베풂은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라는 위기가 있었지만, 지역 주민들이 우리 병원을 응원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큰 나무와 깊은 뿌리처럼 영원히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09 주부대학

"교육 내용을 통해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널리 퍼뜨려주시길 바랍니다."

-최경화 설립자

창원한마음병원 '주부대학'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올바르고 다양한 건강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 한마음병원 '제1기 주부대학' 개최를 시작하였다. 매년 두 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는 3월~5월 12주간에 이어, 하반기 9월~11월 12주간으로 각각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 수료자들은 기수별 한마음봉사단으로 소속되어 원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원내 안내봉사 및 동행봉사, 그리고 이발봉사 등이 있다. 원외로는 취약계층 캠페인 및 불우이웃 기금모금 바자회 참여, 김장나눔봉사, 꿈나무 체육대회 먹거리 후원 및 봉사, 어버이날 효잔치 봉사 등이 있다. 창원한마음병원과 함께 다양한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봉사라는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어제와 2011

01 2011.07.12 제1기
02 2011.12.13 제2기
03 2012.02.06 제3기

오늘 2024

04 2019.12.11
05 2023.05.24 제21기
06 2024.05.21 제23기

18 창원한마음병원과 함께하는 사랑의 손길

주부대학 강점둘 회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한마음병원 주부대학 총회장 강점둘입니다. 먼저 창원한마음병원 3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펜을 들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11년 한마음병원 주부대학을 시작으로 13년이 지났습니다. 창원한마음병원 주부대학은 상·하반기 연 2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강을 끝마친 뒤 졸업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추구하는 핵심가치 실현에도 있듯이 기수별로 졸업생들이 병원에서 진행하는 내·외부 행사 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부 행사로는 상남 병원 시절 '차 봉사'를 시작으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환자·보호자들께 여름에는 시원한 차를, 겨울에는 따뜻한 차를 제공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이후에는 병원을 방문하시는 취약 환자, 어르신들이 최대한 진료를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동행안내 봉사를 시행하였으며, 세발봉사, 이·미용봉사 활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내부에서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세상', '꿈나무체육대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사랑나눔 효잔치' 등 대외적으로도 오랜 기간동안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시는 하충식 의장님, 창원한마음병원 임직원분들과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행사에 참여하며, 현재까지도 쭉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 중 '마음으로 보는 세상', '꿈나무체육대회' 행사 시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먹거리를 만들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부모의 마음으로 맛있게 먹으며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저희가 더없이 행복한 마음을 받아 가기도 합니다.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시에는 매해 50여 명의 회원분들께서 함께 참석해 주시는데 행사를 하는 날 유독 추운 날씨일 때는 회장으로서 회원분들께 미안하기도 감사하기도 한 마음이 든답니다. 그래도 봉사활동에 함께 참석해 주시는 회원분들도 정말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뭉쳐져 마음과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사랑의 김장 행사에 참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용 봉사'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다행히 미용 사업을 하시는 회원님의 적극적이고도 감사한 도움에, 서로 머리를 감겨주며 실력을 쌓아서 무리 없이 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미용에 참여해 주시는 회원분들 모두가 실제 미용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봉사활동 일정이 있는 날에는 영업장을 닫으면서까지 봉사에 임해주고 계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창원한마음병원 주부대학 회원분들은 늘 열정적이셨고,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서로를 더 위로하고 격려하며 도와주려는 강한 마음으로 현재 수료한 23기까지 졸업생분들까지도 더 단단하게 한마음으로 이어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수년간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지만 의료기관 특성상 병원에서 시행하는 봉사활동은 쉽지 않은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외래 환자가 너무 많았고, 진료 전후 우는 아이들 달래느라 병원에서 사탕까지 준비해 주셨는데 고맙다는 부모님들도 계셨지만, 이빨 썩고 사탕 먹다가 목에 걸리면 책임지냐고 핀잔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지요. 세발봉사 시에는 여름이 되면 선풍기 틀어도 너무 더워 여간 쉽지 않았고, 또 20대 초반 젊은 여성 환자분의 긴 머리를 감겨드리다 상의가 젖어 병원 게시판에 불만 사항으로도 접수되어 고민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미용 봉사활동 시에도 겨울엔 창가 햇살로 따뜻했지만 여름에는 장소 특성상 머리카락이 날리면 안되기 때문에 선풍기조차 틀 수가 없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면 잠시나마 시원했지만, 병실에 머리카락 들어온다고 보호자분이 왜 여기서 하냐고 하시면 그저 "죄송합니다"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셨습니다. 덥다고 음료수 가져온 환자분들 뭐라도 챙겨주시려던 보호자분도 계셨지만 순수 봉사활동을 하는 마음에 음료수를 받지 않아도 그 따뜻한 마음에 또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19 때와, 기다리고 기다렸던 본원 개원식! 병원이 너무 커져 안내 봉사도 기존보다 인원수를 더 늘려야 했고 다른 봉사들까지 규모를 키워야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각 기수 임원분들과 회원분들의 협조가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진료차 방문하신 하충식 의장님께서 하루 두 명만이라도 봉사를 부탁하시는 말씀에 짠한 마음과 빨리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 여러 임원분과 회원분들께 전화를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우려했던 대로 선뜻 도움의 손길을 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렴요. 전 세계가 힘들었던 심각 단계였으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리를 비울 수는 없어 연합 총무님과 둘이 봉사를 시작하여 조금 조금씩 함께하려는 회원님들이 계셨으나 이내 4단계로 격상되며 회원분들의 걱정에 잠시 봉사를 쉬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며칠 후 병원 상황이 걱정되어 방문했을 때 1층 안내로 인해 비어 있는 데스크를 보며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를 해야겠다고.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시작했습니다.
임원님들 단톡방에 한 분이라도 더 도움을 주십사 병원 소식을 거의 매일 남겼습니다. 그래도 제가 복이 많은 사람인지 봉사에 참석하시려는 임원분들과 회원분들은 다시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난관에 부딪혔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제 삶의 큰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즐겁게 행복한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해가고 있지만, 저에게도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큰딸이 출산 중에 발견된 종양으로 조직검사를 했고 그 결과 자궁기질육종암이라는 희귀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울 메이저병원에 갈 수도 있었지만 저에겐 신뢰와 믿음의 한마음병원이었기에 망설임 없이 산부인과 신병섭 여성병원장님께 치료를 맡겼습니다. 수술과 항암 그리고 완치판정까지 5년의 세월이 저에게는 암흑이었고 고통이었으나, 다행히 모든 치료를 잘 받고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남편이 방광암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6번의 수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초기 검사에서 발견되어 비뇨의학과 이종복 교수님께 치료받고 유지 중입니다. 남편과 딸의 암 발병에 내가 뭘 잘못했나? 잘못 살았나? 하염없이 자문하며 힘들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남편도 딸도 초기에 발견되어 다행히 건강을 되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유능한 교수님들과 최첨단의료장비, 그 앞에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의장님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병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 주시는 의장님! 30년 전 봉곡동 한마음병원에서 의장님이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저소득층 어르신 치질 등 무료 수술도 여러 번 해주셨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전 회원 친목의 장도 마련해주시고 봉사 횟수에 따라 해외연수도 보내 주셨습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닐지라도 송년의 날 의장님 감사패, 국회의원상, 도지사 감사패 등 우리의 노고를 알아주시기에 모든 회원분들께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창원한마음병원 주부대학의 모든 회원님들! 우리는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통해 병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묵묵히 누구보다 열심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한 우리 1기~22기 본원 봉사팀, 23기 상남한마음병원 봉사팀, 이·미용 봉사팀. 임원분들과 회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봉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남편과 두 딸들 고마워요. 저는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통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0 새벽을 여는 사람들

“우리 사회의 숨어있는 영웅들에게 감사함을 가집시다.”

-하충식 설립자

‘새벽을 여는 사람들’ 간담회는 창원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을 초청해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특별한 자리다. 창원한마음병원의 임직원들은 매일 병원 주위 거리 청소를 통해 환경미화원들의 노고와 헌신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그들의 고충에 깊이 공감했다. 환경미화원은 지역사회의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새벽에 활동하기에 미화원의 노고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았다. 창원한마음병원은 환경미화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의 수고에 보답하기 위해 행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는 한마음병원 임직원들과 환경미화원들이 고충을 공감하며 소통하는 자리가 됐고, 행사는 환경미화원들에게는 큰 격려가 됐다.

창원한마음병원은 꾸준히 새벽을 여는 사람들을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함께하려는 노력을 이어가려고 한다.

어제와 2009

01 2009.12.03
02 2015.12.03
03 2016.12.01

04 2017.12.08
05 2018.12.06
06 2019.11.27

2024 오늘

11 사랑나눔 효잔치

"이날의 주인공인 어르신 모두가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화 설립자

'사랑나눔 효잔치'는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해 온 어르신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창원한마음병원이 직접 기획한 특별한 행사다. 그 첫 발걸음은 2015년 5월 8일이었다.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존중을 다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한 자리를 만들었다. 어르신들은 맛있는 식사를 즐기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진다. 이와 더불어, 행사에서는 춤, 마술, 그리고 트로트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마련되어 어르신들은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후로 행사를 매년 개최하였으며,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사랑나눔 효잔치는 단순한 잔치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소중한 존재를 기억하고 삶을 존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발전했다.

창원한마음병원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나눔의 정신을 이어가며,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01

어제와 2015

02

03

01 2015.05.08
02 2016.05.06
03 2017.05.04

04 2023.05.02
05 2024.05.07
06 2024.05.07

04

05

2024 오늘

06

12 군부대 지원

2024.06.19 바다사랑 해군 장학기금 3억원 후원 약정

>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위해
> 예우를 갖추어야 합니다.
>
> -하충식 설립자

창원한마음병원의 하충식 설립자는 해군 군의관으로 복무했다. 그리고 전역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군부대를 지원하고 있다.

2001년 1월에는 인근 육군종합정비창과 자매결연을 맺으며 군인들도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왔다. 2002년에는 해군사관학교의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들에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했다. 2024년 5월 2일 해군해양의료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6월에는 순직 해군 가족 장학금으로 3억 원을 기부했다.

8월 15일에는 창원한마음병원이 무더위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 공군부대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1,05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였고, 9월 11일에는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 공군부대를 초청해 약 200명의 군인에게 뷔페를 제공했다. 9월 20일에는 해군잠수함사령부지휘관을 호텔에 초청하여 만찬회를 열었다. 창원한마음병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01

어제와 2001

02

03

01 2001.01.31 육군종합정비창 자매결연식

02 2015.10.14 경남 해병대 연합회 협약

03 2024.02.26 해군잠수함사령부 창원한마음병원 방문

04 2024.05.13 국가전략부대 잠수함사령부 방문

05 2024.08.15 하창훈 의료원장 제5공중기동비행단 방문

06 2024.09.11 제5공중기동비행단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뷔페 초청 만찬

04

05

2024 오늘

06

Part.3

함께 성장한 30년,
한마음 구성원 소개

지역사회의 의료를 책임지며 발전해 온 한마음병원의 성장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인정신으로 근무한 임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 전력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창원·상남한마음병원 진료부, 진료 외 부서와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시립마산요양병원,
병원 내 협력업체(파인인베스트먼트, 조은사람들)를 소개한다.

창원한마음병원

01 진료부
02 직속부
03 간호부
04 진료지원부
05 행정부
06 시설관리팀/교육수련팀/약제팀/진료협력센터/법인사무국
07 제위원회

상남한마음병원

01 진료부
02 진료지원부
03 약제팀/간호팀/행정팀/시설안전팀/국가검진파트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시립마산요양병원

파인인베스트먼트 축하메시지

조은사람들 축하메시지

HANYANG UNIVERSITY
한양
1939
MEDICAL CENTER
창원한마음병원
CHANGWON HANMAEUM HOSPITAL

국내 최고 수준의 간·담도·췌장 치료

간·담도·췌장센터 Liver-Gallbladder-Pancreas Center

창원한마음병원 간·담도·췌장센터는 2022년 8월에 설립되어 경상남도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간·담도·췌장 진료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 출신의 세계적 명의 김명환 병원장이 부임하여 경남지역에서 최고의 췌장 및 담도 관련 의료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화기내과, 간·담도·췌장외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 다양한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췌장염, 췌장암, 담석, 담도암, 담도염, 간염, 간암 등의 예방, 진단 및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음파 내시경(EUS)과 내시경 역행 담췌관 조영술(ERCP)과 같은 고난도 시술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 내시경 치료팀이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남지역의 간·담도·췌장 질환 치료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치료를 통해 생명을 지키고,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개원부터 이어온 고객 중심의 평생 건강 관리

건강증진센터 Health Promotion Center

창원한마음병원 건강증진센터는 고객의 평생 건강관리를 목표로 중증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94년 개원 이래 축적된 진단 노하우와 첨단 헬스케어 시스템, 최신 의료장비를 바탕으로 정밀한 건강검진을 제공합니다. 센터는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공간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개인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검진 프로그램과 연구 기반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 의료진과 연계한 One-Step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로 평생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고객의 의료 정보를 관리하여 중증질환이나 응급 상황 시 과거 검진 기록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처치와 최적의 치료 방향을 제시하는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령화 시대, 건강한 생활을 위한 내분비 전문 진료
당뇨갑상선센터 Diabetes and Thyroid Center

창원한마음병원 당뇨갑상선센터는 당뇨병, 갑상선 질환, 고지혈증, 골다공증 및 골대사 질환, 뇌하수체 및 부신 질환, 비만 등 다양한 내분비 관련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합니다.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진료를 제공하며, 최신 디지털 헬스케어 및 췌도 이식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뇨병 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암 및 뇌하수체 질환의 치료를 위해 다양한 전문의들과 협력하여 다학제적 접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진을 통해 환자 각각의 특성에 맞춘 최적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여 더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골다공증, 비만, 고지혈증 등의 대사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도 환자들이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환자 중심의 방사선 치료로 희망을 만들다
방사선종양센터 Radiation Oncology Center

창원한마음병원 방사선종양센터는 방사선물리학과 방사선생물학을 기반으로 종양 치료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2021년 9월 가동식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750명의 환자들에게 13,500건 이상의 방사선 치료를 제공해왔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수술과 항암치료와 함께 3대 암 치료법 중 하나로, 전신방사선치료, 입체조형치료, 세기변조 방사선치료, 호흡 연동 치료 등 최신 기법을 활용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종양센터는 암센터, 여성의학센터, 유방갑상선센터, 비뇨신장센터, 소화기센터, 호흡기알레르기센터, 뇌센터 등과 협력하여 다학제적 진료 체계를 운영하며 환자들에게 맞춤형 치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빠른 회복과 암 완치를 목표로 최선의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끊임없는 연구와 발전을 통해 환자에게 최적화된 치료법을 제시합니다.

각종 소화기 질환에 대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치료
소화기센터 Digestive Center

창원한마음병원 소화기센터는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간, 췌장, 담도, 담낭 등 소화기계의 다양한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관입니다. 소화기내과에서는 소화기 질환을 세분화하여 간·췌담도, 기능성 위장, 위암, 치료내시경, 크론병 및 궤양성 대장염 등으로 나누어,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개개인에 맞춤형 진료를 제공합니다.
특히 소화기암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암종별로 암센터와의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외과, 혈액종양내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의료진이 협력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 진료체계는 환자의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앞으로도 창원한마음병원 소화기센터는 최신 의료 장비와 기술을 활용하여,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이어갈 것입니다.

첨단 인공 신장실을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신장 치료
신장센터 Kidney Center

창원한마음병원 신장센터는 다양한 신장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의 맞춤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신 의료기기를 활용하며, 로봇복강경 등의 치료 방법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장센터는 당뇨병 신장병증, 만성 신장병, 중재 신장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 2층에 위치한 인공신장실을 운영하여 외래 환자에게 즉각적인 진료와 상담을 제공합니다.
중환자실에는 혈액여과기를 갖추고 있어 중환자의 혈액투석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신장센터는 환자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치료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일 검사를 통해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환자의 편의를 극대화합니다.

상담치료,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의 종합적 지원

심리수면센터 Psychiatry and Sleep Disorder Center

창원한마음병원 심리수면센터는 현대인들이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불면증, 불안, 우울증, 신체적 증상 등을 초래하여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수면센터는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치료 과정은 먼저 심리 상태를 확인하는 면담 및 심리검사로 시작됩니다. 이후 상담치료,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개별 환자의 필요에 맞춘 다양한 치료 방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환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그에 따른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여, 심리적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최신의 심리 치료 기법과 함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원한마음병원 심리수면센터는 여러분이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삶을 되찾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24시간 대기 중인 전문 의료진과 체계적 협진

심혈관센터 Cardiovascular Center

창원한마음병원 심혈관센터는 환자 중심의 치료를 핵심 가치로 삼아, 심장 질환 환자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제공합니다. 순환기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각 분야의 전문 의료진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며, 특히 응급 심장 질환 환자들의 경우 24시간 대기 중인 의료진을 통해 신속한 검사와 중재적 시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외래와 입원 환자를 위한 진료는 물론, 심장중환자실, 운동부하검사실, 24시간 생활심전도 검사실, 심전도실, 심초음파검사실 등 다양한 전문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심장 및 혈관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종합적으로 담당합니다.

심혈관 질환은 고령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창원한마음병원 심혈관센터는 첨단 장비와 고난이도 술기를 통해 관상동맥 질환 등 다양한 심장 질환에 대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받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지역 아동의 건강을 지켜오다

아동의학센터 Pediatrics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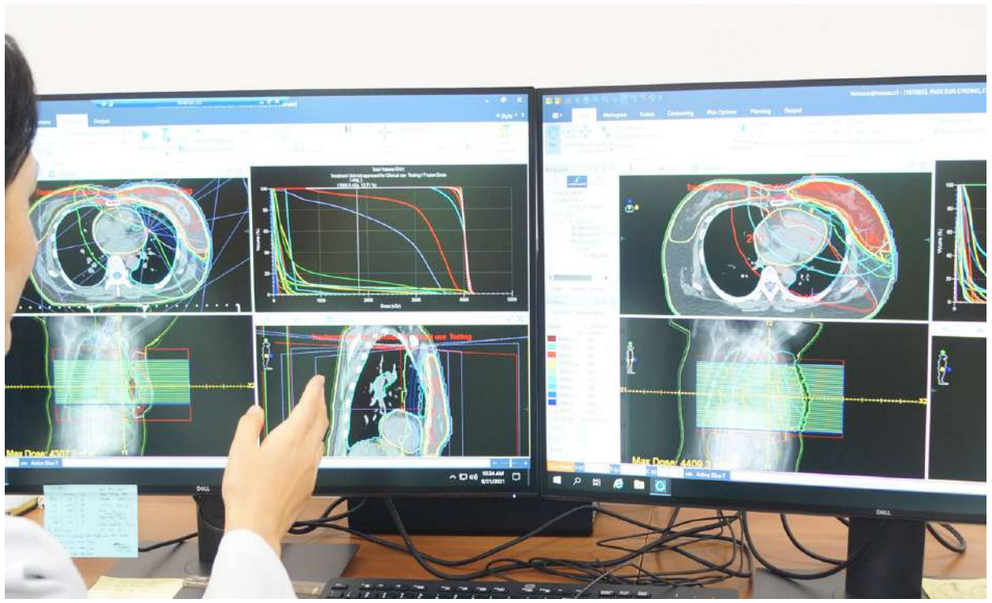
창원한마음병원 아동의학센터는 산모가 산통을 느끼는 순간부터 청소년기까지 아동의 건강을 지킵니다. 신생아의 진단 및 치료는 물론, 각종 예방접종과 성장 및 발달 관리, 호흡기 및 소화기 질환, 알레르기 질환 등 아동의 다양한 건강 문제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제공합니다.

신생아부터 청소년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내과적 및 외과적 질환을 진료하며, 특히 신생아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문 의료진은 각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 환자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진료를 제공하며, 가족과의 소통을 통해 최상의 치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학센터는 안전하고 편안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 환자들이 두려움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창원한마음병원 아동의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첨단 영상기기와 전문 의료진의 정밀한 진단

영상의학센터 Diagnostic Imaging Center



창원한마음병원 영상의학센터는 첨단 영상 기기인 초음파, X-ray, CT, MR 등을 활용하여 질병의 정확한 진단과 병기 평가, 치료 방향 제시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상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함으로 더 효과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진단 및 치료 이후에도 질병의 경과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영상의학과의 의료진과 기기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치료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환자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관리 방안을 제시합니다.

조직검사, 고주파 열 치료 및 다양한 중재적 시술과 같은 첨단 시술을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받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검사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원한마음병원 영상의학센터는 최신 기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자분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경남지역 응급환자의 생명을 수호하다
응급의료센터 Emergency Care Center

창원한마음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경남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포괄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응급의학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의료분야로, 응급환자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속한 의료 접근성과 적절한 응급 처치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응급 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의학과 사회조직의 유기적인 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응급의학과의 의사는 심폐소생술의 전문가로서, 병원 밖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특히, 급성 심근 경색, 급성 뇌혈관 질환, 다발성 손상과 같은 중증질환은 즉각적인 치료가 요구되며, 이들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치명적인 후유증이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이러한 응급환자들을 조기에 진단하고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의료진과 협력하여 신속한 전문 처치를 제공합니다. 이렇듯 환자들의 삶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절개 없이 이루어지는 안전한수술
인터벤션센터 Intervention Center

창원한마음병원 인터벤션센터는 절개수술 없이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 시술하는 혁신적인 치료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벤션(영상중재시술)은 투시 또는 초음파와 같은 실시간 영상획득 기술을 활용하여,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도 질병 부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시술은 1~2mm 정도 굵기의 가느다란 가이드 와이어나 카테터를 이용하여 혈관이나 질병 부위까지의 경로를 만들고,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첨단 의학분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술은 전신 마취 없이 진행되며, 외과적 수술을 대체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터벤션센터는 다학제적 진료체계를 통해 각 센터에서 의뢰된 입원환자뿐만 아니라, 입원 중이지 않은 환자들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인터벤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통해 환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 개개인의 건강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항상 최상의 진료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과 알레르기 문제의 해결책
호흡기알레르기센터 Respiratory Allergy Center

창원한마음병원 호흡기알레르기센터는 호흡기내과와 감염내과로 구성되어 호흡기알레르기 및 감염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합니다.
호흡기내과는 호흡을 담당하는 폐와 기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을 다루며, 주로 기침, 가래, 호흡곤란, 가슴 통증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여러 호흡기 질환을 치료합니다.
감염 내과는 상기도 감염이나 요로감염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질환부터 패혈쇼크, 에이즈와 같은 고난이도의 감염질환까지 폭넓게 진료하며,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흡기알레르기센터는 다양한 검사 방법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제공합니다. 또한 여러 진료과와의 협진 및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환자 중심의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며,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목표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진단과 편안한 치과 경험
구강의학센터 Dentistry Center

창원한마음병원 구강의학센터는 환자의 치아 건강과 아름다운 미소를 위해 최신 기술과 장비를 갖추고 최상의 진료를 제공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치과 전용 CT를 도입하여 환자의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며, 치료 과정에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통 마취기를 사용하여 통증을 줄이는 안전한 치료를 진행합니다.
또한, 미백 레이저를 활용한 효과적인 치아 미백 치료를 통해 환자에게 자신감을 선사하며, 턱관절 치료를 위해 초음파 기기, 저주파 레이저, 저주파 자극기 등을 사용하여 턱관절 질환 및 다양한 구강 문제를 포괄적으로 치료합니다.
항상 최신 의료기술과 연구를 반영하여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며, 건강한 치아와 아름다운 미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료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원이래 30년간 축적해온 난임 치료 전문성

난임센터 Infertility Center

창원한마음병원 난임센터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 스트레스, 해부학적 이상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난임 부부를 위해 체계적인 진료와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경남 최고의 산부인과 의료진이 30여 년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의 난임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맞는 진단과 치료를 제공합니다.

특히 생명 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난임 부부에게 맞춤형 진료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와 기술을 통해 난임 치료를 진행하며, 각 부부의 상황에 맞춘 개인별 치료 계획을 세워 난임 극복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지역사회의 신뢰를 쌓아온 창원한마음병원 난임센터는 그 전통을 이어받아 수많은 난임 부부에게 소중한 생명의 기쁨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난임 부부들이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뇌 질환의 예방, 치료 그리고 회복까지 책임지다

뇌센터 Brain Center

창원한마음병원 뇌센터는 뇌경색, 뇌출혈, 뇌동맥류, 경동맥협착증, 뇌동정맥 기형, 모야모야병 등 다양한 뇌혈관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센터입니다. 신경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 각 분야의 전문 의료진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첨단 장비를 활용해 정밀한 진단을 진행하며, 환자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학제적 협진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빠른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뇌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질환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치료 후 재활 단계에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환자와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며, 환자가 질환 이전의 일상으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창원한마음병원 뇌센터는 이러한 전인적 치료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뇌혈관 질환 치료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급성기 질환부터 재활까지
뇌혈관센터 Cerebrovascular Center

창원한마음병원 뇌혈관센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및 중재적 시술, 수술을 통해 환자의 안전한 치료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증 응급 뇌혈관질환은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인증된 뇌혈관 전문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경외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의 유기적인 협진 체계를 통해 운영되며, 급성기 치료에서부터 재활에 이르기까지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전인적 치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협진은 환자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치료를 가능하게 하여, 환자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신 장비와 기술을 활용하여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자 개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뇌혈관 치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신 의료기술과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한 맞춤형 수술
심장혈관흉부센터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Center

창원한마음병원 심장혈관흉부센터는 흉부에 위치한 주요 장기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며, 심장, 폐, 기관, 식도, 대동맥 등의 질환을 진단하고 주로 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흉벽, 종격동, 횡격막, 늑막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도 폭넓게 다루며, 최신 의료기술과 장비를 활용해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다한증과 같은 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전문 진료를 실시해,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심장혈관흉부센터는 다학제적 협진 시스템을 통해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춘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수술 후에는 빠른 회복을 돕는 재활 프로그램과 꾸준한 추적 관리를 통해 환자의 건강을 지속해서 관리합니다. 이로써 환자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과와 이비인후과의 전문 협진 체계

안이센터 Ophthalmology and Otolaryngology Center

창원한마음병원 안이센터는 안과와 이비인후과를 통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진 체계를 구축한 전문 진료센터입니다. 안과에서는 외안부 질환, 백내장 및 굴절수술, 망막 및 녹내장, 성형안과, 사시, 소아안과, 신경안과 등 다양한 안과적 질환에 대한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신 장비와 기술을 활용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며,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춘 맞춤형 치료를 제공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귀, 코, 목과 관련된 여러 질환을 진료합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이 귀의 질환, 비염, 부비동염, 인후염 등 다양한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며, 환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안이센터는 두 과의 전문 의료진이 협력하여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많은 환자분에게 신뢰받는 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창원한마음병원 안이센터는 건강한 삶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경남지역 암 치료를 선도하는 전문 의료진

암센터 Cancer Center

창원한마음병원 암센터는 암 진료와 연구를 통해 경남지역의 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고, 암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치료 시스템을 지향합니다.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하는 암에 대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다학제적 진료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첨단 로봇수술기기와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CT) 같은 최신 의료장비를 활용하여 정밀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를 제공하며,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최적의 치료 계획을 수립해 완치 가능성을 높입니다.

암센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 치료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하여, 지역 내 암 치료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환자와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치료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을 대표하는 최고의 여성 전문 의료서비스

여성의학센터 Obstetrics and Gynecology Center

창원한마음병원 여성의학센터는 경남지역에서 최고의 산부인과 진료를 제공하는 전문 의료기관입니다. 센터는 산과와 부인과로 나뉘어 있으며, 산과에서는 임신과 관련된 다양한 질환을 다룹니다. 특히 태아기형 진단 및 고위험 임산부의 관리와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산모들이 불편함이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산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인과에서는 부인암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포함하여, 다양한 내분비질환, 불임, 폐경기 관리 등 여성 건강 전반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궁경부암 조기 진단을 위한 질확대경 시술을 통해 최신 의료 지견을 지속해서 접하며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성의학센터의 의료진은 지역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임상 연구와 진료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정밀하고 안전한 진료를 제공하며, 여성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은 병변도 놓치지 않는 섬세한 진료

유방갑상선센터 Breast and Thyroid Center

창원한마음병원 유방갑상선센터는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문 의료기관입니다. 국내 여성암 중 1,2위를 차지하는 갑상선암과 유방암에 대한 체계적이고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방과 갑상선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해 초음파 검사, 디지털 유방촬영기, 갑상선 고주파 치료기 등 최첨단 의료장비를 활용하여 세심하게 진단합니다. 이를 통해 작은 병변도 놓치지 않고, 더 정밀한 치료를 진행합니다.

유방갑상선센터는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환자의 상태에 맞는 개인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하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친절한 상담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지속적인 연구와 임상 발전을 통해 여성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One-stop 진료로 장기이식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다

장기이식센터 Organ Transplantation Center

창원한마음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장기이식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원스톱 진료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상담 및 이식 등록부터 이식 후 외래진료, 환자 교육, 투약까지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환자들에게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다학제 진료 시스템을 도입해 여러분야의 의료진이 협력하여 더욱 정확하고 안전한 이식 수술을 진행하며, 환자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치료를 제공합니다.

2023년에는 장기이식센터가 첫 생체 간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경남지역의 장기이식 의료서비스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창원한마음병원은 장기이식분야에서 지역 내 중요한 의료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환자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포괄적 치료

재활의학센터 Rehabilitation Center

창원한마음병원 재활의학센터는 다양한 질병 및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최대한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을 발휘하고, 가능한 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진료과입니다.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척수 손상으로 인한 마비 환자와 뇌성마비, 발달 지연 등의 소아 환자,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통증이나 만성 질환으로 인한 심폐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모든 환자가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현대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질병 치료뿐 아니라,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하고 남아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재활의학센터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중추신경계(뇌와 척수) 및 말초신경, 근골격계의 손상으로 인한 기능 저하와 통증을 정확히 진단합니다. 이후 물리치료, 작업치료, 약물치료, 언어치료 등 포괄적인 재활 치료를 제공하여 환자가 최대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활의학센터의 의료진은 팀을 이루어 개인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합니다. 환자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재활 치료를 지향합니다.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성 건강을 위한 신뢰의 동반자
전립선비뇨센터 Prostate Urology Center

창원한마음병원 전립선비뇨센터는 비뇨기 및 남성 생식기의 다양한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료기관입니다. 요로계는 신장, 요관, 방광, 요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시스템의 외과적 질환인 종양, 결석, 외상, 염증 및 기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남성 생식기관인 고환, 부고환, 사정관, 음낭, 음경 및 부속선인 전립선, 정낭, 구요도선과 부신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춘 맞춤형 치료를 시행하고, 최신 의료기술과 장비를 활용하여 정밀하고 효과적인 진단 및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과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환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창원한마음병원 전립선비뇨센터는 항상 환자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첨단 하이브리드 수술실 운영
중앙수술센터 Central Surgery Center

창원한마음병원 중앙수술센터는 환자에게 최상의 수술적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력하는 혁신적인 의료기관입니다. 최신 의료기술을 도입하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특히 다빈치(da Vinci S & Xi) 로봇수술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존의 개복 수술이나 일반적인 복강경 수술을 대체하는 수술 방법을 제공합니다.
또한, 창원한마음병원은 경남 최초로 심뇌혈관 시술 및 수술이 동시에 가능한 첨단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24시간 365일 전담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응급 대응 시스템은 응급 상황에서도 환자들에게 즉각적인 치료를 보장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합니다.
중앙수술센터는 안전한 수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속적인 연구와 혁신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스톱 진료 체계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척추·관절센터 Spine and Joint Center

창원한마음병원 척추·관절센터는 퇴행성 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보존적 치료부터 최소침습적 수술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척추·관절질환 치료에 힘쓰고 있습니다.
척추센터는 척추 외상, 척추 종양, 급성 및 만성 통증 등 척추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절센터는 사지와 척추의 골, 관절, 근육, 인대, 신경, 혈관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 및 외상을 진단하고 치료합니다.
고관절, 슬관절, 견주관절, 수부, 척추, 족부 및 스포츠 외상 등 다양한 진료분야를 세분화하여 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류마티스내과 및 통증 클리닉과의 다학제 협진 시스템을 통해 각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각 임상과를 통합한 원스톱 진료 체계를 구축하여 수준 높은 검사 및 치료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척추·관절센터는 환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피부시술부터 안면재건술까지
피부성형센터 Dermatology Plastic Surgery Center

창원한마음병원 피부성형센터는 일반적인 피부와 모든 점막 부위, 손발톱, 머리털 등 피부 부속기에 대한 전문 진료를 제공합니다. 미용성형뿐만 아니라 재건술, 구순구개열 및 두개안면기형의 교정, 신체 각 부위의 피부 종양 제거와 미용적 기능적 복구, 화상,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 변형 복구 등 다양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첨단 의료 장비와 전문의들이 협력하여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부과에서는 레이저 및 피부 미용 치료, 광치료, 모발 치료, 소아 및 성인 알레르기 진단 및 치료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피부 질환 치료와 함께 다양한 피부미용 시술도 활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에서는 재건술, 미용성형, 악안면기형 및 외상 치료, 창상 치유, 피부 및 두경부 종양의 진단과 치료를 전문으로 합니다.
창원한마음병원 피부성형센터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환자들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환자의 만족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혈액없이 안전한 수술과 치료를 제공하는
무수혈센터 Non-Blood Transfusion Center

창원한마음병원의 무수혈센터는 외과적 수술 및 내과적 치료 시 수혈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센터입니다. 수혈 대신 조혈제, 지혈제, 철분제, 혈량증량제 등 다양한 대체제를 활용해 환자의 자기치유력을 증진시키고, 혈액 전파 감염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최소절개수술법을 통해 통증과 흉터를 최소화하면서 회복을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술 시 세심한 지혈과 충분한 산소 공급으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수혈 치료는 간염이나 에이즈와 같은 혈액 전파 감염 위험을 줄이고, 헌혈 부족 문제 해결에도 기여합니다. 환자는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무수혈 환자로 등록하고, 세밀한 상담 후 수술과 치료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타 병원에서 전원하는 경우 진료의뢰서, 검사 결과지 등의 자료를 지참하면 더 정확하고 편리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별 맞춤형 치료를 통해 안전한 의료 경험을 제공합니다.

긴밀한 협력체계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진료협력센터 Referral Center

창원한마음병원 진료협력센터는 지역사회 의료 발전과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1차 및 2차 의료기관과 3차 의료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의뢰된 환자에게 신속한 진료 예약과 정확한 진료를 제공하며,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 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력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진료 의뢰를 통해 1차 및 2차 병(의)원에서 의뢰된 환자는 빠른 진료 예약이 가능하며, 환자의 진료 진행 상황, 검사 결과 및 치료 계획 등은 개인 정보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담당 주치의가 작성하여 의뢰한 병원에 우편, Fax 또는 E-mail로 신속히 회신합니다.
2. 진료 종료 후 환자의 상태에 맞는 병원을 조회하여 인근의 1차 및 2차 병(의)원으로 적극적으로 회송하거나 전원하여 지속적인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환자가 진료협력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할 경우, 환자의 상태에 적합한 진료과를 지정하거나 예약을 진행하여 최적의 진료를 제공합니다.

지역의료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체결을 통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질병에 대한 최종 진단
병리과 Department of Pathology

창원한마음병원 병리과는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로, 내시경, 생검 및 수술 후 채취된 조직에 대한 조직병리검사, 갑상선 흡인천자검사, 자궁경부암 세포 검사 등 다양한 세포병리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술 중 신속한 진단을 제공하는 동결절편검사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지원하며, 의료진에게 치료 방향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병리과는 신속하고 정확한 병리 진단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신뢰받는 진료를 제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상 각 과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료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경남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장비로 정확한 판독을
진단검사의학과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창원한마음병원 진단검사의학과는 질병의 조기 발견, 정확한 진단, 그리고 치료 효과 판정을 위해 환자로부터 얻은 혈액, 소변 등의 검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신 검사 장비와 숙련된 전문 인력을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질병 예방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철저한 내부 품질 관리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검사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수검사실 신임인증을 획득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검사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8일 진료부 한마음의료원 발전 방향 세미나

2024년 11월 16일 창원한마음병원 간호부 발전 방향 세미나

02
직속부

QPS팀

QPS팀은 의료기관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그리고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 구축, 환자안전보고체계의 활성화를 통한 환자안전 프로세스 개선, 그리고 환자안전 문화증진활동 및 교육을 수행합니다. 또한, 의료의 질 향상 활동을 위해 전 부서 QI 활동의 지원과 임상 질 지표 모니터링,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관리를 수행하고, 의료기관 인증평가뿐만 아니라 인증을 준수하고 유지하기 위한 자체평가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적정관리팀

적정관리팀은 의료기관의 의료 질과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 의료 질과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관리를 위한 교육, 모니터링, 결과의 분석과 평가 업무의 전반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입원환자 및 내원객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자 중심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수행하며,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합니다.

수혈관리팀

수혈관리팀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혈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혈액의 적절한 보관, 검사를 통해 수혈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필요한 혈액을 적시에 공급합니다. 수혈 전후 환자의 상태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수혈 관련 부작용을 예방합니다. 의료진과 협력하여 수혈 관련 교육과 지침을 제공하며, 혈액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합니다.

감염관리팀

감염관리팀은 병원 내 감염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두는 부서입니다. 환자와 의료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합니다. 감염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조치를 취하며, 감염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진행합니다. 최신 감염 관리 지침과 규정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감염 위험 평가를 통해 안전한 병원 환경을 유지합니다.

안전보건파트

안전보건파트는 관계법령에 따라 2022년 신설된 부서로서 직원들의 안전, 보건관리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병원 내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담당하며, 산업 안전 규제 준수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 및 훈련을 진행합니다. 또한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법적 규정과 정책을 준수하여 병원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기획조정팀

기획조정팀은 병원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며, 병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 배분, 성과 분석, 정책 개발 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내부 및 외부 환경을 분석하여 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합니다. 더하여 의료진과 협력해 의료 세미나 등을 기획해 전문성을 전파합니다.

홍보팀

홍보팀은 대내외 홍보를 총괄하는 부서로, 병원의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내외부 고객에게 본원의 의료서비스 및 사회공헌 등 주요 활동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언론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기사 및 콘텐츠를 양산하고 배포하며, 일관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원내 디자인과 홍보물을 제작합니다. 궁극적으로 병원의 가치를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성장하는 데 일조합니다.

사회사업팀

사회사업팀은 한마음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생활 지원금 및 장학금을 제공하여 이들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여성, 종교단체, 재해·재난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발굴하고, 의료 취약계층의 지원에 힘쓰며, 정기적인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 공연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자원을 연결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03
간호부

외래간호팀

외래간호팀은 외래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부서입니다. 외래 진료 과정에서 환자를 접견하고, 의료진과 협력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예약 관리, 기록 관리, 처방 전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외래간호팀은 각 환자의 개별적인 의료서비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부서와 협력하여 팀워크를 강화합니다. 최신 의료기술과 절차를 적극 수용하려는 노력으로 환자의 치료 과정을 최적화하고, 외래 진료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특수간호팀

특수간호팀은 특수한 의료 및 간호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을 지원하는 전문 부서입니다. 외과계 중환자실 (SICU), 내과계 중환자실(MICU), 신생아 중환자실(NICU), 응급의료센터, 분만실 및 고위험산모집중치료실, 고압산소치료실 등과 같이 중증외상,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환자, 응급분만, 퇴행성 질환 환자 등 다양하고 특수한 의료 상황에 대응합니다. 각 환자의 복잡한 의료 상태에 맞춘 전문적인 간호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하여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합니다. 또한, 의료진과 협력하여 의료 기기 사용과 관리, 신속한 응급 대응 등을 담당하여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특수간호팀은 지속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며, 환자와 보호자에게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호교육행정팀

간호교육행정팀은 병원의 미션과 비전에 따라 간호부의 미션, 비전, 목표를 수립하고,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을 관리하며, 근거 기반 실무교육을 통해 전문 간호 인력을 육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행정팀은 우수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 계획을 세우고, 간호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간호사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각종 행사를 주관하여 부서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함으로써 간호부의 결속력과 소통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타 부서와의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각종 회의를 주관합니다. 교육팀은 연간 교육, 신규 교육, 보수교육, 임상 연구 등을 관리하며, 전문적인 간호와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동간호팀

병동간호팀은 전문성 높은 간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환자들의 치료와 회복을 돕고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의료진과 협력하여 치료계획을 실행합니다. 아울러 환자와 가족에게 전반적인 교육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치료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창원한마음병원 4층 대회의실에서 간호부와 최경화 설립자

04
진료지원부

진단검사의학팀

진단검사의학팀은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 결과 제공을 목표로 환자의 검사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다양한 검사를 관리하고 운영하여 의료진에게 필요한 검사를 제때 제공합니다. 최신 장비와 기술을 활용하여 정확성과 신뢰성 높은 검사 결과를 보장하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진단검사의학팀은 의학적 진단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여 환자의 건강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병리팀

병리팀은 질병의 원인과 병태를 연구하고 진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조직 검사와 세포학적 검사를 통해 병리학적 분석을 수행하며, 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최신 장비와 기술을 활용하여 정밀하고 신속한 결과를 도출하며, 의료진과 협력하여 환자의 건강 관리에 기여합니다. 병리팀은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에 기여하여 전체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의학팀

영상의학팀은 최첨단 영상 장비를 활용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전문 부서입니다. X-ray, CT, MRI, 초음파 등 다양한 영상 기술을 이용하여 정확한 진단을 제공하며, 환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최신 장비와 이미지 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의료진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결과를 제공하며, 환자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심뇌혈관센터, 인터밴션센터에서 혈관 조영술, 최소 침습적 시술 등을 통해 심혈관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 및 기타 혈관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며 환자의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사선종양팀

방사선종양팀은 방사선 치료에 특화된 부서입니다. PET-CT, CT, MRI 등의 고급 영상 기술을 사용하여 종양의 위치와 성격을 정밀하게 평가하며, 환자의 암 치료 계획을 돕습니다. 최신 암 치료 기법과 방사선 치료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하여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방사선종양팀은 의료진과 긴밀히 협력하여 맞춤형 치료 옵션을 제공하며, 환자의 편안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지원합니다.

핵의학팀

핵의학팀은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여 진단과 치료에 기여하는 부서입니다. PET 스캔, SPECT 스캔 등의 핵의학 영상 기술을 이용하여 환자의 질병 상태를 정밀하게 평가하고, 정확한 진단을 제공합니다. 또한, 방사성 물질을 활용한 암 치료 및 기타 질환의 치료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환자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핵의학팀은 최신 기술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정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진과 협력하여 종합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재활치료팀

재활치료팀은 환자의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부서입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환자의 일상 생활 기능을 회복하거나 개선합니다. 최신 장비와 치료 기법을 활용하여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환자들에게 개인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여 최대한의 치료 효과를 도모합니다. 재활치료팀은 의료진과 협력하여 종합적인 재활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환자들의 회복을 지원하는 데 전력을 기울입니다.

영양팀

영양팀은 환자들의 올바른 영양 상태를 유지하고 질병 예방에 기여하는 부서입니다. 개별 환자의 영양 상담 및 식이 요구 사항을 평가하고, 맞춤형 영양 계획을 개발합니다. 또한, 환자의 치료 계획에 필수적인 영양 지원을 제공하며, 식사 관리와 영양 교육을 통해 환자의 건강을 지원합니다. 영양팀은 의료진과 협력하여 최선의 영양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환자의 전반적인 회복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보건의료정보팀

보건의료정보팀은 환자의 의무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환자의 병력, 진료 기록, 검사 결과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하여 의료진이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의료 기록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관리하여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보건의료정보팀은 최신 전자 의료 기록 시스템을 적용하여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의 원활한 의사 소통을 지원합니다.

보험심사팀

보험심사팀은 환자의 진료비 청구와 관련된 보험 요청을 처리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의료서비스 비용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평가하고, 보험 청구 과정을 관리하여 의료비 지불을 원활하게 처리합니다. 또한, 보험 청구에 필요한 문서 작성 및 절차를 수행하며, 관공서 및 보험 회사와의 보험 청구 처리절차를 완료합니다. 보험심사팀은 의무기록과 비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진료비의 효율성을 관리합니다.

05
행정부

전산팀

전산팀은 병원 내 정보 기술 시스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전자 의료 기록 시스템(EMR), 네트워크 인프라, 데이터 보호 및 보안을 담당하여 의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병원의 정보 기술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의료진과 환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합니다.

총무팀

총무팀은 병원 내 전반적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병원 내 모든 부서와 협력하여 원활한 업무 진행을 지원하고, 법적 및 규제 요건을 준수하여 병원 운영을 지원합니다. 총무팀은 효율적인 자원 할당과 관리를 통해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을 높이며, 직원들의 원활한 근무 환경을 유지합니다.

원무팀

원무팀은 원무(외래·입원파트), 진료예약센터, 고객행복센터 3개의 파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무팀은 진료의 처음과 끝에서 환자와 대면하는 접점부서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외래 및 입원 진료에 수반되는 행정 수속 절차 업무 및 진료비 수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료예약센터는 2014년 2월 10일 원무팀 내에 신규 개설되었습니다. 고객의 진료예약, 변경, 취소 업무를 시행하며, 고객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고 친절히 상담하여 초진 환자 유치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의사일정관리, 건강검진 예약 안내, 방송 등 원내 다양한 문의를 수용하고 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객행복센터는 내원객의 만족도 증대를 위해 병원의 전반적인 안내와 상담, 동행 안내 지원, 민원상담, 신환·외래·퇴원·응급의료센터 만족도 조사, 서비스 교육 등의 업무를 통해 지속적인 프로세스 분석 및 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검진사업팀

검진사업팀은 종합검진, 국가검진, 특수검진, 학생검진 등 다양한 건강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입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예방 의학적 접근을 촉진하며, 환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관리합니다. 최신 의료기술과 전문적인 의료진이 함께하여 환자들에게 정확하고 효과적인 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사팀

인사팀은 병원 인적자원 전반에 대한 관리와 발전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채용 과정에서부터 직원의 교육, 훈련, 복리후생을 지원하며, 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촉진합니다. 또한, 인사정책과 규정을 관리하고 적용하여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직 내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인사팀은 성과 평가, 승진 및 보상 시스템을 관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며, 팀워크와 협력을 통해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합니다. 병원의 인재 유치와 유지를 위해 전략적으로 인사 관리를 계획하고, 직원들의 전문성을 증진하는 데 주력합니다.

의공기술팀

의공기술팀은 임상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료기기의 고장, 관리, 유지보수 등을 시행하며 환자 치료의 질 향상과 의료진의 진료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최신 의료기기의 심의부터 병원 내 의료기기 관리와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들과 협력하여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매관리팀

구매관리팀은 병원의 모든 물품과 장비의 구매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의료기기, 약품, 소모품 등의 구매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적시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합니다.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조사를 통해 최적의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계약 조건을 협상합니다. 또한, 재고를 관리하고 사용량을 분석하여 병원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06

시설안전팀/교육수련팀/약제팀/진료협력센터/법인사무국

시설안전팀

시설안전팀은 시설관리단 산하 병원 내 모든 시설의 안전과 유지보수를 책임지는 팀입니다.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건물 구조, 전기 시스템, 소방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수리를 진행합니다. 또한, 응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화재, 지진 등의 재난에 대한 대피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각종 안전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병원의 시설이 적절히 관리되도록 합니다. 의료기기의 안전한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환경 안전 및 위생 관리에도 신경 씁니다. 병원의 운영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시설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육수련팀

교육수련팀은 교육수련부 산하 전문 의료 인력의 교육과 발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최신 의료기술과 기법을 반영한 교육을 통해 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을 지속해서 향상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임상시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의학 연구를 위한 중심적인 부서로, 다양한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새로운 치료법과 의약품의 효능 및 안전성을 평가하여 환자 치료에 기여하며, 과학적 원칙과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약제팀

약제팀은 정확하고 안전한 의약품 관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의약품의 조제, 주문, 수령, 저장, 배분 및 폐기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제때 제공합니다. 약물 상호작용 및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의료진과 협력하여 적절한 약물 사용 지침을 제공합니다. 또한, 의약품 재고 관리을 담당하며, 법적 규정을 준수하여 병원 내 약물 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유지합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환자의 치료 과정을 지원하고, 전직원들에게 학습과 지도를 제공하여 최상의 환자 결과를 도모합니다.

진료협력센터

진료협력센터는 환자의 원활한 진료 연계와 의료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 병원 및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환자의 진료 예약, 전원 및 사후 관리를 지원합니다.
의료진과 환자 간의 소통을 돕고, 필요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여 최적의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대외협력팀을 산하로 두어 지역 내 외부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병원의 이미지와 영향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관공서, 지역 기업 등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을 합니다.

법인사무국

법인사무국은 병원의 역사와 함께 성장하였으며, 현재 재무팀과 감사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원의 자금 관리를 책임지는 재무팀은 재무 분석, 자금 조달 및 지출 통제를 주도합니다. 병원의 재무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경영진에게 중요한 의사결정 자료를 제공합니다.
감사팀은 회사의 내부 통제와 규정 준수를 점검하는 부서로, 내부 감사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과 법적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정 행위와 리스크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합니다.

07
제위원회

중장기발전계획추진위원회

중장기발전계획추진위원회는 2021년 창원한마음병원으로 이전 개원 후 성장과 혁신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연도별로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다양한 분야별 헌신적인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의료원 경영체계 확립, 고품격 진료서비스 제공, 고객만족 가치 극대화 3가지의 대과제를 구성하였고, 대과제별 세부과제를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추진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네비게이션으로서, 모든 구성원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고객만족추진위원회

고객만족추진위원회는 병원의 핵심 가치인 행복, 봉사, 사랑, 노력 그리고 혁신을 실현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2021년 10월 1일 초대 위원장인 이창민 기획조정실장(소화기내과)을 중심으로 13명의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첫 걸음을 내디뎌 현재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환자 중심의 문화를 정착하고, 병원 내 모든 부서의 협력을 촉진하여 효율적이고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직무분야의 위원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 왔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의료진과 직원들이 환자 중심의 서비스 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혁신위원회

의료서비스혁신위원회는 2023년 4월에 발족하여, 병원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개발과 환자 경험 만족을 위한 의사결정 및 추진을 목적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의료서비스분과와 환자경험분과로 구성되어 우수한 의료서비스 콘텐츠 개발과 양질의 환자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체계적 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직원들이 도입한 서비스의 수준을 확인하고 평가하며, 교육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합니다. 또한, 의료질 평가 항목 중 환자 경험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어, 병원의 서비스 품질을 지속해서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활동은 환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창원한마음병원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적인 의료서비스 개발과 환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창원한마음병원 제위원회 명단 (2024년 9월 기준)

감염관리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객만족추진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교육수련위원회
병원발전기획위원회
병원운영위원회
소방안전관리위원회
수가관리위원회
수술실운영위원회
수혈관리위원회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
신규재료심의위원회
신사업평가위원회
심폐소생술위원회
약사위원회
영양관리위원회
응급의료위원회
의료기기위원회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의료서비스혁신위원회
의료윤리위원회
의료정보위원회
인사위원회
인증준비위원회
장기이식위원회
장기이식윤리위원회
중장기발전계획추진위원회
진료업무위원회
질향상및환자안전위원회
집중치료실운영위원회
창원한마음병원 IRB위원회
항생제 사용관리위원회
홍보위원회

상남한마음병원
SANGNAM HANMAEUM HOSPITAL

통합적 접근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에 더 가까이

내과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상남한마음병원 내과는 상부위장관(식도, 위, 십이지장)과 하부위장관(소장, 대장, 직장) 질환을 비롯해 간 질환 등 다양한 내과적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신 내시경 장비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의료진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분들의 편안한 진료 경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질환의 원인 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환자의 장기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합니다.

또한, 환자 상태에 따라 다각적인 진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창원한마음병원 진료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과 효과적인 치료를 도모하며, 환자분들이 더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통증 관리

마취통증의학과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상남한마음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전신마취, 부분마취, 척추마취 등 다양한 마취 방법을 통해 수술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돕고 있으며,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신 마취 기기와 환자 감시장치, 비디오 후두경, 마취 깊이 측정기 등 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어, 수술 중 환자의 상태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생명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수술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환자의 회복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며, 특히 호흡 및 통증 관리를 통해 환자가 안전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환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마취와 통증 관리를 제공하며, 수술 전부터 수술 후까지 환자의 안전을 철저히 책임집니다.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섬세한 진료

소아청소년과 Department of Pediatrics

상남한마음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소아 및 청소년 환자들을 위한 내과적 진료를 담당하며,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질환의 치료뿐 아니라 영유아 검진과 예방 접종을 통해 아이들이 각 발달 단계에 필요한 예방과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아와 청소년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문제와 질환을 시기별로 잘 이해하여 진단, 치료,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달하는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진료를 제공합니다.

의료진과의 협력하여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있으며, 환아와 보호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세심한 진료로 만족도를 높이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손상 최소화로 건강한 일상복귀를

신경외과 Department of Neurosurgery

상남한마음병원 신경외과는 척추 질환과 뇌혈관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며, 환자분들이 일상적인 삶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척추 질환은 물론 뇌경색, 뇌출혈, 뇌동맥류, 경동맥 협착증, 뇌동정맥 기형, 모야모야병 등 다양한 신경계 질환에 대해 정밀한 진단과 맞춤형 치료를 시행합니다.

최신 의료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각 환자에 맞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질환 재발을 방지하고 회복을 돕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고 회복을 촉진하는 치료 방안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여 환자분들이 건강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를 통해 환자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첨단 영상기기와 전문 의료진의 정밀한 진단

영상의학과 Department of Radi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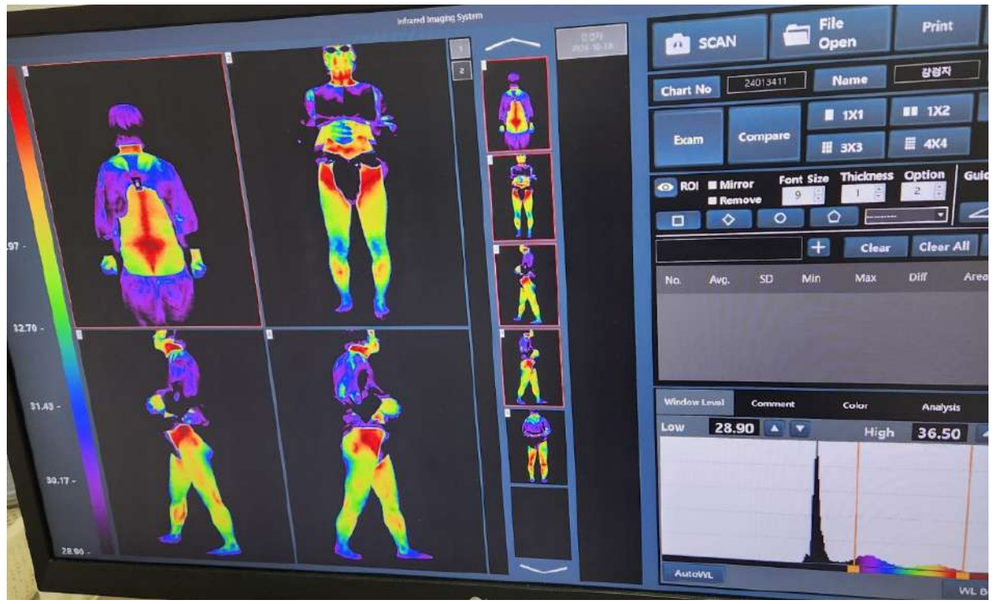
상남한마음병원 영상의학과는 첨단 영상기기(초음파, X-ray, CT, MRI)를 활용하여 질병의 진단과 병기 평가, 치료 방향 설정 등 의료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상 장비와 숙련된 의료진은 질병의 경과 및 상태 평가에도 도움을 주어, 진단뿐 아니라 치료 후에도 환자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조직검사, 고주파 열치료, 다양한 중재적 시술 등 다양한 첨단 시술을 시행하며, 환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최적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상의학과는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신속한 검사 결과 보고와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주요 진료과목으로는 방사선학(흉부, 복부, 산부인과, 근골격계, 뇌신경계) 및 중재적 시술을 포함하며, MRI, CT, 초음파, X-ray 등 다양한 영상을 활용한 판독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맞춤형 치료와 수술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외과 Department of Surgery



상남한마음병원 외과는 다양한 외과적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며, 환자의 증상에 따라 맞춤형 치료와 수술을 병행하여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진료분야로는 탈장, 항문질환, 급성 충수염, 양성 종양(지방종, 피지낭종) 절제술, 하지정맥 질환 등이 있습니다. 외과적 질환에 대해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통해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 최신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세심한 배려로 환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움직임을 위한 맞춤 치료

정형외과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상남한마음병원 정형외과는 환자의 상태와 질병 단계에 맞추어 최적의 통합 치료를 제공하며, 다방면에서 수준 높은 진료가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성기 및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최고 수준의 치료를 제공하며, 환자 개개인의 회복과 편안한 삶을 목표로 합니다. 정형외과에서는 상지 및 하지 관절염, 어깨, 팔꿈치, 손목, 손, 고관절, 무릎, 발목, 발의 골절 및 손상 치료를 비롯해 인공관절, 관절 내시경 수술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근육, 인대, 신경, 혈관 등 상지 및 하지의 연부조직 손상을 치료하며 재건 수술을 통해 기능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환자 개개인의 상태와 치료 목표에 따라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을 통해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며, 모든 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남한마음병원
SANGNAM HANMAEUM HOSPITAL

02
진료지원부

진단검사의학팀

진단검사의학팀은 환자에게서 채취한 혈액, 소변, 체액 등 다양한 검체를 고도화된 기술과 장비를 통해 화학적, 생리학적 분석 검사를 수행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결과는 질병 예방과 관리, 정확한 진단과 치료, 예후 판단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단검사의학팀은 채혈실, 요화학부, 혈액학부, 임상화학부, 면역혈청부, 혈액은행부, 생리기능검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래 환자의 채혈 대기 시간과 검사 결과 보고 시간을 단축하여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적의 검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성원의 나눔과 배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One Team' 정신을 실천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활치료팀

재활치료팀은 환자의 신체 손상과 기능적 제한, 장애 또는 기타 질병과 관련된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열전기치료실과 도수치료실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열전기치료실에서는 열, 냉각, 광선, 전기, 초음파, 견인치료, 체외충격파, 치료적 운동 등을 활용하여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고, 조직 치유를 촉진하며 신체 움직임을 개선하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도수치료실에서는 전문 도수치료사가 환자들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한 후, 손과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1:1 맞춤형 치료를 시행하며, 이를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방문해 주시는 모든 환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더욱 나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치료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양팀

영양팀은 급식영양과 임상영양으로 나누어져 환자들의 건강과 치료를 돕기 위해 체계적인 영양 관리를 제공합니다. 급식영양부문에서는 입원환자의 질환에 맞는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고자 담당 주치의의 식사 처방에 따라 식사를 제공하고, 임상영양부문에서는 영양 상태가 불량하거나 영양 불량 위험이 있는 환자들을 선별하여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 요구량을 산정한 후 맞춤형 영양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영양 관리를 시행하며,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치료식에 대한 설명을 통해 환자들이 치료식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들이 자가 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식사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상의학팀

영상의학팀은 환자의 신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심리적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환자들이 불편함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매달 진행하는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정확하고 친절한 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고급 장비인 3.0T의 LUMINA MRI와 듀얼 128채널 CT 장비인 Go TOP을 비롯해 다양한 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골밀도 촬영기 등 최신식 장비들을 통해 정밀하고 빠른 검사가 가능합니다.

상남한마음병원 영상의학팀은 끊임없는 노력과 발전을 통해 환자 중심의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진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03

약제팀/간호팀/행정팀/시설안전팀/국가검진파트

약제팀

약제팀은 환자들에게 최상의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해서 업무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병원 개원 초기에는 시설과 전산 프로그램 적응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러한 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정확하고 안전한 약물 조제 및 투약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임상 약제 업무를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약물의 조제와 투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검토와 관리 절차를 따르며, 환자들에게 맞춤형 약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약제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호팀

간호팀은 2024년 3월 1일 병원의 재개원과 함께 1개의 병동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3개의 병동(일반병동, 간호간병병동, 소아병동)과 5개의 외래파트(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수술실, 내시경실, 주사실, 공급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남한마음병원의 도약에 발맞춰 간호팀은 2개월 만에 3개의 병동을 추가 개설하고, 5개월 만에 간호간병병동을 오픈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며 지역사회의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중소 급성기 병원으로서 타 병원과 차별화된 원스톱 진료 시스템을 통해, 간호팀은 환자의 안전과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가깝고 전통 있는 상남한마음병원의 '노력하고 발전하는 간호팀'으로 지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행정팀

행정팀은 창원한마음병원이 한마음의료원 체제로 전환하면서 (구)한마음창원병원이 상남한마음병원으로 재개원하는 과정에서 행정(원무)파트, 고객행복파트, 보험심사파트, 구매관리파트를 통합하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행정팀은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처음 접하게 되는 부서로, 접수 및 수납, 전화 예약, 입·퇴원 수속, 의무기록 관리, 제증명 발급, 관공서와의 연계, 긴급 의료비 지원 사업 연계, 미수금 및 중간금 관리, 의료비 심사, 병원 내 물품 관리, 전원 및 외진 환자 이송 업무 등을 담당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밝은 미소로 응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CS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환자 중심의 안전한 진료 환경을 제공하고 병원 내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체계적이고 세심한 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설안전팀

시설안전팀은 병원 내 모든 설비와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건물, 전기, 기계 설비는 물론 방재 시스템까지 꼼꼼하게 관리하여, 환자와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듭니다. 24시간 운영 체제로 긴급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2인 1조로 상시 대기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로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합니다. 또한, 각종 설비의 주기적인 점검과 수리, 보수, 교체 작업을 통해 병원의 모든 인프라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과 자원 관리에도 중점을 두어 환경 보호를 실천하며 병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병원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가검진파트

국가검진파트는 국민의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건강검진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령과 대상자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 및 예방 조치를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일반 건강검진,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검진으로 나뉩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시행하며,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은 각각 만 40세와 만 66세에 중년기와 노년기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검사입니다. 암 검진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포함합니다. 영유아 검진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신체 발달과 발달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가검진파트는 환자들이 이러한 검진을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기념 마음이 인형탈 이벤트(1)

어린이날 기념 마음이 인형탈 이벤트(2)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GRAND MERCURE 앰배서더 CHANGWON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은 세계적 프랑스 호텔 체인 아코르 그룹의 최상급 브랜드로, 경남을 대표하는 고급 호텔입니다. 창원의 랜드마크인 City7 Mall과 창원컨벤션센터(CECO)와 인접해 있어, 대규모 국제 행사의 유치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호텔은 321개의 현대적인 객실과 블루핀 레스토랑,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만다린 중식당, 달리아 스파 등 최첨단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5년 5월, 한마음병원이 풀만호텔을 인수한 이후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였으며, 2018년 그랜드머큐어 브랜드로 리브랜딩했습니다. 호텔의 가든하우스는 경남 유니크 베뉴로 선정되며,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호텔 앞 광장과 입구에는 호랑이상을 배치해, 호랑이의 용맹과 기상을 본받아 자부심과 당당함을 갖춘 호텔이 되겠다는 의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R.E.S.P.E.C.T(존중, 격려, 미소, 실천, 즐거움, 헌신, 신뢰)라는 7가지 핵심가치를 실천하며 직원 상호 간 존중과 격려의 문화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한마음병원과의 직접적인 협력을 통해 고객들에게 편리한 원스톱 메디컬 서비스를 제공하여, 창원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방문하는 고객들도 편리하게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은 한마음국제의료재단의 일원으로서 지역 주민들과 고객들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시립마산요양병원
CHANGWON MUNICIPAL MASAN GERIATRIC HOSPITAL

시립마산요양병원

시립마산요양병원은 2008년 11월 1일에 개원하였으며, 2018년 10월 29일부터 창원한마음병원이 수탁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개원 이후 직원 화합을 중시하여 원활한 소통과 이해, 존중을 바탕으로 조직을 체계화했습니다. 공립요양병원으로서 창원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신경과, 내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과를 포함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뇌경색,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 환자를 위한 전문 진료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증 및 중증의 치매 환자 치료를 위해 전문 간호 인력과 함께 영양팀이 최상의 식재료로 환자의 영양을 관리하고 있으며, 160여 명의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경험 많은 재활치료사들이 노령 환자의 근육 강화와 수술 후 기능 회복을 돕기 위해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다양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여 환자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및 공공보건사업부문에서 전국 최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치매환자 지원사업에서는 2018년 이래 5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여, 쾌적한 병원 환경과 우수한 인력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치매안심병동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4년 11월 준공 후 2025년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치매안심병동은 신경과 전문의, 치매 전문 간호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치매 전문팀이 행동심리증상(BPSD)과 섬망 등의 증상을 보이는 치매 환자들에게 전문적이고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시립마산요양병원은 '효와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이라는 원훈을 실현하며,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신뢰받는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인인베스트먼트

창원한마음병원의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개원 30주년을 맞이한 창원한마음병원은 지난 30년 동안 헌신과 정성으로 지역민의 평생 건강 파트너로서 희망과 건강을 선물해 왔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깊은 신뢰와 따뜻한 의료 서비스는 많은 이들의 건강을 되찾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그 발자취 속에는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담겨 있으며, 앞으로도 그 빛나는 성과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파인인베스트먼트는 2014년 1월 1일, 하정훈 대표이사님을 중심으로 창립하여, 창원한마음병원의 물류 및 물자 자원에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체계적인 물류 관리로 병원 운영에 기여하며, 신뢰받는 물류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하정훈 대표이사님의 직원 섬김과 배려, 그리고 따뜻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직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오래 일하고 싶은 회사로 자리 잡으며 더 큰 물류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동력 덕분에 창원한마음병원과의 협력에서도 더욱 큰 성과를 이루었으며, 앞으로도 병원과 함께 300년을 도약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하충식 의장님과 최경화 이사장님의 봉사 정신을 본받아 하정훈 대표이사님과 저희 직원들도 '1구좌 만들기' 기부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일환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에 지속해서 참여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원한마음병원의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병원이 지난 30년간 쌓아온 헌신과 노력의 결실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빛을 발하여 더욱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파인인베스트먼트 가족 일동

조은사람들

창원한마음병원 30주년을 맞이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마음병원 건물의 청소 용역을 맡고있는 조은사람들입니다.

2017년 하충식 의장님께서 환자에게 쾌적한 의료환경을 제공하고자 저희들에게 깨끗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최경화 이사장님께서는 환자를 위하는 마음은 한마음병원에 일하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마음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알려주셨습니다. 미화 직원 또한 한마음의병원의 일원으로 최선을 다하여 환자의 치료에 기여해 달라는 진심 어린 말씀에, 미화직원들은 환자들이 깨끗한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퇴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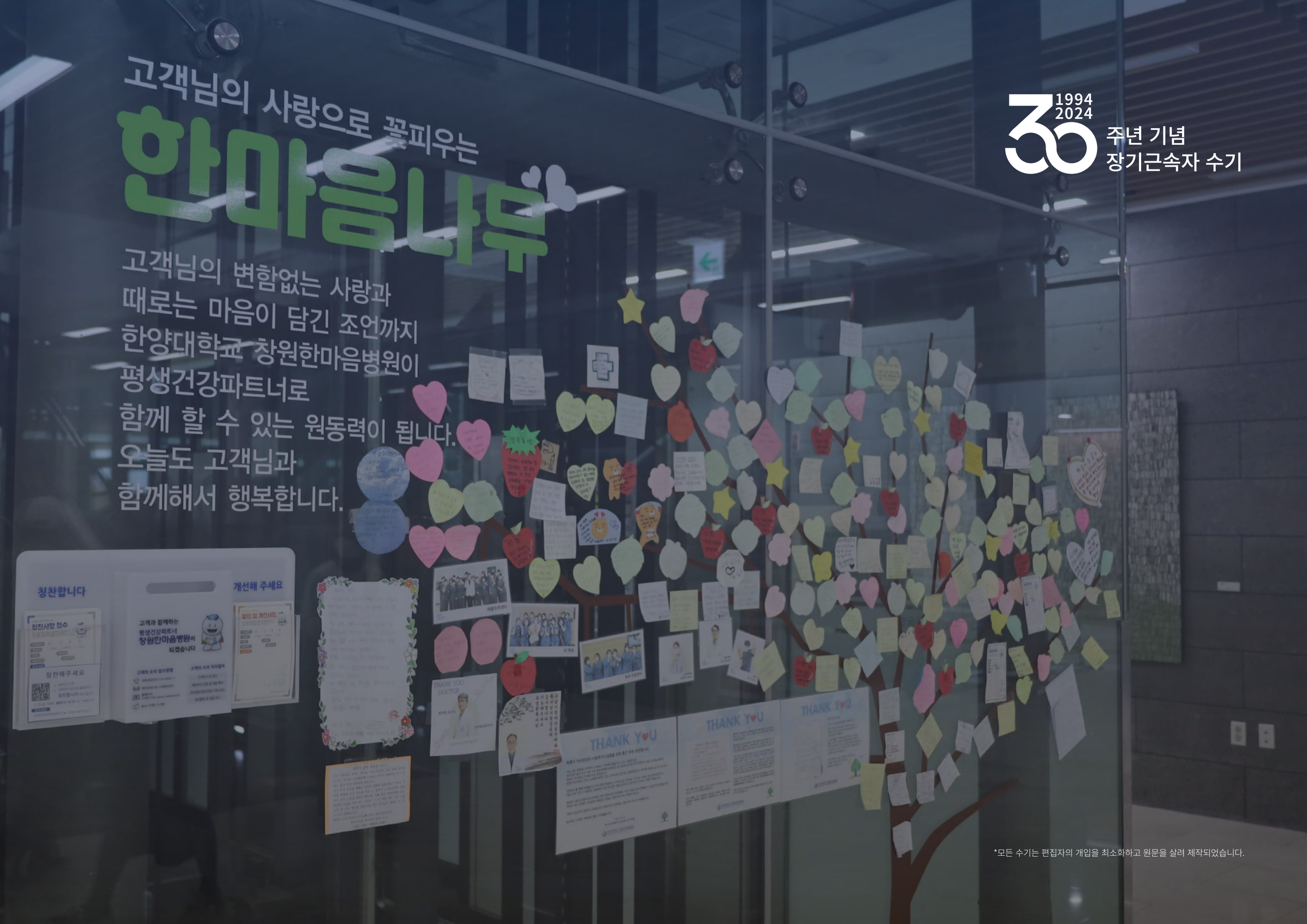
평생에 몇 번 허리를 굽히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루에도 수백 번 30년을 한결같이 허리를 접으시는 의장님을 보며 사랑과 봉사, 희생과 배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어느 부서보다 더 신경 써주시고 챙겨주시는 의장님, 이사장님. 한마음병원의 미화 직원들은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는 즐거움과 환자들의 치료하는 의미 있는 일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이사장님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최고를 향하여 발전하는 한마음병원의 일원으로 할 수 있는 최선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하며 한마음병원의 역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존경합니다! 이사장님 사랑합니다! 한마음병원 파이팅!

-조은사람들 가족 일동

1994 2024

한마음국제의료재단은 임직원들의 고귀한 노력으로
지역사회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동반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헌신을 바탕으로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닌
사랑과 나눔이 가득한 곳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마음 가족들은 지역민을 위해 힘차게 나아갑니다.

1994
2024
주년 기념
장기근속자 수기



*모든 수기는 편집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원문을 살려 제작되었습니다.

01
한마음병원 가족들은 꿈을 공유하며 지역민과 함께 더불어 성장한다

총무팀 전창욱

1. 초창기

한마음병원 95년 1월 1일 창원시 봉곡동 34-3, 34-4번지 병원 건물 내 5층 501호 특실을 사무실로 사용하여 첫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대표전화 0551-288-6000~2번).

첫 시작은 사글세 전세로 병원을 개원하여 중소병원 서럽고 힘들었던 시간을 뒤로하고, 언제나 한마음인의 푸른 꿈과 희망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마음병원이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 즐겁고 희망차게 지내온 시간을 돌이켜 생각해 보며 주마등처럼 지나온 시간이 내 인생의 최고였던 날들을 기억하며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1995년 1월 2일 시무식을 시작으로 언제나 환자 아닌 손님으로 맞이할 준비로 병원 앞, 그리고 상가 주변 청소와 손님을 정성으로 모시겠다는 굳은 의지로 정문에서 인사로 하루를 시작함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다짐을 하면서, 병원 2층 좁디좁은 로비에서 시무식 행사를 비롯하여 매월 조례 시마다 한마음 가족이 2,000명을 넘어 10,000명이 되는 날이 오게 되는 날을 대비해야 한다고 하시며 한마음인의 꿈을 직원들과 공유하였습니다.

오래된 병원 건물로 인하여 겨울철에는 난방비 절감을 위하여 창문 틈과 에어컨 틈새로 들어오는 찬 바람을 막기 위해 방풍 비닐을 설치하며 난방비 절감했던 시간과, 원가 절감을 위하여 알코올 솜 하나랑 3M 반창고 하나라도 아껴 쓰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했었던 것은 한마음 가족의 원대한 꿈과 희망이 있었기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낡은 병원 건물이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이 변해가는 병원의 모습을 지켜보며 '꿈과 사랑이 있는 병원 한마음병원'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한마음 가족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였습니다. 한마음인의 꿈은 한마음가족인 우리들만의 꿈이 아닌 지역민과 함께 상생을 위한 꿈이었기에 언제나 지역 주민과 함께 더불어 성장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전세 임대병원을 운영해 왔던 시기에 넉넉한 병원 살림도 아니었지만, 한마음병원 설립자의 의지였기에 언제나 불우시설과 이웃에 생필품과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나눔을 먼저 실천하였습니다. 이렇게 지나온 시간이 정겹고 행복했던 시간으로 현재의 한마음병원이 있게 한 원동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 성장기

2001년 12월 10일 창원시 상남동 신축병원으로 이전하여 진료하게 되면서, 한마음 가족들은 한층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한마음 가족임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큰 꿈을 위하여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환자와 함께하는 병원이 되기 위하여 병원 주위와 상가 거리 청소를 비롯해 아침 인사까지 더욱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병원으로 거듭 변화해 왔습니다.

특히 봉곡동 한마음병원 근무 시절 기억에 남는 것은,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것입니다. 병원 난방비 절감을 위하여 병실부터 사무실까지 유리 창문에 뽁뽁이 비닐을 부착하여 냉, 난방비를 절감하였으며 절감한 난방비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교복을 구입하지 못했던 학생들을 위한 교복 지원에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언제나 환자분들과 소통하시면서 환자분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의장님께서 실시 해 오셨던 병실라운딩을 담당 병실 코디네이터 제도로 활성화로 현재까지 이어져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의 마음까지 치유하기 위한 '도심 속 작은 공원 만들기 프로젝트'로 병원 주위 화단에 사랑초, 초롱꽃, 섬노루귀, 시계꽃, 얼레지꽃 등 사계절 야생화를 볼 수 있도록 많은 종류 꽃을 심어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야생화 공원을 조성하면서 힘들었던 것은 화단에 심겨 있던 예쁜 야생화는 2~3일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없어지는 꽃을 보시고 꽃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고 하충식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구경하지 못함을 아쉬워하셨던 시간들과, '도심 속 작은 동물원'을 설치하여 토끼, 금계, 은계, 백한, 오골계, 꿩, 공작새를 키우며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민들과 함께한 상남동 한마음병원에서의 시간들은 한마음 가족들에게는 좋은 추억이고 자부심을 충분히 가질만한 성장기였다고 생각합니다.

3. 확장기

2009년 6월 한마음병원 증축 이후 의료기관 인증평가와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을 지정받고, 한양대학교와 교육협력병원으로서 협약을 통해 새로운 의료진과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면서 대학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서 한마음 가족이 600명을 넘어 1,000명을 바라보면서 초창기 한마음병원의 비전인 대학병원을 꿈꾸며, 직원이 2,000명이 되는 시대가 다가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4. 더 큰 미래를 위한 꿈을 가지다.

2016년 9월 24일 창원중앙역세권 신축병원 착공을 시작으로 착공식 당일 최다동시시삽(2,016명) 기록 도전을 통해 한국기록원 인증을 받았으며 드디어 2021년 3월 창원중앙역세권으로 신축 이전하여 단일건물로 최대 규모의 병원으로 의료계의 새 역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한마음병원은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 넘어 세계로, 미래로 한마음병원의 푸른 꿈 세계적 수준의 아시아 의료허브! 2030년 3,000병상, KOREA 20 비전을 이루는 날까지 힘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02
1995년 명서동 한마음 응급실부터 지금까지

외래간호팀 김태은

1995년 응급실, 너무도 작은 규모였지만 나름 내실은 튼튼했던 웃음꽃이 피어나는 우리들만의 한마음 응급실. 응급실이라는 곳을 첫 입사를 하여 신규교육도 받고, 선배들과 나란히 근무하고 하지만 그것도 근무가 돌아가지 않아 Bid로 돌아가면서 열악하지만 나름 재미있게 일을 하며 집에도 가기 싫을 정도로 일이 재미있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배우는 재미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던 1995년, 어느 봄 명서동 한마음 응급실에서 밤 근무를 하며 나와 한마음병원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다리가 퉁퉁 부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무슨 하루 종일 일어서서 일을 하는데, 우와 이렇게 돈 버는 게 어려운지 몰랐다. 근데 내가 공부를 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이 너무 재미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재미있고 내가 정신 차린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고생이라고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집안일도 안 해보고 학교, 집, 학교, 집만 다녔었고, 아르바이트도 한번 해보질 않았기에 첫 사회생활이 나에게는 신세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과연 일주일을 다닐 수 있겠느냐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하니 점점 부모님도 대견해하셨고 저 스스로도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10년 근속 직원들에게 부모님 여행 보내드렸을 때 동네에서 "아이고 아들자식보다 딸이 효도하네" 하며 자랑일색을 하셨고 꽤 어깨를 들썩이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딸 된 도리로 참 그때 병원 들어와서 뿌듯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회란 곳이 이런 곳이구나,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있구나"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내 머릿속에 폭죽처럼 터지면서 너무도 다른 세상의 경험들이 펼쳐지니 하루하루가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특히나 가족적인 이 한마음 응급실에 하루하루 일상들이 나에게는 집보다도 더 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수간호사님의 엄마 같은 보살핌과 선배님들과 의사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정말 너무나 가족보다도 더 가족 같아서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게 아까울 정도로 내 청춘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응급실에서 6년의 세월이 지나고 정형외과 외래 자리가 나게 되어 외래로 빠질 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과연 응급실에서 3교대 하다 외래 일을 할 수 있을까?" 겁이 났지만, 선배님의 가르침 덕에 잘 마무리해서 인수인계를 잘 받아서 외래 첫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래 첫날, 잠을 설쳤습니다. 7시에 출근해서 청소도 다 해놓고 커피 내려놓았습니다. 당시 150여 명의 환자를 보았기에 처방전에도 하루치의 날짜를 다 기입해 두었습니다. 예전에는 차트를 환자분들이 원무과에서 들고 외래로 와서 진료를 보았고, 처방전도 수기로 다 적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마음가짐으로 만발의 준비를 마치고, 가슴 두근거리는 걸 겨우 참아내며 조그마한 창문을 열어 나의 외래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첫 환자를 받았고, 과장님이 수술을 올라가게 되면 환자들도 같이 저랑 몇 시간이고 앉아서 같이 대기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

고, 급할 땐 사진을 들고 올라가서 오더를 받고 먼저 응급처치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환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모든 게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그게 지금까지 척추·관절센터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나의 열정과 애정이 담긴, 나의 한마음에 대한 노력과 진실 30년의 노고와 애정이 담긴. 누구는 나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해낼 수 없었고 그렇지 않았다면, 저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어느덧 내 후배들도 나처럼 척추·관절센터에서 시간을 보내며 나의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가기에 외롭지 않았고, 그래서 미래가 즐겁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침 컴퓨터를 켜고 첫 환자 받을 준비를 하고 문을 활짝 열며 환자를 불러봅니다.
“안녕하십니까?”

03
한마음에서의 추억들

간호교육행정팀 **이경란**

30년 동안 한마음병원에 근무하면서 병원과 같이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나의 소중한 자산을 쌓는 시간이었고 일을 통해 멋진 인연들을 만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충식 의장님의 의과대학 유치라는 꿈을 한마음병원의 모든 직원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달려오면서 조금 더 높은 곳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0년 같이 동고동락한 소중한 직원 가족분들에게 정말 대단하고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재직 기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창원시 야구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행사 참여한 부분, 봉곡동, 상남동에서 일요일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하면서 당직 선 기억, 그리고 봉곡동 병원 근처에 포장마차촌이 많았는데 포장마차에서 직원들 회식하다가 응급실에 교통사고 환자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일손이 모자라는 경우 직원들이 달려가서 도와줬던 기억들, 송년회 밤 행사 때 오형철 매니저님 불꽃 쇼하다가 얼굴에 불이 옮겨붙어 화상 입었던 기억, 상남동에서 2주기 인증 평가받을 때 다들 힘들 것이라고 말했지만, 간호부원장님 및 수간호사 선생님들과 같이 한 달 넘게 밤늦게까지 남아서 준비했고 무사히 수검을 받고 결과 평가 들으면서 고생한 기억으로 다들 울었던 모습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이런 추억들이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마음으로 보는 세상, 꿈나무체육대회 등 병원에서 주최하는 지역사회 나눔 행사에 참여하면서 나와 함께한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꿈과 희망을 볼 수 있어 너무 좋았고 나 자신도 나눔을 통해 이웃과 소통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04
한마음병원의 역사와 함께한 쉼 없이 달려온 20년

병동간호팀 **신희영**

한마음병원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간호사로서 지난 20여 년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번의 강산이 바뀌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서 약 7년간 일한 후 결혼과 육아로 인해 퇴사하고 전업주부로서 일상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7년의 휴식기를 마치고, 현재의 상남동 한마음병원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며 다시 간호사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인지, 아니면 일이 늘 저에게만 찾아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 부서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환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소아청소년과 병동과 내과 병동에서 일했으며, 이후 중증도가 지금처럼 높지는 않았지만 8개 병상의 중환자실, 내과, 정형외과, 일반외과, 그리고 소규모 산부인과 병동까지 차례차례 업무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이렇게 한마음병원에 입사한 후 다양한 시기를 거치며 어느덧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평가에 참여해 왔으며, 예전의 2차례의 처음으로 시작하는 병원 기관 평가, 3차례의 의료기관 인증평가, 재관류 뇌졸중 인증 등을 포함한 모든 평가를 회피하지 않고 중심에서 일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아침 7시쯤 출근하여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항상 추가 업무를 수행해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업무 외의 PC나 인터넷을 사용한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항상 병원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임해왔습니다.

우리는 맡은 일과 직급, 직책, 연봉이 다르고 다양한 차이점이 있지만, 모두 한마음병원의 가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친 마음을 달래며 가는 퇴근길 환자가 막대 사탕 손에 꼭 쥐어 주면서 엄지척 하고갈 때, 퇴원하는 환자가 고맙다고 인사할 때, 그 순간은 우리 모두에게 뭉클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한마음병원의 30주년 역사를 이끌어 온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6월, 상남한마음병원이 본관에서 신관으로 증축 이전했던 날이 떠오릅니다. 본관에는 4개 병동만 있었던 시절에서 신관 증축으로 3개 병동이 추가되어 총 7개 병동이 되었습니다. 증축 전에는 진료과가 구분되지 않아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신관으로 이동하면서 진료과가 구분되자 모두가 설레었고, 신관 한마음으로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때의 경험 덕분에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대규모 이동, 2021년 2월 28일에 다시 한번 기대와 설렘, 희망찬 미래를 품고 창원한마음병원으로의 대이동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일사불란한 협력에 모두가 감동했고, 지금도 그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후 코로나19라는 대란을 겪으면서 “무엇이든 이루고자 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장비가 없다, 기술이 없다, 장소가 없다, 인재가 없다 등등. 우리는 항상 불가능한 이야기만 합니다. 하지만 성공이란 거창하고 멀기만 한 미래의 그림이 아니며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할수 있는 것을 차근하게 해나갈 때 비로소 한 걸음 다가온 것임을 알 수 있듯이 나 자신 또한 그 중심에 항상 있었던 것 같아 한마음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림동으로 이전한 후에도 점진적으로 병동을 확장해 왔습니다. 7개 병동을 시작으로 2개 병동을 추가, 또 2개 병동을 추가로 오픈하였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도 2개에서 5개, 현재는 7개 병동으로 늘려 재정비했습니다. 신설과 교체 이전 등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이는 모두 수간호사 이하 모든 부서원이 협조하여 이루어 낸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했다는 것에 누구도 이견을 낼 수 없습니다.

7년 동안 육아를 하면서 휴식기를 제외한 20년의 병원 생활 동안 나의 두 아이가 성장해 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충분히 돌보지 못하는 죄책감과 양가감정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청춘을 바쳐 헌신하며, 저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병원과 함께했다는 것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며 저의 일을 이해하고 응원해 주는 모습을 보며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성인이 된 아이들이 저의 헌신과 노력을 존중해 주며,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 흐뭇함과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창원한마음병원에서의 20년을 되돌아보면, 환자를 내 가족처럼 생각하며 돌봐왔습니다. 수많은 환자가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혹은 더 평안한 곳으로 떠난 분들도 있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제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 진심을 다해 역할을 수행해 오면서 성장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한결같은 자세로 최선을 다한다면, 자부심으로 일하는, 승승장구하는 병원에서 오랫동안 함께할 것 같습니다.

05
사랑하는 한마음병원에게

심장검사실 **정미화**

30주년을 맞이한 한마음병원에게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너와의 인연도 벌써 25년이 되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이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매일 다니면서 너의 몸집이 커가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 큰집에 사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면서 내가 아닌 우리라는 가족애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 코로나라는 힘든 일도 있었지만, 서로서로 믿고,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긴 시간 동안 함께한 한마음병원 가족을 보면서 큰집의 주인장을 닮아 가면서 생활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모습을 닮아 가면서 꿈을 꾸고, 그 과정에서 나와 내 가족과 한마음병원 가족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기쁨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새로운 도약을 위해 그랜드 비전인 KOREA TOP 20, 세계적인 수준의 아시아 의료 허브를 위해 핵심 가치인 행복, 봉사, 사랑, 노력, 혁신을 가슴에 담아 2030년 3,000병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진한다면 꼭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한마음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06
한마음에서의 추억과 노력들

간호부 **윤연옥**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니 봉곡동, 상남동, 용동에서의 생활들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곡동에서는 모두가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모두가 어느 부서에 뭐가 있고 어떤 일이 있었고 도움이 필요하면 전체가 도와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병동에서 있으면서 분만실과 신생아실, 주사실, 약국을 바쁠 때마다 도우면서 업무를 했는데 이때 이미경, 안미연, 한승희 수간호사 선생님들을 만났고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었습니다.

상남동에서는 병원평가, 신임평가, 인증평가의 나날들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병원평가를 필두로 우리 병원 체계를 세우는데 주춧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간호부에 들어가서 처음 나는 간호부 업무규정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병동에서 간호만 하던 나로서는 사무실에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것이 너무도 어려웠고 인내의 나날이었습니다. 삼성병원에서 근무하다 우리병원에 오신 한재옥 부장님은 업무에서는 아주 엄하게 하셨고, QI를 배울 때는 10번도 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야속하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기본을 다지는 데 도움을 주신 것에 고마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영란 이사님 때는 1주기 인증평가가 있었고 한미영 과장, 신희영 수간호사와 같이 준비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1주기 인증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모두 정말 불철주야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도전 골든벨을 실시하고 모든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평가하였고 이것이 오늘의 4주기 인증을 받는 토대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증을 위해 많은 견학을 갔었습니다. 삼성창원병원, 파티마병원, 해운대백병원,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창원경상대학교병원 등을 다녔고 수간호사 선생님들은 모두 철저히 우리 것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병원 및 간호부 발전을 위하여 병원 벤치마킹을 대전선병원, 안동병원, 서울이대마곡병원, 부산고려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은평성모병원, 연세대학교병원 등에 다녀왔습니다. 이러한 선진병원의 벤치마킹을 통해 도약의 힘을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용동에 있는 창원한마음병원. 이사하기 전부터 우리는 코로나의 여파가 있는 상태였고 창원한마음병원은 덩치가 너무 커서 엄두도 나지 않았지만 하충식 의장님, 최경화 이사장님 이하 경영진과 김인자 간호부원장님의 지도하에 우리는 열심히 또 한마음으로 뭉쳐서 이사를 하였습니다. 외곽지라 환자들이 찾아올까 걱정을 하였지만 전화위복으로 코로나 환자의 증가 및 검사 환자가 늘어나면서 그 걱정도 잠시 하충식 의장님을 필두로 병원장님 이하 교수님, 직원들이 단합한 결과 병원에 환자가 찾고 이로 인해 병원 홍보가 되어 널리 병원이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기도 전에 5개 병동에서 한 층 한 층씩 오픈해가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늘리고 병동 전체 오픈을 하였으며 중환자실 병상수를 늘리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또 나아가 수시 인증, 중간 인증평가를 하고 여러 센터 및 신생아, 뇌졸중, 고위험 집중치료실을 증설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3년간 도약하게 할 수 있게 힘써준 수간호사, 4개 팀의 팀장들의 노력이 고맙고 대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원부서와 행정부서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우리병원이 발전되어 30주년을 맞게 된 것이 자랑스럽고, 이는 우리 병원이 모든 과에서 합심하고 행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우리병원의 정신이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한마음, 우리만이 할 수 있다”라는 정신이 살아있는 한 우리병원은 2030년 3,000병상의 꿈은 꼭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격려해주신 의장님, 이사장님, 의료원장님, 병원장님, 경영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07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진단검사의학팀 **윤상철**

얼마나 오래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계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단계를 올라가기만 해서도 안되고 가끔은 기어가기도 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마침내 정상에 오르면 모든 게 바뀌어 버리고 다시 바닥에 있게 되는 것이 자연의 섭리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출발했던 곳을 뒤돌아보면서 한 번 더 첫 번째 단계를 디디고 서보려고 합니다. 저의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자신을 또 한 번 응원합니다.

20대 사회 초년생으로 첫 직장에 입사하여 어느덧 중년의 50대가 되었습니다. 1994년도 봉곡동 병원 같은 층에서 하충식 의장님과 근무하며 점심때 단둘이 삼겹살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식사한 지도 어제같이 느껴지는데 세월도 가속도가 붙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어쩔 수 없이 동료가 직장를 그만두어야 했던 IMF, 서울 상경 투쟁을 했던 의약분업, 상남동 시절 힘들었던 사스, 또한 코로나 시절까지 고난과 역경을 짚고 도약할 수 있었던 명실상부 지금의 한마음병원으로 성장 변화하는 모습들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20대는 한마음의 유년기였고, 30대는 소년기, 40대는 청년기, 50대는 장년기로 그렇게 한마음과 함께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가정을 이루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고, 한마음과 같이하며 성장하고 이루어지듯 세월은 그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조금씩 자라게 하는가 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일하는 직장에 대해 항상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생활해 왔듯이 젊은 후배들도 한마음의 자긍심을 갖고 임했으면 합니다. 위대함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병원 경영진의 도전정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마음은 생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영진의 노고에 깊은 존경심과 감사를 보냅니다.

앞으로 한마음 직원들이 좀 더 즐겁고, 유익하게 근무할 수 있는 병원. 또한 의료계 최고와 대학병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한마음의 구성원들이 더욱 노력하고 협력하는 병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한마음으로 한마음 인(人)으로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임해 보려고 합니다.

김승희 시인의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인생시에서 보면 모든 직장인에게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나에게는 그래도라는 섬이 한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라는 섬에서
그래도 부둥켜안고
그래도 손만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강을 다 건너 빛의 뗏목에 올라서리라,
어디엔가 걱정 근심 다 내려놓은 평화로운
그래도 거기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멀지 않은 훗날 한마음이라는 섬에서 우리도 서로 부둥켜안고 뜨거운 눈물을 나눴으면 합니다.

08
올해로 30주년 협력업체의밤 “아름다운 동행”

시설관리단 **김종진**

봉곡동 한마음병원에 20대의 혈기 왕성한 나로서 첫 입사를 했던 1995년 7월, 그때부터 상남동을 거쳐 현재의 사림동 병원에 이르기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사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의장님께서는 항상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도 겸손할 것을 강조하셨고, 매년 협력업체 직원들을 초청하여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행사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병원과 30년을 함께한 업체부터 신규업체까지 다양한 협력업체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고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개원 이래 코로나로 인한 2년을 제외하고 매년 빠지지 않고 이어온 구매관리팀만의 연례행사인 이 행사. 처음 협력업체의 밤은 이렇게 성대하지 않았습니다. 삼겹살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소박하게 진행되었죠. 그러나 2024년 3월, 병원의 30주년을 맞이한 지금은 계열사인 그랜드머큐어 앰배서더 창원과 시립마산요양병원까지 참여하여 150개의 협력업체를 선별해야 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급호텔의 대연회장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하여 행사 진행 사회도 보며, 병원 역사가 담긴 홍보 영상을 보고 있으니 이 자리에 있는 제 자신이 자랑스럽고, 긴 시간 동안 이 모든 여정을 함께한 것이 영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현재 우수 협력업체와 임직원에게 감사패와 해외여행 상품권을 전달하는 다채로운 이벤트와 특급호텔의 만찬을 즐기며 협력업체들이 서로의 사업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미니 지역경제 활성화 박람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협력업체 직원들의 열정적인 반응은 눈에 띕니다. 저희와 함께 상생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 업체들에 포상을 드리는 것만큼 직원들 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도 있습니다. 몇몇 직원은 본인이 한마음병원의 일원이 된 듯한 기쁨을 느끼며 본인 회사에서 경험하지 못한 해외여행을 즐긴다며 너스레 웃음을 떨기도 합니다.

의장님의 말씀처럼 "개원 후 함께 상생해 온 업체들과 동반자적 상생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때 협력업체 담당 직원들과 배송직원, 심지어 택배기사님에게까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복분자를 전달하고 있습니다.이 모든 긍정적 상호작용이 결합하여 현재의 창원한마음병원을 이루었고, 특히 코로나로 인한 코호트 격리 상황에서 병원 정문 앞 시민들과 협력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응원해 준 노란 리본은 사회적으로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결제 부분이 당월 결제에서 3개월로 변경되었을 때, 모든 협력업체들은 너그러운 이해를 베풀어 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거래관계를 넘어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글을 통해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30년, 앞으로의 100년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09
한마음병원과 함께한 30년

검진사업팀 **한승희**

1991년 5월 창원 고려병원에 입사하여 지금의 의장님께서 1995년 1월에 병원을 인수하면서 한마음병원의 직원으로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중 몇 가지 말해 보겠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당시엔 최경화 이사장님께서 소아과 진료를 보고 계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의약분업이 안되어 있을 때라 병원 내 주사실과 약국이 연결되어 있었고, 저는 주사도 놓다가 약국이 바쁘면 약 조제하는 것도 도와주곤 했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선 환자가 워낙 많아 마산, 진해에서도 버스를 타고 소아 링거를 맞으러 많이 방문 했던 때입니다. 업무가 시작되면 하루 종일 소아과 애들에게 링거를 준다고 씨름했던 게 생각납니다. 점심시간이 돼서도 일이 끝나지 않으면 식당에서 큰 양푼에 비빔밥을 해 보내 주셨고 약국과 주사실 직원들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코호트 격리였던 때가 잊지 못할 기억 중 하나입니다. 병원 안에 있었던 직원들도 집에서 격리되어 있던 직원들도 처음에는 코로나 확진 병원이라 쓴소리도 많이 해서 정말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들의 격려와 구호품들이 도착하고 노란 리본에 격려의 글을 적어서 병원 앞 나뭇가지에 걸어 주셨던 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런 큰일을 겪은 후 자체적으로 선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디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전국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병원으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차를 타고 병원 건물을 한 바퀴 돌아 나오는 코스로 설치된 이용 편의성 때문에 이용자들이 구름 같이 몰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 하충식 의장님, 최경화 이사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병원 업무에 힘들어하는 후배나 새로 입사한 직원들에게 지금은 웃으면서 우린 그랬다고 자랑합니다. 앞선 모든 역사가 모이고 모여 2030년, 3,000병상을 만드는데 큰 밑거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한마음인들 화이팅입니다.

10
전국에 손꼽힐 정도로 빠른 EMR 도입을 떠올리며

전산팀 **이환봉**

2006년! 한마음병원에서는 EMR(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이야 EMR을 구축하지 않는 병원이 없지만, 그때만 해도 EMR을 도입한 종합병원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였습니다. EMR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기도 하였고 처음 도입하는 시스템이라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짐작은 했었지만, 도입을 하니 실제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진료부에서는 종이 위에 기록하던 방식을 타이핑으로 하려니 너무 힘들다고 거부반응이 있었고, 이것이 제일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펜 인식 도구를 몇 가지 구입하여 사용할 것을 권해드리기도 했지만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힘들다며 사직을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시대의 흐름은 EMR로 갈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수 차례 의사들을 만나 설득하고 협조를 부탁드렸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시던 하충식 의장님의 한마디로 의료진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컴맹인 나도 하는데 왜 못하시냐!" 이렇게 한 두 분 설득하고 협조한 덕분에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는 많은 의료진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디지털 기록이 생소하여 불안해하는 직원과 환자들도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EMR이 제공하는 정확성과 신속성에 익숙해지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환자 이력 조회가 빨라지면서 진료 시간이 단축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병원 내 타 부서와의 협업으로 환자 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고, 지원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임상 연구의 질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EMR 도입은 단순히 기록 방식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넘어, 병원의 전반적인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EMR 도입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당시의 결단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변화와 도전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를 극복하고 나아가는 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과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후 프로그램도 조금씩 보완되면서 6개월이 지났을 때는 대부분의 의료진이 큰 불평 없이 적응하고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동물이라는 강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과거 일을 돌아보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그때만 해도 너무 가슴 졸였던 시기였던 것 같아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11
한마음에서의 24년

전산팀 **이준화**

"한교수가 보내서 왔어? 그래 열심히 해봐"
2000년 11월 늦가을 마지막 주의 어느 날 김종진 관리단장(당시 계장)의 이끌림으로 봉곡동 한마음병원 2층 산부인과의 집무실에서 처음 만난 하충식 의장님(당시 병원장)과의 첫 만남

이자 첫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 병원의 구매관리과 소속이었던 전산실 직원이 개인 사정상 그만두게 되어 급하게 교수의 추천을 받아 봉곡동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날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고 3개월간 인턴 생활을 시작하면서 나의 첫 직장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맨땅에 해딩

저의 전공은 전자공학이었습니다. 병원 전산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시스템 구성이 어떤지 모두 전공과 전혀 관련이 없어 처음부터 다시 다 배워야 했었습니다. 퇴직하는 선임이 저에게 인계를 친절히 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뇌리에 꼽혀 아직까지 기억하는 말도 있습니다. 일단 모르니 열심히 하게 되고 처음부터 안 했으면 안 했지 포기는 몰랐던 저는 모든 것을 눈에 익히기 위해 첫날부터 수습이 끝날 때까지 12시 전에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고, 자가용도 없어 매일 택시를 타고 귀가했던 기억만 납니다. 이후 상남동으로 이전 후에도 거의 한 달 동안 집에 못 들어갔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좋은사람들과 좋아하는 사람들

세상에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저의 기준으로 좋고 나쁨을 정의할 뿐이지 모두 누군가에게는 귀한 자식이자 부모이자 형제자매들임은 분명합니다.

어느 시점이었는지 지금은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김종진 계장님과 오인수 계장님(지금은 다른병원에 근무)의 업무처리 중 트러블에 휘말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명확한 답변을 못 드려 분해서 처음 대성통곡을 했었습니다. 결국 트러블은 종료가 됐지만 이후 오인수 계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 인생의 첫 맨토가 되는 말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에 네가 휘말리게 되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가 너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세상에 수많은 생명체가 있고, 그 생명체 중에 인간으로 태어났고, 그 인간이 하필 대한민국에 경남에 창원시에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 뒤 수많은 직장 중에 하필 병원이고 하필 한마음이고, 하필 원무과에 사람 상대하는 직업을 갖고 일하고 있다. 이건 전생에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현생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어루만져주고 속죄를 하라는 뜻인 게 아닌가 싶다. 모든 속죄를 다 하면 다른 일을 하거나 쉬는 게 아닐까 싶다. 너에게 다시 한번 피해를 끼친 것 같아 미안하게 생각한다”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으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 주고 있고 제가 아직 이 일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길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속죄가 덜 되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병원의 성장과 도약에 따른 나의 업무와 미래

대한민국의 네트워크망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과거에 책으로만 접했던 선구자들의 좋은 말과 지침이 손가락만 꼼지락거리면 쉽게 찾고 그런 내용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장님 또한 본인의 의지와 선구자들의 영향으로 병원을 이렇게 크게 성장시켜 왔을거라 생각하며, 병원이 성장과 도약을 거듭하면서 저 또한 검토하고 처리하는 일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래전 적은 ‘수처작주(隨處作主)’라는 하충식 의장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왜 그렇게 적었는지는 이해하는 데 그리 큰 시간은 걸리지 않았으며, 병원이 아닌 어디에서나 가능하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 미래의 도약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십수 년째 제 자신의 신념으로 삼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신즐’ 정확하고, 신속하고, 즐겁게. 모든 일은 시행하기 전 꼼꼼하게 체크하고 문제가 되는 것과 그 영향력을 사전에 분석한다. 모든 것이 파악되면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처리할 때는 이왕 내가 하는 거 인상 쓰거나 화내지 말고 즐겁게 처리한다.

언제까지 속죄의 삶으로 여기에서 일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나의 신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이 시점에도 나와 동거동락하며 속죄의 삶을 살고있는 직원분들, 그리고 모든 속죄를 다하여 나를 떠나간 전 직원분들, 모든 앞길에 꽃길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2024년 6월 어느 날. 한마음병원 파이팅.

12
병원 30주년 즈음하여

영상의학팀 **이광옥**

생각나는 이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내분비 내과에서 받아온 감기약이 있습니다. 호흡기내과도 아니고 이비인후과도 아닌 내분비내과에서 늘 감기, 설사, 장염, 비염

등등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아니 관련이 없더라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보았습니다. 저만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OOO 수석님도 다른 선생님들도 저를 “OO아” 이렇게 편하게 부르시는 분 중 한 분이셨습니다. 듣는 저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 부름에 응대하곤 하였고 참 오래도 같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대면 하기가 힘들 이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와 정반대였습니다. 항상 상대방을 편안하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환자분들에게도 보호자에게도 다른 직원들에게도.... 그분의 개인적인 삶은 잘 모르지만 본인의 삶의 힘든 여정도 잘 견뎌 내시던 강인한 분이셨던 거 같습니다. 암도 잘 이겨 내서 복귀하셨고....

제 개인적인 가족사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주치의였습니다. 우리병원에 순환기내과가 없던 시절 진료 후 심혈관질환이 의심되어 부산대학병원에 직접 연락을 해주셔서 시술 일정도 빠르게 잡을 수 있어 무사히 회복하셨습니다.그 이후에 계속 아버지의 주치의가 되셔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진료를 봐주셨고 장례식까지도 와 주셨습니다. 이렇게 같이 오래오래 정년까지 혹은 이후로도 계속 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도 잘 견뎌서 이겨내실 줄 알았습니다. 암도 이겨 냈는데, 괜찮으실 거야....

삶을 참으로 허망하게 만드는 것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죽음인 거 같습니다. 가까이는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까지 장례식을 치르고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았지만, 항상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두 번째로 첫 번째는 10여 년 전 수술실에서 근무하시던 강OO 선생님 오토바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기 전까지 누구보다 건강하고 열심히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하늘이 정해주는 만큼만 살 수밖에 없겠지만.... 그 시기도 알 수 없으니 주어진 삶을 살아 가는 동안 타인에게는 물론 자신에게도 친절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그분을 기리는 것을 그분은 알 수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삶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행동과 잘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끔씩은 스스로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타인이 그걸 인정 해 줄 정도라면 너무 이타적인 생활을 해야 해서 쉽지 않을 거 같으니까요. 그게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30주년을 맞이하여 직원들의 신망과 존경을 받았던 분이 계셨다는 것을 제 개인적인 이야기에 빗대 병원 한 귀퉁이 역사에 기록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글을 마칩니다.

13
자랑스러운 한마음병원과 함께한 세월

보험심사팀 **안현정**

1996년 12월 19일 입사하여 2024년 6월 현재까지 봉곡동의 한마음병원에서 상남동의 한마음병원을 거쳐 사림동의 창원한마음병원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반을 창원한마음병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병원 식구들이 모두 모여 공원에서 소고기 구워 먹던 때(30여 년 전에는 가능한 일)와 체육대회를 하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와 부서별로 더욱 돈독해지는 좋은 시간도 보냈습니다. 한번은 공원에서 소고기를 구워 먹을 때 제 생일과 겹쳤었는데 그때 하충식 의장님께서 너의 생일이라 특별히 준비한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기분이 엄청 좋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입사 시 하충식 의장님과 최경화 이사장님께서 교통사고로 소년·소녀 가장이 된 어린이들에게 후원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을 해가 갈수록 더 넓고 깊게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찐한 감동을 받아 저도 적은 금액이지만 매달 후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병원은 늘 도전적이고 진취적입니다. 30여 년 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봉곡동에서 IMF라는 거친 파도를 넘어 상남동 한마음에서 다진 세계적 수준의 아시아 의료허브의 길로 들어왔습니다. 2023년 장기이식센터가 개소되었고, 그 덕분에 현재 장기이식까지의 진료비 청구에 관하여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성장하는 우리병원과 함

께 나도 같이 성장하고 부족하지만 뒤처지지 않으려고 늘 노력 하고 있습니다.

14
제가 남을게요

병동간호팀(51병동) **김현지**

2020년 2월 26일, 데이 근무 중에 갑작스럽게 결정된 병원의 코호트 격리. 그때 저는 병원에 남은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2006년 병원에 입사해 10년 동안 근무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5년에 퇴사했다가 2016년에 다시 병동으로 돌아왔습니다. 병동에서 저는 교대 근무자도 책임자도 아닌 주사 전담 간호사였지만, 제가 자라온 병원이었기에 애착을 가지고 항상 솔선수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19년 말, 전국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는 우리 병원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직원의 감염이 큰 이슈가 되면서 병원과 접촉한 외부인들까지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회사가 생겨났고, 우리 병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병원은 자체적으로 코호트 격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2020년 2월 26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중환자와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을 퇴원시키거나 전원 조치하기 시작했고, 코호트 격리가 시작되면 직원들도 출퇴근이 불가하다는 국가의 결정이 내려졌기에,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볼 의료진과 직원이 정해져야 했습니다. 간호사의 확진으로 인해 간호부의 부서장들은 자택 격리에 들어갔고, 당시 출근해 있던 간호사와 출근하지 않은 간호사 중 병원에 남을 인원을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출근해 있던 저는 자원하여 남기로 했습니다. 생일임에도 남겠다는 간호사, 아이가 없어서 남겠다는 간호사, 아이가 있지만 본인이 보던 환자를 계속 돌보겠다는 간호사 등 총 83명이 남았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남겠다고 했을 때 남편은 흔쾌히 짐을 싸서 병원으로 가져다주고 힘내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달력에 하루하루 나갈 날짜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내에는 코로나 확진 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매일 남은 환자와 보호자, 직원 모두 코로나 검사를 시행했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매일 가슴을 졸였습니다. 마지막 격리 해제 날에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서 서로 끌어안고 행복해했습니다.

격리가 시작되고, 2020년 3월 7일 해제될 때까지 저는 환자를 직접 담당하는 간호사는 아니었지만, 고연차였기에 간호부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안에서 격리되어 있었지만, 밖에서 선배들과 동료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고, 매일매일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이어져 몸도 마음도 지쳐갔지만, 함께 있어 준 동료들과 지지해 주던 다른 이들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처음 3일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밤새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고, 회의하며 라운딩하면서 간호사들과 보호자, 간병인의 안위를 챙기고, 병동의 물품을 챙기면서 제가 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간호사들은 10일 동안 2교대로 환자를 돌보았고, 최소 인원만 남았기에 제가 하지 않던 일들도 맡게 되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격리 기간 동안 우리는 “무너지지 말자”라는 슬로건을 새기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는 저를 걱정해 주는 가족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사망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환자를 위해 염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종교가 없었지만,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아무도 걸리지 않고, 아프지 않고, 무탈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프면서도 주사를 맞아가며 환자를 간호하는 후배를 보며 간호사들의 사명감을 느꼈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결해 주려는 직원들을 보며 인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찾아갔고, 일주일이 넘어갈 때는 얼마 남지 않은 바깥 세상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코호트 격리 동안 한마음이 하나 되는 경험을 하면서, 저 또한 병원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병원 전체 코호트 격리를 무사히 끝내고, 전체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소식에 모두가 끌어안고 수고했다고 이야기할 때, 서로의 눈은 촉촉이 젖어 있었고, 말을 하지 않아도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우리는 한마음의 저력으로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사림동으로 이전했고, 현재는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병원이 성장했습니다. 2024년에는 상남한마음병원까지 개원하며, 제가 몸담고 있는 이곳이 더 발전하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고, 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창원한마음병원에서 작은 일원으로 함께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냈다는 것, 앞으로도 제가 더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8년 넘게 한마음병원에서 일해온 것이 자랑스럽고, 앞으로 더 발전할 한마음병원을 기대하며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15
내 삶의 일부 한마음병원

상남한마음병원 간호부 **차미정**

“상남동 화려한 네온사인들 사이 한마음병원?” 이것이 창원을 잘 모르던 나에게 첫 직장이고, 현재의 직장이면서 내 삶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일부가 된 한마음병원의 첫 이미지입니다. 왜 물음표가 붙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해 보아도 아무것도 모르던 나에게는 화려한 불빛들 사이에 병원이 있는 것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이상해 보이던 병원으로 나의 첫 직장이자, 지금 내 인생의 반을 차지해 버린 이 한마음병원으로 저는 발걸음하게 되었습니다.

‘늑대 정신’ 파란색 글씨로 한쪽 벽면을 크게 채우고 있는 면접장. 이건 어떤 의미일까 의문을 가지며 면접 후 입사하였고, 지금의 신희영 병동간호팀장님과 입사 동기로 동고동락 하며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지금은 ‘늑대 정신’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버린, 어느덧 한마음병원에 스며들어 한마음인이 된 나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불현듯 나오고 있음을 한 번씩 느끼며 흠칫 놀라게 됩니다). 처음이라 모든 게 서툰 저에게 간호사라는 직업은 매우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어렵고 무서운 선배님, 서툰 주사 실력으로 혼내시는 두려운 환자들. 새롭게 들어오는 후배지만 선배처럼 모심 되어야 하는 후배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까지 성장하고 오게 만든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직장이자 지금 현 직장인 한마음병원. 앞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마지막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다니는 한마음병원은 하충식 의장님의 진취적이고 도전정신을 받들어 모든 직원이 이에 힘을 더하여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시점에서 보면 중간중간 고난과 힘듦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남동 한마음병원 한 동만 있었을 때 옆 동을 증축한다고 하였고 오픈하였을 때 모든 병동을 다 열지 못했었습니다. 한 병동을 열고 난 직후 사스(SARS)의 발병, 병원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때, 하충식 의장님은 미 오픈 병동을 전염병으로 진단된 사스 환자들을 위해서 오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병실씩, 환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한 병실에 2명씩, 3명씩으로 늘려가며 환자들이 입원했고 이를 기점으로 미오픈 병실을 활용하여 환자 유치 및 병원 운영을 이어 나가셨습니다. 다들 이 시기에 사스 환자를 병원에 들이면 다른 일반 환자들이 오기 힘들 거란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하충식 의장님의 선택은 옆 병동을 증축하고 어렵다고 생각될 때 병원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뒤이어 비슷한 질환인 메르스(MERS)가 전염병으로 돌게 되었고, 근처 병원이 창원 전염의 시발점이 되었지만 비슷하게 잘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COVID-19)는 하충식 의장님의 숙원사업인 창원중앙역 근처 병원을 증축하여 오픈하려고 하는 시기에 찾아왔습니다. 앞선 바이러스들과는 비교도 안되게 전 국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전염병이었고, 상남병원이 한 달간 문을 닫게 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 속에서도 하충식 의장님의 추진력으로 용동에 위치한 창원한마음병원은 오픈되었습니다. 창원한마음병원 지하 공사부터 한층 한층 높아지며, 방이 생길 때마다 방문하여 애정 어린 마음으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가며 만들어진 창원한마음병원. 간호부 수간호사로 함께 있었던 선생님들 중 이 병원에 애정 없는 분 하나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공사장 안전모를 착용하면서까지 2주에 한 번씩 꼭 정성과 애정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을 보고 참여하였고, 병원이 완공되어 가는 것을 감격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완공된 후 이사 시점에서도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환자를 편

안하게 새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고군분투 하면서 신축 개원한 창원한마음병원으로 이사 하였습니다.

처음은 우려했던 대로 어떻게 이 큰 병원을 채우고 운영되어야 하나 다들 한마음으로 걱정하며 고민하였습니다. 2021년 당시는 코로나 사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게끔 하였고, 이 기회를 전화위복 삼아 우리 병원이 빠르게 대처하면서 창원시민이라면 한마음병원에서 검사를 안 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찾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하충식 의장님의 빠르고 신속한 대처 능력에 직원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잘 따라가 주면서 이 모든 성과가 나고 병원이 빠르게 자리매김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내과 병동 토박이로 13년여를 근무하고(사실 처음에는 내과 병동이라곤 하나 딱히 구분되지 않은 내과, 외과, 정형외과를 가지 못한 입원 환자들이 있는 곳), 정형외과 병동으로 로테이션 되고 1년 되지 않아 신관 8병동으로 수간호사로 전배되었습니다. 수간호사로 전배 후 알게 된 3째의 임신, 모두 사직한다는 병동에서 그만둔다는 아이들 다독이여 임신한 배를 부여잡고 이끌고 간 10여 개월, 다들 그만두는 가운데에도 기둥같이 남아 있어 주던 간호사들, 전배되어와서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준 간호사들, 어렵고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다들 이때 함께 있었던 아이들 덕분에 나 역시도 많이 성장하며 수간호사의 몫으로 자리잡아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제일 생각 많이 나고 그리운 간호사들(난 항상 내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한다)이 있었던 때이며 아직도 모이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사실 그때 다들 그만둔다는 사직서를 항상 품에 품고 출근을 하던 때였으나 이 또한 지나가니 그리운 추억으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그 후 병동에서만 근무하다가 전배된 곳은 검진센터였습니다. 임상이 아닌 행정적 업무를 해보려니 "어렵다.... 어떡하지?"라는 막연한 느낌만 가득했고, 안개 낀 도로 위를 걷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파악하고, 부서를 알아가며 검진을 공부하며 간호가 아닌 다른분야를 알아감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성향대로 업무를 하고, 아이들도 자리매김하며 제 아이들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기존 사직이 많던 부서에서 사직이 거의 없는 부서로 바뀌어 가는 걸 보며 또 한 번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재 또다시 시작하는 상남한마음병원 간호부로 전배되어 오면서 신규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새마음 새 뜻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 상남동에서 느꼈던 병원에 대한 기쁨, 슬픔, 힘듦, 감동의 감정들을 일깨우며 이곳에서 다시금 시작합니다. 저의 모든 상황이 달라졌지만 더욱 더 굳건해진 한마음인으로서 저는 성장하였습니다. 신규가 아닌 상남한마음병원 간호부의 팀장으로서 부족하지만, 진취적이고 전투적인 하충식 의장님과 최경화 이사장님의 뜻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노력하고 화합하는 창원한마음병원 간호부의 의지를 이어받아 이곳 상남한마음병원의 명성을 찾고 더욱 새롭게 발전해 나가는 주축이 되고자 합니다.

상남동의 한마음병원에서 지금의 한마음의료원까지 지속해서 성장하며 발전하는 한마음의료원. 본원의 비전대로 2030년 3,000병상을 이루며 모든 직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병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병원의 한 명의 직원이자 주인의식으로 함께 성장해 갈 것을 또다시 기대하며 다짐합니다.

16
창원한마음병원 코호트 격리

보험심사팀 **강명숙**

2009년 7월 상남한마음병원 자리에 신관이 생기면서 추가 심사간호사를 모집하는 기회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도를 떠나 충청도에서 10년 넘게 지내면서 우연한 기회에 보험심사 업무를 접하게 되었고, 고향인 경상도로 돌아오면서 한마음병원 심사팀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상남한마음병원 근처라 자주 보게 되는데, 그때는 상남한마음병원이 큰 병원으로 느껴졌는데 창원한마음병원이 신축되고는 왜 그렇게 작게 느껴지는지.... 원래 고향이 경상도라 그런지 오랜 기간 떠나 있었는데도 경상도는 항상 따뜻한 향기가 나고 한마음병원 심사팀 가족들은 처음부터 오래 알고 지냈던 사람들처럼 여겨져서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30주년 동안 어려움 없이 성장만 했을까? 진주에 모 종합병원(현 한일병원)원장님이 가끔 창원한마음병원 어려웠던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부러워한다는 이야기를 후배로부터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입사 후 한마음병원의 최대 위기는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전체가 격리되었던 때인 거 같습니다. 2020년 2월 창원한마음병원은 '집중관리병원'으로 지정, 14일간 코호트격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보험심사팀은 병원 외 건물에 있어서 격리되지는 않았지만, 전국에 사는 지인들의 전화와 걱정으로 나도 많이 걱정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기간을 어떻게 견디었을까? 처음에는 공포감과 걱정으로 힘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걱정으로 보내준 구호 물품을 관리하고 병원에 조달하는 업무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19가 지속되었지만, 그 시기를 성실하고 지혜롭게 헤쳐 나간 모든 직원들과 위기 때마다 늘 준비된 자세로 앞으로 전진한 임직원들의 노력이 현재의 한마음의료원을 만들었고, 제가 창원한마음병원 직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보험심사팀 언니로 후배들에게 내가 배운 많은 것들을 아낌없이 전달하고 2030년 3,000병상이 되는 그날 반짝반짝 빛나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고 싶은 창원한마음병원 파이팅!!

17
이사의 달인이 되다

보험심사팀 **김경미**

봉곡동에서 지금 사림동까지 많이도 이사했던 것 같습니다. 봉곡동에서 상남동으로 이사 올 때 꼭 내가 집을 짓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남동에 높은 건물이 올라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설렜던 기억이 납니다. 직원 모두 손수 무거운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옮기는 일이 힘든지도 모르고 이사했던 것 같습니다. 1999년 12월 마지막 날, 12시를 넘어가면 전산이 멈출까 밤새 병원에 남아 뜬눈으로 모니터를 지켜봤던 일도 모두 추억이 되었습니다. 1층 로비에서 소아과 아이들과 보호자 분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축구 경기를 보면서 응원하실 때 함께 보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소리 질렀던 2002년 월드컵! 용지공원에 모여서 릴레이하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모두가 피구왕 통키처럼 눈이 반짝였던 체육대회도 모두 새록새록 기억에 남는 추억들입니다. 심사평가원 실사만 나오면 동이 트는지도 모르고 새벽까지 일하던 우리, 그래서 군대도 안 간 제가 전우애 같은 걸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병원이 폐쇄되었을 때도 함께 울고 잘 이겨 낼 수 있을 거라고 응원했던 때가 정말 엊그제 같고, 새해 아침 코로나 검사를 받고자 병원을 에워싸고 있는 인파를 보고 근무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가 시킬 것도 없이 모두 발벗고 나서 일하던 그날까지도 돌이켜 보면 한마음 가족은 누가 시켜서 앞으로 나아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병원의 주인이며 모두를 가족이라 진심으로 생각했기에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우리는 2030년 3,000병상으로 갈 것이다"
걸어가는 길이 고난과 역경이 있겠으나 지금처럼 함께 간다면 3,000병상이 아니라 4,000병상 5,000병상으로도 성장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한마음이고 한마음이 곧 나임을, 한마음 가족을 믿고 무조건 앞으로 전진.

18
병리과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병리팀 **신혜령**

2002년 5월을 떠올려보면 병리과는 5평의 병실 한 칸 크기에서 시작하여, 창원한마음병원의 발전과 더불어 지난 20년간 열정과 도전의 정신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병리과 개설, 그 당시에는 MSDS 제도가 체계화되지도 않았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포르말린, 자일렌 등의 위험성을 잘 몰라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근무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조직 자르다가 손도 예리한 칼날에 베여보고, 유해화학물질 흡입으로 고생도 해

보고.... 지금 돌이켜 보면 이러한 경험들이 병리과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근로자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개선되었고, 2021년 창원한마음병원 설계에서 근무자 환경을 가장 중점적으로 고심하여, 현재는 최고의 배기 시설 시스템을 갖춘 병리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리과 인증평가 심사위원들도 쾌적한 환경에 감탄하고 가십니다. 신축병원 이전으로 전체적으로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고, 우수한 인력 보충, 암 환자의 중증도도 늘어나면서 병리과의 역할과 중요도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난 30년간 창원한마음병원의 가파른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진료분야 개척과 2030년 새로운 3,000병상 건립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병원으로 성장하여 창원의 중심 의료기관으로 함께 해주길 응원하겠습니다.

19
찬란하게 빛나는 한마음병원에서

진단검사의학팀 최주영

저는 한마음병원이 좋았습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좋았습니다. 고3 때 상남동에 있는 독서실을 다녔었는데, 공부하기 싫거나 답답할 때면 자연스럽게 한마음병원 옆에 있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아이스크림도 하나 먹고, 멍하게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원이 한마음병원 공원인 줄 알아서 이렇게 큰 공원까지 있는 병원에서 일하는 것이 멋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2006년 12월의 추운 겨울, 임상병리사 국가고시를 치른 뒤에, 합격 발표도 아직 나지 않았는데 한마음병원에서 일하고 싶어서 트레이닝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무작정 임상병리과(현 진단검사의학팀)를 찾아갔습니다. 점심은 공짜로 준다는 것에 기뻐하며 매일 직원 식당에서 고봉밥을 먹고 몇 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하던 도중에 충원이라는 운명 같은 기회가 생겨서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용기와 결단으로 현재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를 회상하며 한없이 열정을 가지고 일했던 나를 떠올리게 되었고, 수기를 작성하며 초심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병원이 코로나 사태로 힘들었던 2019년. 매월 1일 아침마다 하는 직원 조례 때 있었던 일입니다. “비가 오면, 맞으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충식 의장님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져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당시 신축병원 이전 개원이라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었는데, 한창 잘 운영되고 있는 병원을 코호트 격리로 2주 동안 폐쇄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그 큰일을 ‘비’라고 표현하셨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니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을 가진 그 말을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게 담담한 말투로 이야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으셨을까. 우산을 써서 비를 피하거나, 누군가의 처마 밑에서 비가 지나가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지 않고 축축하고 불편하지만 감내하고 달려 나가겠다는 결심. 수많은 조례에 참석했지만, 마음은 아픈데 열심히 해 보고 싶은 투지로 가득 찬 건 처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한마음! 우리만이 할 수 있다!”
이 가슴 뜨거워지는 말을 또 한 번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한마음으로 열심히 달려온 결과, 우리는 다시 한번 도약했고 그 누구보다도 코로나 사태에 잘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선별진료소에 환자가 몇천 명이 갑자기 몰려와도, 확진자가 다녀가도 동요하지 않고 지자체에 협조도 잘하면서 묵묵히 해결해 나가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보호복을 입고 동분서주하며, 드넓은 병원 부지 한 바퀴 넘게 줄을 선 환자들을 컨트롤하며 접수하던 직원들의 땀방울.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것이며, 늑대 정신으로 똘똘 뭉쳐 한 번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내가 걷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5년 후, 아니 1년 후에도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을까? 과거든 현재든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해 보지 않은 직장인이 있을까?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수없이 부딪히는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또 다른 힘든 상황을 맞이하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생활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 일이 나와는 맞지 않아서 힘든 거야, 다른 사람들은 잘 이겨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러는 걸까? 난 이렇게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병원 입사 후 이제 17년 차, 후배들이 늘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이 병원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볼 때마다 이런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업무를 하고 또 새로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하다 보니 이렇게 연차가 쌓인 거라고. 힘들 때는 동료들과 술 한잔 기울이며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새로운 일도 시작해 보고, 실수도 하다 보니 지금의 내가 된 것이고 실수를 할 것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성장을 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이렇게 말하면 ‘꼰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음 따뜻하고 개념 있는 꼰대가 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가 그 일의 전환점이 되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더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해내겠다고 다짐하면 그것이 제2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입 시절 혼자 야간 당직 근무 중에 응급수혈 처방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 야간 당직 근무하던 때, 환자가 응급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응급 수술을 위해선 혈액원에 급히 혈액 신청하고, 수술실과 시설팀에 계속 통화하고, 수혈검사도 진행해야 했습니다. 저는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했고, “그냥 근처에 사는 선임에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할까?”하고 잠깐 고민했었지만, 그럴 시간조차 제겐 허용되지 않았었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고, 해내야만 하는 일이었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급한 일 먼저 순차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내 안에 숨어있었던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었던 날이었습니다. 응급 환자의 수술 및 수혈이 무사히 끝났고, 출혈도 막았다는 수술실 전화 한 통에 긴장이 풀린 것인지 다리가 후들거려서 주저앉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순간에 힘들고 해보지 않았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에게 미뤄버렸었다면 내가 한층 더 성장할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현재 제가 하는 업무인 폐기능검사는 환자 접점 부서로, 환자와 직접 만나 부딪히고 실랑이도 벌이는 늘 시끄러운 검사실입니다. 입사한 후부터 쭉 진단검사의학팀에서 일하다가, 환자 접점 부서인 폐기능검사실 세팅과 담당을 맡게 되었을 때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해야 하는 곳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가 아니라 새로운 업무였고, 저에게 인계해 주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임상병리사 보수교육 영상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며 배우고 호흡기내과 교수님을 찾아가 자료를 요청했으며, 인터넷, 교과서 등 모든 자료를 동원해서 공부했습니다. 폐기능검사는 옆 부서 직원들, 가족, 친구 등을 다 동원해서 밤, 낮, 휴일 할 것 없이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장비 세팅 후 환자 검사하기까지의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힘들기는커녕 열심히 하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제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제가 색을 입히는 대로 물들어갈 생각을 하니 책임감도 많이 느끼며 뿌듯하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하는 ‘스페셜리스트’라고 생각하니 자랑스러웠습니다. 늘 하던 일이었고, 매너리즘에 빠져있었던 상황이라면 그렇게 열심히 방을 꾸려나가기 힘들었을 것이고 새로운 일을 한다는 설렘, 도전정신도 잊은 채 단순히 “업무가 늘어난다”라고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채혈, 검체 검사만 전문으로 하던 중에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된 것은 기회였고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한마음병원에 무작정 찾아올 수 있었던 열정과 용기가 가득했던 18년 전의 저를 칭찬하며, 이제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일할 수 있었는지 물어보는 후배들에게 당당히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토록 찬란하게 빛나는 곳에서 어떻게 일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한없이 높이 올라가는 우리병원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한마음병원 30년의 역사가 기록되는 ‘30년사’라는 의미 있는 일에 내가 참여해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한마음병원의 역사는 ‘사람’이다 라는 하창훈 의료원장님의 격려에 용기를 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저 자신을 돌아보며, 제 인생의 절반 정도를 함께한 한마음병원의 더 큰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 준 이 책에 감사하며 글을 마칩니다. 좋은 건 한 번 더!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한마음! 우리만이 할 수 있다!!”

20
한마음인(人)으로 살기

보험심사팀 **문영경**

한마음병원 30주년 뜻깊은 자리에 한마음 인(人)으로 함께 해서 우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96년 5월 17일 입사하여 개인적으로도 올해 28주년을 맞이하였고, 한마음인(人)으로서 큰 자부심과 긍지, 행복감을 느낍니다. 저의 20대. 저의 풋풋한 신입 시절 한마음병원이 첫 직장이었습니다. 여기서 28주년 맞기까지 항상 한마음으로 웃고 울고를 같이한 한마음병원은 동료이자 가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입사 10년 차 한 직장만 있다 보니 연례행사처럼 제 마음과 육체도 고비가 오기도 합니다. 동료 입사자가 이직한다거나, 같은 동년배들이 모두 떠나고 혼자 남아 있을 때 우울감과 상실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고비 때마다 하충식 의장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내가 지칠 때 또 내 동료가 힘들 때 사랑과 봉사로 보듬어 주고, 내 상황이 좋지 않아 잠시 쉬었다 와도 내 가족같이 친정 오빠와 같이 다 받아준다” 이런 열린 마음은 사람과의 인연이 중요하며 이 또한 한마음인(人)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핵심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는 제가 한마음인(人)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입사 20년 차, 저의 30대. 진짜 가족이 생겼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한마음이라는 이름의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조리원에서 같은 또래 사회 친구도 만났으며, 아이의 친구도 한마음으로 길게 이어져 오고 있는 인연입니다. 이 또한 제가 한마음인(人)으로 살아가는 유용한 핵심 덕목입니다. 미흡하나마 한 친구에게는 의료정보를 전달해 줬고, 또 타 병원 진료과 분석을 해주었는데 그 친구가 아주 유용하게 도움이 되었다고 했으며 미디어보다 낫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친구에게는 한마음병원 외과를 소개해 주었는데 의료의 질과 접근성 면에서 좋았다고 감사의 인사를 들었습니다. 이럴 때 저는 한마음인(人)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친구들이 학생 검진을 한다든지, 또 그 아이의 친구에게 친구들이 연결되어 진료를 받을 일이 있어 증상에 맞춰 진료과를 선택 소개해 줬을 때, 도미노처럼 또 연결고리가 생겨 그 부모의 지인분 건강검진까지 연결되었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한마음인(人)으로서 또 한 번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저의 한마음인(人)으로 살기를 돌이켜 봤을 때 멋모르는 20대에서부터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키우는 30대, 그리고 무엇보다 치열하게 눈 깜짝할 사이 40세 불혹의 나이를 거쳤습니다. 저의 40대는 개인적 면이나, 정치·경제·사회·의료환경적 모든 면에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일 처리 면에서 원리 원칙만 내세우는 건 아닌지, 한 고집만 피우고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나? 나는 꼰대인가? 나 자신에게 반문하며 곧 다가올 입사 29주년 50세, 50대의 반열에 서며 나 또한 진정한 한마음인(人)으로 30주년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한마음병원 30주년 불변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회봉사 활동이며, 지역민과 더불어 성장해 가며 더불어 사는 마음, 나누는 마음, 기부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사랑과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늘 곁에서 봐온 가족처럼 기댈 수 있는 큰 버팀목입니다. 저 또한 한마음인(人)으로 이를 본받아 소액이나마 입사하고 계속 국내, 국외 기부를 하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봉사는 뭘까? 늘 고민합니다. 저는 출퇴근길에 라디오를 즐겨듣는데 거기 편지 사연을 들으면 이 세상엔 부유한 사람도 있지만 정말 정말 가난한 이웃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중에 기부하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이 결단코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매일 한마음인(人)으로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사랑을 줄 수 있는 공간 있어 참 다행이라고 다짐합니다. 이 원칙과 더불어 변하지 않는 봉사 의료실천으로 우리의 한마음 인(人)으로서의 삶도 브랜드화되어 길이길이 기억되길 바랍니다. 한마음의 역사가 40주년, 50주년, 100주년 우리 자녀들 대대손손 번창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21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던 나

간호교육파트 **송연희**

간호대학을 선택하는 것과 병원을 선택하는 것 모두 저의 의지가 아닌 오로지 부모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한마음병원의 첫 만남이 1999년도에 시작되었고, 지금은 25년째 이곳에 몸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달리 비위가 약하고 피만 보면 질겁하며 병원 소독 냄새조차 맡지 못하는 자그마한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이문마을 송씨 둘째 딸이 간호대학에 붙었다고 했을 때, 그 사실을 아는 동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엄마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저를 격려해 주셨고 힘든 시절을 버텨온 저는 지금 간호부 교육 수간호사라는 책임 있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졸업하고 신규간호사가 되었을 때, 여전히 눈치 없고 융통성 없는 일머리로 선배 간호사들은 저와 일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답답해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을 늦게 배우는 것을 알았기에, 밤마다 베개에 주사를 찌르는 연습을 하며 새벽 4시에 출근하고, 나이트 근무도 8시 전에 출근해 밤새도록 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너무 바빠서 제가 한 사람의 몫을 해내기까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와 맞지 않았던 간호사의 길을 헤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여기에서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어오신 간호부원장님, 팀장님, 그리고 수간호사들 덕분입니다. 그분들은 가족처럼 슬픈 일은 나누고 기쁜 일은 누구보다 같이 기뻐해 주는 또 하나의 직장,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던 저는 한마음병원에 입사하여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최고의 병원이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최적의 실행 시기는 언제나 지금이다”, “항상 무엇이 되든지 준비해야 한다” 한없이 준비가 부족했던 저는 오늘도 “최고의 의술로 인류를 행복하게”라는 미션을 가진 한마음병원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2
삶의 한 조각 ‘한마음병원’

교육수련팀 **김호태**

한마음과의 만남

2012년 2월 자녀의 진료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고민하던 중,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한마음이 최고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한마음과의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보건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다른 병원 원무과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터라, 굳이 마산회원구의 생활권을 벗어나 창원까지 병원을 찾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었습니다. 진료를 위해 한마음에 발걸음을 디딘 순간 문득 ‘나도 다음에 여기에서 함께 직장생활을 하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한마음 원무팀에서 직원을 채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도전하여 지금까지 약 12년 4개월 동안 유익함으로 한마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침청소, 그리고 병원을 찾아주시는 지역민에 대한 감사의 마음가짐

“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청아하게 울리는 힘찬 인사의 목소리! 너, 나 할 것 없이 아침을 먼저 깨우고 주변을 청소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한마음 가족들이었습니다. 상남동이라는 위치적 특성으로 병원 옆 번화가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마치 어제가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도 된 듯이 어수선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거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찌나 그리도 많은 양의 쓰레기가 있는지...그리도 또 어찌나 그리 한결같이 지금의 의장님을 비롯한 한마음가족들이 아침마다 그 땀과 수고를 기꺼이 감내하는지... 아마 누가 시키는 마음으로 청소를 했다면 그 오랜 세월 동안 매일 아침 상남동을 깨우면서 그렇게 청소하지는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마음의 문화이자 한마음만이 품은 설립자와 함께하는 가족들의 마음이라 여겨집니다.

원무팀에서 기획팀으로 부서 배치전환

2012년 3월 원무팀으로 입사하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0년 6월 새로운 부서인 기획팀으로 배치전환을 받았습니다. 기획팀.... 학교를 졸업하고 줄 곳 원무팀에서만 생활하다가 기획팀이라는 새로운 부서로 배치전환을 받고 보니 말 그대로 난감했었습니다. 한마음에 유익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게 될지 등등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렘과 동시에 많은 걱정을 안고 새로운 환경에 조금씩 적응하며 맡은 일들을 수행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후, 지금의 경영원장님이신 김영훈 경영원장님의 많은 격려와 지도로 기획팀에서의 본질적 역할과 분석 기법을 통한 진단 등 기획팀으로서의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시점에 함께 할 수 있었고, 더욱이 원가분석의 기초 틀을 만드는 일에도 동참하게 되어 저에겐 큰 유익함과 새로운 시각을 갖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COVID-19)와 한마음

2020년 2월 한마음이 코호트 격리 조치되었습니다. 코호트 격리 조치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전면 봉쇄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서는 코로나19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었고 더욱이 코호트 격리라는 조치는 누구라도 피하고 싶고, 감내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의장님과 이사장님은 지역민과 병원을 찾아주시는 환자분의 안전을 위해 기꺼이 감내하는 어려운 결정을 하셨고, 이후 그로 인해 많은 경영적,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하는 힘겨운 시간도 따라왔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떠올려보면, 한마음 가족분 모두가 자신의 안일함보다 다른 직원의 안타까움에 먼저 솔선수범하여 코호트 격리에 자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한마음은 다르구나'하는 생각을 새삼 가졌습니다. 이후 조금의 시간이 지난 후의 일이지만, 당시 직원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힘듦을 먼저 자처하고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고자 일부 월급 반납했던 일이 있었는데, 지금의 의장님과 이사장님께서 이 일이 마음에 내내 걸리셔서 반납했던 금전적 부분을 보전함은 물론, 함께한 직원 가족에게 여러 차례 감사의 마음을 또다시 전한 일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두둥! 상남동(원이대로)에서 사림동(용동로) 이전

지금의 창원한마음병원이 자리 잡은 사림동(용동로)으로 세워지기 위해 한마음가족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지어져 갈 때마다 각 부서에서 직접 현장을 돌아보고 챙겨야 할 곳은 없는지, 환자분과 직원가족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한 곳은 없는지 수시로 방문하고 돌아보아 완성되었습니다.

건물이 완성되고 환자분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동하는 날, 그날에도 한마음 가족 모두는 한마음이 되어 각자의 선 자리에서 맡은 소임과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였던 일을 기억합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그렇게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기에 아무런 사고나 어려움 없이 지금의 창원한마음병원으로 이전하여 안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창원한마음병원 장애인 오케스트라

"우리 애들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이소" 일면식도 없는 희망이룸 정지선 대표라는 분이 당시 창원한마음병원 하충식 이사장님을 찾아와서 건넨 말입니다. 장애예술가를 육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성인 이후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많아 막막했던 터에 무작정 하충식 이사장님을 찾아와 면담이 이루어지고 장애 예술가들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예술직'이라는 직군을 병원에 새로 신설하면서까지 그 일에 물심양면으로 마음을 담아 진행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론적으로 생각에 머무는 일자리가 아닌 현실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일자리를 넘어 '멋진 일자리', '대단한 일자리'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한마음이 함께하고 만들어간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의 교육수련팀 부서 배치

2023년 2월 새로운 부서인 교육수련팀으로 배지 전환되어 인턴, 레지던트 수련병원의 역할과 관련된 전반적 업무 및 IRB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여러 교수님의 도움으로 현재까지 업무에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소통하고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고 최고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앞으로도 크게 크게 뻗어나갈 한마음의료원을 응원하며 기대합니다. 한마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함에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23
입사 25년, 신규간호사 시절과 2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

외래간호팀 **정명옥**

입사 25년 차로 접어들었고 우리 병원과 함께 해왔던 여러 기억을 생각해 봤을 때 기억은 희미하지만, 신규간호사로 모든 것이 아주 서툴던 시절 처음 경험했던 난동 환자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산부인과, 외과 병동 근무할 때였는데 외과 환자가 무단 외출로 자리를 비워서 귀원하시도록 전화했었는데 전화상으로 폭언을 퍼붓고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던 환자분이었습니다. 수간호사 선생님도 없는 저녁 시간에 간호사 2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귀원한 환자는 간호사실 앞에서 욕설하면서 폭력을 휘두를 것처럼 위협하였습니다. 다행히 원무팀에서 올라와서 처리되었지만, 처음으로 그런 폭력 환자를 경험했던 저는 겁에 질려 심장이 엄청 뛰고 겁이 났지만 다른 환자, 보호자분들이 다 보고 있어서 눈물을 꾹 참고 신규간호사가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안간힘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눈물을 꾹 참고 저녁 주사 처치 시간에 맞춰 산부인과 2인실 병실에 들어갔는데, 그 상황을 지켜보셨던 산모분의 보호자분께서 제 손에 영화표 2장을 쥐여주시면서 "아까 너무 놀랐죠, 진짜 이상한 사람 많아요. 친구랑 같이 영화 한 편 보면서 기분 푸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마음이 잊히지 않고 한 번씩 신규 시절을 생각했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나는 분 중의 한 명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배려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그 시절 사회초년생이었던 나에게 느끼게 해준 기억에 남는 분입니다.

그리고 최근 4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마쳐서 그런지 2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준비하던 때가 떠오릅니다. 미혼일 때 입사해서 3교대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현재 두 아들도 키우고 있는 워킹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기에 둘째 아들을 만삭에 가깝게 임신하고 있었고, 평가가 끝나자마자 바로 일주일 뒤에 분만휴가를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외과 병동 수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둘째 태명도 없이 인증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동료들이 인증 준비한다고 공부를 많이 해서 "태어날 애는 똑똑할 거다. 따로 태교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인증 준비를 진짜 열심히 준비했고, 준비하고 공부한 만큼 똑똑한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준비 과정들이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힘들었던 기억은 없고, 재밌었던 기억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 태명도 다른 부서 직원이 태명을 '인증이' 하면 딱 좋겠다고 해서 둘째는 세상에 나올 때까지 '인증이'로 불렸습니다. 지금도 가끔 뱃속에 있던, 그나마 속 안 썩이던 시절 얘기를 해줄 때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여러 번의 인증평가 중 나의 만삭 상황은 2주기 인증 평가 시 빛을 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현장 라운딩도 있었지만, 관련 부서 직원을 인증 위원의 사무실로 불러 인터뷰를 많이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간호부 여러 선배님이 "만삭인 직원이 인터뷰하러 오면 아무래도 인증 위원들도 사람인지라 안쓰러워서라도 점수를 잘 줄 것이다. 독하게 못 할 것이다"라며 저를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지금도 웃으면서 얘기하는 에피소드 중의 하나고 즐거웠던 기억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런 추억들을 거쳐 우리 병원과 함께해왔고, 성장과 도약을 거듭하면서 그 역사에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는 직원들이 많아져서 모르는 직원들도 많긴 하지만 우리 직원 모두 직장 생활에서의 소소한 기쁨도 챙기고 우리 병원이 성장해 나감에 있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한마음병원 직원이라는 자부심과 앞으로의 성장에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24
내 삶의 일부 한마음병원

특수간호팀(외과계집중치료실) **김은정**

2006년 2월 23살 한마음병원에 입사하였습니다. 돌아보면 어떠한 목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임했는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딸로서, 배우자로서, 엄마로서는 그때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간호사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보다 더는 열심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항상 밝은 사람이라 걱정 없이 평생을 살아오다 인생 최대 난간과 고민에 휩싸였던 적이 기억납니다. 2012년 아이를

출산하고 3개월가량 된 아이를 두고 업무에 복귀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나이트 출근 전 채비를 하고 종착지인 한마음병원을 지나 시청 3바퀴를 차로 돌면서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건가?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3개월 된 아이를 두고 이 일을 하는 거지?' 하며 눈물을 훔치며 고민하며 출근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매 순간순간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있었지만 일이 좋아서인지, 함께하는 사람이 좋아서인지, 돈 때문인지 어찌하다 보니 또 이렇게 세월이 지나 19년째 한마음병원에 몸담게 된 것 같습니다. 책임간호사를 지나 수간호사 그리고 그 먼 임상의 길을 지나 또 저는 적정관리팀이라는 새로운 부서에 왔습니다. 단지 임상이 아닌 다른 업무를 배우고 싶어서 왔지만, 적정관리팀이라는 부서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고 싶고 도전하고 싶어 했던 저의 인생은 '어쩌면 이 직장이 저를 성장하게 만들어 준 것이 아닐까? 여전히 한마음병원이 300병상에 머물렀다면, 나도 과연 대학원 공부를 하고 여러 다른 방면으로 성장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아닐 때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깨달아보고, 예민해지고 까칠하고 독해져야만 이 간호사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도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상한 것인지, 세상이 이상해진 것인지, 제 자신이 사람들을 이해하기 싫은 것인지, 세상이 저를 이해 못 하는 건지, 익숙해져야 하는 간호사 생활이 더 가면 갈수록 힘들게 느껴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직장을 통해 저는 어른이 되었고 인생을 조금이나마 배웠습니다. 특히, 중간관리자가 되고서는 타인에 대한 진심 어린 공감과 비중 없고, 무게감 없고, 상대방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되도록 입을 열지 않는 방법. 후배로서, 동료로서, 선배로서 적정선을 지키면서 정신 차리고 내 삶을 똑바로 살아가는 법 등을 직장을 통해 몸소 느끼고 받아들였습니다. 돌아보면 저에게 19년의 한마음병원은 지독하게 설렜고, 지독하게 즐거웠고, 지독하게 따뜻했습니다. 나의 20대.... 그리고 30대.... 앞으로 다가올 나의 40대. 온전히 제 삶의 일부였던 직장. 한마음병원을 위해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파이팅.

25
한마음과의 20년 추억

외래간호팀 **강미옥**

출근할 때마다 창원한마음병원의 새로 단장한 입구를 지나며, 지난 20년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병원의 성장과 변화를 지켜보며,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갑니다. 처음 이곳에 발을 디딘 날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과의 만남과 이별이 있었습니다. 한마음병원에서의 세월은 제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경험들은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병원에 들어왔을 때, 분만실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상남동의 작은 병원에서 시작하여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건강을 선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기였습니다. 분만실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첫 울음소리는 언제 들어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특히 첫 아이를 낳는 산모의 불안과 기쁨이 뒤섞인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며 서성이는 아버지의 긴장된 모습, 그리고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안도의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들이 제가 이 일을 사랑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순간순간 우리는 모든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했고, 그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마음병원은 꾸준히 성장하여 2021년 3월 창원중앙역 부근으로 이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원한마음병원은 더 넓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어, 우리는 더 많은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병원 내부를 돌아보며,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 뿌듯함과 새롭게 마련된 시설에서 환자들이 더 편안하게 치료받는 모습을 보며, 우리 병원의 미래가 더욱 밝게 빛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창원한마음병원이 3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병원의 성장과 발전을 지켜보며, 이곳에서 일한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동료들,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과의 만남은 제 인생의 큰 자산입니다. 2030년 3,000병상을 목표로 최고의 의술로 인류를 행복하게, 창원한마음병원의 미래가 더욱 밝게 빛나기를 바라며, 지금보다 더 따뜻한 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애정을 듬뿍 담아 창원한마음병원의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6
한마음병원과의 25년

원무팀 **정지윤**

한마음병원의 30주년을 맞이하여, 제가 병원과 함께한 25년의 세월을 돌아보며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봉곡동에서 시작하여 상남동으로 이전하고, 다시 창원 중앙역 인근으로 이전할 때, 황량한 주변을 보며 과연 이곳이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우라는 것을 알게 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본기가 튼튼한 조직에 하충식 의장님, 최경화 이사장님과 직원들의 소통, 공감, 끈끈한 유대관계가 잘 어우러져 지금의 한마음병원이 탄생한 것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환자 중심으로 최고의 의술로 인류를 행복하게 하겠다는 슬로건답게, 한마음병원은 명실상부한 경남 도내 최고의 병원이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한마음병원은 도심 속의 핫한 장소로 우뚝 섰으며, 창원시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환자 중심의 한마음병원 덕분에 어디를 가더라도 제가 병원 직원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25년을 함께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 번의 병원 증축 과정에서 저 역시 가정을 이루었고, 세 번의 이사를 통해 평수를 늘려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지금의 시대에 25년이라는 근속은 직원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절로 애사심이 생기게 만드는 증거입니다. 제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엄마의 성실함과 근면함이 거울이 될 수 있음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병원 내에서 제 의지로든 타의 의지로든 몇 번의 부서 이동을 하면서 처음 해보는 업무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보직을 거치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숙련도가 쌓여, 오히려 저만의 커리어가 되었습니다. 현재 고객 응대에 있어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던 환자들이 완치되어 밝은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 길에서 마주쳤을 때 반갑게 인사해 주고 안부를 물어봐 주시는 환자와 보호자분들의 감사한 마음을 느낄 때마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 근무하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도 한마음병원에서 얼마나 더 근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병원의 핵심 가치인 행복, 봉사, 사랑, 노력에 맞추어 제가 병원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어떻게 환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저 자신을 개발하여 병원의 슬로건에 부합하는 그런 직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27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한마음 생활

병동간호팀(91병동) **강민선**

2006년 1월 겨울 갓 간호사 면허시험을 치른 뒤 아무것도 모르는 채 신규 간호사로 한마음병원의 문을 열고 첫발을 내딛던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만의 특유의 냄새와 여기저기 울리는 크고 작은 기계 알림 소리가 나의 심장을 뛰게 하였습니다. 그 알림 소리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간호사들의 모습까지도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첫 근무지 배정 전 OT를 받았던 곳은 수술실이었습니다. TV에서나 보던 새로운 장비들과 환경들, 그리고 인체 내 장기의 모습은 계속 봐도 적응되지 않았습니다. 수술방에서 한 달 남짓 근무 후 입·퇴원으로 바쁜 산·소아청소년과 병동으로 배정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익숙하지 않은 간호 업무를 해내는 것과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적응해 나간

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같았지만, 칭찬과 꾸지람을 받으며 성장하며 어느덧 19년 차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병원의 증축과 이전 그리고 상남한마음병원 개원까지 함께했으며 병원이 성장하면서 저도 발전하고 성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병원이 성장하는 19년 동안 나는 결혼하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어느덧 관리자 3년 차가 되었습니다. 나의 후배들이 부족하지 않게 가르쳐 주어 감사하다는 말과 곁에 있어서 힘이 되었다는 메모를 건네주었을 때 '힘이 되어 주는 든든한 선배가 되자'라고 다짐했고, 아이들이 '엄마가 다니는 병원이 좋고 엄마가 간호사라서 행복해'라고 할 때는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자'라고 다짐했습니다.

끊임없이 발전하고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며 직원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병원,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이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19년 동안의 시간은 저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간호하며 의료인으로 성장할 발판을 만들어 주었고 삶의 의미와 경험을 주었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매일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뜨거운 가슴이 있는 한마음 人일 수 있는 것이 행복하고 자랑스럽습니다.

28
한마음병원에서의 소중한 인연들

병동간호팀(72병동) **감현아**

창원한마음병원에 몸담은 지 햇수로 18년째입니다. 강산이 변하는 세월 동안 한마음병원이 커지면서 저도 같이 많이 성장해 왔습니다. 상남 병원 시절엔 복층의 환자들을 간호하였고, 지금은 한 층에서 72명의 환자를 간호하는 50여 명의 직원을 이끄는 수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전문대 졸업 후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였고, 저의 도전은 항상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실패하여도 다음 성공의 자극제가 된 거 같은 모습이 한마음병원이 성장한 모습과 많이 닮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병원 성장이 저의 성장의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18여 년 동안 많은 부류의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말썽부리는 환자들도 있었지만, 환자들과 정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간호사로 거듭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례로 처음 수간호사로 승진하고 일이 너무 힘들어 책임간호사일 때 간호했던 환자를 찾아가 저의 힘듦을 위로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치료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환자가 입원할 시기가 되었음에도 입원을 하지 않아 환자에게 연락하여 안부를 물은 적도 있습니다. 수술하면서 시작되었던 인연이 항암치료를 10여 년 동안 받았던 환자가 병원 침상에 누워 다른 세상으로 가는 모습을 볼 때는 가슴으로 울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동료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내향적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과 두루 어울리는 성격은 되지 못하지만 한번 맺은 인연을 오랫동안 유지하여 직장 선, 후배로 만나 집안 사람들과 함께 삶에 활력을 주는 인연들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병원에서의 인연들이 제 마음에 커다란 달이 되어 내 마음 구석구석을 비추며 나를 한시도 어두울 새가 없게 만듭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듯이 많은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행복감을 주는 중간관리자가 되어 한마음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예정입니다.

29
나와 함께 성장하는 직장

진단검사의학팀 **강민아**

2008년 4월 14일 첫 출근 날 제가 앉아 있던 버스 뒷자리 타이어가 펑 하고 터졌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하차하는 정류장에 내리기 직전 회전 교차로에서 터지는 바람에 무사히(?) 첫 출근! 나의 앞날을 예상이나 한 그런 첫 출근이었나? 아님 액땜인가? 하는 마음으로 첫날을 시작 한 거 같습니다.

정말 1년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할 일은 끝도 없이 많고 적응하기도 힘들고 그냥 견디고 견뎠습니다. 다음 해 옆에 새 건물이 지어지고 이사하고 더욱더 바빠지고 연차도 못 쓰고.... 당직 서고 집에서 잠만 자기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며 평생 이렇게 사는 건가? 하는 마음이 들 때 어느해 부턴가 월례회의 때마다 하충식 의장님께선 사림동에 땅을 사서 병원을 지을 거란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다들 흘려들으시는 거 같았고 저도 마찬가지로 흘려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남 병원 뒤쪽 주차장을 사신다고 했다가 앞에 공원을 사신다고 했다가.... 아무튼 그러고 몇 년이 지나 정말 땅을 사셨네? 속으로는 인제 땅 사서 언제? 나 은퇴하면? 이런 생각이 들 때쯤 또 몇 년이 더 지나고 삽을 드셨네?? 그렇게 나는 조금씩 점차 한마음병원에 스며들었고 우리가 일주일 만에 이사를 하는 날이 왔습니다.

이사를 하고 새 병원으로 출근 하는 첫날, 그때부터인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기서 일만하고 월급만 받아 가던 일반 직원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눈에 보이는 성장을 보여주는 이 병원의 한 사람으로서 꿈일지언정 세계를 향해 새로운 도전을 함께하는 직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살짝 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저는 제가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큰 병원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일까? 직원이 늘어 깊게 공부하고 운영에 관심을 가질 시간이 늘어서일까? 확실히 달라진 건 많았고 일에 치여 팍팍했던 지난날과 달리 후배들을 양성하고 돌볼 줄 아는 여유까지 생겨 제가 조금은 더 성숙한 사람이 된 거 같다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무렵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같이 10년을 넘게 고생해 온 그냥 월급만 받아 가던 다른 직원(퇴사를 입에 달고 사는 직원)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밖에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회사 뒷담화나 하려나 했는데 웬걸 십 년을 넘게 부족하고 힘들게 일해왔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큰 병원을 지어 성장을 눈에 보이게 확인시켜 줘서 병원 욕을 이제는 못 하겠다는 솔직한 말에 나도 수긍하고 옆에 있던 다른 직원도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엔 전국에서 몰려드는 환자들로 병원이 더욱더 커지면서 좋은 스펙의 신규직원 및 능력 있는 직원들이 스카웃 되어 오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그냥 그런 스펙도 없이 병원 잘 만나 15년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파트장이라는 직책을 달고 있는, 그냥 그런 직원이 되기 싫어 뭐든 하려고 저의 성장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물론 병원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경영 및 직무 교육의 경제적 시간적 투자가 병원에서 이루어지겠지만 '병원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다면 제가 이런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점점 없어져 가는 요즘 시대에 나와 함께 성장해 가는 직장이라면 평생직장이라는 말은 아직 저에겐 유용한 거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성장해 나가는 나와 병원이 되기를 바라며, 창원한마음병원의 30주년에 아낌없이 축하를 보냅니다.

30
한마음병원 30주년을 기념하며

병동간호팀(71병동) **옥영미**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인 한마음병원에 입사한 지 벌써 19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졸업했을 때 미숙하고 사회 물정 모르는 신규간호사였던 제가 벌써 수간호사로 승진하여 병동을 책임지고 일을 하고 있네요. 처음 취업 했을 때는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고 모든 게 미숙하고 환자를 대하는 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처음 접했는데 환자들을 대하다 보니 예민한 분들도 많으셨고 제가 입사한 시절에는 요양병원도 많지 않을 때라 우리 병원에 마지막을 보내기 위해 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내과 병동에 첫 입사 후 처음으로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젊은 40대의 3명의 아이를 가진 어머니였습니다. 남겨진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저도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환자를 대하는 게 이런 거구나'하며 삶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후 점점 환자들을 대하는 데 익숙해지고 일이 숙달되면서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일할 때 종이 차트를 쓰다가 어느 순간 컴퓨터 EMR로 전산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지금의 하미스 전산으로 일을 하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고 첫 인증을 시작으로 이번에 4주기 인증까지 경험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병원이 확장하여 이사도 진행했었고 이후 지금의 병원을

지어 환자와 함께 진짜 이사라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어떻게 하나? 우리 계속 다닐 수 있는 건가를 고민하였지만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를 이겨내고 새 병원으로 옮겨 드라이브스루로 기록도 세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했으며 병원과 함께하는 생활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결혼도 하였고 아이도 생겨 우리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고 지금도 잘 크고 있지만 아플 때 오는 병원도 우리 병원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간호사야 병원에서 근무해'라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과 생활이 뿌듯하게 여겨졌고 힘들었지만 일을 이어나간 저의 모습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병원은 2030. 3,000병상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앞으로의 한마음병원의 나아감에 함께하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병원이 커져감을 확인했듯이 미래의 저의 모습은 모두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40, 50주년을 기대하며 이글을 마무리합니다.

31
한마음병원 시설안전팀에서의 22년

상남한마음병원 시설안전팀 **양수석**

2002년 어느 봄. 저는 처음으로 창원한마음병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나의 직업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이곳이 제 인생의 미래를 쌓아 올리는 터전이 되었습니다. 2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병원의 벽과 문이 되어 많은 경험과 기억을 쌓았습니다. 저는 항상 시설 민원처리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며,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이 냉난방이 잘 되는 좋은 시설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병원 내 다양한 기계와 장비들의 유지보수는 병원 운영의 핵심 부분 중 하나입니다. 기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관리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수리를 통해 환자들에게 항상 안전하고 신뢰할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창문 단열재를 부착하고 전 층에 LED 전등을 도입했으며, 시설관리를 위한 원가 절감을 위해 많은 자체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태풍 및 장마 기간에는 배수로 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며, 병원의 특수성 때문에 정전에 대비하여 시설팀 전원이 상시 대기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시간이 생명이라는 원칙을 명심하여 환자의 이송을 수행함과 동시에 혈액원의 운행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병원 내부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벽면 도색 작업을 관리하며, 환경을 더욱 쾌적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힘썼습니다.

이렇듯 병원에서의 일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환자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일했기에 환자들에게 깨끗한 한마음병원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었습니다.

개원 30주년을 맞아 많은 이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나눌 수 있었으며, 이는 모든 의장님 및 직원들의 노력과 열정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설팀의 원훈은 '초심을 잊지 말고 기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모든 일에 기본이 잘되어 있으면 어려운 일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현장에서 최고의 시설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신입사원 때처럼 초심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
젊음을 함께한 한마음병원

시설안전팀 **조민수**

창원한마음병원이 개원한 지도 어느새 30년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보람찬 나날이었습니다. 개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처음 입사 때까지만 해도 두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이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된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좋은 분들을 만나 많은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좋으신 분들이 많아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2004년 상남동 한마음병원에 입사하던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병원의 규모와 위상이 커졌습니다. 그 발전 과정에 저의 젊음을 투자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수요일마다 하충식 의장님과 병원 가족들과 족구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응급실 뒤에 동물치료체험장을 제작한 기억도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큰 병원의 시설관리가 힘들지 않냐고 사회 지인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하지만 그만큼 배울 것도 많고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병원이 더 커진 만큼 저의 사명감도 더욱 커져 가는 것을 느끼며 오늘도 선배 직원분을 모시고 후배 직원분들은 가르치는 자랑스러운 한마음인이 되겠습니다.

33
분만실에서의 25년과, 한마음 100주년 이상을 기대하며

분만실 **이동희**

저는 1999년 6월에 봉곡동 한마음병원에 입사하면서 창원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입사 당시 분만실은 5개 병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작은 병상 수지만 분만 건수는 100여 건 이상 되었으며 매일 산부인과와 소아 환자들로 병원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 이후 병원 주변으로 산부인과 전문병원이 점차 늘어나면서 2001년 하반기부터는 산모들이 새로운 시설인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이동하면서 본원의 분만 건수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상남동 한마음병원 신축공사는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서 2001년 12월 상남동 한마음병원으로 이사를 하였으며 그리고 10년 후 의장님과 최경화 이사장님의 각고의 노력으로 2021년 3월경 현재 병원으로 확장 재이전을 하여 2024년 올해 30주년이라는 오늘의 한마음병원 대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뜻깊은 한마음 30주년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어 참으로 영광입니다. 이렇게 병원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교직원들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병원의 경영자인 하충식 의장님과 최경화 이사장님의 뜨거운 열정과 끊임없이 병원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마음병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병원 의료의 질은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 단계이며 지리적 병원의 위치는 환자들이 찾아오기에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는 하나 외래 진료보다 입원 비율을 올림으로 접근성에 따른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병원 주변은 더 발전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 주변 환경도 더 좋아지고 경영진과 교직원들의 병원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과 열망이 언제나 함께하기에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병원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작금의 우리나라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그 현장의 중심인 분만실에 직접 근무하는 한 사람으로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분만율이 저하됨으로 인해 개인병원은 산전 진찰만 하고 실제 분만을 받지 않는 병원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고 하물며 3차 종합병원, 대학병원의 분만실도 이전보다 분만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병원은 산부인과로 유명해진 병원이기도 하지만, 의료진의 월등한 의술과 깨끗한 병원 환경으로 임산부의 내원이 많아져서 분만율도 부산, 울산,경남지역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범국가적으로 나라에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이러한 상황에 본원 경영진에서 타 병원더 앞장서서 출산한 직원에게 출산 격려금을 챙겨 주시 어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 최근에 저 출생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세계 부부의날 위원회 총재이신 하충식 의장님이 주관하여 7월3일을 '출산의 날'로 명명하고 그 첫 행사를 본원에서 시작하여 지면에 알림으로 인해 우리병원의 위상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간호대를 졸업하고 조산사 교육을 받고 첫 취업을 해서 분만실에 근무할 때의 설레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첫 직장에서의 분만은 주간에는 의사가, 야간에는 조산사

가 분만을 받았습니다. 그때 몇 년간의 다양한 조산 업무가 나에게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출산의 신비와 성스러움을 느끼고 그 출산 과정을 오롯이 산모와 배우자 등 그 가족과 함께함으로 보람과 기쁨도 두 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원 분만실 근무 중 지금까지 큰 사건이나 사고 없이 잘 운영되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큰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며 분만실의 운영 목표인 분만과 신생아, 산부인과 환자 치료에 관련된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 중심의 맞춤식 질 높은 간호와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한 모성사망과 주산기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시 한번 한마음병원의 30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 한마음병원의 100주년 이상의 멋진 발전을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34
행운의 1호 부부

구매관리팀 **이종민**

벌써 8년 전입니다. 지금의 아내와 처음 이 병원에서 만난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때도 적은 나이는 아니었기에 결혼에 대한 큰 욕심은 접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좋은 인연이 되어 자연스레 만나게 된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의장님과 닿은 인연으로 입사하게 된 이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목표를 삼고 직장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인연은 정해져 있다는 말이 맞는지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많이 마주하였지만, 수술실 간호사였던 그녀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매번 수술실에 물품을 갖다 줄 때마다 수술 가운을 입은 채 오랜 시간 수술에 초췌한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제일 예뻤습니다. 그리고 그녀 덕분에 제가 입사 2년 차인 초짜 시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러브스토리를 여기에 다 적을 순 없겠지만,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존재로 발전하여 결국 우리는 결혼에 골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남들은 다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결혼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병원이 풀만호텔을 인수한 상황이라 우리는 멋지고 웅장한 풀만호텔에서 좋은 혜택으로 식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1호 사내 부부'로 말입니다. 지금은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으로 상호가 바뀌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창원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 어디냐 물어보면 모두가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을 꼽습니다. 그만큼 시설이나 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월등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족처럼 도움을 주셨지만 그중에서도 최경화 이사장님께서 신경을 정말 많이 써주셨습니다. 호텔 인수 후 한마음병원 부부 1호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라 더더욱 의미가 있다며 생각보다 더 좋은 혜택을 선사해 주셔서 깜짝 놀랐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혜택만큼이나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찰나의 순간이 있습니다. 최경화 이사장님께 아내와 함께 청첩장을 드리러 갔을 때 우리들 손을 꼭 잡아주시며 정말 축하하고 잘 되었다며 이로써 정말 한마음 한 가족이 된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장인어르신께서 당시 풀만호텔 시설부장님이셨고, 최경화 이사장님께서도 항상 믿고 의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신기한 인연이라며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이 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이 담긴 축하 인사와 덕담을 아직까지 잊지 않고 가슴속에 잘 담아두고 되새기곤 합니다.

우리가 1호 부부로 스타트를 끊은 뒤 지금까지 많은 직원들이 예식 혜택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병원 혜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전국에서도 우리 병원처럼 직원들이 지역내 최고의 예식장에서 직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매년 결혼기념일마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혜택으로 호텔에서 근사한 식사를 합니다. 사실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편하게 직원 혜택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이 남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삽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호텔에 병원 기숙사가 있어 직원들이 최상급의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와서 좋은 동반자를 만나 지금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니 이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입니다. 글을 써 내려가다 보니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나서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역시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젊음을 귀하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늙어 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동전의 뒷면이 없으면 앞면이 앞면인 줄도 모른 채 살아야 하듯이 한 번씩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행복을 간과하고 투덜거리던 제 모습을 반성해야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 내게 주어진 일상, 주변 모든 환경과 조건, 상황들. 그 모든 것이 내게 왔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연일지 몰라도 우리에게 온 특별한 1호 부부라는 타이틀은 평생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35
마음을 담다

병동간호팀(52병동) **구경희**

2007년 3월 1일 첫 시작이라는 설렘과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잘 성장할 수 있을지 두려움과 걱정을 한가득 품에 안고 출근했던 신규간호사였던 저는 어느새 한 병동을 책임지고 있는 수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연차가 높은 선배에게 해맑게 물어보았던 질문이 생각납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높은 연차가 될 때까지 간호사 생활을 하실 수 있나요, 너무 대단하세요. 저는 정말 못할 것 같아요"라고 묻던 저의 말에 웃으시면서 "환자들과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돌아보니 어느새 이 연차까지 와 있더구나"라고 답해주셨는데 그때는 머나먼 이야기 같았던 그 대답이 지금 저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어 멋쩍게 웃음 짓곤 합니다.

이곳으로 이전해 오기 전 상남동에 자리 잡고 있던 시절에는 연말이면 한마음의 밤이라는 행사에 직원들과 가족들을 초대하여 식사와 공연 등을 진행하며 함께 즐거워하곤 했었습니다. 그 행사에서 항상 현재 이곳 사림동 한마음병원의 설계 도면과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언젠가 꼭 이루어 주시겠다던 의장님의 굳은 의지를 느끼곤 했었는데 꿈은 머지않아 현실로 실현되었고 꿈만 같았던 영상 속 설계 도면은 실제 저의 일터가 되었습니다. 이전 후 이렇게 크고 발전된 우리 한마음병원을 보며 이전 상남동 시절부터 병원을 찾아 주신 환자분들은 오래전부터 한마음병원 고객이었다며 늘 자랑스럽게들 말해주십니다.

현재 한마음병원의 급성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나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느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두렵고 무서울 만큼 빠르게 앞을 향해 질주해 나가지만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고 화제성이 있으며 두려움이 희열로 변하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해 한번 타본 사람은 다음번에도 그다음 번에도 반복해서 계속 찾게 되는 힘을 가진 롤러코스터의 모습이 마치 우리 한마음병원과 닮은 것만 같습니다.

지금 병동에서는 경기도, 경북, 전라도,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찾아오시는 여러 지역의 환자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원한마음병원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병원이 되었고 암을 진단하고 수술, 시술 및 항암, 방사선치료까지 연계하는 다학제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전에 비해 암 환자의 연령대가 낮아졌고 그에 비해 발생 빈도는 높아지면서 조기 발견과 치료는 필수적인 조건이 되었습니다.

암을 진단받은 사람들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심해에 갇히는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특히나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과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반복적으로 엄습해 오면서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환자들을 마주하면서 또 통증과 고통에 시달리는 아픈 환자들과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 간호사라는 직업은 너무 바쁘고 힘든 직업이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하고 사명감 있는 직업이라는 것을 후배 간호사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지 않는다면 결코 환자들에게 좋은 간호를 제공하기 힘드니 말입니다.

때로는 의료인으로서 담대한 말투로 환자들에게 질환을 받아들이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돕고 때로는 힘들어하거나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 가족들과 함께 마치 한 가족처럼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 할머니의 과거 속으로 돌아가 대화를 주고받고 손녀처럼 재롱을 부리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환자들에게 당연한 일은 없습니다. 의료인으로서는 당연시 생각되는 흔한 지식일지라도 병원이 처음이거나 또는 이 질환을 처음 진단받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는 궁금하고 낯설고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병이 진행되면서 마주하는 증상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의 처음 보는 모습임을,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임을 함께 공감하고 지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들은 사소하지만 큰 힘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치료를 마친 환자들의 밝은 퇴원 인사로 오히려 더 큰 에너지를 돌려받기도 했고 귀한 손 편지로 마음을 대신하여 감동을 전해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가족과 슬픈 이별을 하고 정작 본인이 제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병동에 찾아와 감사함을 전해주실 때면 그 뭉클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병원의 성장과 발전은 경영진과 관리자들의 범주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각자의 자리에서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고 소임을 다하는 것, 조금 더 나아가 병원의 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마음과 진심을 보태는 것. 그것이 제일 든든한 밑거름이자 성장의 열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병원은 그동안 많은 성장과 발전을 해오면서 이름처럼 늘 한마음 한뜻으로 큰 힘을 발휘하고 위기는 기회로 바꾸었으며 신기하리만큼 기적적인 성장들을 이루어 냈습니다. 앞으로도 롤러코스터처럼 더 빠르고 더 높이 올라갈 우리 창원한마음병원의 눈부신 내일을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36
함께 달려가는 한마음병원

특수간호팀(응급실) 김명옥

솔직히, 창원한마음병원 30년사 수기 요청을 받았을 때 정말 난감했습니다. 어떤 일들을 적을까,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저는 어떤 일을 겪었을까.... 창원한마음병원과 함께 한 지 정확히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료계의 변화는 빨랐고, 제가 겪은 일도 많았으며, 그중 좋은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2000년 3월 1일, 제가 입사한 날이자 하충식 의장님과의 첫 대면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우리 병원 상남동으로 이사 가는 거 알고 왔어?, 큰 병원으로 갈 거야~ 복 받은겨~”라며 반갑게 맞이해 주시던 의장님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직원들은 친절했고, 다른 병원들과 달리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는 분위기에 적응도 빨랐습니다.

그해 여름, 의약분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뭔지도 모르고 부딪혔는데,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병원이 파업에 동참해 힘들었지만, 의장님은 환자만 생각하자며 더 열심히 진도를 지휘하셨습니다. 그 당시 정말 열심히 일했었습니다. 그 또한 지나가리라며 타협과 조율로 문제는 해결되었고, 병원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2001년 12월, 상남동으로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나이트 근무를 하고 해가 밝아오면 항상 의장님이 퇴근 시간을 알려주셨습니다. 아침 6~7시만 되면 용지동에서 상남동까지 걸어서 오셔서 해가 밝았다고 하셨으니, 그때마다 항상 하시던 말씀이 “난 꼭 대학병원을 만들겠다. 큰 병원을 만들겠다.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 어깨 펴고 자랑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멋있었습니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직원들에게는 많은 것을 나눠주셨지만, 자신에게는 항상 아끼셨습니다. 그 시절 제가 본 의장님은 단벌 신사에 항상 같은 구두에 분홍색 넥타이를 착용하셨습니다. 그걸 알기에 그분과 함께 긴 시간을 보낸 직원들은 모든 것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종합병원이 되었고, 수련병원이 되었습니다. 응급실이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격상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의 질도 높아졌고, 그에 발맞추기 위해 저희도 함께 뛰어갔습니다.

2020년, 창원중앙역세권에 병원 확장을 위해 터를 닦고 준비하던 시기에 코로나19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저를 포함한 관리자 3명이 회의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 경남에서 그 어느 병원보다 먼저 선별 진료를 시작했던 우리 병원에 충격은 컸고, 그 파장도 컸습니다. 환자 91명과 의료진 100명이 병원에 갇혔습니다. 병원이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제 몸이 아파서 병원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느꼈던 감정은 원망, 억울, 걱정, 미안함, 안도감이었습니다. “왜 내가?” 마스크 알레르기로 얼굴에 진물이 나고, 손등이 갈라질 정도로 감염 관리를 했는데, “왜 내가? 하필이면 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있었던 분들은 괜찮을까? “한순간 내가 병원균이 되었구나”하는 원망과 억울함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환자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소식에 안도감과 자부심이 컸습니다.

전화위복이라고 병원의 성장은 멈추지 않았고, 예정대로 이전도 하였으며, 코로나로 위기를 겪었던 병원인 만큼 예방, 대처, 관리도 뛰어났습니다. 그 어느 병원보다 코로나의 빠른 진단과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이 되었고, 경남을 대표하는 권역을 준비하는 병원이 되었습니다.

예전 의장님이 “난 꼭 대학병원을 만들겠다. 큰 병원을 만들겠다.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 어깨 펴고 자랑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허언이 아니셨습니다. 의장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운동화를 신고 달리고 계십니다. 그에 발맞추기는 힘들지만, 지금껏 달려온 저를 뒤돌아보며 그동안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앞으로도 함께 달려가 보자고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37
한마음 24년간의 추억들

특수간호팀 이정화

“이 병원에 다니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네. 올해로 24년째입니다”
“우와! 정말 오래 다니셨네요”
지인의 부탁으로 병문안을 가면 항상 환자분들께서 물어보시는 말씀입니다.
“24년... 제가 오래 다니긴 했군요!” 뭐 30년 이상 다니신 대선배님들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한 곳에 5년도 못 다니는 요즘 사람들과 비교하면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24년 동안 물론 힘든 점도 많았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다닐 수 있도록 사랑과 힘이 되어준 동료들이 있어 이겨낼 수 있었음에 그분들께 정말 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동안 제가 한마음병원에 다니게 된 시작과 제가 경험한 우리 병원의 몇 가지 역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연에서 기회로

간호사는 1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0년 전에는 온라인 교육이 없어 다들 교육을 직접 들으러 다녔습니다. 당시 저는 다른 병원 분만실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보수교육 장소에서 우리 집과 가까운 한마음병원에 다니고 있던 같은 반 친구를 만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 연락하자며 연락처를 주고받았는데 한 달 뒤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마음 병원 분만실에 TO가 있다며 같이 근무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직하는 게 쉽지 않지만, 집에서 걸어 다니기도 가깝고 아이들이 한마음병원 소아청소년과를 다니고 있어서 저에게 찾아온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이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한마음병원과의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태풍 매미

2001년 상남동 한마음 병원으로 이전을 하고 2003년 태풍 매미가 상륙했습니다. 초대형 태풍으로 그날 나이트 근무였던 저는 출·퇴근 시간이 태풍의 영향권으로 들어간다는 뉴스를 접하고 이브닝 근무자인 후배의 퇴근이 걱정되어 2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날 1명의 산모와 보호자뿐이었는데 몇 시간 뒤 헐리웃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액션 장면을 그들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비는 폭포처럼 쏟아졌고 병원 앞에 있던 테니스장의 거대한 스탠드는 휴지 조각처럼 이리저리 굴러다녔고 번개가 신호등을 내리치면서 신호등이 폭발하는 장면을 제 평생 처음으로 보았고 지금까지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산모, 보호자와 함께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병원이 새 병원이라서 천둥번개 소리도 안 들리고 정말 조용하지 않습니까?”라면서 은근히 병원 자랑을 했던 게 떠오릅니다.

인증평가

2012년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처음 준비해야 했던 저희 간호부는 병원 규정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일까요? 1년 전부터 지침서를 공부하고 거기에 맞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수간호사들은 구두 테스트를 하며 규정을 숙지시키는 데 힘썼습니다. 당시 수간호사들의 나이가 젊어 자녀들 역시 엄마의 손길이 많이 갈 나이였지만, 인증평가 준비를 위해 그 더운 여름 주말도 잊은 채 매일 출근해서 준비했습니다. 자기 부서만 챙기기도 힘들 텐데 하나를 만들면 꼭 모든 부서용으로 만들어 서로를 챙겨주었습니다. 한 수간호사의 시어머니께서는 수간호사들이 라면 먹고는 힘을 못 쓴다고 매주 양푼이 비빔밥이며 다양한 반찬과 밥을 배달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남편들과 부모님들의 응원에 힘입어 저희의 첫 인증제는 경남 종합병원 최초로 1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눈물의 코호트 격리

2020년 전국이 코로나 발병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병원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병원 전체가 2주 코호트 격리를 결정하게 되면서 접점이 없는 환자들은 퇴원시키고 남아있던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교수님, 간호사들이 함께 격리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5병동 수간호사로 있었는데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1인실이 많은 저희 병동도 코호트 격리 병동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간호사들은 제외하고 지원자들을 먼저 모집했는데 5명의 동기들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병원에 들어가고 나서 부모님들께 문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 딸이냐"라며 원망 섞인 부모님들의 전화를 받으면서 함께 걱정하며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매일 그 친구들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아픈 곳은 없는지, 힘든 점,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면서 그들의 용기에 고마워했습니다. 2주 뒤 코호트 격리가 해제되는 날 집밥을 먹이고 싶은 마음에 새벽부터 음식을 해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병원을 향한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가 담긴 노란 리본으로 노랗게 물든 병원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5명의 동기들은 무사히 건강하게 나와서 독수리 5형제라고 부르며 지금까지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두 번째 도약

2016년 사림동에서 한마음병원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수간호사들도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 공사 현장이 정말 커서 여기에 우리 한마음병원이 세워지는 게 맞는지 놀라웠고 믿기 힘들었습니다. 가끔 공사장도 방문하면서 병원이 완공되는 모습을 보니 현실로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전이 1년 늦춰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병원이 힘들어서 이전을 못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들은 전혀 불안한 마음 없이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고 드디어 2021년 3월 1일 007작전에 가까운 환자 이송, 부서 이동을 완료했습니다. 이전 일주일 전부터 근무를 마치고 넘어와서 청소며 장 정리를 해왔고 트럭을 빌려와서 부서의 짐을 옮기던 여직원, 남자친구, 부모님과 함께 짐을 옮기고 청소도 한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가족분들 역시 제2의 한마음 직원으로 도와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인지 시뮬레이션보다 너무 일찍 끝나서 걱정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함께 온 환자들은 새 병원에 완전히 만족해했었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병원은 간호 학생들 사이에서 가고 싶은 병원으로 인기가 높아졌고 행사를 하러 가서 한마음병원에서 왔다고 하면 우리 병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이렇듯 성공적인 두 번째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38
상남한마음병원 개원

상남한마음병원 행정팀 **배동원**

1. 시작(2016.05.10~2018.05.31)

저에게도 이런 글을 쓸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한참 위 선배님들에게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잘 해오고 조금 오래 있었나 봅니다. 근 10년 차가 다 되어가는 저의 병원 생활의 첫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태권도만 17년을 했고, 할 줄 아는 게 운동 말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2016년 5월 10일 한마음창원병원 원무과로 운이 좋게 입사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왜 이런 곳에서 나를 써주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는 것이 없고 모든 게 새롭고 신기할 때. '막 다 해보고 싶다 열심히 하자! 으쌰으쌰 파이팅' 보통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 당시에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나는 여기

랑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했습니다. '안 맞으면 한 달 뒤에 나가면 되지, 조금만 더 놀다 미래를 생각해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만 가지고 한 달, 두 달 매일매일이 의학용어 시험에 틀려서 혼나고, 실수해서 혼나고, 또 실수했던 것들을 다시 처리하고 거기에서 오는 보람과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병원 생활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후임자도 생기고 책임감도 생기고 저만의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았던 것 같습니다.

2. 욕심(2018.06.01~2021.2.28)

근 2년 동안 응급실 원무과에서 근무해 보니 '병원이 이런 곳이구나. 희생이 동반되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없겠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거 같습니다. 이때부터는 저도 욕심이 많이 나서 '언제까지 내가 야간 근무만은 할 수 없다! 주간으로 넘어가서 다른 걸 배워보자!'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원무팀 안에서 우리끼리 말하는 창원한마음병원 원무팀에서 '이상적인 코스'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응급->입원->산재->통계 담당자 순으로 가면 이상적인 코스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고 저 또한 입사 초기와는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많이 생겼을 때 제가 하고 싶다고 설쳤습니다. 네, 저 스스로 이상적인 코스로 가고 싶어서 떼를 써봤습니다.... 응급실과는 다른 업무의 시작이었고 자신감만으로는 안되는 막대한 업무량과 거기에 각자 상황이 있는 환자분들의 민원까지. 2년 동안 반복적인 업무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느슨해졌던 나의 마음이 새로운 것을 접하며 병원에서 일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으로만 보던 병원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와닿았던 직무가 입원 담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무팀에서 흔히들 말하는 이상적인 코스는 위에 코스가 아니라 모든 원무 직무가 이상적인 코스였습니다. 각 담당자들은 기본 지식과 원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환자분들 중심으로 안전한 진료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 있으며, 내가 많이 알아야 신속/정확한 업무로 환자분들의 불편함을 줄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많이 배우고 한마음 원무팀에 걸맞은 인재가 되기 위해 많이 노력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입원 담당을 2년 정도 하며 또 다른 업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산재 담당을 해보고 싶어 시켜달라고 최상정 행정부원장님께 일주일을 따라다녔습니다... 결국은 승낙 해주시던데 아직도 잊지않고 있습니다. 행정부원장님이 3개월 뒤에도 잘하면 계속 시켜준다고 하셨지요. 저 지금 5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맞죠?

3. 변화(2021.03.01.~2024.02.29)

이전 개원이 확정되고, 이사 준비로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너나 할 것 없이 이전 개원 준비와 빠른 안정화를 위해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고, 고대하던 확장 이전 개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나서 생각해 보면 쉴 새 없이 이동하던 이삿짐센터 차량, 대규모 환자분들 이송 작전 등 매번 말도 안되는 일을 해내고 있다는 것에 내색은 안 했지만 창원한마음병원 식구들은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저 또한 창원한마음병원의 일원으로써 매사에 병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저 자신도 한층 발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안정화가 되기도 전에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심하게 돌았고 이미 개원 전부터 돌고 있었던 터라 코호트격리까지 했던 우리였기에 확진자 폭증은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던가요... 이 위기는 곧 의장님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단숨에 창원한마음병원이라는 브랜드를 전국에 알릴 수 있었고, 이는 곧 병원의 안정화와 한마음의료원 체재로 갈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 1년 동안 수많은 확진자와 싸워왔던 우리는 늘 그랬듯 또 이겨내고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4. 도전(2024.03.01.~)

우리는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선배님들이 이루어 내시고 닦아놓으신 이 길을 까마득한 후배가 이어받아 가려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바리한 신입사원일 때부터 통합행정실 파트장까지 수많은 일들을 함께 헤쳐나오고 이겨내며 쌓아온 경험들을 오롯이 나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선배님들이 써왔던 역사에 제 경험을 보태어 상남병원 후배들과 함께 써 가보려 합니다. 제가 여태 해왔던 일들은 상남한마음병원의 안정화를 위하여 여태 무수한 경험을 했나 봅니다. 우리의 또 다른 목표 'KOREA TOP 20'을 향해 오늘도 저는 우리 상남식구들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한마음의료원! 상남한마음병원! 파이팅!

39
배움과 도전의 30년

인사팀 **김지우**

솔선수범과 지속성의 영향력을 배우며

2011년 한마음병원에 입사 후, 병원의 직원들이 매일 아침 상남동 일대와 병원 주변을 청소하는 문화를 처음 접했을 때, 저 역시 일반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쯤 나는 이 아침 청소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은 바로 앞에서 노란 조끼를 입고 청소하고 계신 하충식 의장님(설립자)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 이 일은 안 할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깨달음이 들었지만, 마음은 쉽게 수긍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청소의 의미가 "우리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분들이 심신의 안녕을 위해 찾아오는데, 그 길이 깨끗하면 마음이 한결 나을 것"이라는 것과 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라는 의미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개원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 문화가 지속될 수 있었고,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이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설립자의 솔선수범이 있었기에 매일 아침 청소부터 방대한 사회공헌 등 활동이 30년간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자연스럽게 봉사의 마음을 담아 열심히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창의력 100배 활용하기

추운 겨울, 한마음병원에서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유리창에 일명 '뽁뽁이'를 붙였습니다. 당시 하충식 의장님의 의견으로 시설팀이 전 병원에 뽁뽁이를 붙여 실내 온도를 1.5도 이상 높인 기억이 납니다. 절약된 난방비는 교복 지원 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은 무상으로 교복이 지급되지만 2012년에는 교복을 구매해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이를 환원하려는 취지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난방비를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며, 동시에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을 보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충식 의장님이 제1회 국민포장 수상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 뽁뽁이를 손바닥만큼 잘라서 보여주셨던 일화도 있습니다. 그 이후 도청, 시청, 구청, 보건소 등 관공서에서 우리 병원에 견학을 오셨고, 뽁뽁이 열풍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작은 창작과 자본 투자, 실행력이 최대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조직에 임해야 하는지를 느꼈습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끝내는 해낸다

제가 입사했을 당시 상남한마음병원 뒤편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과 증축 설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창원시의 정책상 실행되지 않았었습니다. 이후 저는 2014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잠시 병원을 떠나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8월, 현재의 창원한마음병원 부지(창원중앙역세권)를 매입하고 한마음병원에서 전 직원들에게 현금 10만 원씩 지급하셨던 일이 기억납니다. 당시 제 배우자가 한마음병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였기에 흰 봉투를 보여주며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비록 저는 한마음병원을 떠나있었지만, 그때 저의 생각은 "한마음병원은 어떻게든 해낸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해내고, 그것을 직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021년 3월 이전 개원 시, 많은 이들이 3월에 오픈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꿈을 이루고자 하였고, 진행 중이었기에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한마음 가족 중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들은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030년 암병원 건립과 3,000병상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역사에서 배우고 문화로 자리 잡은 한마음병원만의 전투력과 목표 달성력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병원의 위상을 몸소 체험하며

몇 년 전 상남동의 한마음병원 당시, 졸업 예정 신규 간호사 지원자는 200~300명에 불과했습니다. 지원자들에게 우리 병원의 위상과 직원 복지가 실질적으로 공유되지 않아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3년 신규 간호사 지원자는 900명, 2024년 1,005명, 2025년 1,768명으로, 2025년 신규 간호사 지원율은 전년 대비 76% 증가하였습니다. 약 22개 대학의 지원자 중 성적 우수자(1~3등)가 32명이나 지원한 것은 창원한마음병원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병원만의 복지 정책과 처우 개선이 지역에 입소문으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제대로 평가받고 있음을 인사 팀장으로서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한마음병원은 우리 핵심가치 중 하나인 '직원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결실이 맺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40
한마음병원의 건축과 함께하며

전. 시설관리단장 **강관순**

창원한마음병원 30주년에 즈음하여 30년사를 발행한다는 소식에 축하합니다. 1995년 1월 1일 한마음병원이라는 곳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생소하고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첫 직장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맡은 일이 주로 건축이라 건축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통상 건물의 수명이 100년이라 합니다. 양생기간 50년에 남은 50년은 콘크리트가 수명을 다하는 기간이고요.
한마음병원의 건물 역사를 보면 1차 공사가 상남한마음병원이 2000년 2월 29일에 착공해서 2001년 12월 10일에 봉곡동 한마음병원에서 상남한마음병원으로 신축이전했습니다. 2차 공사가 2008년 2월 25일에 증축 공사하여 2009년 6월 19일에 완공되었습니다. 3차 공사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018년 11월 22일에 재개되어 2021년 2월 28일에 창원한마음병원으로 신축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2차 증축 공사가 오늘날 창원한마음병원으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아니었는지 생각합니다.

처음 병원 공사를 하기위한 설계사 미팅이 생각납니다. 병원전문설계사 현신건축, 일반건축의 대표설계사 공간건축, 서울건축 등을 미팅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것은 의장님의 탁월한 선택이 된 병원 전문설계업체 현신건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거기다 우리나라 굴지의 대표시공업체 삼성물산(주)의 시공이 백미였습니다.

창원한마음병원의 공사는 우리 한마음병원이 세계적인 병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지 않는지 생각합니다. 그러기엔 중앙역세권이 의료산업클러스트가 되기 위해선 또 한 번의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이제는 한발 물러나 지켜보는 입장이지만 남은 분들이 일심단결하여 남은 과업을 잘 이루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마음병원을 위해서 묵묵히 자기 일에 충실한 보이지 않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41
현장에 답이 있다

원무팀 **이창미**

코로나19 검사의 시작

2021년 9월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 하충식 의장님께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등산을 다녀오신 뒤 당직 근무자를 찾아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감염 팀장을 불러서 넌지시 "드라이브스루를 해보면 어떻겠노?"라고 말씀하셨고, 2021년 9월 27일 신속하게(!) 창원한마음병원 코로나19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feat. 우리 한마음은 언제나 생각 즉시 행동!).

워킹스루(walking thru) + 드라이브스루(drive thru) = 하이브리드스루(hybrid thru)

청명한 가을 어느 날 시작된 코로나19 검사는 하루하루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검사자가 폭발했고, 2022년 2월 2일 단일 기관에서 최대 검사를 시행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가을에 시작된 검사는 겨울, 봄, 여름, 다시 가을 네 번의 계절을 보냈고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순간 우리 한마음 가족들은 함께했고 그 중심에는 항상 하충식 의장님이 계셨습니다.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하며 고민하셨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이끌어 주셨으며 그 결과는 하이브리드스루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워킹스루의 단점을 보완한 드라이브스루 시행, 하지만 너무 많은 검사 대상자의 쏠림 현상으로 경남도청까지 차량이 줄을 서서 있는 날들이 많았고, 이를 극복하고자 취약계층(장애인, 임신부, 노약자)은 드라이브스루 시행, 해당 제외 워킹스루를 통한 검사를 시행하는 하이브리드스루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의장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때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2022년 인사 발령 이후 원무팀을 이끌어가는 저에게 한마음에서의 신조가 되었습니다. 현재

는 업그레이드되어, “현장에 답이 있고, 해결하자!”를 마음속에 담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 신속한 결과 확인 = 창원한마음병원

위 문구는 당시 코로나19 유행 당시 공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창원지역에서 인근 경남지역으로 확대, 급기야는 수도권에서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병원을 찾아주신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되던 2021년 3월 현재 본원으로 이전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의장님의 말씀처럼 “언제나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였다”

지금도 2022년 추운 겨울, 2023년 뜨거웠던 여름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버텨내고, 이겨냈는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그 원동력은 바로 한마음. 같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하나 된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식구들 고생하는데 맛있는 음식 먹으면 생각난다고 족발을 선물해주시던 마음. 우리 식구들 고생하는데 배고프지 않도록 냉장고 가득 먹을거리를 준비해주시던 마음. 하나라도 더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시던 경영진의 그 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함께 어깨를 빌려주던 함께 했던 친구(동료)들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사람 사는 맛과 멋이 있는 여기 우리 창원한마음병원의 3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글을 마칩니다.

42
삼성의료기기와 함께 성장한 한마음병원

삼성의료기 대표 **김형석**

창원한마음병원의 30주년을 축하하며, 이 특별한 성공의 순간을 맞이하여 진심을 담아 존경의 박수와 축하를 전합니다.

삼성의료기와 한마음병원과의 30년간의 협력은 저희에게 큰 자랑입니다. 함께한 시간 동안, 한마음병원은 뛰어난 의료진과 진취적인 관리팀의 노력으로 지역사회 의료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취는 여러분의 노력과 협력의 결실로 이루어진 것이며, 삼성의료기가 오랜 기간 한마음병원과 함께해 온 자랑스러운 순간입니다. 삼성의료기는 한마음병원이 이전 산부인과로 출발하여 지금의 지역 의료 중심이 된 창원한마음병원이 되기까지 함께 해왔습니다.

하충식 의장님과 의료기업체 간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며, 이는 한마음병원의 성공적인 운영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통해 잘 드러납니다. 하 의장님은 지방 의료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의료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돈독한 유대관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성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함께 견뎌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한마음병원은 여러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원내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 전체가 폐쇄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 내에 있던 환자와 직원들이 격리되고, 지역사회에 큰 혼란과 불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한마음병원은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병원은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환자와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철저한 방역 조치를 취했습니다. 병원 내에서 격리되어 있는 환자와 직원들을 위해 삼성의료기는 빠른 쾌유를 바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마음 담아 전달하고 방역에 필요한 의료 소모품을 최대한 빨리 수급하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병원과 의료기업체 간의 솔선수범과 헌신을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약속하며

삼성의료기는 앞으로도 한마음병원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계속 이어가며, 병원에서 수급하기 어려운 의료 소모품과 수술 기구를 빠르게 수급 해드리는 길잡이 역할을 묵묵히 해나갈 것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의 협력이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삼성의료기는 하충식 의장님과 최경화 이사장님, 한마음병원 가족 여러분의 끊임없는 헌신과 혁신적인 정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창원한마음병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파트너십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협력이 감사합니다.

자료로 보는 한마음 30년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산하 기관
한마음병원 건물 변천사
역대 경영진
역대 의료원장
역대 병원장
한마음국제의료재단 한마음의료원 조직도
주요 통계
주요 보직자(1995년~이전 개원)
주요 보직자(이전 개원~현재)
주요 의료장비
협력의료기관
한마음병원 HI(Hospital Identity) 변천사
한마음병원 캐릭터 마음이
주요 사회공헌 활동내역
연표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산하 기관

창원한마음병원
CHANGWON HANMAEUM HOSPITAL

경남을 대표하는 중증질환 중심 의료서비스

-30개 진료센터 35개 진료과
-지하 4층, 지상 10층 1,008병상 규모
-총 재직자 1,671명 / 총 의료진 113명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57번길 8

상남한마음병원
SANGNAM HANMAEUM HOSPITAL

창원을 대표하는 지역 맞춤형 의료서비스

-9개 진료과
-지하 4층, 지상 9층 262병상 규모
-총 재직자 163명 / 총 의료진 10명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682번길 21

시립마산요양병원
CHANGWON MUNICIPAL MASAN GERIATRIC HOSPITAL

치매 및 공공요양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최우수 의료서비스

-5개 진료과 양·한방 협진
-지하 1층, 지상 5층 52실 288병상 규모
-총 재직자 154명 / 총 의료진 8명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로 15

GRAND MERCURE 앰배서더 CHANGWON

감각적인 디자인과 라이프 스타일을 접목시킨 호텔

-지하 3층, 지상 19층 321객실 규모
-연회장, 최고급 레스토랑,
체련장, 실내수영장, 남·여 사우나,
Group Exercise Room,
60야드 자연 채광 실내 골프장 등 부대시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32

한마음병원 건물 변천사

1. 창원고려병원(봉곡동)

- 1994년 3월 1일 하충식 설립자 창원고려병원 내 산부인과 개원
- 4병상 규모
- 1994년 9월 하충식·최경화 설립자 창원고려병원 인수

2. 한마음병원 재개원(봉곡동)

- 1995년 1월 1일 하충식·최경화 설립자 창원고려병원 한마음병원으로 재개원
- 79병상 규모

3. 상남동 신축 나대지

- 2000년 9월 29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682번길 21
- 상남동 신축 한마음병원 기공식 진행

4. 상남동 신축 한마음병원(현. 상남한마음병원)

- 2001년 12월 10일 신축 한마음병원 이전 개원 완료
- 지하 2층, 지상 9층, 257병상 규모

5. 신관 증축

- 2009년 6월 19일 상남동 한마음병원 부지 내 신관 증축 완공

6. 창원중앙역세권 신축 나대지

- 2016년 6월 28일 신축 창원한마음병원 부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57번길

7. 신축 공사 과정

- 2020년 6월 창원중앙역세권 신축 창원한마음병원 공사 현장

8. 창원중앙역세권 신축 창원한마음병원 완공

- 2021년 3월 1일 창원한마음병원 확장 이전 개원
- 지하 4층, 지상 10층, 1,008병상 규모

역대 경영진

하충식

경상남도 함양군 출생(1960~)
1985년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산부인과학 전공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원 의학 석·박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수료
-조선대학교 명예경제학 박사
-전.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총동문회장
-전. 대한산부인과학회 부이사장
-한양대학교 명예경영학 박사
-한마음병원 초대 원장(1995.1.1~2013.2.28)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초대 이사장(2013.3.1~2024.2.29)
-현.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초대 의장(2024.3.1~현재)

최경화

부산광역시 출생(1964~)
1989년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소아청소년과학 전공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원 의학 석·박사

-한마음병원 소아청소년과장(1995.2.1~2007.4.30)
-한마음병원 관리이사(2007.5.1~2010.2.28)
-한마음병원 행정부원장(2010.3.1~2012.3.9)
-한마음병원 제2대 행정원장(2012.3.10~2013.10.14)
-한마음병원 초대 명예병원장 겸 재무원장(2013.10.15~2015.1.31)
-한마음병원 제4대 행정원장 겸 소아병원장(2015.2.1~2016.8.31)
-한마음의료원 초대 의료원장(2016.9.1~2024.2.29)
-부산대학교 명예경영학 박사 취득
-현.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제2대 이사장(2024.3.1~현재)

하창훈

경상남도 창원시 출생(1996~)
미시간주립대학교 학사(경영학)
존스홉킨스대학교 의료경영학 석사,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MBA)

-전. Asian Pacific Private Healthcare Industry Association 대표위원
-전. Maryland Community Health System 컨설턴트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초대 상임이사(2021.7.1~2024.2.29)
-현. 한마음의료원 제2대 의료원장(2024.3.1~현재)

최권용

서울특별시 출생(1932~2018)
동국대학교 학사(정치외교학)

-한마음병원 초대 행정원장(1999.1.1~2012.3.9)
-한마음병원 초대 명예행정원장(2012.3.10~2013.10.14)
-한마음병원 제3대 행정원장(2013.10.15~2015.1.31)
-한마음병원 제2대 명예행정원장(2015.2.1~2018.9.27)

김영훈

강원도 춘천시 출생(1960~)
연세대학교 보건학사, 보건학 석·박사(병원경영학)

-을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30년(1990.3.1 ~ 2020.2.29)
-전. 한국병원경영학회장, 현. 한국병원경영학회 고문
-전.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전국병원산학협력교수회장
-경기도지사 표창, 국무총리 표창, 옥조근정훈장 수훈
-현. 한마음국제의료재단 경영원장(2020.9~현재), 의료법인 이사(2023.4~현재)

역대 의료원장

최경화

창원한마음병원 초대 의료원장
(2016.9.1~2024.2.29)
- 부산광역시 출생(1964~)
- 1989년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소아청소년과학 전공

하창훈

창원한마음병원 제2대 의료원장
(2024.3.1~현재)
- 경상남도 창원시 출생(1996~)
- 2021년 존스홉킨스대학교 졸업, 의료경영학 전공

역대 병원장

하충식

창원한마음병원 초대 원장
(1995.1.1~2013.2.28)
- 경상남도 함양군 출생(1960~)
- 1985년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산부인과학 전공

윤영국

창원한마음병원 제2대 원장
(2013.3.1~2015.2.28)
- 경상북도 청송군 출생(1948~)
- 1973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외과학 전공

박성수

창원한마음병원 제3대 원장
(2015.3.1~2021.2.28)
- 서울특별시 출생(1950~)
- 1974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미생물학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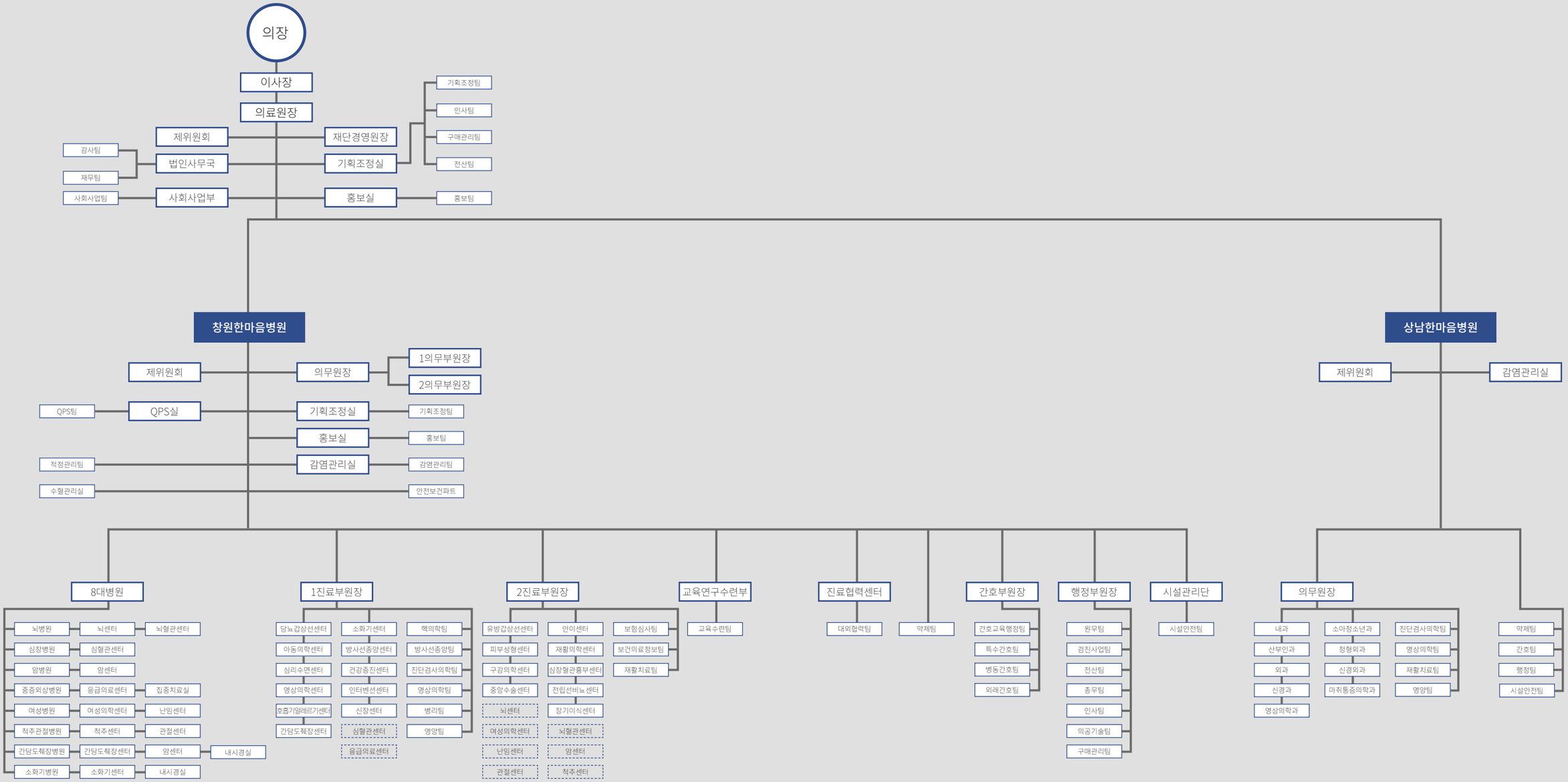
박인성

창원한마음병원 제4대 원장
(2021.3.1~2024.2.29)
상남한마음병원 초대 원장
(2024.3.1~현재)
- 전라북도 전주시 출생(1960~)
- 1985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신경외과학 전공

김명환

창원한마음병원 제5대 원장
(2024.3.1~현재)
- 서울특별시 출생(1957~)
- 1981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소화기내과학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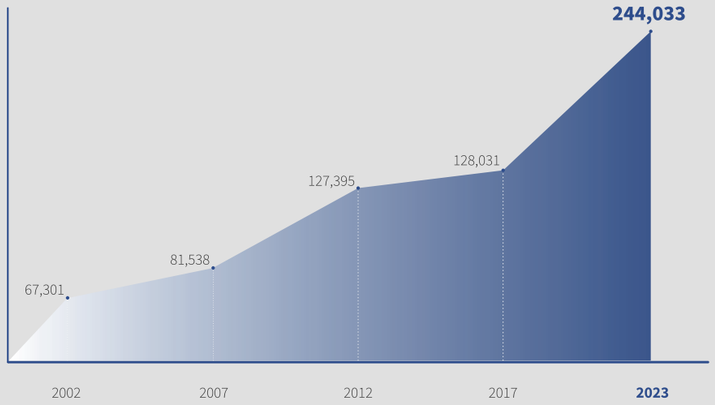
한마음국제의료재단 한마음의료원 조직도



주요 통계(~2023년)

재원환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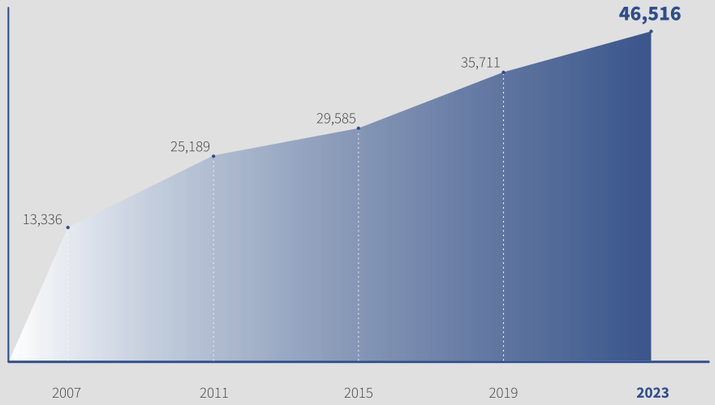
(단위: 명)



누적 **2,647,709** 명

내시경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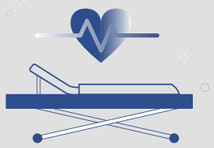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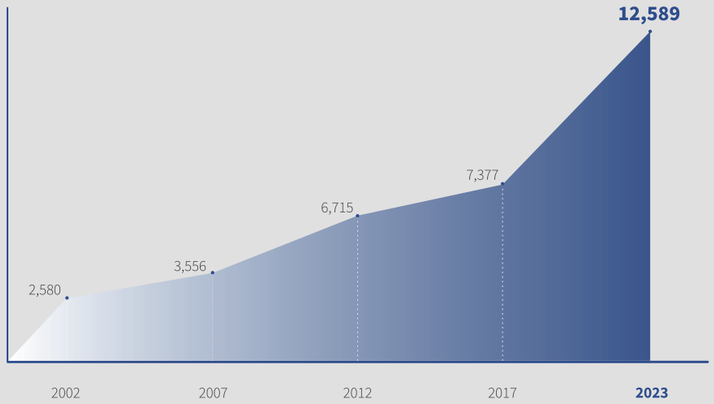


누적 **503,481** 건

수술 건수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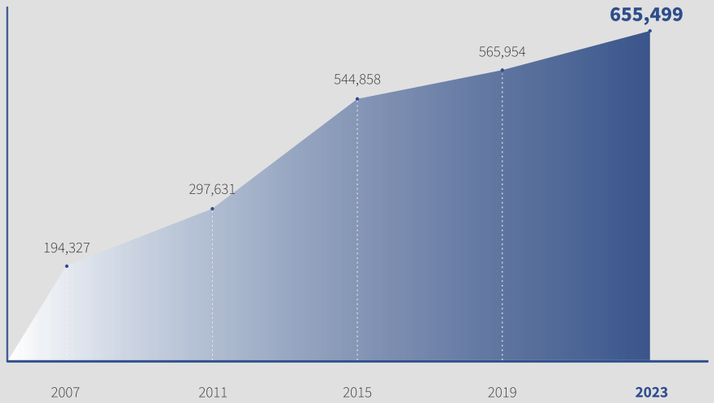




누적 **133,237** 건

외래환자 수

(단위: 명)



누적 **10,446,691** 명

주요 보직자-진료부(이전 개원~현재)

*창원한마음병원 이전 개원 전/후로 임기를 구분하여 표기

구분	성명	임기시작	임기종료
의무원장	박진국	2021-03-01	2022-02-28
	문현식	2022-03-01	2024-02-29
	장종원	2024-03-01	현재
1의무부원장	이경석	2021-03-01	2022-02-28
	김연수	2022-03-01	현재
2의무부원장	임인택	2021-03-01	2022-02-28
	장종원	2022-03-01	2024-02-29
	김사일	2024-03-01	현재
1진료부원장	김민웅	2022-03-01	2024-02-29
	조준희	2024-03-01	현재
2진료부원장	김윤석	2022-03-01	현재
교육연구수련부 부장	김사일	2021-03-01	현재
기획조정실 실장	이창민	2021-03-01	현재
기획조정실 부실장	이현호	2021-03-01	2022-06-30
	이민호	2023-10-01	현재
홍보실 실장	이석우	2023-02-01	현재
QPS실 실장	강호준	2021-03-01	2023-08-01
	하윤석	2023-09-01	현재
QPS실 부실장	하윤석	2021-03-01	2023-08-31
	이민호	2023-09-01	현재
감염관리실 실장	송두열	2021-03-01	현재
감염관리실 부실장	박지영	2024-08-01	현재

주요 보직자-행정부(1995년~이전 개원)

*창원한마음병원 이전 개원 전/후로 임기를 구분하여 표기

구분		성명	임기시작	임기종료
행정원장	명예행정원장	최권용	1999-01-01	2012-03-09
			2012-03-10	2018-09-27
경영원장		김영훈	2020-08-01	2021-02-28
행정부원장		노환유	2012-03-10	2021-02-28
재무부원장		김봉환	2012-03-10	2018-12-31
관리이사		최권용	1995-01-01	1998-12-31
		노환유	2010-03-01	2012-03-09
		강관순	2012-03-10	2021-02-28
재무이사		김기설	2016-05-09	2016-12-31
본부장	검진사업본부장	최상정	2018-06-01	2019-01-12
부장	재무팀 부장	김봉환	2005-07-01	2010-02-28
		하옥자	2016-03-01	2016-03-31
		김호진	2017-06-01	2020-10-31
	원무팀 부장	노환유	1995-01-01	2005-02-28
		강희순	2012-03-10	2020-01-12
	검진사업부장	강희순	2020-01-13	2020-10-31
	의료정보팀 부장	이환봉	2017-06-01	2020-10-31
	총무팀 부장	전창욱	2017-06-01	2020-10-31
	구매관리팀 부장	강관순	2005-03-01	2012-03-09
		김종진	2017-06-01	2020-10-31
실장	기획팀 실장	박용범	2001-08-11	2002-04-30
		노환유	2005-03-31	2010-02-28
차장	기획팀 차장	박형수	2013-03-08	2016-12-31
	재무팀 차장	하옥자	2011-03-10	2016-02-29
	보험심사팀 차장	안현정	2014-06-01	2017-05-31
	총무팀 차장	전창욱	2010-03-01	2017-05-31

	구매관리팀 차장	김종진	2013-03-08	2017-05-31
과장	기획팀 과장	박형수	2011-01-01	2013-03-07
	보험심사팀 과장	안현정	2005-03-01	2014-05-31
	원무팀 과장	박형수	2009-03-10	2010-12-31
	사회사업팀 과장	강송구	2016-08-01	2017-05-31
	총무팀 과장	전창욱	1995-01-01	2010-02-28
		박태길	2016-07-01	2016-07-31
	인사팀 과장	박태길	2016-08-01	2017-05-31
	고객만족지원팀 과장	최형우	1996-03-01	2007-03-31
대리	보험심사팀 대리	안현정	2000-03-01	2005-02-28
	의료정보팀 대리	홍성중	2010-01-02	2017-05-31
	고객만족지원팀 대리	이대봉	2006-03-01	2007-07-08
		정주모	2007-08-16	2010-05-23
팀장	미래전략팀 팀장	김호태	2020-01-13	2020-10-31
	기획팀 팀장	배규민	2017-11-01	2021-02-28
		김호태	2020-06-01	2021-02-28
	기획팀 CS팀장	조금숙	2005-12-01	2011-02-28
	재무팀 팀장	김호진	2016-04-01	2017-05-31
		김인순	2019-01-01	2021-02-28
		김호진	2020-11-01	2021-02-28
		권태훈	2020-11-01	2021-02-28
	QPS실 QI팀장	조금숙	2002-06-17	2005-11-31
		한미영	2012-08-01	2015-04-30
		김명옥	2015-05-01	2015-12-31
		이주언	2018-05-01	2021-02-28
	감염관리팀 팀장	최금숙	2020-11-01	2021-02-28
	보험심사팀 팀장	안현정	2017-06-01	2021-02-28
	의료정보팀 팀장	이환봉	2020-11-01	2021-02-28
	원무팀 팀장	박형수	2007-04-01	2009-03-09
		김호태	2013-03-08	2020-01-12
		최상정	2017-06-01	2018-05-31
			2019-01-13	2021-02-28
	검진사업팀 팀장	강희순	2020-11-01	2021-02-28

	총무팀 팀장	전창욱	2020-11-01	2021-02-28
	사회사업팀 팀장	강송구	2017-06-01	2018-01-31
	인사팀 팀장	박태길	2017-06-01	2017-06-30
	구매관리팀 팀장	김종진	2020-11-01	2021-02-28
	고객만족지원팀 팀장	양수석	2014-02-01	2021-02-28
파트장	재무팀 파트장	권태훈	2018-06-01	2020-10-31
	보험심사팀 파트장	문영경	2017-06-01	2021-02-28
		김경미	2017-06-01	2021-02-28
		강명숙	2020-10-01	2021-02-28
	의료정보팀 파트장	홍성중	2017-06-01	2021-02-28
		이준화	2020-10-01	2021-02-28
		강병훈	2020-10-01	2021-02-28
	원무팀 파트장	이창미	2020-10-01	2021-02-28
	일반검진파트장	임숙자	2012-03-10	2014-05-01
		이상헌	2017-06-01	2021-02-28
	종합검진센터 수간호사	한승희	2005-03-01	2013-03-31
		조영옥	2016-04-01	2019-06-30
	종합검진센터 파트장	권영판	2017-06-01	2018-10-31
	인사팀 파트장	김지우	2018-06-01	2021-02-28
	고객만족지원팀 파트장	신현기	2017-06-01	2021-02-28
		조민수	2020-10-01	2021-02-28

주요 보직자-행정부(이전 개원~현재)

*창원한마음병원 이전 개원 전/후로 임기를 구분하여 표기

구분		성명	임기시작	임기종료
고문 겸 시립행정원장		노환유	2022-03-01	현재
경영원장		김영훈	2021-03-01	현재
관리이사		강관순	2021-03-01	2022-12-31
시설관리단장		김종진	2023-03-01	현재
부원장	행정부원장	노환유	2021-03-01	2022-02-28
		강희순	2022-03-01	2023-03-31
		하영숙	2023-04-01	2023-06-30
		최상정	2024-03-01	현재
본부장	행정본부장	최상정	2023-07-01	2024-02-29
	대외협력팀 본부장	강희순	2023-04-01	2024-02-29
	대외협력팀 본부장 겸 검진사업팀장	최상정	2022-03-01	2023-03-31
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창민	2021-03-01	현재
	홍보실장	이석우	2023-02-01	현재
	QPS실장	강호준	2021-03-01	2023-08-31
		하윤석	2023-09-01	현재
	감염관리실장	송두열	2021-03-01	현재
평가실장		이혜경	2022-09-01	현재
팀장	법인사무국 총괄팀장 겸 감사팀 팀장	김인순	2024-06-01	현재
	감사팀 팀장	김인순	2021-03-01	현재
	기획팀 팀장	김호태	2021-03-01	2021-04-13
	기획홍보팀 팀장	배규민	2021-03-01	2022-07-08
		김호태	2021-04-14	2022-07-31
		이강민	2022-10-10	2024-07-31
	기획조정팀 팀장	이강민	2024-08-01	현재
	홍보팀 팀장	김민정	2024-09-01	현재
	재무팀 팀장	김호진	2021-03-01	2021-04-29
		권태훈	2021-03-01	현재
	QPS실 팀장	이주언	2021-03-01	2023-03-31
		이혜경	2022-08-01	2023-06-18
		김영희	2023-06-19	현재
	적정관리팀 팀장	이혜경	2023-09-01	현재
	감염관리팀 팀장	최금숙	2021-03-01	현재
	보험심사팀 팀장	안현정	2021-03-01	현재
	교육수련팀 팀장	김호태	2023-02-01	현재
	원무팀 팀장	최상정	2021-03-01	2022-02-28
		이창미	2022-03-01	현재
	검진사업팀 팀장	강희순	2021-03-01	2022-02-28
		최상정	2022-03-01	2023-06-30
		하영숙	2023-07-01	2024-02-29
		이수성	2024-03-01	현재
	대외협력팀 팀장	이주언	2023-04-01	현재
	전산팀 팀장	이환봉	2021-03-01	현재
	총무팀 팀장	전창욱	2021-03-01	2024-02-29
	인사팀 팀장	김지우	2022-09-01	현재
	의공기술팀 팀장	노성찬	2021-04-01	현재
	구매관리팀 팀장	김종진	2021-03-01	2023-02-28
	시설안전팀 팀장	하종남	2021-05-17	2024-02-29
		신현기	2022-04-01	2022-07-15
		손교헌	2024-03-01	현재
	장례식장 팀장	이연효	2021-03-01	현재
파트장	기획홍보팀 파트장	이교준	2021-10-01	2022-02-28
		이강민	2022-05-02	2022-10-09
		김민정	2022-05-02	2024-08-31
	적정관리팀 파트장	김은정	2023-11-01	2024-07-31
		전보람	2024-08-01	현재
	보험심사팀 파트장	문영경	2021-03-01	현재
		김경미	2021-03-01	현재
		강명숙	2021-03-01	현재
		손남희	2021-10-01	현재
	원무팀 파트장	이창미	2021-03-01	2022-02-28
		이교준	2022-03-01	2024-04-30

	권영판	2022-09-05	2023-01-31
	김용희	2024-09-01	현재
일반검진 파트장	이상헌	2021-03-01	2021-08-25
국가검진 파트장	이상헌	2023-04-01	현재
	하영숙	2024-03-01	현재
대외협력팀 파트장	이상헌	2021-08-26	2023-03-31
	권영판	2023-02-01	현재
전산팀 파트장	홍성중	2021-03-01	현재
	이준화	2021-03-01	현재
	강병훈	2021-03-01	현재
총무팀 파트장	강경탁	2024-03-01	현재
사회사업팀 파트장	송대승	2024-07-01	현재
인사팀 파트장	김지우	2021-03-01	2022-08-31
	이강민	2022-03-01	2022-05-01
	이교준	2024-05-01	현재
시설안전팀 파트장	신현기	2021-03-01	2022-03-31
	조민수	2021-03-01	현재
	김민호	2021-06-01	현재
	손교헌	2021-10-01	2024-02-29

주요 보직자-간호부(1995년~이전 개원)

*창원한마음병원 이전 개원 전/후로 임기를 구분하여 표기

구분		성명	임기시작	임기종료
간호이사		원영란	2014-02-01	2015-12-31
		윤연옥	2018-06-01	2020-10-31
		김인자	2020-05-01	2021-02-28
간호부장		한재옥	2007-07-01	2010-11-17
		원영란	2011-01-03	2014-01-31
		윤연옥	2016-01-01	2018-05-31
간호차장		윤연옥	2014-06-01	2015-12-31
간호과장		조승계	1995-02-01	2004-07-31
		한미영	2012-03-10	2012-07-31
		윤연옥	2012-03-01	2014-05-31
		이경란	2016-03-01	2020-12-31
		이동희	2016-03-01	2020-10-31
		신희영	2016-03-01	2020-10-31
간호교육행정팀 팀장		윤연옥	2020-11-01	2021-02-28
병동간호팀 팀장		신희영	2020-11-01	2021-02-28
특수간호팀 팀장		이동희	2020-11-01	2020-12-31
		이경란	2021-01-01	2021-02-28
외래간호팀 팀장		안미연	2021-01-01	2021-02-28
간호부 수간호사		최영임	2005-04-01	2005-04-30
		김명옥	2014-11-01	2015-04-30
		송연희	2015-10-01	2017-06-11
		이경란	2016-01-18	2016-02-28
		송연희	2017-09-05	2018-05-31
병동(본관) 수간호사	3병동	윤연옥	1997-10-01	2001-12-09
	5병동	류외숙	2007-03-01	2007-08-31
		이경란	2011-04-11	2014-10-31
		이정화	2014-11-01	2021-02-27

		이회영	2020-03-11	2020-04-15
	6병동	이미경	2004-03-01	2004-06-30
		최영임	2004-07-01	2005-03-31
		윤연옥	2006-12-01	2012-02-28
		이정화	2012-03-10	2014-10-31
		이회영	2014-11-01	2020-03-10
			2020-04-16	2021-02-27
	7병동	윤연옥	2001-12-10	2006-11-30
		신희영	2008-03-01	2009-06-18
		송연희	2012-03-10	2012-07-15
		구인화	2012-07-16	2014-10-31
		김행순	2014-11-01	2015-12-31
		정명옥	2016-01-01	2021-02-27
		곽수영	2020-03-11	2020-03-17
	8병동	전경애	2005-03-01	2007-08-31
		구인화	2009-03-10	2011-04-10
		김명옥	2012-03-02	2012-07-15
		송연희	2012-07-16	2014-10-31
		이경란	2014-11-01	2015-04-30
		최회정	2016-03-01	2017-02-05
		곽수영	2017-02-06	2020-03-10
			2020-03-18	2021-02-27
병동(신관) 수간호사	6병동	신희영	2009-06-19	2010-02-28
		정명옥	2010-03-01	2011-04-10
		신희영	2011-04-11	2016-02-28
		김영희	2016-03-01	2017-06-07
	7병동	신희영	2010-03-01	2011-04-10
		정명옥	2011-04-11	2014-10-31
		송연희	2014-11-01	2015-09-30
			2017-06-12	2017-09-04
		김영희	2020-03-08	2020-03-10
		차미정	2020-03-11	2020-04-02
	8병동	이경란	2015-05-01	2016-01-17
		곽수영	2016-03-01	2017-02-05
		최회정	2017-02-06	2019-04-30

		차미정	2018-05-01	2020-03-10
		차미정	2020-04-03	2021-02-28
특수간호팀 수간호사	집중치료실	김명옥	2010-03-01	2012-03-01
		김행순	2012-03-10	2014-10-31
		구인화	2014-11-01	2015-09-30
		김행순	2016-01-01	2017-05-31
		김영희	2017-06-08	2020-03-07
			2020-03-11	2021-02-27
	수술실	최영임	1995-03-01	2004-06-30
		이현주	2012-01-09	2012-01-31
		문혜영	2013-01-21	2015-06-30
		박혜숙	2015-12-16	현재
	응급실	이경란	2010-03-01	2011-04-10
		구인화	2011-04-11	2012-07-15
		김명옥	2012-07-16	2014-10-31
		정명옥	2014-11-01	2015-12-31
		김명옥	2016-01-01	현재
	분만실	이동희	2000-01-01	2016-02-28
	신생아실	안미연	2002-03-01	2009-06-30
		이회영	2011-04-11	2014-10-31
		안미연	2016-01-12	2020-12-31
	인공신장센터	하영숙	2014-06-01	2021-02-28
외래간호팀 수간호사	내과 외래	최은희	2009-03-10	2010-06-30
	산부인과 외래	강미옥	2011-03-01	2021-02-28
	소아청소년과 외래	한승희	2013-04-01	2021-02-28
	정형외과 외래	양현희	2016-05-02	2016-07-08
	내시경실	최은희	2010-07-01	2010-07-31
	중앙공급실	안운옥	2016-03-01	2023-12-31

주요 보직자-간호부(이전 개원~현재)

*창원한마음병원 이전 개원 전/후로 임기를 구분하여 표기

구분		성명	임기시작	임기종료
간호부원장		김인자	2021-03-01	2022-10-31
		윤연옥	2022-11-01	현재
간호교육행정팀 팀장		윤연옥	2021-03-01	2022-10-31
		하영숙	2022-11-01	2023-03-31
		이경란	2023-04-01	현재
병동간호팀 팀장		신희영	2021-03-01	현재
특수간호팀 팀장		이경란	2021-03-01	2023-03-31
		이정화	2023-04-01	현재
외래간호팀 팀장		안미연	2021-03-01	2021-03-31
		하영숙	2021-04-01	2022-10-31
		정명옥	2022-11-01	현재
병동 수간호사	41병동	백은정	2022-03-01	2022-05-31
		강민선	2022-06-11	2023-03-17
	51병동	정명옥	2021-07-01	2022-10-31
		김현지	2022-11-01	현재
	52병동	구경희	2022-03-01	현재
	61병동	박은주	2021-10-01	현재
	42병동	백은정	2022-06-11	현재
	62병동	정명옥	2021-03-01	2021-06-30
		김영희	2021-07-01	2023-06-18
		강신혜	2023-07-01	현재
	71병동	김은정	2021-03-01	2023-01-13
		이정화	2023-01-14	2023-03-31
		감현아	2023-04-01	2023-05-07
		옥영미	2023-05-08	현재
	72병동	차미정	2021-03-01	2021-09-30
			2022-03-01	2022-04-30
		정은주	2021-10-01	2022-02-06
		이혜의	2022-03-01	2023-01-27
		곽수영	2023-01-28	2023-05-07
		감현아	2023-11-01	현재
	81병동	곽수영	2021-03-01	2022-05-08
		이정화	2022-05-09	2023-01-13
		감현아	2023-05-08	2023-10-31
		이미경	2023-11-01	현재
	82병동	곽수영	2022-05-09	2023-01-27
		이혜의	2023-01-28	현재
	91병동	이정화	2021-03-01	2022-05-08
		강민선	2022-05-01	2022-06-10
			2023-03-18	현재
		이회영	2022-06-20	2023-02-05
	92병동	이회영	2021-03-01	2022-06-19
		정은주	2022-06-11	2022-10-31
		옥영미	2022-10-13	2023-05-07
		곽수영	2023-05-08	현재
특수간호팀 수간호사	내과계 집중치료실	김영희	2021-03-01	2021-03-21
		조혜진	2021-10-01	현재
	외과계 집중치료실	김영희	2021-03-22	2021-06-30
		강재순	2021-10-01	2022-10-31
		전보람	2022-11-01	2024-07-31
		김은정	2024-08-01	현재
	신생아 집중치료실	이회영	2023-02-15	2023-09-30
	신생아실	황금주	2021-04-01	2022-09-25
		이회영	2023-02-06	2023-02-14
			2023-10-01	현재
	중앙공급실	안운옥	2021-03-01	2023-12-31
		정승은	2024-01-01	현재
외래간호팀 수간호사	산부인과 외래	강미옥	2021-03-01	현재
	소아청소년과 외래	한승희	2021-03-01	2021-03-31
	내시경실	신나리	2021-10-01	현재
	인공신장실, 혈액투석실	하영숙	2021-03-01	2022-10-31
		신경숙	2021-10-01	현재
	국가검진파트	차미정	2022-05-01	2024-02-29
	종합검진파트	한승희	2021-04-01	현재

주요 보직자-진료지원부(1995년~이전 개원)

*창원한마음병원 이전 개원 전/후로 임기를 구분하여 표기

구분		성명	임기시작	임기종료
약국장		박경진	2011-02-10	2017-05-31
부장	약제팀 부장	박경진	2017-06-01	2021-02-28
	영상의학팀 부장	안재형	2017-06-01	2021-02-28
	진단검사의학팀 부장	이혜경	2017-06-01	2020-02-28
차장	영상의학팀 차장	안재형	2015-01-01	2017-05-31
	진단검사의학팀 차장	이혜경	2015-01-01	2017-05-31
과장	약제팀 과장	김현숙	2003-06-25	2004-08-15
		안진희	2004-08-16	2005-04-30
	영상의학팀 과장	유성민	2011-03-10	2014-12-31
	진단검사의학팀 과장	윤상철	2011-03-10	2014-05-31
실장	심혈관센터 실장	윤상국	2009-08-01	2011-05-31
		박종수	2012-07-01	2012-10-31
	영상의학팀 실장	안재형	1995-01-01	2014-12-31
	진단검사의학팀 실장	이혜경	1995-01-01	2014-05-31
	물리치료팀 실장	김재봉	2001-08-04	2002-10-31
		김혜정	2017-06-01	2018-05-31
	불임연구실 실장	이일동	2017-06-01	2021-02-28
대리	영상의학팀 대리	유성민	2004-03-01	2011-03-09
		정재훈	2011-03-10	2017-05-31
		이광옥	2012-03-10	2013-03-07
	진단검사의학팀 대리	윤상철	2005-03-01	2007-03-31
	물리치료팀 대리	김혜정	2014-06-01	2017-05-31
계장	영상의학팀 계장	유성민	2001-03-01	2004-02-29
		정재훈	2006-03-10	2011-03-09
		이광옥	2009-03-10	2012-03-09
	진단검사의학팀 계장	윤상철	2002-03-01	2005-02-28
		이순희	2012-03-10	2017-05-31
		신혜령	2014-06-01	2014-08-31
	병리파트 계장	신혜령	2014-09-01	2017-05-31
	물리치료팀 계장	김혜정	2010-03-01	2014-05-31
		한정훈	2014-06-01	2016-06-25
팀장	의료지원팀 팀장	강성만	2009-03-10	2009-08-22
	영상의학팀 팀장	유성민	2015-01-01	2021-02-28
		안재형	2020-11-01	2021-02-28
	진단검사의학팀 팀장	윤상철	2014-06-01	2020-10-31
		이혜경	2020-11-01	2021-02-28
	영양팀 팀장	서혜정	2018-06-01	2019-10-31
파트장	심혈관센터 파트장	전성훈	2019-08-05	2019-09-21
	영상의학팀 파트장	이광옥	2013-03-08	2021-02-28
		정재훈	2017-06-01	2021-02-28
	진단검사의학팀 파트장	이순희	2017-06-01	2021-02-28
		심경보	2018-06-01	2021-02-28
	병리파트장	신혜령	2017-06-01	2021-02-28
	심장검사실 파트장	정미화	2017-06-01	2021-02-28
	물리치료팀 파트장	김보인	2018-06-01	2021-02-28
	영양팀 파트장	이미란	2012-03-10	2012-09-08
		엄수진	2013-10-01	2016-07-16
		서혜정	2016-12-26	2018-05-31
		권미정	2019-09-16	2021-02-28

주요 보직자-진료지원부(이전 개원~현재)

*창원한마음병원 이전 개원 전/후로 임기를 구분하여 표기

구분		성명	임기시작	임기종료
약국장		박경진	2021-03-01	2023-01-08
		윤태원	2024-04-15	현재
총괄 실장	진료지원부 총괄 실장	이혜경	2022-06-01	2022-06-30
실장	불임연구실 실장	이일동	2021-03-01	2021-03-31
	난임연구실 실장	최유진	2021-04-01	현재
	치과 실장	박주연	2021-03-01	2021-07-31
		서은정	2021-09-01	현재
팀장	약제팀 팀장	이은미	2023-01-01	현재
	영상의학팀 팀장	안재형	2021-03-01	2021-05-31
		유성민	2021-06-01	2023-02-28
		정재훈	2023-03-01	현재
	진단검사의학팀 팀장	이혜경	2021-03-01	2021-09-30
			2024-03-16	현재
		윤상철	2021-10-01	2023-02-28
		이순희	2023-03-01	2024-02-29
		강철수	2024-02-19	2024-03-15
	방사선종양팀 팀장	한영동	2021-05-01	현재
파트장	보건의료정보팀 파트장	김용희	2021-10-01	2024-06-30
		이주경	2024-07-01	현재
	심뇌혈관센터 파트장	김정환	2021-10-01	현재
	영상의학팀 파트장	정재훈	2021-03-01	2023-02-28
		이광옥	2021-03-01	현재
		박일상	2021-10-01	현재
	진단검사의학팀 파트장	이순희	2021-03-01	2023-02-28
			2024-03-01	현재
		심경보	2021-03-01	2021-12-28
		강민아	2022-06-01	현재
		황동웅	2024-06-01	현재
	병리팀 파트장	신혜령	2021-03-01	현재
	핵의학팀 파트장	백석하	2022-06-01	현재
	심장검사실 파트장	정미화	2021-03-01	현재
	뇌기능검사실 파트장	김혜진	2023-06-01	현재
	물리치료팀 파트장	김보인	2021-03-01	2022-03-31
	재활치료팀 파트장	임준오	2022-06-01	현재
	영양팀 파트장	권미정	2021-03-01	현재

상남한마음병원 주요 보직자

구분		성명	임기시작	임기종료
의무원장		하성진	2024-03-01	현재
어린이병원장		이병을	2024-04-29	현재
행정부원장		강희순	2024-03-01	2024-03-31
팀장	간호팀 팀장	차미정	2024-03-01	현재
	행정팀 팀장	배동원	2024-09-01	현재
	시설안전팀 팀장	양수석	2024-03-01	현재
파트장	병동간호팀 파트장	서영하	2024-03-01	현재
		홍선영	2024-03-01	2024-08-31
		임지희	2024-05-01	현재
		정원경	2024-09-01	현재
	영상의학팀 파트장	이종현	2024-04-01	현재
	진단검사의학팀 파트장	윤상철	2024-03-01	현재
	영양팀 파트장	안지은	2024-03-01	2024-04-30
		석수미	2024-05-01	현재
	물리치료팀 파트장	최원준	2024-03-01	현재
	행정팀 파트장	배동원	2024-03-01	2024-08-31
과장	약제팀 과장	김현정	2024-03-01	현재

주요 의료장비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sim)

방사선종양센터(수량 1대)

치료용하전입자가속장치 (선형가속기)

방사선종양센터(수량 1대)

Angiography System

심혈관센터(수량 3대)
영상의학과 외래(인터벤션센터)(수량 2대)

MRI MAGENTOM

영상의학과(수량 4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영상의학과(수량 3대)
종합검진실(수량 1대)

1인용 고압산소치료기

고압산소치료실(수량 1대)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

고압산소치료실(수량 1대)

Sugical system(daVinci X)

중앙수술센터(수량 1대)

채혈 준비 자동화 시스템

진단검사의학과(수량 2대)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 (GAMMA CAMERA)

핵의학과(수량 1대)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엑스선조합 촬영장치(PET-CT)

핵의학과(수량 1대)

협력의료기관 *목록은 가나다순으로 정렬합니다.

협력의료기관 현황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	의원	계
20	20	103	79	17	3	856	1,098

상급종합병원(20개소)

지역	No.	의료기관
서울특별시(8)	1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2	삼성서울병원
	3	서울대학교병원
	4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5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6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7	중앙대학교병원
	8	한양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5)	9	경북대학교병원
	10	계명대학교동산병원
	11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12	영남대학교병원
	13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4)	14	고신대학교복음병원
	15	동아대학교병원
	16	부산대학교병원
	17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경상남도(3)	18	경상국립대학교병원
	19	양산부산대학교병원
	20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종합병원(20개소)

지역	No.	의료기관
서울특별시(1)	1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서울병원
대구광역시(2)	2	강남종합병원
	3	대구의료원
부산광역시(2)	4	대동병원
	5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경상남도(15)	6	강일병원
	7	거붕백병원
	8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9	대우병원
	10	맑은샘병원
	11	새통영병원
	12	연세에스병원
	13	의료법인갑을의료재단갑을장유병원
	14	의료법인석영의료재단창원제일종합병원
	15	의료법인숭인의료재단김해복음병원
	16	의료법인청아의료재단청아병원
	17	의료법인합포의료재단에스엠지연세병원
	18	의료법인환명의료재단조은금강병원
	19	진주고려병원
	20	한일병원

*목록은 가나다순으로 정렬합니다.
*동일 기관명은 서로 다른 지역의 타 의료기관입니다.

병원(103개소)

지역	No.	의료기관
부산광역시 (6)	1	세계로병원
	2	의료법인 서호의료재단 서호하단병원
	3	의료법인정화의료재단봉생힐링병원
	4	주성산 이진용맘병원
	5	큰솔병원(1병원)
	6	큰솔병원(2병원)
경상남도 (97)	7	(의)경빈의료재단 김해센텀병원
	8	365병원
	9	the큰병원
	10	강병원
	11	거제아동병원
	12	거제중앙병원
	13	경희리틀병원
	14	구트병원
	15	굿모닝내과병원
	16	굿모닝대흥병원
	17	굿모닝병원
	18	김취열기념의료재단 프라임병원
	19	김해굿모닝병원
	20	김해바른병원
	21	김해사랑병원
	22	김해삼승병원
	23	나노병원
	24	남해병원
	25	다나병원
	26	대우아동병원
	27	더(the)큰병원
	28	더서울병원
	29	더조은병원
	30	동마산병원
	31	동서병원
	32	동양의료재단연세사랑병원
	33	래봄병원
	34	맑은샘센텀병원
	35	메가병원
	36	메트로병원
	37	무룹병원
	38	미르아이병원
	39	미소안재활병원
	40	밀양병원
	41	밀양우리병원
	42	밀양윤병원
	43	바른병원
경상남도 (97)	44	반도병원
	45	베스트수병원
	46	삼성아동병원
	47	삼성합천병원
	48	삼일정풍병원
	49	삼천포제일병원
	50	상남굿모닝내과병원
	51	서울병원
	52	서울새싹병원
	53	서울아동병원
	54	서울아동병원
	55	서울아동병원
	56	서울패밀리병원(구:CNA 서울아동병원)
	57	세명병원
	58	시영의료재단 영동병원
	59	신세계로병원
	60	심산서울병원
	61	씽씽병원
	62	아라한국병원
	63	양덕서울아동병원
	64	양산제일병원
	65	영진의료재단 엠아이병원
	66	예인여성병원
	67	우리병원
	68	윤병원
	69	은혜병원
	70	의령병원
	71	의료법인승연의료재단 삼천포서울병원
	72	의료법인염광의료재단세광병원
	73	의료법인위더스의료재단위더스병원
	74	의료법인한서의료재단 진영병원
	75	잘본병원
	76	제일병원
	77	중앙메디컬병원
	78	진동태봉병원
	79	진영새싹병원
	80	진주미래여성병원
	81	진주복음병원
	82	진해성모병원
	83	참여성병원
	84	창녕서울병원
	85	창원더키움병원
	86	창원중앙병원
경상남도 (97)	87	창원튼튼i병원
	88	창원힘찬병원(의료법인 상원의료재단)
	89	키즈웰소아청소년과병원
	90	태황의료재단한성병원
	91	통영고려병원
	92	통영서울병원
	93	통영적십자병원
	94	하나병원
	95	하나병원
	96	한사랑병원
	97	함양성심병원
	98	해군해양의료원
	99	행복한병원
	100	허&리병원
	101	화사랑병원
	102	희망병원
	103	희연재활병원

요양병원(79개소)

지역	No.	의료기관
부산광역시 (6)	1	송도요양병원
	2	타임요양병원
	3	동래유유요양병원
	4	삼인요양병원
	5	중앙효요양병원
	6	BHS동래한서요양병원
경상남도 (73)	7	EAC창원요양병원
	8	강민의료재단 나누리요양병원
	9	갤러리의아침요양병원
	10	경남요양병원
	11	경상남도립 통영노인전문병원
	12	경희요양병원
	13	고성제일요양병원
	14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
	15	남지요양병원
	16	늘푸른요양병원
	17	더편한요양병원
	18	덕산요양병원
	19	동창원요양병원
	20	메트로요양병원
	21	메트로요양병원
	22	밀양요양병원
	23	복음요양병원
	24	북면이화요양병원
	25	산청요양병원
	26	삼포의료재단 현대요양병원
	27	새롬재활요양병원
	28	서원요양병원
	29	서종요양병원
	30	서청솔요양병원
	31	성미카엘요양병원
	32	성운요양병원
	33	성은효요양병원
	34	숲속요양병원
	35	시립마산요양병원
	36	시립창원요양병원
	37	시티요양병원
	38	신세계요양병원
	39	양산서울요양병원
	40	영산요양병원
	41	예경요양병원
	42	예정요양병원
	43	오남의료재단 인제요양병원

*목록은 가나다순으로 정렬합니다.
*동일 기관명은 서로 다른 지역의 타 의료기관입니다.

한방병원(17개소)

지역	No.	의료기관
경상남도 (73)	44	온세상요양병원
	45	온요양병원
	46	용원휴요양병원
	47	우리요양병원
	48	의령군립노인전문병원
	49	의료법인 경림의료재단 고성요양병원
	50	의료법인 덕산의료재단 한마음노인요양병원
	51	의료법인 동림의료재단 로얄힐스요양병원
	52	의료법인 송파의료재단 가야요양병원
	53	의료법인 합포의료재단 마산우리요양병원
	54	의료법인하은의료재단 장유제일요양병원
	55	의료법인한솔의료재단 한서재활요양병원
	56	이은요양병원
	57	장유요양병원
	58	장유효요양병원
	59	재단법인그루터기장유은혜요양병원
	60	정다운요양병원
	61	제암요양병원
	62	참좋은요양병원
	63	창녕서울요양병원
	64	창녕효요양병원
	65	창원삼성요양병원(구.창산)
	66	천사요양병원
	67	청담요양병원
	68	청솔요양병원
	69	충무요양병원
	70	친절요양병원
	71	큰사랑요양병원
	72	파크힐요양병원
	73	푸른요양병원
	74	한가족요양병원
	75	한마음요양병원
	76	행복한요양병원
	77	효도투석요양병원
	78	희연요양병원
	79	희윤요양병원

지역	No.	의료기관
경상남도 (17)	1	강추한방병원
	2	당당한방병원
	3	라라한방병원
	4	명인당한의원
	5	명작한방병원
	6	예이재한방병원
	7	우리들의원.한의원
	8	유니한방병원
	9	의료법인 건생당의료재단 진영한방병원
	10	의료법인 피앤케이의료재단 인생한방병원
	11	이병직한의원
	12	자연안에한방병원
	13	자연한방병원
	14	창덕한의원
	15	창원자생한방병원(재단법인 자생의료재단)
	16	홍원당한의원
	17	흥시윤한의원

치과(3개소)

지역	No.	의료기관
경상남도 (3)	1	더앞선치과병원
	2	온치과병원
	3	창원탑치과의원

의원(856개소 중 부산광역시 5개소)

지역	No.	의료기관
부산광역시 (5)	1	리우내과의원
	2	부산PET염하용핵의학과의원
	3	삼성뉴방외과의원
	4	유바외과의원
	5	정다운내과의원

의원(856개소 중 경상남도 851개소)

No.	의료기관
6	21세기내과의원
7	21세기정형외과의원
8	DO두신경과의원
9	가온내과의원
10	가족사랑의원
11	감계삼성내과의원
12	감창우내과의원
13	강남가정의학과의원
14	강남마취통증의학과의원
15	강남비뇨기과의원
16	강내과의원
17	강내과의원
18	강의원
19	거제아동의원
20	거제의원
21	거제통증연합의원
22	거창의원
23	거창정형외과의원
24	거창종합내과의원
25	경대연합의원
26	경희의원
27	계룡내과의원
28	고려의원
29	고려의원
30	고려의원
31	고려의원
32	고려정형외과의원
33	고성바른본의원
34	고성밝은안과의원
35	고성성모안과의원
36	고외과의원
37	고운마취통증의학과의원
38	고운맘산부인과의원
39	고운메디컬의원
40	고운미의원
41	고운아이소아과의원
42	고운의원
43	고운의원
44	고운정형외과의원
45	고은미래의원
46	공감정신건강의학과의원
47	공정형외과의원
48	곽이비인후과의원
49	구교준이비인후과의원
50	구샘재활의학과의원
51	구자운의원
52	굿모닝내과의원
53	굿모닝비뇨기과의원
54	굿모닝외과의원
55	굿모닝정형외과의원
56	권기호내과의원
57	권병표내과의원
58	금송의원
59	김&김복음외과의원
60	김가정의학과의원
61	김건용내과의원
62	김기민소아청소년과의원
63	김기성피부과의원

No.	의료기관
64	김내과의원
65	김내과의원
66	김내과의원
67	김내과의원
68	김덕성의원
69	김명준내과의원
70	김명준내과의원
71	김모세내과의원
72	김민성내과의원
73	김병수의원
74	김보영안과의원
75	김산내과의원
76	김선경외과 박찬모내과의원
77	김수영신경외과의원
78	김안과의원
79	김앤김내과의원
80	김영일정형외과의원
81	김영조내과의원
82	김영호내과의원
83	김옥용의원
84	김외과의원
85	김윤규방사선과의원
86	김의원
87	김의원
88	김인기내과의원
89	김재원이비인후과의원
90	김정암내과의원
91	김제원내과의원
92	김종휘비뇨기과의원
93	김주태비뇨기과의원
94	김준욱내과의원
95	김지영산부인과의원
96	김진권피부과의원
97	김진만내과의원
98	김진우소아청소년과의원
99	김태진정형외과의원
100	김해미래산부인과의원
101	김해속시원내과의원
102	김해신세계의원
103	깨끗한의원
104	꿈나무소아청소년과의원
105	나래정형외과의원
106	나병천정형외과의원
107	남마산외과의원
108	남문내과의원
109	남철우내과의원
110	남해삼성외과의원
111	남해성모의원
112	남해중앙메디컬의원
113	남해한국의원
114	내동의원
115	내서바른재활의학과의원
116	내외상시인의원
117	녹십자의원
118	녹십자의원
119	누가의원
120	누가의원
121	누리이비인후과의원

No.	의료기관
122	늘편한내과의원
123	늘푸른내과의원
124	늘푸른산부인과의원
125	늘푸른산부인과의원
126	늘푸른의원
127	늘푸른의원
128	다나신경외과의원
129	다봄가정의원
130	다사랑산부인과의원
131	다솜소아청소년과의원
132	닥터제이의원
133	닥터진정신건강의학과의원
134	당샘내과의원
135	대교의원
136	대동외과의원
137	대방의원
138	대성한의원
139	대한항맥외과의원
140	대항-청맥외과의원
141	대화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의원
142	더나은의원
143	더나은정형외과의원
144	더사랑내과의원
145	더열린의원
146	더큰사랑의원
147	더하얀의원
148	덕산가정의학과의원
149	덕산의원
150	덕영내과의원
151	도계가정의학과의원
152	동남의원
153	동부의원
154	동산소아청소년과의원
155	동신가정의학과의원
156	동신의원
157	동화의원
158	동화의원
159	두레원의원
160	드림소아청소년과의원
161	디엘의원
162	라움산부인과의원
163	라파의원
164	라파통증의학과의원
165	로뎀재활의학과의원
166	로즈맘여성산부인과의원
167	루가의원
168	류명호안과의원
169	류승환내과의원
170	류영철안과의원
171	리엔신경과의원
172	리움여성의원
173	마디척의원
174	마법의원
175	마산역신통의원
176	마산의원
177	마산제일내과의원
178	마산제일외과의원
179	마산중앙의원

*목록은 가나다순으로 정렬합니다.
*동일 기관명은 서로 다른 지역의 타 의료기관입니다.

No.	의료기관
180	마음과마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
181	마음편한정신건강의학과의원
182	맑은샘내과의원
183	맑은피부과의원
184	맑음내과의원
185	맘편한여성의원
186	메디컬밸런스의원
187	메리놀내과의원
188	메리놀산부인과의원
189	명내과의원
190	명성마취통증의학과의원
191	명성의원
192	명인마취통증의학과의원
193	몸편한재활의학과의원
194	무동의원
195	문영일이비인후과의원
196	문지윤내과의원
197	문창형내과의원
198	문희건희망내과의원
199	미래산부인과의원
200	미래산부인과의원
201	미래소아청소년과의원
202	미래이비인후과의원
203	미소마취통증의학과의원
204	미소산부인과의원
205	미소진의원
206	미시안안과의원
207	미의원
208	미즈맘산부인과의원
209	미즈맘소아청소년과의원
210	미즈맘여성의원
211	미즈산부인과의원
212	미즈여성의원
213	미즈유외과의원
214	밀양미래연합의원
215	밀양삼성안과의원
216	밀양선비뇨기과의원
217	밀양이비인후과의원
218	밀양정신건강의학과의원
219	밀양정형외과의원
220	밀양탑비뇨기과의원
221	바른마취통증의학과의원
222	바른몸정형외과의원
223	바른윤내과의원
224	바른재활의학과의원
225	바른정형외과의원
226	바른피부과의원
227	박광선소아청소년과의원
228	박내과의원
229	박내과의원
230	박내과의원
231	박내과의원
232	박성원이비인후과의원
233	박성희소아청소년과의원
234	박소아청소년과의원
235	박양훈내과의원
236	박영명내과의원
237	박영호내과의원

No.	의료기관
238	박외과의원
239	박우생소아청소년과의원
240	박인조내과의원
241	박일순피부비뇨기과의원
242	박재석내과의원
243	박재영의원
244	박정형외과의원
245	박주현산부인과의원
246	박지영소아청소년과의원
247	박창현신경외과의원
248	박태준내과의원
249	박피부과의원
250	박해동내과의원
251	박희용의원
252	밝고고운안과의원
253	밝은미래안과의원
254	밝은서울안과의원
255	방미지유항외과의원
256	배둔성모의원
257	배윤상내과의원
258	백내과의원
259	백세의원
260	백승호가정의학과의원
261	백의원
262	백태현내과의원
263	범안과의원
264	보강연합의원
265	보덕의원
266	보람가정의학과의원
267	보람산부인과의원
268	복음내과의원
269	복음외과의원
270	복음의원
271	복음의원
272	복음의원
273	본정형외과의원
274	봉의원
275	부경신경과의원
276	부산외과의원
277	부산의원
278	북마산정형외과의원
279	북면감계안과의원
280	북면소아청소년과의원
281	북신내과의원
282	사남의원
283	사단법인대한산업보건협회부설마산의원
284	사대한의원
285	사랑해소아청소년과연합의원
286	사림우리들의원
287	사마리아산부인과의원
288	사천시원재활의학과의원
289	사천연합의원
290	삼계중앙산부인과의원
291	삼동의원
292	삼성가정의학과의원
293	삼성가정의학과의원
294	삼성내과의원
295	삼성내과의원

No.	의료기관
296	삼성늘푸른정형외과의원
297	삼성바른피부과의원
298	삼성비뇨기과의원
299	삼성서울정형외과의원
300	삼성신경외과의원
301	삼성안과의원
302	삼성연합의원
303	삼성연합의원
304	삼성의원
305	삼성정형외과의원
306	삼성탑내과의원
307	상남더맑은내과의원
308	상동의원
309	상쾌한내과이비인후과의원
310	상쾌한이비인후과의원
311	새미래정형외과의원
312	새봄산부인과의원
313	새삼성내과의원
314	새진해의원
315	새찬신경외과의원
316	새한마음내과의원
317	생림의원
318	서경의원
319	서민아산부인과의원
320	서영도내과의원
321	서울100마디튼튼의원
322	서울가정의원
323	서울가정의학과의원
324	서울고려의원
325	서울내과의원
326	서울내과정형외과의원
327	서울대화외과의원
328	서울명외과의원
329	서울산부인과의원
330	서울삼성신경과의원
331	서울삼성정형외과의원
332	서울성모정형외과의원
333	서울센텀신경외과의원
334	서울소아청소년과의원
335	서울소아청소년과의원
336	서울신경과의원
337	서울아산이비인후과의원
338	서울아이비안과의원
339	서울연합의원
340	서울윤소아청소년과의원
341	서울의원
342	서울의원
343	서울정석정형외과의원
344	서울정형외과의원
345	서울정형외과의원
346	서울튼튼정형외과의원
347	서울피부과의원
348	서울피부과의원
349	서원교비뇨기과의원
350	서원정형외과의원
351	서일의원
352	서정철내과의원
353	서진호의원

No.	의료기관
354	서포중앙의원
355	석동내과연합의원
356	석동정형외과연합의원
357	석재활의학과의원
358	석전의원
359	선린자모의원
360	선비뇨기과의원
361	성가정의원
362	성내과의원
363	성모의원
364	성모의원
365	성모의원
366	성산라파의원
367	성심내과의원
368	성심마취통증의학과의원
369	성심방사선과의원
370	성심의원
371	성심의원
372	성심의원
373	성심의원
374	성심의원
375	성심정형외과의원
376	성현내과의원
377	세란정형외과의원
378	세인의원
379	세일정형외과의원
380	세종내과영상의학과의원
381	세종의원
382	세종의원
383	세준검진의원
384	세진의원
385	세화의원
386	센텀산부인과의원
387	센텀정형외과의원
388	소리사랑이비인후과의원
389	소리샘이비인후과의원
390	소병헌이비인후과의원
391	소영철내과의원
392	소피마르소산부인과의원
393	속시원내과방사선과의원
394	속시원내과의원
395	속편한내과의원
396	속편한내과의원
397	속편한삼성내과의원
398	송광호의원
399	송림의원
400	송진호마취통증의학과의원
401	수내과의원
402	수비뇨기과의원
403	수산의원
404	수소아청소년과의원
405	숨편한내과의원
406	스마일의원
407	승진의원
408	시민내과의원
409	시민의원
410	시원 신경외과의원
411	신가정의학과의원

No.	의료기관
412	신내과의원
413	신동훈재활의학과의원
414	신등하나의원
415	신반의원
416	신부림의원
417	신세계내과의원
418	신세계내과의원
419	신세계산부인과의원
420	신세계의원
421	신세계의원
422	신세계이비인후과의원
423	신세계제통의원
424	신일외과의원
425	신종민내과의원
426	신창녕속내과의원
427	신통마취통증의학과의원
428	신통신경과의원
429	신항내과의원
430	심앤장내과의원
431	아너스의원
432	아라의원
433	아름다운산부인과의원
434	아름다운자모산부인과의원
435	아름다운피부과의원
436	아림의원
437	아주대우아동의원
438	아주속편한의원
439	아주연합의원
440	안내과의원
441	안민하나의원
442	안상준내과의원
443	안아픈세상정웅기의원
444	안이비인후과의원
445	양내과의원
446	양덕제일의원
447	양지의원
448	어뉴봄의원
449	에스엘신경과의원
450	에이스비뇨기과의원
451	엔젤소아과의원
452	엘르메디여성의원
453	엘르메디여성의원
454	엘리나의원
455	엘소아청소년과의원
456	엠에스피부과의원
457	연세남성비뇨기과의원
458	연세바른본의원
459	연세사랑마취통증의학과의원
460	연세사랑연합의원
461	연세속편한내과의원
462	연세안과의원
463	연세이비인후과의원
464	연세이비인후과의원
465	연아통증의학과의원
466	열린내과의원
467	열린이비인후과의원
468	영남의원
469	영남의원

No.	의료기관
470	영남제통마취통증의학과의원
471	영산의원
472	예담의원
473	예림가정의학과의원
474	예의원
475	예인소아청소년과의원
476	예일내과의원
477	예일이비인후과의원
478	오늘더맑음의원
479	오성웅내과의원
480	오여성의원
481	오용구내과의원
482	오이비인후과의원
483	오즈산부인과의원
484	옥재철정형외과의원
485	온누리내과의원
486	온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의원
487	온정의원
488	올바른마취통증의학과의원
489	완사고려의원
490	외동튼튼정형외과의원
491	용원중앙내과의원
492	우리가정의원
493	우리가정의원
494	우리들내과의원
495	우리들의원
496	우리들의원
497	우리들의원
498	우리들의원.한의원
499	우리들조은내과의원
500	우리소아과의원
501	우리신경외과의원
502	우리연합의원
503	우리의원
504	우리이비인후과의원
505	우리정형외과신경외과의원
506	우리정형외과의원
507	우리정형외과의원
508	우리정형외과의원
509	우안과의원
510	우일정형외과의원
511	웅동의원
512	웅이비인후과의원
513	웅천제림의원
514	워킹재활의학과의원
515	원지제일의원
516	위드내과의원
517	유경식정형외과의원
518	유내과의원
519	유소아청소년과의원
520	육내과의원
521	윤경준내과의원
522	윤병구내과의원
523	윤앤김내과의원
524	윤앤김연합의원
525	윤은숙산부인과의원
526	윤의원
527	윤의원

*목록은 가나다순으로 정렬합니다.
*동일 기관명은 서로 다른 지역의 타 의료기관입니다.

No.	의료기관
528	윤인규이비인후과의원
529	윤종즙이비인후과의원
530	윤현실산부인과의원
531	율하김내과의원
532	율하메디칼정형외과의원
533	율하바른내과의원
534	율하바른의원
535	율하별산부인과의원
536	율하봄소아청소년과의원
537	율하서울정형외과의원
538	율하편내과의원
539	은정형외과의원
540	의령정형외과의원
541	이경화산부인과의원
542	이곤희가정의학과의원
543	이길수이비인후과의원
544	이대규내과의원
545	이대원산부인과의원
546	이도윤정신건강의학과의원
547	이두하내과의원
548	이민희내과의원
549	이보람산부인과의원
550	이부경내과의원
551	이산부인과의원
552	이수창내과의원
553	이안과의원
554	이앤조내과의원
555	이영구이비인후과의원
556	이용길안과의원
557	이우홍비뇨기과의원
558	이인걸내과의원
559	이재철피부과의원
560	이정훈내과의원
561	이종인소아청소년과의원
562	이종협내과의원
563	이지소아청소년과의원
564	이현연합의원
565	이홍기가정의학과의원
566	이홍석내과의원
567	인구보건복지협회경남지회 가족보건의원
568	인성의원
569	인제의원
570	일등내과의원
571	임내과의원
572	임병화의원
573	임재영피부과의원
574	임정식내과의원
575	장내과의원
576	장내과의원
577	장덕기내과의원
578	장성호이비인후과의원
579	장유내과의원
580	장유산부인과의원
581	장유으뜸신경외과의원
582	장이비인후과의원
583	장진규소아청소년과의원
584	장진호마취통증의학과의원
585	장편한내과의원

No.	의료기관
586	재홍의원
587	전도성모의원
588	전의원
589	정규덕피부비뇨기과의원
590	정기문내과의원
591	정내과의원
592	정내과의원
593	정내과의원
594	정마취통증의학과의원
595	정비뇨기과의원
596	정비뇨기과의원
597	정산부인과의원
598	정안과의원
599	정영주안과의원
600	정외과의원
601	정용근내과의원
602	정의태내과의원
603	정일성의원
604	정재훈내과의원
605	정정은산부인과의원
606	정직한치과의원
607	정태기내과의원
608	정태호내과의원
609	정해일의원
610	제니트비뇨기과의원
611	제니트비뇨기과의원
612	제니트비뇨기과의원
613	제민의원
614	제생의원
615	제일가정의학과의원
616	제일내과의원
617	제일내과의원
618	제일마취통증의학과의원
619	제일소아과의원
620	제일외과의원
621	제일의원
622	제일의원
623	제일의원
624	제일의원
625	제일의원
626	조내과의원
627	조문흡가정의학과의원
628	조비뇨기과의원
629	조상일정형외과의원
630	조수현의원
631	조은세상의원
632	조은이비인후과의원
633	조의제비뇨기과의원
634	조이비인후과의원
635	조준형내과의원
636	좋은샘내과의원
637	좋은소아청소년과의원
638	좋은아침의원
639	좋은이비인후과의원
640	주영민비뇨기과의원
641	주촌굿모닝의원
642	준비뇨기과의원
643	중앙마취통증의학과의원

No.	의료기관
644	중앙신경외과의원
645	중앙의원
646	중앙의원
647	중앙의원
648	중앙의원
649	중앙이비인후과의원
650	중앙자모산부인과의원
651	중앙자모의원
652	진동삼성내과의원
653	진례의원
654	진성의원
655	진영삼성비뇨기과의원
656	진영삼성안과의원
657	진영서울튼튼마취통증의학과의원
658	진영센텀내과의원
659	진영센텀정형외과
660	진영하니이비인후과의원
661	진해안과의원
662	진해영상의학과의원
663	진해의원
664	진해프라임비뇨기과의원
665	차내과의원
666	차안과의원
667	차충량신경외과의원
668	참나은가정의원
669	참사랑내과의원
670	참사랑소아청소년과의원
671	참사랑연합의원
672	참사랑의원
673	참사랑의원
674	참정형외과의원
675	참제일의원
676	참좋은내과의원
677	참편한내과의원
678	창녕경남의원
679	창녕밝은안과의원
680	창녕원이비인후과의원
681	창녕제일의원
682	창동학문외과의원
683	창서의원
684	창선의원
685	창원글로리안과의원
686	창원다나은마취통증의학과의원
687	창원동산의원
688	창원마취통증의학과의원
689	창원수신경외과의원
690	창원연합내과영상의학과의원
691	창원의원
692	척고은마취통증의학과의원
693	척바른신경외과의원
694	청록의원
695	청솔신경과의원
696	청아여성의원
697	청해의원
698	초록내과의원
699	초이스마취통증의학과의원
700	최내과의원
701	최내과의원

No.	의료기관
702	최봉기내과의원
703	최상호소아청소년과의원
704	최성근이비인후과의원
705	최연극내과의원
706	최이비인후과의원
707	최익수의원
708	최익수정형외과의원
709	최장락내과의원
710	최정미산부인과의원
711	최진화비뇨기과의원
712	최창수외과의원
713	최해종내과의원
714	충무방사선과의원
715	충무제일신경외과의원
716	친절신경외과의원
717	친절한내과의원
718	코끼리마취통증의학과의원
719	코아이비인후과의원
720	코와이비인후과의원
721	쾌통한의원
722	큰나무정형외과의원
723	큰나무정형외과의원
724	큰사랑외과의원
725	큰사랑의원
726	탑비뇨기과의원
727	터직업환경의학과의원
728	통영루가의원
729	통영신경외과의원
730	통영연합의원
731	통영자모산부인과의원
732	통영자모소아청소년과의원
733	통영종로마취통증의학과의원
734	통영튼튼한신경외과의원
735	티아라의원
736	파티마마취통증의학과의원
737	파티마소아과의원
738	파티마이비인후과의원
739	파티마정형외과연합의원
740	팔판이비인후과의원
741	팽봉기정형외과의원
742	편한몸의원
743	평안안과의원
744	평화소아청소년과의원
745	표광민내과의원
746	푸른이비인후과의원
747	푸른이비인후과의원
748	프라임본의원
749	플러스이비인후과의원
750	하나산부인과의원
751	하나의원
752	하나의원
753	하나의원
754	하나이비인후과의원
755	하나정형외과의원
756	하동군민여성의원
757	하동세란의원
758	하동중앙의원
759	하비뇨기과의원

No.	의료기관
760	하사랑신경과의원
761	하얀나라피부과의원
762	하얀메디컬의원
763	하얀세상의원
764	하이맨비뇨기과의원
765	하정산부인과의원
766	하준호내과의원
767	하희근내과의원
768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
769	한려의원
770	한림정내과의원
771	한마음연합의원
772	한마음의원
773	한마음의원
774	한마음의원
775	한마음의원
776	한마음정형외과의원
777	한미메디내과진단방사선과의원
778	한미정형외과의원
779	한미항외과의원
780	한빛내과의원
781	한빛의원
782	한사랑내과의원
783	한사랑외과의원
784	한사랑의원
785	한사랑의원
786	한상현신경과의원
787	한서여성의원
788	한솔내과의원
789	한솔내과의원
790	한솔마취통증의학과의원
791	한솔의원
792	한양신경외과의원
793	한양신통의원
794	한양의원
795	한양정형외과의원
796	한울의원
797	한일의원
798	한일정형외과의원
799	함안곽비뇨기과의원
800	함안성모안과의원
801	함양안과의원
802	함양웰소아청소년과의원
803	함양튼튼정형외과의원
804	합성삼성내과의원
805	합천속편한내과의원
806	합천참정형외과의원
807	합포내과의원
808	합포중앙의원
809	항도외과의원
810	해인의원
811	행복마취통증의학과의원
812	행복플러스내과의원
813	행복한산부인과의원
814	행복한정형외과의원
815	허내과의원
816	허리편한신경외과의원
817	허성희산부인과의원

No.	의료기관
818	허종해비뇨기과의원
819	현대가정의원
820	현대가정의학과의원
821	현대소아청소년과의원
822	현대의원
823	현대의원
824	현대의원
825	현대의원
826	현대의원
827	현대의원
828	현대의원
829	현대정형외과의원
830	현동라온소아청소년과의원
831	혜민의원
832	혜성의원
833	혜승의원
834	혜인산부인과의원
835	홍관식내과의원
836	홍내과의원
837	홍영기정형외과의원
838	홍인의원
839	화이트라인하얀피부과의원
840	화인마취통증의학과의원
841	화인마취통증의학과의원 창원점
842	활기찬마취통증의학과의원
843	활기찬정형외과의원
844	황내과의원
845	황도영의원
846	황의원
847	황재욱정형외과의원
848	황정형외과의원
849	황혜란산부인과의원
850	회산흉부외과의원
851	회성마취통증의학과의원
852	회성의원
853	효도마취통증의학과의원
854	효자손마취통증의학과의원
855	희연의원(호스피스)
856	흰토끼의원

한마음병원 HI(Hospital Identity) 변천사

*한양대학교와 협약 이후, 창원한마음병원은 한양대학교 로고를 기존 재단 로고와 병행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꿈과 사랑이 있는 병원 한마음병원 — 봉곡동 한마음병원

한마음병원 — 상남동 한마음병원

앞선 의술 · 꿈 · 사랑 한마음병원 — 상남동 증축 시 로고

앞선 의술 · 꿈 · 사랑 한마음병원 — 상남동 증축 이후 변경 로고

한마음창원병원 HANMAEUM CHANGWON HOSPITAL — 한양대 협약 후 변경 로고

한양대학교 창원한마음병원 HANYANG UNIVERSITY CHANGWON HANMAEUM HOSPITAL

창원한마음병원 CHANGWON HANMAEUM HOSPITAL

창원중앙역세권
창원한마음병원 로고

의료법인 한마음국제의료재단 HANMAEUM INTERNATIONAL MEDICAL FOUNDATION

한마음의료원 HANMAEUM MEDICAL CENTER

창원한마음병원 CHANGWON HANMAEUM HOSPITAL

상남한마음병원 SANGNAM HANMAEUM HOSPITAL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시립마산요양병원 CHANGWON MUNICIPAL MASAN GERIATRIC HOSPI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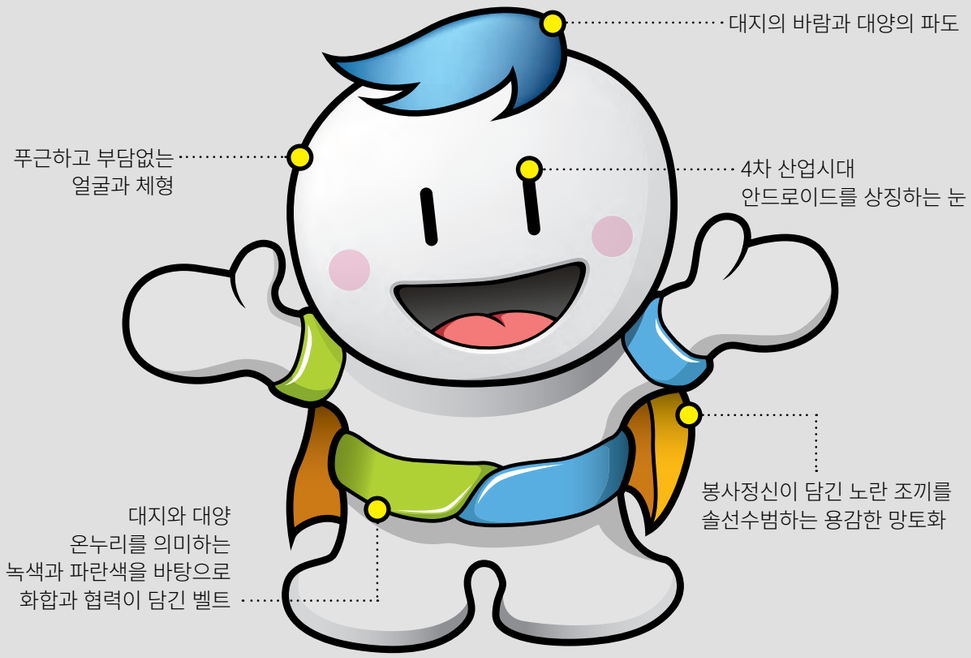
재단 로고

GRAND MERCURE 앰배서더 CHANGWON —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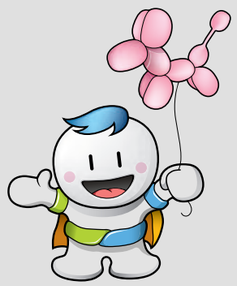
엠블럼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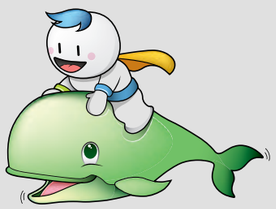
지구의 녹색과 바다의 푸름을 바탕으로 온누리를 다 담는 색감과 한마음의 H를 상징하는 문양에 행복, 봉사, 사랑, 노력, 혁신의 의미가 담긴 네잎클로버가 물 흐르듯 움직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획일화된 직선적 로고의 이미지보다 유동적인 느낌의 H는 한마음이 걸어온 다양한 활동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동시에 바람의 방향에 나부끼는 깃발을 나타내 변화의 바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마음의 정신도 함께 담겨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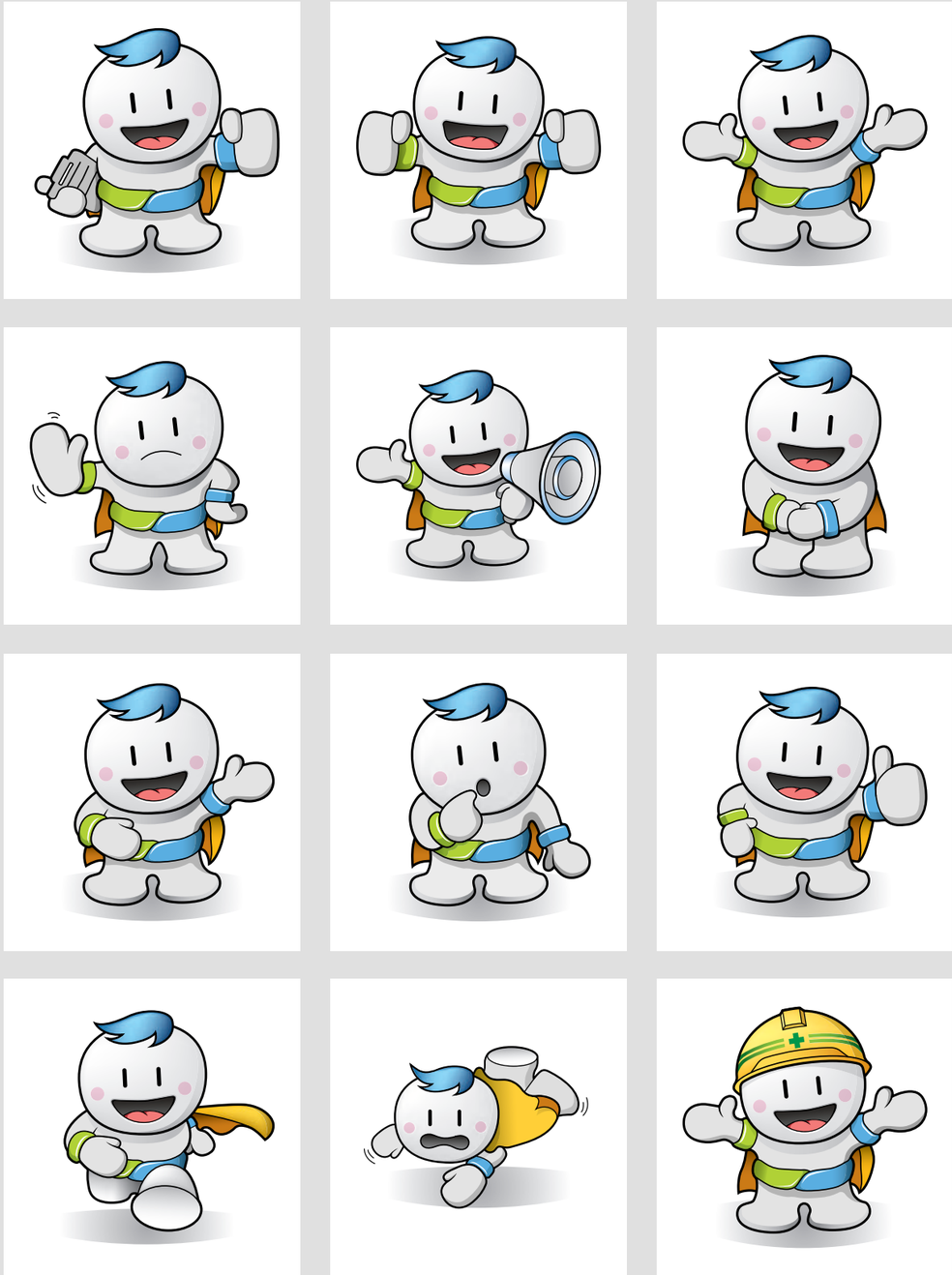
한마음병원 캐릭터 마음이



2020년 6월 새로 태어난 창원한마음병원의 마음이는
병원을 푸근하며 친숙한 이미지로 형상화한 캐릭터입니다.
마음이는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원내 다양한 곳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회공헌 활동내역 요약(~2023년)

국내지원

합계 34,453,238,596 원

해외지원

합계 745,246,500 원

마음으로 보는 세상

합계 51,180 명

희망이 자라는 문화체험

합계 25,100 명

꿈나무체육대회

합계 23,700 명

장학사업

합계 34,044 명

아동시설운영 후원

합계 31,220 명

주요 사회공헌 활동내역(~2023년)

국내지원 현황

순	수혜 구분	지원기간	지원금(단위:원)
1	아동 및 청소년	1994년~2023년	6,326,660,300
2	이재민	1997년~2022년	136,721,000
3	교통사고 범죄피해 가정지원	1998년~2021년	134,210,000
4	노인	1998년~2023년	663,749,400
8	취약계층	1998년~2023년	649,120,446
9	대학생	2002년~2023년	1,620,130,000
7	장애인	2002년~2023년	67,400,000
8	동호회 단체	2004년~2018년	411,896,620
9	학대피해아동	2004년~2023년	66,539,800
10	대학교 등 발전기금	2005년~2023년	23,034,333,830
11	기관지원(적십자 등)	2008년~2023년	978,632,200
12	종교단체	2008년~2023년	321,980,000
13	독립운동단체	2013년~2023년	14,500,000
14	보건의료	2021년~2022년	27,265,000

합계 **34,453,238,596** 원

약 200,000명 수혜

해외지원 현황

순	수혜구분	지원기간	지원금(단위:원)
1	해외취약계층	2003년~2009년	41,000,000
2	이재민	2004년~2023년	89,446,500
3	아동	2005년~2023년	135,000,000
4	난민	2006년~2007년	16,000,000
5	기관	2007년~2023년	463,800,000

합계 **745,246,500** 원

마음으로 보는 세상

년도	주요내용	수혜인원(단위:명)
1998	소년소녀가장 초청등반대회	200
1999	소년소녀가장 초청야유회	200
2000	소년소녀가장 초청야유회	200
2001	소년소녀가장 초청야유회	220
2002	소년소녀가장 초청야유회	220
2003	마산아이사랑 봉사회 나들이	100
	소년소녀가장 초청야유회	200
	취약계층 아동 아동캠프	20
	장애아동 나들이	10
2004	마산아이사랑 봉사회 나들이	100
	소년소녀가장 초청야유회	200
	장애아동 나들이	10
2005	소년소녀가장 초청야유회	200
	장애아동 나들이	100
2006	소년소녀가장 초청야유회	200
	장애아동 나들이	300
2007	마음으로 보는 세상	1,000
2008	마음으로 보는 세상	700
2009	마음으로 보는 세상	1,000
2010	마음으로 보는 세상	1,300
2011	마음으로 보는 세상	1,400
2012	마음으로 보는 세상	1,400
2013	마음으로 보는 세상	1,500
2014	마음으로 보는 세상	1,500
2015	마음으로 보는 세상	1,600
2016	마음으로 보는 세상	1,800
2017	마음으로 보는 세상	1,900
2018	마음으로 보는 세상	1,900
2019	마음으로 보는 세상	2,400
2020	경남아동보육시설 후원 (*코로나19 행사 대체)	5,500
2021	경남아동보육시설 도시락 후원 (*코로나19 행사 대체)	4,700
	경남아동보육시설 마스크 후원(*코로나19 행사 대체)	10,000
2022	마음으로 보는 세상	4,100
2023	마음으로 보는 세상	5,000

합계 **51,180** 명

희망이 자라는 문화체험

년도	주요내용	수혜인원(단위:명)
2005	학대피해아동 초청 문화관람	300
2008	학대피해아동 초청 문화관람	100
2009	희망이 자라는 문화체험	800
2010	희망이 자라는 문화체험	800
2011	희망이 자라는 문화체험	700
2012	희망이 자라는 문화체험	700
2013	희망이 자라는 문화체험	700
2014	희망이 자라는 문화체험	1,100
2015	희망이 자라는 문화체험	1,200
2016	희망이 자라는 문화체험	1,300
2017	희망이 자라는 문화체험	2,000
2018	희망이 자라는 문화체험	1,800
2019	희망이 자라는 문화체험	2,000
2020	희망이 자라는 문화체험	1,800
2022	희망이 자라는 문화체험	2,700
2022	희망이 자라는 문화체험	2,600
2023	희망이 자라는 문화체험	2,000
2023	희망이 자라는 문화체험	2,500

합계 **25,100** 명

꿈나무체육대회

년도	주요내용	수혜인원(단위:명)
2003	시설아동초청 체육대회 개최	250
2004	꿈나무체육대회, 사생대회	500
2005	꿈나무체육대회, 사생대회	250
2006	꿈나무체육대회, 사생대회	300
2007	꿈나무체육대회, 사생대회	700
2008	꿈나무체육대회, 사생대회	900
2009	꿈나무체육대회, 사생대회	900
2010	꿈나무체육대회, 사생대회	1,000
2011	꿈나무체육대회, 사생대회	1,000
2012	꿈나무체육대회, 사생대회	1,100
2013	꿈나무체육대회, 사생대회	1,400
2014	꿈나무체육대회, 사생대회	1,500
2015	꿈나무체육대회, 사생대회	1,600
2016	꿈나무체육대회, 사생대회	1,700
2017	꿈나무체육대회, 사생대회	2,000
2018	꿈나무체육대회, 사생대회	2,000
2019	꿈나무체육대회, 사생대회	2,000
2022	꿈나무체육대회, 사생대회	2,300
2023	꿈나무체육대회, 사생대회	2,300

합계 **23,700** 명

장학사업

년도	주요내용	수혜인원(단위:명)
1996	장학지원	180
1997	장학지원	180
1998	장학지원	541
1999	장학지원	1,190
2000	장학지원	924
2001	장학지원	923
2002	장학지원	1,008
2003	장학지원	1,437
2004	장학지원	541
2005	장학지원	581
2006	장학지원	478
2007	장학지원	821
2008	장학지원	798
2009	장학지원	749
2010	장학지원	1,212
2011	장학지원	1,140
2012	장학지원	2,961
2013	장학지원	2,033
2014	장학지원	1,875
2015	장학지원	2,639
2016	장학지원	4,541
2017	장학지원	2,091
2018	장학지원	2,040
2019	장학지원	565
2020	장학지원	372
2021	장학지원	437
2022	장학지원	470
2023	장학지원	1,319

합계 34,044 명

아동시설운영 후원

년도	주요내용	수혜인원(단위:명)
1995	아동시설후원	30
1996	아동시설후원	30
1997	아동시설후원	360
1998	아동시설후원	70
1999	아동시설후원	90
2000	아동시설후원	90
2001	아동시설후원	120
2002	아동시설후원	450
2003	아동시설후원	420
2004	아동시설후원	420
2005	아동시설후원	1,500
2006	아동시설후원	780
2007	아동시설후원	1,740
2008	아동시설후원	1,740
2009	아동시설후원	1,740
2010	아동시설후원	1,920
2011	아동시설후원	2,580
2012	아동시설후원	3,300
2013	아동시설후원	2,340
2014	아동시설후원	1,500
2015	아동시설후원	1,500
2016	아동시설후원	1,500
2017	아동시설후원	1,500
2018	아동시설후원	2,080
2019	아동시설후원	1,500
2020	아동시설후원	1,380
2021	아동시설후원	180
2022	아동시설후원	180
2023	아동시설후원	180

합계 31,220 명

취약계층 등 후원

년도	주요내용	수혜인원
2004	기아어린이돕기 행사후원	10
2007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후원	10
	경남어린이독서한마당 후원	300
2008	장애인부모회 한마당축제 후원	300
	장애청소년 전통성년식 후원	1
	장애청소년 국토대장정 후원	1
	창원장애학생 수영대회 후원	1
2015	어버이날 사랑나눔 효잔치 행사 개최·후원	500
2016	어버이날 사랑나눔 효잔치 행사 개최·후원	500
2017	어버이날 사랑나눔 효잔치 행사 개최·후원	500
2018	어버이날 사랑나눔 효잔치 행사 개최·후원	500
2019	어버이날 사랑나눔 효잔치 행사 개최·후원	500
2021	창원시 취약계층 월동난방비 후원	667
	코로나19운송업계등일선종사자마스크후원	20,000
	일선종사자 최고급호텔도시락후원	135
	창원보건소 의료진 응원 호텔 도시락 후원	50
2022	창원시 희망푸드마켓 정기후원	3,600
	창원시 취약계층 월동난방비 후원	667
	창원보건소 의료진 응원 호텔 도시락 후원	435
	다문화가족 새터민 우리고장 역사문화 탐방 후원	600
	청소년 회복을 위한 송년의밤 개최·후원	200
2023	취약계층 월동난방비 후원	667
	창원시 희망푸드마켓 정기후원	4,800
	어버이날 사랑나눔 효잔치 행사 개최·후원	500
	청소년 회복을 위한 송년의밤 개최·후원	200

합계 35,644 명

성금모금 및 기관 등 후원

년도	주요내용	지원기관(지원사항)
1997	수재민돕기성금	KBS창원방송총국
1998	수재민돕기성금	KBS창원방송총국
	성인용 기저귀	오순절평화
	위생용품후원	광명촌
	난방유 후원	성로원
	난방유 후원	성심원
1999	수재민돕기성금	KBS창원방송총국
	지체부자유노인정 후원	애광원
	성인용 기저귀	오순절평화
	위생용품후원	광명촌
	난방유 후원	성로원
	난방유 후원	성심원
2000	지체부자유노인정 후원	애광원
	성인용 기저귀	오순절평화
	위생용품후원	광명촌
	무료급식소 후원	무료급식소
	난방유 후원	성로원
	난방유 후원	성심원
2001	불우이웃돕기성금	KBS창원방송총국
	가뭄 극복을 위한 성금후원	KBS창원방송총국
	지체부자유노인정 후원	애광원
	성인용 기저귀	오순절평화
	위생용품후원	광명촌
	무료급식소 후원	무료급식소
	난방유 후원	성로원
	난방유 후원	성심원
	해군사관학교 원영도생도 백혈병치료비	의료비후원
2002	지체부자유노인정 후원	애광원
	성인용 기저귀	오순절평화
	위생용품후원	광명촌
	무료급식소 후원	무료급식소
	난방유 후원	성로원
	난방유 후원	성심원
	불우 출소자 정착금 후원	한국갱생보호공단
2003	MBC 수재민 돕기	MBC경남
	무의탁 노인 40명 생활비 후원	농어촌노인
	노인위안잔치 후원	상남부녀회
	성인용 기저귀	오순절평화
	위생용품후원	광명촌
	난방유 후원	성로원
	난방유 후원	성심원

2003	장애인합동결혼식	장애인단체
2004	무의탁 노인 40명 생활비 후원	농어촌노인
	노인위안잔치 후원	상남부녀회
	성인용 기저귀	오순절평화
	위생용품후원	광명촌
	난방유 후원	성로원
	난방유 후원	성심원
	홍익재활원 김성미구족화가 생활비 후원	홍익재활원
	장애인합동결혼식 후원	장애인단체
	한마음병원배 야구대회 후원	야구대회
2005	대학 발전기금	조선대학교
	무의탁 노인 생활비 후원	농어촌노인
	노인위안잔치 후원	상남부녀회
	성인용 기저귀	오순절평화
	위생용품후원	광명촌
	난방유 후원	성로원
	난방유 후원	성심원
	홍익재활원 김성미구족화가 생활비 후원	홍익재활원
	장애인단체 후원	장애인단체
	배드민턴대회 후원	배드민턴대회
	배드민턴대회 후원	배드민턴대회
	한마음병원배 야구대회 후원	야구대회
	한마음병원배 야구대회 후원	야구대회
2006	수재민돕기성금	KBS창원방송총국
	창원시 미화원 초청 행사	창원미화원
	무의탁 노인 생활비 후원	농어촌노인
	홍익재활원 김성미구족화가 생활비 후원	홍익재활원
	경남경찰청 범죄피해 활동 후원금	경남경찰청
	저소득층 건보료 후원	경남모금회
	위생용품후원	광명촌
	난방유 후원	성로원
	난방유 후원	성심원
	위문행사 후원	진해재활원
	장애인단체 후원	장애인단체
	불우외국인근로자 의료비 후원	의료비후원
	장애아동의안수술비 후원	의료비후원
	의료봉사및 농촌봉사 후원	1사1촌
	어버이날 노인위안잔치 후원	노인후원
	배드민턴대회 후원	배드민턴대회
	한마음병원배 야구대회 후원	야구대회
	발전기금 지원	조선대학교

2007	발전기금 지원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지원	조선대학교
	불우노인 및 학생 돕기 행사 후원	한마음나눔회
	홍익재활원 김성미구족화가 생활비 후원	홍익재활원
	장애인단체 후원	장애인단체
	불우외국인근로자 의료비 후원	의료비후원
	어버이날 행사 후원	인근경로당
	배드민턴대회 후원	배드민턴대회
	한마음병원배 야구대회 후원	야구대회
2008	네손가락피아니스트 이희아 연주회 후원	창원ywca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행사 후원	고엽제전우회
	적십자회비 모금	적십자
	발전기금 지원	국제대학교
	발전기금 지원	조선대학교
	사랑샘공동체운영비 마련 일일찻집 후원	사랑샘공동체
	아름다운토요일 행사 후원	아름다운재단
	부활절 후원	창원시기독교연합회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신문' 발간 후원	꽃들에게희망을
	한마음병원배 야구대회 후원	야구대회
2009	한마음병원배 야구대회 후원	야구대회
	적십자회비 모금	적십자
	발전기금 지원	국제대학교
	발전기금 지원	조선대학교
	장애인단체 행사 후원	장애인단체
	부활절 및 특별기도성회 후원금	기독교연합회
	저소득층 사랑의 쌀 후원	창원기독교연합회
	부처님오신날 후원	창원지역사찰
	배드민턴대회 후원	배드민턴대회
	청소년 미술실기대회 후원	경남교육청
2010	청소년 미술실기대회 후원	경남교육청
	아동학대폭력추방 결의대회 후원	경남교육청
	유아폭력예방인현극 제작 후원	지혜로운여성
	한마음병원배 야구대회 후원	야구대회
	경남선교 120주년 건립후원	성시화운동본부경남
	적십자회비 모금	적십자
	한국청소년육성연맹 후원	청소년연맹경남
	발전기금 지원	국제대학교
	발전기금 지원	조선대학교
	자활협회 후원금	경남자활협회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후원	자비사
	사랑의 김장나눔	팔용송림회

2010	장애인단체 행사 후원	장애인단체
	저소득층 사랑의 쌀 후원	창원기독교연합회
	마산교구 신축기금 후원	천주교마산교구
	배드민턴대회 후원	배드민턴대회
2011	한마음병원배 야구대회 후원	야구대회
	발전기금 지원	국제대학교
	발전기금 지원	조선대학교
	대학 발전기금	한양대학교
	발전기금 지원	함양초등학교
	독거노인 도시락 후원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자활협회 후원금	경남자활협회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후원	마야청소년쉼터
	영보작업장 후원	영보작업장
	사랑의 김장나눔	팔용송림회
	자살예방협회 후원	한국자살예방협회
	장애인단체 행사 후원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바자회 후원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기독교연합회및부처님오신날 행사 후원	종교단체 후원
	게이트볼대회 후원	게이트볼대회
	배드민턴대회 후원	배드민턴대회
	족구대회 후원	족구대회
2012	지역아동센터 연합발표회 후원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적십자회비 모금	적십자
	발전기금 지원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지원	국제대학교
	발전기금 지원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지원	한양대학교
	독거노인 도시락 후원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후원	마야청소년쉼터
	장애인단체 행사 후원	장애인단체
	마산교구천주교 퇴원감면 후원	의료비후원
	기독교연합회 및 부처님오신날 행사 후원	종교단체 후원
	다문화저소득가정 합동결혼식 후원	창원YWCA
	게이트볼대회 후원	게이트볼대회
	배드민턴대회 후원	배드민턴대회
	족구대회 후원	족구대회
2013	고엽제 전우회 후원금	대한고엽제전우회
	적십자회비 모금	적십자
	임시정부기념사업회 후원	임시정부기념사업회
	발전기금 지원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지원	국제대학교

2013	발전기금 지원	조선대학교
	대학 발전기금	한양대학교
	독거노인 도시락 후원	성산종합사회복지관
	탈북자 음악회 후원	경남성시화운동본부
	여성의전화 행사 후원	창원여성의집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후원	마야청소년쉼터
	취약계층세대 김장후원	창원YWCA
	장애인단체 행사 후원	장애인단체
	종교단체 행사 후원	종교단체 후원
	배드민턴대회 후원	배드민턴대회
	야구대회 후원	야구대회
	족구대회 후원	족구대회
2014	세월호 성금 모금	희망브리지
	발전기금 지원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지원	조선대학교
	대학 발전기금	한양대학교
	사랑의연탄나눔	독거노인
	독거노인 도시락 후원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김장후원	구랍주유소
	불우이웃 내의나눔 및 김장나눔 후원	창원YWCA
	장애인단체 행사 후원	장애인단체
	종교 해사 후원금	창원시기독교연합회
	배드민턴대회 후원	배드민턴대회
2015	적십자 회비 모금	적십자
	발전기금 지원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지원	조선대학교
	대학 발전기금	한양대학교
	발전기금 지원	함양초등학교
	사랑의연탄나눔	독거노인
	독거노인 도시락 후원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청년희망펀드 후원	청년희망펀드
	소외계층 쌀 후원	사랑의징검다리
	자비사 바자회 후원금	자비사
	불우이웃 내의나눔 및 김장나눔 후원	창원YWCA
	장애인단체 행사 후원	장애인단체
	재능기부단체 후원금	나눔을누리는세상
	종교 해사 후원금	종교단체 후원
	배드민턴대회 후원	배드민턴대회
2016	김해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후원	김해아동보호전문기관
	적십자 회비 모금	적십자
	재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기부금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2016	발전기금 지원	조선대학교
	독거노인 도시락 후원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자비사 바자회 후원금	자비사
	장애인단체 행사 후원	장애인단체
	재능기부단체 후원금	나눔을누리는세상
	1만원의 기적 모금 후원	의료비 후원
	종교단체 후원	종교단체 후원
	지역사찰 부처님오신날 후원금	지역사찰
	창원불교연합회 연등제 후원	창원불교연합회
	배드민턴대회 후원	배드민턴대회
2017	적십자 회비 모금	적십자
	발전기금 지원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지원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지원	한양대학교
	취약계층 세대 사랑의연탄나눔 후원	독거노인
	독거노인 도시락 후원	성산종합사회복지관
	탈북자위한 음악회 후원	경남성시화운동본부
	사랑의 김장나눔 후원	MBC경남 사랑의 김장나눔
	시설행사 후원	천사의집
	장애인단체 행사 후원	장애인단체
	재능기부단체 후원금	나눔을누리는세상
	특별성회 장학금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지역사찰 후원	지역사찰
	청소년을 위한 연극 공연비 후원	천주교마산교구
2018	요양병원 기부금	시립마산요양병원
	적십자 회비 모금	적십자
	발전기금 지원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지원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지원	한양대학교
	사랑의연탄나눔	독거노인
	독거노인 도시락 후원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자비사 무료급식소	자비사
	사랑의 김장나눔	MBC경남 사랑의 김장나눔
	신장장애인협회후원	신장장애인협회
	행사 후원	장애인단체
	재능기부단체 후원금	나눔을누리는세상
	희귀난치 치료비 모금액 후원	의료비후원
	지역사찰 후원	지역사찰
	경남게이트볼 대회 후원	게이트볼대회
2019	발전기금 지원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지원	조선대학교

2019	발전기금 지원	창원대학교
	발전기금 지원	한양대학교
	사랑의연탄나눔	독거노인
	독거노인 도시락 후원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의 김장나눔	MBC경남 사랑의 김장나눔
	자비사 무료급식소	자비사
	신장장애인협회후원	신장장애인협회
	장애인단체 행사 후원	장애인단체
	재능기부단체 후원금	나눔을누리는세상
	종교단체 행사 후원	종교단체 후원
	경남기독문화원	지역사회 메세나 후원금
	학회후원	서울대학교
2020	코로나19 방역물품 후원금	경상남도·창원시
	수재민 구호물품 후원	하동군
	발전기금 지원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지원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지원	한양대학교
	사랑의연탄나눔	독거노인
	독거노인 도시락 후원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의 김장나눔	MBC경남 사랑의 김장나눔
	자비사 무료급식소	자비사
	신장장애인협회후원	신장장애인협회
	장애인단체 행사 후원	장애인단체
	재능기부단체 후원금	나눔을누리는세상
	지역사찰 후원금	사찰후원금
	병리학술상 후원	대한병리학회
2021	독립운동 단체 후원	몽양여운형선생기념
	독립운동단체후원	조선민족대동단기념회
	발전기금 지원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지원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지원	부산대학교
	발전기금 지원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지원	포항공과대학교
	발전기금 지원	한양대학교
	발전기금 지원	한양대학교
	장학재단 후원	조대의대동창회장학재단
	장학재단 후원(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후원)	조대의대동창회장학재단
	사회복지기관 도서 후원(현물)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사랑의 김장나눔	MBC경남 사랑의 김장나눔
	독거노인 도시락 후원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사랑의연탄나눔	함양군청

2021	자비사 무료급식소	자비사
	취약계층 쌀 200포대 후원	적십자사
	장애인단체 행사 후원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단체 행사 후원	농아인협회 창원지부
	신장장애인협회후원	신장장애인협회
	장애인단체 행사 후원	신장장애인협회 창원지부
	장애인 후원	장애인 후원
	재능기부단체 후원금	나눔을누리는세상
	종교단체 행사 후원	7개 사찰후원금
	종교단체 행사 후원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종교단체 행사 후원	창원시불교연합회
	비영리단체 후원	한국불교 BTN
	의학 발전 학술상 후원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학 발전 학술상 후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의학 발전 학술상 후원	대한응급의학회
	의학 발전 학술상 후원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 제1회 정기연주회 후원	희망이룸
2022	포항시수재민후원	포항시
	코로나19 일선종사자 운송업자 마스크 후원	운송업 종사자
	아르떼 문신 조각가 후원	아르떼 문신
	예술단체 매칭펀드 후원	진해문화센터
	22회창원통일마라톤대회후원	창원통일마라톤조직위원회
	독립운동단체후원	조선민족대동단기념회
	발전기금 지원	부산대학교
	발전기금 지원	부산대학교
	발전기금 지원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발전기금 지원	포항공과대학교
	노인 취약계층 수술비 후원	노인의료나눔재단
	독거노인 도시락 후원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의연탄나눔	함양군청(취약계층독거노인세대)
	이주민센터 기관후원	경남이주민센터
	한마음봉사단 송년회	한마음봉사단
	반지동 무료급식소 후원	반지동무료급식소
	취약계층_백신후유증	양덕1동 주민센터
	자비사 무료급식소	자비사
	장애인의날행사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신장장애인협회후원	신장장애인협회
	장애인 후원	장애인 후원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후원 건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
	재능기부단체 후원금	나눔을누리는세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정기후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2022	의료비 취약계층 감면 후원	창원한마음병원
	경남 선교의 날 감사예배 후원	(사)경남성시화운동본부
	경남기독교총연합회8.15특별성회후원 건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코리아합창제 후원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비영리단체 후원	실상사 백장암
	창원시기독교연합회 6.25 구국기도성회 후원	창원시기독교연합회
	창원시불교연합회 봉축음악회	창원시불교연합회
	성탄트리 점등 후원	창원특별시기독교연합회
	비영리단체 후원	칠성사
	부활절 광고 협찬 의뢰	크리스천경남
	비영리단체 후원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의학 발전 학술상 후원	대한고압산소의학회
	의학 발전 학술상 후원	대한산부인과학회
	의학 발전 학술상 후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건립기금 후원	대한신경외과
	의학 발전 학술상 후원	대한응급의학회
	의학 발전 학술상 후원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힐링한마음콘서트	노인의료나눔재단
	지역 소외계층 김장나눔 후원	사회복지관련기관기관 단체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후원	희망이룸
2023	쇼콰이어그룹 하모나이즈 초청 공연	경남기독문화원 후원 메세나
	한마음로봇랜드 놀이동산체험 후원	한마음가족
	건립기금 후원	대한신경외과학회
	경남기독문화원특별이사회비	경남기독문화원
	조선대학교의과대학발전기금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경상대학교 kbs 열린음악회 행사 후원	경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리모델링기금 후원	부산대학교
	발전기금 지원	한양대학교
	발전기금 지원	부산대학교
	역사관 건립기금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청소년 회복을 위한 만사소년 행사 후원	청소년회복센터
	이주민센터 기관후원	경남이주민센터
	해군교육사령부 자선바자회 후원	해군교육사령부
	환자 생계비 후원	취약계층환자
	자비사 무료급식소	자비사
	신장장애인협회후원	신장장애인협회
	장애인의날행사후원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재능기부단체 후원금	나눔을누리는세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정기후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독립운동단체후원	조선민족대동단기념회
	비영리단체 후원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2023	시민봉축음악회 후원	창원시불교연합회
	지역사찰후원금	지역 내 사찰
	6.25 구국기도성회 후원	창원시기독교총연합회
	경남기독교 뿌리 찾기 백서 발간 후원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제12회 코리아합창제 후원 건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성탄트리점등식 후원 건	창원기독교총연합회
	대한췌장담도학회 운영비 후원	대한췌장담도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건립기금 후원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학술상 후원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 학술상 후원	대한소아청소년과 학회
	대한응급의학회 학술상후원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상 후원	대한산부인과학회
	지역소외계층 김장나눔 후원	무료급식소 등 취약계층 세대

합계 382 건

해외 후원

년도	주요내용	지원구분
2003	이라크 해외후원	해외(이라크)
2004	룡천역 폭발사고 후원	해외(북한)
2005	동남아지진피해돕기	해외(동남아)
	북한어린이 돕기성금	해외(북한)
2006	연해주고려인가정정착후원금	해외(고려인)
	아프카니스탄 난민가정 후원	해외(아프가니스탄)
2007	유니세프아동구호 후원	해외(유니세프아동구호)
	아프카니스탄 난민가정 후원	해외(아프가니스탄)
	평양소학교건립비 후원	해외(북한)
	늘푸른금수강산 북한나무보내기	해외(북한)
	통일농업협력회 후원	해외(북한)
2008	미얀마 방글라데시 불우학생 후원	해외(미얀마)
	방글라데시 불우학생 후원	해외(방글라데시)
	유니세프아동구호 후원	해외(유니세프아동구호)
2009	유니세프아동구호 후원	해외(유니세프아동구호)
	평양제1인민병원 보수 및 어린이 의약품 후원	해외(북한)
2010	아이티 지진피해	해외(아이티)
	유니세프 아동구호 후원금	해외(유니세프)
2011	수해이주민 긴급구호 후원	해외(라오스)
	일본지진피해 성금	해외(일본)
	해외난민 및 봉사자 후원	해외(해외난민)
	유니세프 아동구호 후원금	해외(유니세프)
2012	수단 어린이 후원	해외(수단)
	유니세프 아동구호 후원금	해외(유니세프)
2013	필리핀 태풍피해 후원금	해외(필리핀)
2014	아프리카 결핵예방역량강화	해외(아프리카)
2015	네팔 지진피해구호기금	해외(네팔)
	아프리카 결핵예방역량강화	해외(아프리카)
2016	미얀마 식수후원 사업	해외(미얀마)
2016	아프리카 결핵예방역량강화	해외(아프리카)
2017	아프리카 결핵예방역량강화	해외(아프리카)
2018	아프리카 결핵예방역량강화	해외(아프리카)
2019	말레이시아 난민학교	해외(말레이시아)
	북한동포식량생산공장건립	해외(북한)
	아프리카 결핵예방역량강화	해외(아프리카)
	한국찌아찌아문화교류협회	해외(인도네시아)
2020	말레이시아 난민학교	해외(말레이시아)
	모로코 결핵사업	해외(모로코)
	모로코 결핵사업	해외(모로코)
	한국찌아찌아문화교류협회	해외(인도네시아)
2021	말레이시아 난민학교 후원	해외(말레이시아)
	모로코 결핵사업	해외(모로코)
2022	해외 뇌성마비 아동시설 후원	해외(엘살바도르)
	말레이시아 난민학교 후원	해외(말레이시아)
	모로코 결핵사업	해외(모로코)
2023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성금후원	해외(튀르키예)
	해외 뇌성마비 아동 시설 후원(3차)	해외(엘살바도르)
	말레이시아 난민학교 후원	해외(말레이시아)
	모로코 결핵사업	해외(모로코)

연표

연도	월	내용
1994	03	하충식 설립자 창원고려병원 내 산부인과 의원 개설
1995	01	창원고려병원 인수, 한마음병원으로 개원(25실 79병상), 초대 병원장 하충식 설립자 취임
	03	최경화 설립자 소아과 진료 시작
	06	종합검진센터 개설 및 병상 증설(32실 126병상)
1996	08	한마음나눔회 발족 - 소년소녀가장 생활비 및 장학금 지원
	11	산부인과, 소아과 휴일진료 및 평일예약진료 실시
1997	07	병상 증설(41실 147병상)
	09	나라사랑회 창단 - 병원주변 화단, 상가거리 환경정화활동
1998	03	병원 주변 초·중학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실시
	05	마산 천주교구 한울타리회 공동 지원으로 고아원 지원사업 개시
	09	문성고등학교, 명지여자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1999	12	사회복지법인 '동하' 설립, 초대 이사장 하충식 취임
2000	03	내과 야간 및 주말 진료 실시
	09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신축병원 기공
2001	02	홈페이지 서비스 실시
	04	4차원 입체 초음파 장비 도입 운용
	06	제1회 소년소녀가장, 시설아동 초청 '마음으로 보는 세상' 최초 실시(약 120명,~ 현재)
	09	경상남도 최초 처방전달시스템(OCS) 구축 가동
	12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이전 개원(지하 2층, 지상 9층, 257병상 규모)
2002	03	병리과 개설
	04	종합병원 승격
	09	경상남도 최초 영상전달시스템(PACS) 구축 가동
2003	02	MRI 도입 가동
		제1회 한마음병원배 야구대회 실시
	12	분만 10,000례 달성
2004	03	개원 10주년(개원일 1994년 3월 기준)
	07	간호등급 4등급 달성
	10	제1회 경남지역 시설아동 초청 '경남꿈나무축구대회' 개최(현. 꿈나무체육대회)
2005	03	전국 종합병원 자연분만율 2위 선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
	06	서울아산병원 협력병원 협약
	08	소화기센터 확장 개소
	09	보건복지부 수련병원 지정(인턴)
	10	정신건강의학과 개설
	11	제1회 장기근속직원 해외연수 실시(~현재)
	12	제1회 한마음병원배 배드민턴대회 개최(~현재)
2006	03	제1회 한마음 QI경진대회 개최(~현재)
	04	경상남도 최초 간호등급 3등급 달성
	07	의료법인 동하의료재단 설립, 사회복지법인에서 의료법인으로 전환 운영
	11	전자의무기록(EMR) 구축 가동
	12	제1회 창원시 환경미화원 초청 '새벽을 여는 사람들' 간담회 실시(~현재)
2007	04	2006년도 우수의료기관 선정(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
	12	제1회 장기근속직원 부모님 해외연수 실시(~현재)
2008	02	동일 부지 내 신관 증축 기공식
	03	진단검사의학과 개설
2008	08	제1회 시설아동 초청 여름방학 '희망이 자라는 문화체험' 실시 (~ 현재)
2009	03	신경과 개설
	04	이비인후과 개설
	06	신관 완공, 128채널 CT, 1.5T MRI, ANGIO(심뇌혈관조영중재장비) 도입
	08	심혈관센터 개소, 수술실·중환자실 확장 개소
		신관 증축 개원 기념식
	09	경상남도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지정
2010	01	국내 첫 난소암 환자 출산(현. 신병섭 여성병원장)
	03	경남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07	한마음병원 및 2차병원 복강경수술연구회 합동 심포지엄 & Live Surgery
	09	나라사랑회 직장인동호회 최장자원봉사 한국신기록인증(한국기록원)
	12	한양대학교의료원 교육수련병원 협약 체결
2011	03	수련병원 등급상향 지정(인턴, 레지던트)
	04	제1기 주부대학 강의(~현재)
	08	소속 전문의, 한양대학교의료원 임상교수 최초 임용(10명)
2012	01	경상남도 종합병원 중 최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평가 1주기 인증 획득
		고용창출 100대 기업 선정(청와대)
	03	분만 20,000례 달성
2013	03	제2대 윤영국 병원장 취임
	06	건강검진센터 확장 개소
2014	02	진료예약센터 개소
		신장내과 개설 및 인공신장센터 개소
	03	개원 20주년
	07	탄자니아 다레살람주지사단 우수의료기관답사 방문
		짐바브웨 중앙 마쇼날랜드 주지사단 우수의료기관답사 방문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심혈관중재시술 인증 획득
	11	미국 UCSF 의과대학 교수 방문 및 순환기내과 김민웅 교수 심혈관중재시술 참관
	12	제1회 독거노인 '38,000장의 사랑' 연탄 후원 실시(~현재)
2015	01	진단검사의학과, 물리치료실 확장 개소
	03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개설
		제3대 박성수 병원장 취임
		허가병상 변경(110실 393병상)
	04	풀만호텔 인수(현.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05	흉부외과 개설
		제1회 독거노인 사랑나눔 효잔치 개최(~현재)
	06	메르스 국민안심병원 지정
	09	한양대학교 임상진료·교육·연구분야 200억 원 규모 협약 체결, 전임교수 임용
		아프리카 짐바브웨 해외의료봉사활동 실시
	12	직업환경의학과 개설
2016	03	한양대학교 한마음병원 출범 선포
	06	창원한마음병원 신축 부지 설명회 개최
	08	법인 명칭 변경(한마음국제의료재단)
	09	최경화 설립자, 한마음의료원 초대 의료원장 취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평가 2주기 인증 획득
2016	09	창원시 의창구 용동 신축병원 기공식 동일장소 최다동시시삽(2016명) 한국신기록 획득
2017	0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86병상)
	04	국내 첫 중증빈혈환자 무수혈 대장암 수술 성공(현. 차성재 암병원장)
	10	카자흐스탄 대통령병원 공식초청 카자흐스탄 최초 내시경적 갑상선 절제술 성공 및 수술 기법 전수
	12	진료협력센터(HRC, HANMAEUM REFERRAL CENTER) 개설
2018	01	한마음병원 개원 이래 최초 정형외과 줄기세포 관절수술 성공
	03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부문 2018 대한민국 공감경영대상 수상
		산업통상자원부 의료서비스부문 2018 대한민국 공감경영대상 수상
	05	보건복지부-한마음병원 환자안전&감염관리 주간행사 개최
	10	창원중앙역세권 신축병원 터파기 공사 개시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시립마산요양병원 위·수탁 운영
2019	05	경남지방경찰청 마음동행센터 설치 협약 체결
	0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의뢰회송시범기관 선정
	07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사업착수 체결(HAMIS)
	08	경남지방경찰청 마음동행센터 개소
	11	보건복지부 감염병예방관리 표창장 수여
	12	경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내 한마음병원관 개소
2020	01	경상남도 내 종합병원 중 최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비 선별진료소 가동
		분만 30,000례 달성
	02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 정식 가동(HAMIS 1.0)
	04	음압격리실 5개 설치 가동 및 선별진료소 확장 운영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지정
		신축 창원한마음병원 개원추진단 발족, 신축병원 정식명칭 창원한마음병원으로 명명
	05	난임시술 의료기관평가 1등급 달성
	06	신축 창원한마음병원 상량식
	09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평가 3주기 인증 획득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출신 김영훈 박사 초빙 및 법인 경영원장 취임
	12	질병관리본부 선별진료소-호흡기전담클리닉 전환 운영
2021	03	신축 창원한마음병원 이전 개원
		제4대 박인성 병원장 취임
	04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 창단
		창원한마음병원 신축 준공식
	05	고압산소치료실 개소식
	07	개원 기념 뇌혈관외과학회 심포지엄 개최
	09	코로나19 하이브리드스루 운영
	11	포항공과대학교 발전기금 100억 원 약정
	12	제9회 창원시 건축대상제 대상 '창원한마음병원' 선정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 첫 정기연주회 개최
2022	01	부산대학교 발전기금 100억 원 약정
		여성의학센터 단일 로봇수술 100례 달성
	02	신축 이전 개원 분만 1,000건 달성
	04	광역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지정(경상남도)
	05	상남한마음병원 개원추진단 TF팀 구성
	08	간·담도·췌장센터 김명환 교수 진료 시작
2022	09	여성의학센터 다빈치 로봇수술 200례 달성
		장애인고용 신뢰기업 은상 수상(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공단)
	11	2022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도내 최초 난치성췌관 결석 제거 성공
	12	한마음교회 설립
2023	01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A등급(경상남도 내 1위, 전국 8위)
		장기이식센터 개소
	02	여성의학센터 로봇수술 300례 달성
		병원 첫 생체 간이식 성공(주종우, 김건국 간이식팀)
		혈관중재술 1만례 달성
	03	경남 최초 대한췌장담도학술집담회 개최
		학교법인 강인학원 창립총회 개최
	04	제2차 난임시술 의료기관평가 1등급 획득
	06	혈액혈 불일치 생체 간이식 성공
	08	ESG 경영 전사적 선포
	10	췌장·담도내시경시술(ERCP) 1,000례 달성
		국제 구로 고난도 관상동맥 및 말초혈관 동맥 중재술 시연회 (CCI 2023) 개최
	11	시립마산요양병원(수탁경영) 보건복지부 '치매환자지원 프로그램' 부문 성과평가 전국 1위(2018~2022, 5년 연속)
	12	경상남도 최초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 도입
		뇌사자 간이식 성공
2024	01	6대병원 운영(뇌·심장·암·여성·중증외상·척추관절)
		응급의료기관평가 A등급(경상남도 내 1위, 전국 11위)
	03	개원 30주년
		한마음의료원 체제 운영(창원한마음병원, 상남한마음병원)
		상남한마음병원 개원(262병상 규모)
		하충식 의장,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초대 의장 취임
		최경화 이사장,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제2대 이사장 취임
		하창훈 의료원장, 한마음의료원 제2대 의료원장 취임
		소화기내과 김명환 교수 창원한마음병원 제5대 병원장 취임
		전 창원한마음병원 박인성 병원장, 상남한마음병원 제1대 병원장 취임
		개원 30주년 기념 존스홉킨스병원 교수진 합동 췌장질환 세미나 개최
	04	한마음의료원 미래혁신팀 제1기 수료식
	05	한마음MBA아카데미 제4기 수료식
	07	인도네시아 아담말릭국립병원에 진행성 간암 및 간 전이암 수술 의료기술 전수
	08	'제10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평가 4주기 인증 획득
	09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보건복지부)

Epilogue

한마음의 사회공헌, 그 뒷이야기들

01 장학사업 및 기부

2012
07.06

사랑의 맞춤나눔
물품기탁

2013
01.15

교복지원금
기탁

2013
04.10

진주고
장학금 수여식

2014
04.25

진주고
장학금 수여식

2015
02.13

문성고
장학금 전달식

2015
04.08

진주고
장학금 수여식

2015
08.25

하충식 창원한마음병원 이사장, 모교 조선대에 발전기금 3억 원 기탁

하충식 이사장(의과대학 13회)은 장학기금 3억원을 약정해 지난 2002년부터 부친의 아호를 딴 위옹장학회에서 매년 의과계열 학생 2명, 일반 학생 2명 등 총 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로스쿨 장학기금 7200만 원 기부, 내성세포연구센터 발전기금 7000만 원 기부, 조선대병원 2억 원 기부 등 모교 사랑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하충식 이사장은 “호텔 인수에 1100억 원, 병원 신축에 2500억 원이 소요돼 돈 들어갈 일이 많지만 모교가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 의학교육을 선도하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명문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작으나마 힘을 보탠 것”이라며 “경남 출신으로 호남에서 대학을 나온 만큼 영호남의 화합에 디딤돌이 되고 싶고,경남지역에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꿈을 이뤄 지방대학을 나와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다짐했다.

조선대
발전기금 기탁식

01 장학사업 및 기부

2015
11.25

함양군
장학금 기탁식

2016
01.21

경상남도교육청
교복지원금 기탁식

2017
01.18

창원시
배드민턴협회
장학사업

2018
02.04

부산진여고
장학금 기탁식

경남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호텔 대표 모교에 거액 장학금 기탁

경남 창원시 소재 특1급호텔인 풀만 앰배서더창원호텔(현.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최경화 대표이사가 최근 자신의 모교인 부산진여고, 가야여중, 연지초등학교에 후학양성을 위한 거액의 장학금을 기탁해 화제다. 최 대표는 이에 앞서 모교인 부산대에 2억5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한 데 이어 이번에 부산진여고에 1억 원, 가야여중 2000만 원을, 연지초 1200만 원을 더해 총 3억82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최 대표이사의 초·중·고 장학금 수혜 학생들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외에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생계를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선정하는 것도 약정조건에 포함됐다. 최 대표는 "성품이 올바르고 착한 학생들이 생계를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많다"라며 "어른들이 나눔의 마음으로 이런 아이들이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게 이끌어줘야 해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출처:뉴시스)

2018
02.07

후학양성
장학금 기탁식

2020
07.22

아동양육시설
후원금 전달식

2020
11.03

창원대
장학금 전달식

01 장학사업 및 기부

2020 11.06

경상대
장학금 전달식

2020 11.23

경남대
장학금 전달식

2022 01.12

창원한마음병원, 부산대 발전기금 100억 원 '통 큰 기부'

경남 의료계를 선도해 온 창원한마음병원이 국가균형 발전을 이끌며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국가거점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에 발전기금 총 100억 원을 기탁기로 했다. 이는 부산대 출신 동문 기부금 중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이다.

하충식 창원한마음병원 이사장은 이날 발전기금 기부 약정식에서 "대학에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것 역시 우리 원훈 가운데 하나인 '더불어 사는 따뜻한 마음'의 실현"이라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의술로 나라에 보답한다'라는 인술보국(仁術報國)의 철학을 실천코자 한다"라며 인류문제해결을 위한 부산대의 국제공동연구기금으로 사용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최경화 의료원장은 "사회를 이끌어 나갈 후배들이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대학에서 훌륭한 인재로 육성해 주신다면 양 기관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대
발전기금 약정식

2022 10.31

최경화홀 개관식

2023 01.04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2024 03.20

진해고
장학금 전달식

2024 08.12

8.15특별성회
故이수임 권사의
개척교회 후원금

02 마음으로 보는 세상

2004
05.26

2005
05.15

2006
05.14

2007
06.06

2008
05.12

2009
05.02

2010
05.21

2011
05.14

02 마음으로 보는 세상

2012
05.28

2013
05.17

2014
05.10

2015
05.23

2016
05.14

2017
05.03

2018
05.22

2019
05.11

02 마음으로 보는 세상

2022
05.14

2023
05.27

2024
05.18

03 꿈나무체육대회

2007
10.26

2008
10.25

2009
10.10

2010
10.23

2011
10.22

2012
10.13

2013
10.15

2014
10.18

03 꿈나무체육대회

2015
10.24

2016
10.15

2017
10.14

2018
10.13

2019
10.13

2022
10.08

2023
10.21

04 희망이 자라는 문화체험

2008
08.26

2009
08.12

2010
01.14

2011
11.14

2012
08.17

2013
01.24

2014
08.13

2015
01.14

04 희망이 자라는 문화체험

2016
08.17

2020
01.06
~
01.07

2017
08.08

2022
01.13

2018
01.16

2023
01.13

2019
01.08

2024
01.13

05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

2021
07.01

오케스트라
창단

2021
07.01

제1회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22
05.18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
야외음악회

2022
07.06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
창단 1주년
기념 연주회

2022
07.06

제2회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2022
09.28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
경찰청 공연

2023
02.01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
외부인 방문

05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

2023
04.20

장애인의날
오케스트라

2023
07.05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
창단 2주년
기념 연주회

2023
12.20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
크리스마스
사랑 음악회

2024
07.03

창원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
창단 3주년
기념 연주회

06 동네청소

2004
03.31

2005
05.10

2007
08.23

2008
04.15

2010
10.21

2011
08.19

2012
04.02

2014
04.12

06 동네청소

2016
10.10

2017
05.06

2021
05.22

2024
06.08

07 해외후원 및 의술전파

2010
01.09

아이티
지진피해구호
성금

2013
11.14

필리핀 태풍재난
구호기금 전달

2015
05.20

스리랑카
스님 방문

2015
07.09

해외의료선교,
학원선교, 북한선교
후원금 전달

2015
08.27

짐바브웨
보건인력역량
강화사업초청연수

2015
09.25
~
10.03

짐바브웨
현지의료봉사활동

07 해외후원 및 의술전파

2017
06.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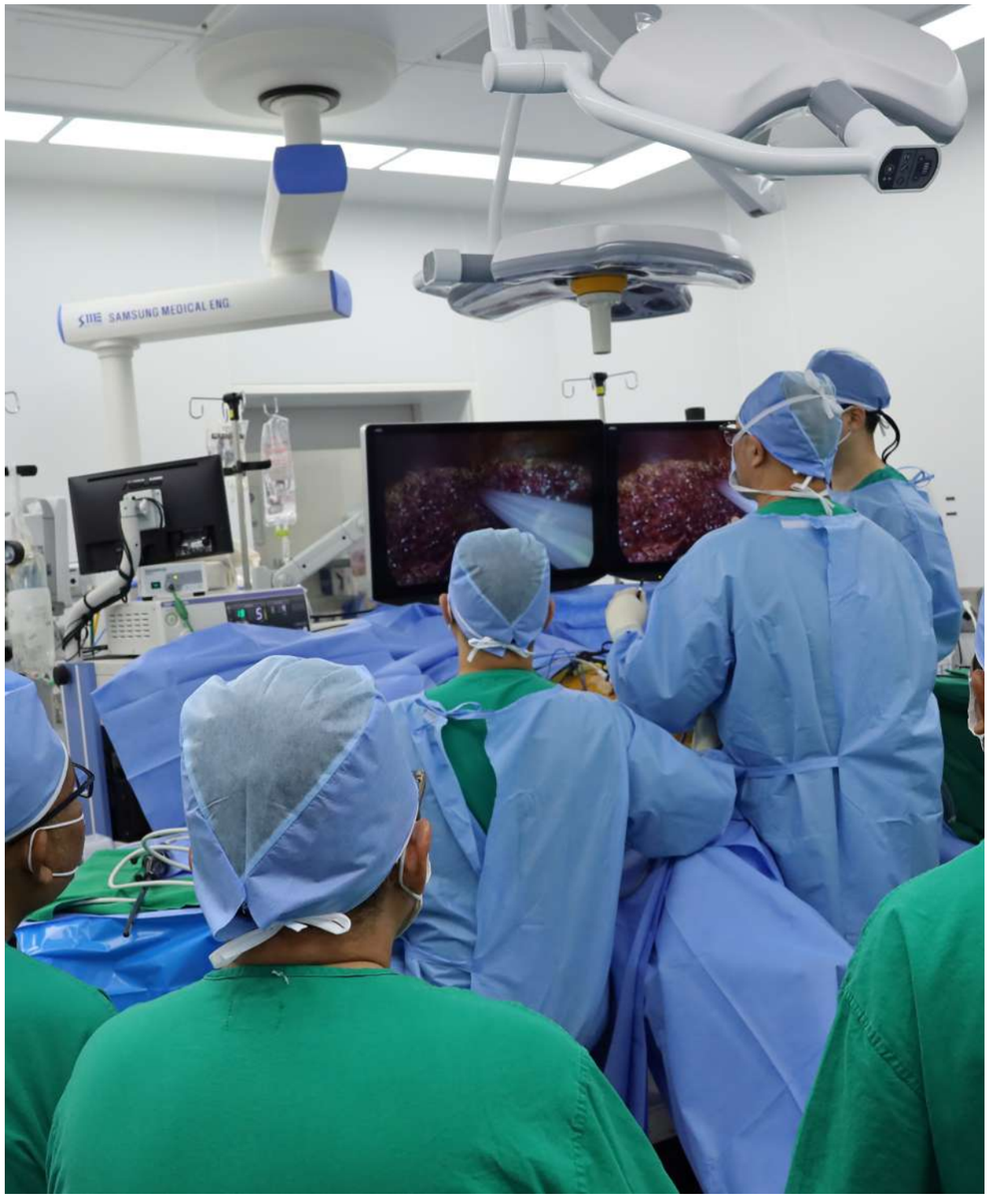
스리랑카
검진 지원

2017
10.30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대통령병원'
방문 수술 시연

2024
06.19
~
06.20

인도네시아 인니
아담말릭병원에
의료기술 전수



08 한마음병원배 생활체육대회

2004
03.29
~
03.28

2007
02.25
~
03.25

2005
02.27
~
03.27

2008
02.17
~
03.26

2006
02.26
~
03.19

2008
05.24
~
05.25

2006
08.26
~
08.27

2009
02.22
~
03.29

08 한마음병원배 생활체육대회

2009
05.23 ~ 05.24

2010
02.21 ~ 03.21

2011
02.20 ~ 03.27

2011
04.24 ~ 03.27

2012
04.01

2013
05.12 ~ 06.09

2015
05.10 ~ 05.11

2016
05.22 ~ 05.23

09 주부대학

2011
07.12

제1기

2012
11.17

제4기 수료식

2013
11.26

제6기 수료식

2014
05.27

제7기 수료식

2015
09.02

제10기 개강식

2016
11.22

제11기 수료식

2017
12.05

한마음
사랑의 김장나눔
참여

2018
12.04

한마음
사랑의 김장나눔
참여

09 주부대학

2019
11.15

주부대학
사랑의 김장나눔
참여

2021
12.16

주부대학
사랑의 김장나눔
참여

2022
11.29

제20기 수료식

2023
03.15

제21기 수료식

2024
05.21

주부대학
제23기 수료식

10 새벽을 여는 사람들

2009
12.03

2011
12.02

2014
12.04

2015
12.03

2016
12.01

2017
12.08

2018
12.06

2019
11.27

11 사랑나눔 효잔치

2015
05.08

2016
05.06

2017
05.04

2018
05.07

2019
05.07

2023
05.02

2024
05.07

12 군부대 지원

2023
08.10

하창훈 예비역 병장, 500만 원 상당 운동기구 부대에 설치

(중략) 하씨는 전역 7개월 전부터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저축했다. 이렇게 모은 500만 원으로 하프 랙, 듀얼 풀리, 무게 원판, 덤벨 등 운동기구를 구입해 부대에 설치했다. 하씨는 "평소 생활관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했는데, '전우들이 더 다양하고 좋은 기구로 운동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라며 "운동기구를 부대에 기증하면 전우와 간부들에게 좋은 보답이 되겠다는 마음에 봉급을 모으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씨의 기부 정신은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하씨는 "부모님께서 항상 기부의 실천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작은 움직임이 모여 크고 선한 영향력이 된다고 말씀해주셨다"라며 "저의 작은 행동이 좋은 영향력이 돼 항상 밝고 에너지 넘치는 수송대대, 나아가 서로 배려·존중하는 좋은 공군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출처:국방일보, 사진출처:연합뉴스, 오정민 상병

제5공중기동비행단
운동기구 기증

2023
05.02

해군 해양 의료원
업무협약식

2024
08.15

제5공중기동비행단
방문

2024
09.11

제5공중기동비행단
초청 만찬

2024
09.20

해군 잠수함사령부
지휘관 만찬

HANYANG UNIVERSITY CHANGWON HANMAEUM HOSPITAL

WALL OF DONOR

Bronze (1백만원 이상)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간호사회	마산대학교
시립마산요양병원 진료부	전 영 석	한 대 희
이 창 민 기획조정실장	김 재 섭	유창훈 가족
장 경 섭 서울대 교수 / 前 서울발전연구소장	하춘자 가족	정 효 균
하제창 외 3인	김 보 성	박 성 진
박 진 서	김 미 정	이 현 규
황 용 구	이 현 우	조 동 일
윤 창 섭 안민의용소방대	문 가 을	배 미 숙
한마음나눔회	한마음 국제복지재단	이 지 연 신경과 교수
배 미 숙	편 윤 선 매니저	

Silver (3백만원 이상)

경남스틸	국민은행 창원금융센터	이민기 치과
진주고등학교 동문 7인	함양중학교 20회 동창회 및 함양인	
박 형 근		

Gold (5백만원 이상)

중앙금속	하 기 식	하 갑 식
임 인 택 척추관절병원 병원장	서 미 경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센터장	성 기 종 한마음 보험센터
신 나 리 빙리과 교수		

Platinum (1천만원 이상)

이 해 영 오두막양곱창	두산 공작기계	이 태 섭
김 영 훈 경영원장	한 정 미	하 옥 자
최 양 화	최 민 화	김 택 수
설 동 균	안 현 준	송 보 현 경일감정평가법인
하 미 영	범 진 선 범안과의원	장유 숯불가마
조 용 수	김 영 석 반송치과	박 정 환 대현시스템
NH농협은행 경남본부	이 주 영 위드러브덴탈그룹	이 성 동 선린자모의원
김 지 희 (감사했습니다)	조 준 희 1진료부원장	불 지 사
김 정 현 해신메디칼		

Sapphire (5천만원 이상)

강 선 이	하 두 현 필봉장학재단 이사장	최 주 화
시엘병원		

Diamond (1억원 이상)

최 권 용 前 행정원장	최 옥 자
(주)중앙금속 JOONG ANG 정 영 건 (주)중앙금속	

한마음국제의료재단 30년사 발간을 마무리하며

한 조직의 역사는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기록되는 것일까요?
인간은 만들어진 세상에 더불어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만들어가며 사는 것일까요?

한마음국제의료재단 30년의 역사를 기록해 보고자, 한마음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8개월 동안 함께 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가 되면, 일주일 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찾아본 지나간 시간들의 흔적을 찾아 30년이라는 역사 퍼즐(History Puzzle)을 맞추어 갔습니다. 몇 개의 피스(Piece)로 이루어진 퍼즐인지 모르고 시작한 작업이었기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대하지 못한 하나의 피스를 찾았을 때 기뻐하고, 무언가 찾지 못해 안타까워했던 마음들의 시간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물리적인 시간 앞에 못다 한 작업을 마치며, 30년사 편찬의 끈을 놓지만, 지나간 역사를 모두 수록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업에 함께 한 모든 분들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역사는 만들어진 것이 없다면 기록될 수도 없고, 인간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의 세상을 만들어 가며 살아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한마음국제의료재단에서 지향하는 '인류애'는 포장지에 쌓여진 단어가 아니라, 30년이라는 역사의 중심어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정중히 존경을 표합니다.
3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의업(醫業)에 충실하시며 전무후무(前無後無)할 병원역사를 만들어 내시고, 인류애를 실천해 오신 하충식·최경화 설립자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한마음 가족으로 함께 해 오신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으셨기에 역사의 기록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편찬에 참여 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부족하여, 30년의 흔적을 모두 담아내지 못한 안타까움이 많지만, 한마음국제의료재단의 역사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도전과 성취의 길'과 누구도 꾸밀 수 없는 '나눔과 봉사'의 흔적을 담아낼 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 모두는 큰 위안을 받습니다.

30년사 발간을 위해 모였던 첫 미팅의 자리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한 마음도 잊지 않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기억이 보태지지 않았다면 결코 오늘이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방대한 자료를 집대성하는 데 따뜻한 편집의 손길로 애써 마무리해 주신 홍보팀과 하승학·강한나 매니저에게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마음국제의료재단의 30년사는 이제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기록되지만, 오늘도 진행 중인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는 또다시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 30년의 역사로 비추어 볼 때, 한마음국제의료재단의 경영진과 임직원이 만들어 내는 미래 역사는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병원 신화의 역사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동행(同行)의 역사가 되리라 확신하며, 하창훈 의료원장님과 함께 이어달리기를 하고 계신 모든 분을 응원합니다.

2024년 12월

한마음국제의료재단 경영원장

김 영 훈

창원한마음병원 30년사를 만든 사람들

*가나다순으로 표기

발행 하창훈 의료원장

기획 김영훈 경영원장

편집 강한나 홍보팀 매니저
하승학 홍보팀 매니저

편찬 권태훈 재무팀 팀장
김민정 홍보팀 팀장
김보영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연회예약실 부장
김인순 법인사무국 팀장
김지우 인사팀 팀장
김호태 교육수련팀 팀장
송대승 사회사업팀 파트장
신희영 병동간호팀 팀장
윤연옥 간호부원장
이강민 기획조정팀 팀장
이석우 진료협력센터장 겸 홍보실장
이혜경 적정관리팀 평가실장
이환봉 전산팀 팀장
전창욱 총무팀 수석매니저
정명옥 외래간호팀 팀장
최금숙 감염관리팀 팀장
최상정 행정부원장

지원 강경탁 총무팀 파트장
권미정 홍보팀 매니저
권영판 대외협력팀 파트장
김현지 병동간호팀(51병동) 수간호사
노성찬 의공기술팀 팀장
류성현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인사팀 부장
류수경 원무팀 파트장
배동원 상남한마음병원 행정팀 팀장
백석하 핵의학팀 파트장
심규진 시립마산요양병원 경영관리팀 차장
윤미례 검진사업팀 책임간호사
윤영준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총지배인
이교준 인사팀 파트장
이주언 대외협력팀 팀장
임태규 인사팀 매니저
정동혁 기획조정팀 매니저
조인해 홍보팀 매니저
한영동 방사선종양팀 팀장
한윤수 기획조정팀 매니저

장기근속자 수기

강민선 병동간호팀(91병동) 수간호사
감현아 병동간호팀(72병동) 수간호사
강관순 전. 시설관리단장
강명숙 보험심사팀 파트장
강미옥 외래간호팀 수간호사
강민아 진단검사의학팀 파트장
구경희 병동간호팀(52병동) 수간호사
김경미 보험심사팀 파트장
김명옥 특수간호팀(응급실) 수간호사
김은정 특수간호팀(외과계집중치료실) 수간호사
김종진 시설관리단장
김지우 인사팀 팀장
김태은 외래간호팀 선임간호조무사
김현지 병동간호팀(51병동) 수간호사
김형석 삼성의료기 대표
김호태 교육수련팀 팀장
문영경 보험심사팀 파트장
배동원 상남한마음병원 행정팀 팀장
송연희 간호교육파트 수간호사
신혜령 병리팀 파트장
신희영 병동간호팀 팀장
안현정 보험심사팀 팀장
양수석 상남한마음병원 시설안전팀 팀장
옥영미 병동간호팀(71병동) 수간호사
윤상철 진단검사의학팀 파트장
윤연옥 간호부원장
이경란 간호교육행정팀 팀장
이광옥 영상의학팀 파트장
이동희 분만실 수간호사
이정화 특수간호팀 팀장
이종민 구매관리팀 파트장
이준화 전산팀 파트장
이창미 원무팀 팀장
이환봉 전산팀 팀장
전창욱 총무팀 수석매니저
정명옥 외래간호팀 팀장
정미화 심장검사실 파트장
정지윤 원무팀 선임매니저
조민수 시설안전팀 파트장
차미정 상남한마음병원 간호부 팀장
최주영 진단검사의학팀 책임매니저
한승희 검진사업팀 수간호사

Behind Story

강병훈 전산팀 파트장
강점둘 주부대학 회장
권영판 대외협력팀 파트장
권욱현 난임센터장
김영훈 경영원장
신병섭 여성병원장
안정웅 현신건축 사장
유성민 영상의학팀 수석매니저
윤영준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총지배인
이강민 기획조정팀 팀장
이순희 진단검사의학팀 파트장
이종민 구매관리팀 파트장
이혜경 적정관리팀 평가실장
정미주 방사선종양센터장
최금숙 감염관리팀 팀장
최상정 행정부원장
한윤수 기획조정팀 매니저
헝가리 세게드 의대 실습생(진은우, 원효종, 김세림, Huang Yen-Hsin)

1994
2024
한마음국제의료재단 30년
The 30th Anniversary

발 행 2024년 12월
발행처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주 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57번길 8
전 화 055) 225-0000